

# 모택동선집

2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

# 毛泽东选集

## 第二卷

一九六七年·北京



# 모택동선집

## 2

1967년·북경



# 목 차

## 함일 전쟁 시기(상)

일본의 진공을 반대하는 방침, 방책

및 그 전도(1937년 7월 23일).....	485
1. 두 가지 방침.....	485
2. 두 가지 방책.....	489
3. 두 가지 전도.....	494
4. 결  론.....	495

모든 력량을 동위        양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자(1937년 8월 25일).....	497
-----------------------------	-----

자유주의를 반대하자(1937년 9월 7일).....507

국공 합작 성립 후의 절박한 임무

(1937년 9월 29일).....	511
---------------------	-----

영국 기자 버트람과의 담화(1937년 10월 25일).....527

중국 공산당과 함일 전쟁.....	527
--------------------	-----

함일 전쟁의 정형과 교훈.....	528
--------------------	-----

함일 전쟁에 있어서의 팔로군.....	534
----------------------	-----

함일 전쟁에서의 투항주의.....	540
--------------------	-----

민주주의 제도와 항일 전쟁·····	542
상태, 태원 상실 이후의 항일 전쟁의 정세와 임무(1937년 11월 12일)·····	549
1. 현 정세는 일면적 항진으로부터 전면적 항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처하여 있다·····	549
2. 당내에서와 전국에서 투항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555
당내에서 계급에 대한 계급의 투항주의를 반대할 것·····	555
전국에서 민족에 대한 민족의 투항주의를 반대할 것·····	561
계급적 투항주의와 민족적 투항주의와의 관계·····	563
섬감녕 번구 정부, 제 8 로군 후방 류수처 포고(1938년 5월 15일)·····	569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1938년 5월)·····	573
제 1 장 어째서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를 제기하는가·····	573
제 2 장 전쟁의 기본 원칙은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것이다·····	576
제 3 장 항일 유격 전쟁의 여섯 가지 구체적 전략 문제·····	577
제 4 장 방어전에서의 진공전, 지구전에서의 속결전, 내선 작전에서의 외선 작전의 주 동적이고 령활하고 계획적인 집행·····	578
제 5 장 정규 전쟁과의 배합·····	590

제 6 장 근거지의 창설.....	593
제 1 절 몇 가지 근거지.....	596
제 2 절 유격구와 근거지.....	599
제 3 절 근거지 창설의 조건.....	601
제 4 절 근거지의 공고화와 발전.....	605
제 5 절 적아 간의 몇 가지 모위 형태.....	606
제 7 장 유격 전쟁의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608
제 1 절 유격 전쟁의 전략적 방어.....	609
제 2 절 유격 전쟁의 전략적 진공.....	613
제 8 장 운동전제로의 발전.....	615
제 9 장 지휘 관계.....	618
지구전에 대하여 (1938년 5월).....	623
문제의 제기.....	623
문제의 근거.....	635
망국론을 논박한다.....	640
타협이나, 항전이나? 부패이나, 진보이나?.....	646
망국론은 옳지 못 하며 속승론도 옳지 못 하다.....	651
어째서 지구전인가?.....	654
지구전의 세 단계.....	659
견아 상치의 전쟁.....	673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운다.....	678
전쟁에 있어서의 능동성.....	682
전쟁과 정치.....	685
항일을 위한 정치적 동원.....	687

전쟁의 목적.....	689
방어에 있어서의 진공, 지구에 있어서의 축결, 내선에 있어서의 외선.....	692
주동성, 령활성, 계획성.....	698
운동전, 유격전, 진지전.....	713
소모전, 심벌전.....	720
적의 틈을 탈 가능성.....	725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결전 문제.....	728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기본이다.....	733
결론.....	740
민족 전쟁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위 (1938년 10월).....	747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748
민족 전쟁에 있어서의 공산당원의 모범적 역할.....	750
전 민족을 단합하고 민족 내부의 적의 앞잡이들을 반대할 것.....	753
공산당을 확대하며 적의 앞잡이들의 잠입을 방지할 것.....	754
통일 전선을 견지하고 당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	755
전체 국면을 돌보며 다수를 돌보며 동맹자들과 함께 사업할 것.....	756
간부 정책.....	757
당의 규율.....	760
당의 민주주의.....	761

우리 당은 두 전선에서의 투쟁 과정에서 공고화되고 장성되었다.....	763
당면한 두 전선의 투쟁.....	766
학 습.....	767
단결과 승리.....	771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 문제 (1938년 11월 5일).....	773
방조와 양보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773
민족 투쟁과 계급 투쟁의 일치성.....	775
《모든 것은 통일 전선을 통하여》라는 것은 옳지 않다.....	776
전쟁과 전략 문제(1938년 11월 6일).....	779
1. 중국의 특성과 혁명 전쟁.....	779
2. 중국 국민당의 전쟁사.....	785
3. 중국 공산당의 전쟁사.....	788
4. 국내 전쟁과 민족 전쟁에서의 당의 군사적 전략의 전환.....	790
5.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적 지위.....	794
6. 군사 문제의 연구에 주의를 돌리자.....	798
5. 4 운동(1939년 5월).....	803
청년 운동의 방향(1939년 5월 4일).....	807
투항 활동을 반대한다(1939년 6월 30일).....	821

반동과를 반드시 제재하여야 한다 (1939년 8월 1일).....	829
새로운 국제 정세에 관하여 신화 일보 기자와 한 담화(1939년 9월 1일).....	837
중앙사, 소탕보, 신민보의 세 기자와의 담화 (1939년 9월 16일).....	847
쏘련의 리익과 인류의 리익과의 일치 (1939년 9월 28일).....	857
《공산당인》 발간사(1939년 10월 4일).....	871
현 정세와 당의 과업(1939년 10월 10일).....	889
지식인을 대량적으로 흡수하자(1939년 12월 1일).....	893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1939년 12월).....	897
제 1 장 중국 사회.....	897
제 1 절 중화 민족.....	897
제 2 절 고대의 봉건 사회.....	900
제 3 절 현대의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	903
제 2 장 중국 혁명.....	911
제 1 절 100 년 래의 혁명 운동.....	911
제 2 절 중국 혁명의 대상.....	913
제 3 절 중국 혁명의 입부.....	918
제 4 절 중국 혁명의 동력.....	919
제 5 절 중국 혁명의 성격.....	931
제 6 절 중국 혁명의 전망.....	935



제 7 절 중국 혁명의 이중 임무와 중국 공산당.....	937
쓰딸린은 중국 인민의 벗이다(1939년 12월 20일).....	943
베쑤을 기념하여(1939년 12월 21일).....	947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951
1.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951
2. 우리는 새 중국을 창건하려 한다.....	952
3. 중국의 역사적 특성.....	953
4. 중국 혁명은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	956
5. 신민주주의적 정치.....	964
6. 신민주주의적 경제.....	972
7. 부르쑤아 독재를 반박한다.....	974
8. 《좌》경 공동주의를 반박한다.....	981
9. 완고파를 반박한다.....	984
10.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989
11. 신민주주의적 문화.....	998
12. 중국 문화 혁명의 역사적 특성.....	1001
13. 네 시기.....	1004
14. 문화의 성질 문제에 있어서의 편향.....	1012
15.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1015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자(1940년 1월 28일).....	1023
모든 항일 령량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자(1940년 2월 1일).....	1029

국민당에 대한 열 가지 요구(1940년 2월 1일).....	1039
《중국 공인》의 발간사(1940년 2월 7일).....	1049
단결과 진보를 강조하여야 한다(1940년 2월 10일).....	1053
신민주주의적 헌정(1940년 2월 20일).....	1057
항일 근거지의 정권 문제(1940년 3월 6일).....	1073
현하 항일 통일 전선에 있어서의 전술 문제 (1940년 3월 11일).....	1079
항일 령량을 대담하게 발전시키며 반공 완고파의 진공에 저항하자(1940년 5월 4일).....	1093
끝까지 단결하자(1940년 7월).....	1103
정책에 대하여(1940년 12월 25일).....	1109
환남 사변과 관련하여 발표한 명령 및 담화 (1941년 1월).....	1123
중국 공산당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 명령.....	1123
중국 공산당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 대변인의 신화사 기자와의 담화.....	1124
제 2 차 반공 고조를 격퇴한 후의 시국 (1941년 3월 18일).....	1133
제 2 차 반공 고조의 격퇴에 관한 총화 (1941년 5월 8일).....	1137

# 항일 전쟁 시기 (삼)



# 일본의 진공을 반대하는 방침, 방침 및 그 전도\*

(1937년 7월 23일)

## 1. 두 가지 방침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로구교 사변<sup>[1]</sup>이 일어난 이튿날인 7월 8일에 항전을 호소하는 선언을 전국에 발표하였다. 그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전국의 동포들이여! 북평, 천진이 위급하다! 화북이 위급하다! 중화 민족이 위급하게 되었다! 오직 전 민족적인 항전을 진

---

\* 1937년 7월 7일에 일본 제국주의는 로구교 사변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전 중국을 병탄하려고 시도하였다. 전국 인민은 대일 작전을 한결같이 요구하였다. 장 개석은 절절 끝다가 사변이 일어난 후 얼음이 지나서야 떠산에서 대일 항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장 개석이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은 전국 인민의 압력 때문이며 동시에 또 일본 침략자의 행동이 중국에 있어서의 영, 미 제국주의의 이익 및 장 개석이 직접 대표하는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때에 있어서도 장 개석 정부는 여전히 일본 침략자와 담판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일본 침략자와 지방 당국 간에 의정한 소위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다가 8월 13일에 일본 침략자가 상해를 대거 진공하여 동남부 지방에서의 장 개석의 통치 지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슬로이다. 우리는 진공하여 오는 일본군에게 즉시 전격히 저항하며 또 즉시로 새로운 대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은 상하를 물론하고 일본 침략자와 타협하여 일시적으로 편안히 지내려는 그 어떤 타산도 즉시 버려야 한다. 전 중국의 동포들! 우리는 쑹 치안 부대의 영웅한 항전을 찬양하며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토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하겠다고 한 화북 당국의 선언을 찬양하며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제 29 군 전부를 즉시 전선으로 출동시켜 응전할 것을 송 철원 장군에게 요구한다(2). 우리는 남경의 중앙 정부에 제 29 군을 실지로 원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즉시로 전국 민중의 애국 운동에 자유를 줌으로써 인민의 항전 기세를 발양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시로 전국의 북해공군을 동원하여 응전할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즉시로 중국 경내에 숨어 있는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과 일본 침략자의 일체 간첩을 숙청하고 후방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권력을 다하여 성스러운 항일 자위 전쟁을 원조할 것을 전국 인민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북평, 천진, 화북을 무력으로 방위하자! 국토의 방위물 위하여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흘려 싸우자! 전 중국의 인민, 정부, 군대는 단결하여 민족 통일 전선의 견고한 장성을 축성하고 일본 침략자의 침략에 저항하자! 국공 량당은 친밀하게 합작하여 일본 침략자의 새

위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어서야 하는 수 없이 항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41년에 이르기까지도 장 개석과 일본 침략자 간의 화의하려는 비밀 활동은 시종 중지된 적이 없었다. 장 개석은 항일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그가 여산에서 발표한 담화 중의 소위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의 구별이나 소유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국토를 방위하여 항전할 책임이 있다》고 한 자기의 성명을 완전히 때반하고 인민이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인민 전쟁을 반대하면서 항일에는 소극적이고 반공, 반인민에는 적극적인 반동 정책을 취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이 글에서 말한 두 가지 방침,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권도만 바로 항일 전쟁 기간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토선과 장 개석의 토선 사이의 투쟁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로운 진공에 저항하자! 일본 침략자를 중국에서 몰아 내자!》

이것이 곧 방침 문제이다.

7월 17일 장 개석 선생은 려산에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항전하려는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대외 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으로서의 다년래 처음으로 되는 옳은 선언이었으므로 우리와 전국 동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담화는 로구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기하였다.

《(1) 어떻게 해결하든지 간에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차북-차할 행정 조직에 대한 여하한 비합법적 변경도 용허하지 않는다. (3)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 관리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를 경질할 것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한다. (4) 제 29 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여하한 구축도가하지 못 한다》.

이 담화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부는 로구교 사건에 대하여 시종 인관한 방침과 입장을 이미 확정하였다. 우리는 진국이 응진한 이후의 정세 하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할 뿐이고 추호도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의 구별이나 로유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국토를 방위하여 항전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곧 방침 문제이다.

이상은 로구교 사변에 대한 국공 량당의 력사적 의의를 가진 두 정치 선언이다. 이 두 선언의 공통점은 견결한 항전을 주장하고 타협과 양보를 반대한 데 있다.

이것은 일본의 진공에 대처하는 첫째의 방침이며 옳은 방침이다.

그러나 또 둘째의 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평, 천진 일대의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 분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북평, 천진 당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본의 요구에 수응하여 건걸한 항전의 방침을 동요시키며 타협과 양보를 주장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협한 현상이다.

이러한 타협, 양보의 방침은 건걸한 항전의 방침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만일 이러한 타협, 양보의 방침을 급속히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북평, 천진과 화북을 모조리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전 민족은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점에 대하여 누구나 다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제 29 군의 전체 애국적 장병들은 단결하여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건걸하게 항전하라!

북평, 천진과 화북의 전체 애국적 동포들은 단결하여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건걸한 항전을 지지하라!

전국의 애국적 동포들은 단결하여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건걸한 항전을 지지하라!

장 개석 선생과 전체 애국적 국민당원들, 자신의 방침을 견지하며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며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건걸하게 항전하여 사실로써 원수들의 모욕에 대답할 것을 당신들에게 희망한다.

홍군을 포함한 전국의 군대는 장 개석 선생의 선언을 지지하며 타협과 양보를 반대하고 건걸하게 항전하라!

공산당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선언을 충실히 집행하며 동시에 장 개석 선생의 선언을 건걸히 지지하면서



국민당원들 및 전국 동포와 함께 국토의 방위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싸우며 일체의 주저, 동요, 타협, 양보를 반대하고 견결하게 항전하려 한다.

## 2. 두 가지 정책

견결한 항전의 방침 하에서 일련의 정책들이 있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가?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전국 군대의 총동원이다. 육해공군을 망라하고 중앙군, 지방군, 홍군을 망라한 우리의 200 몇 십만의 상비군을 동원하여 그 주력을 즉시 국방선으로 출동시키고 그 일부분을 후방에 남겨 치안을 유지하게 한다. 민족의 리익에 충실한 장령들을 각 방면의 지휘원으로 임명한다. 국방 회의물 소집하여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적 의지를 통일시킨다. 군대 내의 정치 사업을 개선하여 관병 일치를 기하며 국민 일치를 기한다. 유격 전쟁이 전략적 임무의 한 측면을 담당하도록 확정하여 유격 전쟁을 정규 전쟁에 배합시킨다. 군대 내의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한다. 일정한 수효의 후비군을 동원하고 훈련하여 전선으로 출동시킬 준비를 한다. 군대의 장비와 급양을 합리하게 보충한다. 견결히 항전하는 총방침에 의하면 상술한 여러 가지 군사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군대는 적지 않으나 상술한 계획을 실시하

지 않고서는 적을 타승할 수가 없다. 정치적 조건과 물질적 조건을 결합시킨다면 우리의 군사력은 동부 아세아에서 무적일 것이다.

(2) 전국 인민의 총동원이다. 애국 운동에 자유를 주며 정치범을 석방하며 《민국을 위태하게 하는 데 대한 긴급 처치법》[3]과 《신문 검열 조례》[4]를 폐지하며 현존하는 애국적 단체들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애국적 단체의 조직을 노동자, 농민, 실업계, 지식계 등 각계에 확대시키며 민중을 무상시켜 자위하게 하는 동시에 군대와 배합하여 작전하게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민에게 애국의 자유를 준다. 인민의 역량과 군대의 역량이 결합되면 일본 제국주의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민족 전쟁이 인민 대중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아비시니아의 전철[5]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된다. 만일 견결히 항전하려는 뜻이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면 이 점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3) 정치 기구의 개혁이다. 각당, 각파 그리고 인민의 지도자를 참가시켜 나라 일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며 정부 내에 숨어 있는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정부와 인민을 결합시킨다. 항일은 큰 일이므로 소수인으로서는 도저히 하여 낼 수 없다. 억지로 한다면 실패를 가져 올 뿐이다. 정부가 만일 진정한 국방 정부라면 반드시 민중에 의지하여야 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또 중앙 집권적인 것이다. 가장

강유력한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정부이다. 국민 대회는 진정으로 인민을 대표하여야 하고 최고 주권 기관으로 되어야 하며 국가의 기본 방침과 정책을 장악하고 항일 구국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항일을 위한 외교이다.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여하한 리익과 편의도 주지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채권을 폐지하며 주권을 속칭하며 간첩을 축출한다. 시급히 쓰련과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어 가장 믿음직한, 가장 력량이 있고 가장 중국의 항일을 원조하여 줄 수 있는 이 나라와 긴밀히 련합한다. 우리의 항일에 대한 영국, 미국, 프랑스의 동정을 얻으며 령토와 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원조를 쟁취한다.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는 데는 주로 자신의 력량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부의 원조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고립 정책은 적에게 유리한 것이다.

(5) 인민의 생활을 개선할 데 대한 강령을 선포하며 그것을 즉시 실시한다. 가렴 잡세의 폐지, 소작료의 인하, 고리 대금의 제한, 노동자의 대우 개선, 병사와 하급 군관의 생활 개선, 하급 사무원의 생활 개선, 리재민의 구제 등 이러한 최저 한도의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은 인민의 구매력을 높이며 시장을 번영시키며 금융에 활기를 띠게 할 것이며 결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 재정을 형편 없이 만들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은 항일 력량을 무한히 증대시키며 정부의 토대를 튼

튼히 할 것이다.

(6) 국방 교육이다. 과거의 교육 방침과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급하지 않은 것과 불합리한 방법은 죄다 폐기한다. 신문, 출판 사업, 영화, 연극, 문예 등이 모든 것을 국방의 리익에 부합되게 한다. 민족 반역자들의 선전을 금지한다.

(7) 항일을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고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원칙에 립각하며 경제 정책은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장려하는 원칙에 립각하며 모든 것은 항일을 위한다. 빈궁은 그릇된 시책에서 산생되는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온 후에는 결코 빈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토가 넓고 인민이 많은 나라에서 재정, 경제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 말로 리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8) 전 중국의 인민, 정부, 군대가 단결하여 민족 통일 전선의 견고한 장성을 축성한다. 항전할 데 대한 방침과 상술한 제반 정책의 집행은 이 연합 전선에 의존한다. 그 중심 고리는 국공 량당의 친밀한 합작에 있다. 정부, 군대, 전국의 각 정당, 전국 인민은 이 량당 합작의 기초 위에서 단결한다. 《성심으로 단결하여 공동으로 국난을 타개하자》라는 구호를 단지 듣기 좋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실천하여야 한다. 단결은 진정한 단결이어야 하며 서로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 처사에는 대범하여야 하며 도량이 넓어야 한

다. 자기 타산만 하는 것, 잔피만 쓰는 것, 관료주의, 아Q주의는 실지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적에게도 써서는 안 될 이러한 것들을 동포들에게 쓴다는 것은 그야 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에는 큰 도리와 작은 도리가 있으며 모든 작은 도리는 큰 도리에 종속된다. 모든 사람들은 큰 도리에서 잘 생각하여 보아야 자신의 견해와 행동을 합당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오늘날 누구를 물론하고 단결이라는 이 두 글'자에서 성의를 내지 않는다면 가령 사람들에게 타매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요한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 보면 가책을 좀 느끼기는 할 것이다.

견결한 항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방책들을 8대 강령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견결한 항전의 방침에는 이러한 일련의 방책들이 따라가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항전은 승리할 수 없고 일본은 영원토록 중국을 침략할 것이고 중국은 영원토록 일본을 어찌 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비시니아의 운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견결한 항전의 방침에 대하여 성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방책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견결하게 항전할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려면 그가 이러한 방책들을 취하려 하는가 않는가, 실시하려 하는가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책이 있다. 그것은 즉 모든 면에서 상술한 방책들과 상반되는 것이다.

군대를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지 않거나

또는 후퇴시킨다.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억압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국방적 정부가 아니라 판료, 매판, 토호 멸신, 지주의 전제 정부이다.

항일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일본에 아첨하는 외교이다.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민을 억압, 착취하여 인민들을 고통에 신음하며 항일할 힘이 없게 한다.

국방적 교육이 아니라 망국노적 교육이다.

항일을 위한 재정,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없는, 심지어는 갈수록 더 나라에 무익하고 적에게 유익한 재정, 경제 정책이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장성을 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장성을 허물며 또는 걸으로는 찬성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면서 진성으로 《단결》을 부르짖는다.

방책은 방침에 따라 온다. 방침이 무저항주의일 경우에는 모든 방책이 다 무저항주의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6년 간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민일 방침이 건결히 항전하려는 것이라면 이 방침에 부합되는 방책들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8대 강령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두 가지 전도

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

고 있는 점이다.

첫째 방침을 실시하고 첫째 방책을 취한다면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중국의 자유, 해방을 실현하는 전도를 가져 올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또 무슨 의문이 있는가? 나는 의문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방침을 실시하고 둘째 방책을 취한다면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점령하게 되며 중국 인민이 다 우마와 같은 노예적 생활을 하게 되는 전도를 가져 올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또 무슨 의문이 있는가? 나는 역시 의문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4. 결 론

반드시 첫째 방침을 실시하고 첫째 방책을 취하여 첫째 전도를 쟁취하여야 한다.

반드시 둘째 방침을 반대하고 둘째 방책을 반대하여 둘째 전도를 피하여야 한다.

모든 애국적인 국민당원과 공산당원들은 단결하여 건결히 첫째 방침을 실시하고 첫째 방책을 취하여 첫째 전도를 쟁취하여야 하며 건결히 둘째 방침을 반대하고 둘째 방책을 반대하여 둘째 전도를 피하여야 한다.

전국의 애국적 동포, 애국적 군대, 애국적 정당은 일치 단결하여 건결히 첫째 방침을 실시하고 첫째 방책을 취하여 첫째 전도를 쟁취하여야 하며 건결히 둘째 방침을 반대하고

둘째 광책을 반대하여 둘째 전도를 피하여야 한다.

민족 혁명 전쟁 만세!

중화 민족 해방 만세!

## 주 해

[1] 로구교는 복경성에서 서남으로 10여 킬로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1937년 7월 7일 일본 침략군은 여기서 중국 주둔군을 공격하였으며 중국 주둔군은 전국 인민의 양양된 항일 기세의 영향 하에서 이에 저항하였다. 중국 인민의 영웅한 8년 항전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제 29 군은 본래 풍 육상이 지휘하던 국민당 서북군의 일부분으로서 당시에 하복성과 사할성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송 철원은 이 군의 군장이고 풍 치안은 이 군의 한 사장이었다.

[3] 국민당 정부는 1931년 1월 31일에 소위 《민국을 위태하게 하는 데 대한 긴급 처치법》을 공포하고 《민국을 위태하게 한다》는 죄명으로써 예국적 인민과 혁명자를 박해, 학살하는 구실로 삼았다. 이 법이 위한 박해의 방법은 극히 잔혹하였다.

[4] 《신문 검열 조례》란 1934년 8월에 국민당 정부가 인민의 언론을 압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신문 검열 방법 대강》을 가리켜 말한다. 이 대강에는 《신문 원고는 검열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당 통치구의 신문 지상에 발표되는 모든 글은 발표하기 전에 국민당 검열판에게 보내어 검열을 받아야 하였다. 검열판은 마음 대로 삭제, 압수할 수 있었다.

[5] 본 선집 제 1 권의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입부》 제 8 절을 보라.



##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1937년 8월 25일)

(가) 7월 7일의 로구교 사변은 중국 본부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대규모적 진공의 시작이다. 로구교에서의 중국 군대의 항전은 중국의 전국적 항전의 시작이다. 일본 침략자의 그침 없는 진공, 전국 인민의 견결한 투쟁, 민족 부르조아지의 항일어로의 진향,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꾸준한 주장과 견결한 실시 및 이에 대한 진국의 찬조 등등에 의하여 9. 18 사변 이래의 중국 통치 당국의 대일 무저항 정책이 로구교 사변 후에 항전을 진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12. 9 운동 이래의 중국 혁명의 발전 정세가 내전을 중지하고 항전을 준비하는 단계로부터 항전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 가게 되었다. 서안 사변과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의 출발점으로 한 국민당 정책의 전환의 개시와 7월 17일에 려산에서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1937년 8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선전 부문을 위하여 쓴 선전 선동 제강이다. 이 제강은 당시 섬서성 북부의 락천에서 진행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한 장 개석씨의 항일에 관한 담화 및 그가 국방 상에서 취한 허다한 조치들은 찬동할 만 한 것이다. 육군, 공군 및 지방 부대를 막론하고 모든 전선 부대들은 영웅하게 항전함으로써 중화 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보여 주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의 모든 애국적 군대와 애국적 동포들에게 무한한 열정으로 삼가 민족 혁명적 경의를 드린다.

(나) 그러나 타방으로 7월 7일의 로구교 사변 이후 국민당 당국은 또 9.18 사변 이래 실시하여 온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여전히 계속하여 타협과 양보를 하며<sup>[1]</sup> 애국적 군대의 적극성을 억압하며 애국적 인민의 구국 운동을 압제하고 있다. 북평, 천진을 탈취한 일본 제국주의는 그 야만적인 무력에 의거하여, 독일,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성원을 얻어, 영 제국주의의 동요를 리용하여, 중국 국민당이 광범한 근로 대중과 리탈되고 있는 것을 리용하여 자기의 대규모적 진공의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예정된 제 2 계단, 제 3 계단의 작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전 화북 및 기타 각지로 맹렬히 진공 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차할, 상해 등지에서 는 이미 봉화가 타 오르기 시작하였다. 조국을 위급 존망으로 부더 구원하며 강적의 침공을 막으며 화북 및 연해 지방을 방위하며 북평, 천진과 동북을 수복하기 위하여 전국 인민과 국민당 당국은 동북과 북평, 천진을 상실한 교훈과 아비시니아가 망한 진철, 쓰련이 과거에 외적을 타승한 력사<sup>[2]</sup>, 에스빠냐가 지금 마드리드를 승리적으로 방위하고 있는<sup>[3]</sup> 경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굳게 단결함으로써 조국을 보위하여 끝까지

지 싸워야 한다. 금후의 임무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관건으로 되는 것은 국민당 정책의 전면적인 철저한 전환이다. 항전 문제에 있어서의 국민당의 진보는 찬양할 만 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 공산당과 전국 인민이 다년간 희망하던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보를 환영한다. 그러나 민중의 발동 및 정치 개혁 등 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의 정책은 여전히 별다른 전환이 없다. 즉 인민의 항일 운동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여전히 자유를 주지 않으며 정부 기구에 대하여 여전히 원칙적인 개편을 하려 하지 않으며 인민 생활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하려는 방침이 없으며 공산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합작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망국 멸족의 위급한 시각에 처하여서도 국민당이 상술한 정책을 그냥 고집하면서 급속히 개편하려 하지 않는다면 항일 전쟁에 극히 불리할 것이다. 일부의 국민당원들은 항전이 승리한 후에 가서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다. 그들은 정부의 단독 항전만으로 일본 침략자를 타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정부의 단독 항전만으로는 어떤 개별적인 승리나 얻을 수 있을 뿐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할 수는 없다. 오직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에 의하여서만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국민당 정책의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전환이 있어야 하며 전국의 상하가 철저한 항일의 강령을 공동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제 1 차 국공 합작 때에 손 중산 선생이 직접 제

정한 혁명적 삼민주의와 3대 정책의 정신에 근거하여 제기된 구국 강령이다.

(다) 중국 공산당은 만강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 국민당, 전국 인민, 전국 각당, 각파, 각계, 각군에게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하기 위한 10대 구국 강령을 제기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강령을 완전히, 성심으로, 건결히 집행함으로써만 조국을 보위하고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과거 하던 대로만 하여 일을 그르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 갈 것이며 나라가 망한 후에 아무리 한탄하고 후회하여도 쓸 데 없을 것이다. 10대 구국 강령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며 일본 관리를 축출하며 일본 간첩을 체포하며 중국에 있는 일본 재산을 몰수하며 일본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며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며 모든 일본 조계지를 회수한다.

화북과 연해 각지를 방위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끝까지 싸운다.

북평, 천진과 동북을 수복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끝까지 싸운다.

일본 제국주의를 중국에서 몰아 낸다.

어떠한 동요와 타협도 반대한다.

### 2. 전국의 군사적 총동원

전국의 육해공군을 동원하여 전국적 항전을 진행한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소극적 작전 방침을 반대하고 독립자주의 적극적인 작전 방침을 취한다.

상설적인 국방 회의를 설치하여 국방 계획과 작전 방침을 토의, 결정한다.

인민을 무장함으로써 항일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고 주력군과 배합하여 작전하게 한다.

군대 내의 정치 사업을 개혁하여 지휘원과 전투원을 일치 단결시킨다.

군대와 인민이 일치 단결하며 군대의 적극성을 발양시킨다.

동북 항일 련군을 원조하여 적의 후방을 파괴한다.

일체 항전 군대의 평등한 대우를 실현한다.

전국 각지에 군구를 설립하고 전 민족을 동원하여 참전시킴으로써 고용 병역제를 점차 의무 병역제로 전환시킨다.

### 3. 전국 인민의 총동원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전국 인민은 누구나 다 항일 구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무장 항적의 자유를 가진다.

인민의 애국 운동을 촉박하는 모든 낡은 법령을 폐지하고 혁명적인 새 법령을 반포한다.

모든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 활동의 금령을 해제한다.

전 중국 인민이 월기하여 무장하고 항전에 참가하며 로력이 있는 사람은 로력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

고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낸다.

몽고족, 회족 및 기타 소수 민족을 동원하여 민족 자결 및 자치의 원칙 하에 공동으로 항일하도록 한다.

#### 4. 정치 기구의 개혁

진정한 인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헌법을 채택하며 항일 구국의 방침을 결정하며 국방 정부를 선출한다.

국방 정부는 각당, 각파와 인민 단체 내의 혁명 분자를 받아 들이고 친일 분자를 몰아 내야 한다.

국방 정부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취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또 중앙 집권적인 것이다.

국방 정부는 항일 구국의 혁명적 정책을 실시한다.

지방 자치를 실시하며 탐관 오리를 숙청하여 령결한 정부를 수립한다.

#### 5. 항일을 위한 외교 정책

일본 침략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명토, 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침략 동맹 및 항일을 위한 군사적 호상 원조 협정을 체결한다.

국제 평화 진영을 지지하며 독일-일본-이탈리아 침략 진영을 반대한다.

조선과 일본 국내의 로농 인민들과 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 6. 전시의 재정,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고 민족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항일 경비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방 생산을 정비 확대하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전시에 있어서의 생산품의 자급을 보장한다. 국산품을 장려하며 토산품을 개량한다. 일본 상품을 금지하며 간상배를 취체하며 투기 모리, 시장 조종을 반대한다.

#### 7. 인민 생활의 개선

로동자, 사무원, 교원 및 항일 군인의 대우를 개선한다.

항일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

가렴 잡세를 폐지한다.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한다.

실업자를 구제한다.

량식을 조절한다.

리재민을 구제한다.

#### 8. 항일을 위한 교육 정책

교육의 낡은 제도와 낡은 과정을 개혁하고 항일 구국을 목표로 하는 새 제도와 새 과정을 실시한다.

9.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 친일파를 숙청하고 후방을 공고히 한다.

#### 10. 항일을 위한 민족적 단결

국공 량당의 합작을 기초로 전국의 각당, 각파, 각계, 각군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항일 전쟁을 령도하며 성심으로 단결하여 공동으로 국난을 타개한다.

(라) 정부의 단독 항전의 방침을 버리고 전면적인 민족적 항전의 방침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민과 단결하며 손 중산 선생의 혁명 정신 전부를 살리며 상술한 10대 강령을 실시함으로써 항일 전쟁의 천저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 및 그가 령도하는 민중과 무장력은 상술한 강령에 준하여 항일의 최전선에 서서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싸울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일관적인 방침 하에 중국 국민당 및 전국의 기타 당파들과 한 전선에 서서 손에 손을 잡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 통일 전선의 견고한 장성을 축성함으로써 극악한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고 독립, 자유, 행복의 새 중국을 위하여 투쟁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투항, 타협하려는 민족 반역자들의 리론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또 일본 침략자를 타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민족 패배주의를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상술한 10대 강령을 실현한다면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오직 4억 5천만 동포가 일치하게 노력하기만 한다면 중국적 승리는 중화 민족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민족 혁명 전쟁 만세!

독립, 자유, 행복의 새 중국 만세!



## 주 해

[1] 《인본의 진공을 반대하는 방침, 방책 및 그 전도》의 해제를 참조하라.

[2] 《노련 공산당(분쇄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8 장을 참조하라.

[3] 1936년에 독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에스파냐의 파쇼 군벌 프랑코를 리용하여 에스파냐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에스파냐 인민들은 인민 전선 정부의 명도 하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침략을 반대하는 영웅한 합전을 진행하였다. 이 전쟁에서 수도 마드리드의 방위전이 가장 치명하였다. 마드리드 방위전은 1936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전후 2년 5개월 동안이나 견디되었다.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가 러위적인 소위 《불간섭》정책으로 침략자를 방조하였고 또 인민 전선 내부에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마드리드는 1939년 3월에 함락되고 말았다.



## 자유주의를 반대하자

(1937년 9월 7일)

우리는 적극적인 사상 투쟁을 주장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내와 혁명 단체 내의 단결을 강화하여 그의 전투성을 보장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매개 공산당원과 혁명자는 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상 투쟁을 거부하고 무원칙한 화목을 주장한다. 그 결과 부패하고 저속한 작풍이 발생되어 당 및 혁명 단체의 일부 조직과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자유주의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잘 아는 사람, 한 고향 사람, 동창생, 지기의 벗, 친애하는 사람, 오랜 동료, 오랜 부하라고 하여 옳지 못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원칙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그 대로 내버려 두면서 화목과 친밀만 유지하려 한다. 혹은 한 번 슬쩍 책망하는 데 그치고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며 두루뭉실하게 지내려 한다. 그 결과는 단체에 해로우며 개인에게도 해롭다. 이것이 첫째 종류이다.

적극적으로 조직에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배

후에서 비판한다. 당면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배후에서 공론하며 회의 석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함부로 말한다. 마음 속에 집단 생활의 원칙은 없고 자유 방종만이 가득하다. 이것이 둘째 종류이다.

자기와 상관 없는 일이라 하여 본 체 만 체 하며 옳지 못한 것을 편히 보고서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상수로 여기며 명철 보신하면서 제 앞만 가린다. 이것이 세째 종류이다.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개인 의견만 내세운다. 조직에서 돌봐 줄 것만을 요구하고 조직의 규율은 싫어 한다. 이것이 네째 종류이다.

단결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의견과 투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격을 하며 감정에 호르며 분풀이를 하며 보복을 하려 한다. 이것이 다섯째 종류이다.

옳지 못한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논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반혁명 분자의 말을 듣고서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하다. 이것이 여섯째 종류이다.

군중과 접촉하면서 선전하지 않으며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으며 조사하지 않으며 물어 보지 않으며 군중의 고통에 관심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하며 자기가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공산당원을 일반 대중과 혼동하여 버린다. 이것이 일곱째 종류이다.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서도 분개하지 않으며 충고하지 않으며 제지하지 않으며 분석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이 여덟째 종류이다.

사업에 진실성이 없으며 일정한 계획이 없으며 일정한 방향이 없으며 어물어물하여 치우며 그럭저럭 지나며 하루 하루를 허송한다. 이것이 아홉째 종류이다.

혁명에 공로가 있다고 자처하면서 력사가 길다는 자세만 부리며 큰 일은 해 내지 못 하고 작은 일은 하려 하지 않으며 사업을 되는 대로 해 치우며 학습에 게으르다. 이것이 열째 종류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또 그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유주의를 취한다. 이것이 열 한째 종류이다.

이 밖에도 더 들 수 있으나 주요한 것은 이러한 열 한 가지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유주의의 표현이다.

혁명 집단 내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매우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단결을 와해시키며 호상 관계를 벌여지게 하며 사업에 소극적이 되게 하며 의견 상이를 일으키는 부식제이다. 그것은 혁명 대렬로 하여금 엄밀한 조직과 규율을 가질 수 없게 하며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없게 하며 당 조직과당이 병도하는 대중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한다. 이것은 극히 악렬한 경향이다.

자유주의의 근원은 소부르쵸아적 리기심에 있다. 즉 개인의 리익을 제 1 위에 놓고 혁명의 리익을 제 2 위에 놓기 때문에 사상, 정치, 조직 상에서 자유주의가 생기게 된다.

자유주의자는 맑스주의의 원칙을 추상적인 교조로 본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찬성하기는 하지만 실천하려 하지 않거나

완전히 실천하려 하지는 않으며 맑스주의로써 자신의 자유주의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맑스주의도 가지고 있으며 자유주의도 가지고 있다. 즉 말은 맑스주의이나 행동은 자유주의이며 남에게는 맑스주의이나 자신에게는 자유주의이다. 그들은 두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용처에 사용한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사상 방법이다.

자유주의는 기회주의의 표현의 하나로서 맑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는 적을 방조하는 역할을 노는 것이므로 적은 우리 내부에 자유주의가 그냥 존재하는 것을 환영한다. 자유주의란 본래 이런 것이므로 혁명 내열 내에 그것이 존재할 자리를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인 맑스주의 정신으로써 소극적인 자유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솔직하며 충실하며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을 제 1 생명으로 삼고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원칙을 견지하여 모든 부정확한 사상 및 행위와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집단 생활을 공고히 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당과 대중에 대한 관심이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고 남에 대한 관심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당원이라 할 수 있다.

충성스럽고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정직한 모든 공산당원들은 단결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있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돌아 서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상 전선에서의 임무의 하나이다.

## 국공 합작 성립 후의 절박한 임무

(1937년 9월 29일)

1933년에 벌써 중국 공산당은, 홍군에 대한 진공을 중지하며 민중에게 자유를 주며 민중을 무장시키는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국민당의 어떠한 부대와도 항일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1931년에 9.18 사변이 일어난 후에는 중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공을 반대하는 것이 중국 인민의 급선무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 하였다.

1935년 8월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홍군은 각당, 각과와 전국 동포들에게 항일 련군과 국방 정부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할 것을 호소하였다<sup>[1]</sup>. 그 해 12월에 중국 공산당은 민족 부르조아지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sup>[2]</sup>. 1936년 5월에 홍군은 또 남경 정부에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할 것을 요구하는 통전을 발표하였다<sup>[3]</sup>. 그 해 8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또 정전하고 량당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할 것을 국민당에 요구하는 서한을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에 보내었다<sup>[4]</sup>. 그 해 9월에 공산당은 또 중국

에서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을 창건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5]. 이러한 선언, 통전, 서한 및 결정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국민당 측과 수차 담판하였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 하였다. 그러다가 서안 사변이 일어 나서야, 즉 1936년 말에 와서야 중국 공산당의 전권 대표는 국민당의 주요한 책임자와 당시의 정치 상에서 중요한 합의, 즉 량당 간의 내전을 중지할 데 대한 합의를 보게 되었으며 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중국 역사 상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다. 이리 하여 량당의 재합작을 위한 필요한 전제적 조건이 이루어졌다.

금년 2월 10일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 직전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량당 합작을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제의를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전보로 통지하였다[6]. 이 전보에서 내전의 중지,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시, 국민 대회 소집, 항일에 대한 급속한 준비 및 인민 생활의 개선 등 5 개 조항을 공산당 앞에 담보할 것을 국민당에 요구하였으며 공산당도 국민당에 대하여 두 정권 간의 적대의 취소, 홍군 명칭의 변경, 혁명 근거지 내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의 실시 및 지주 토지 몰수의 중지 등 4 개 조항을 담보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정치적 조치였다. 왜냐 하면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량당 합작의 성립은 지연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항일의 급속한 준비에 완전히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부터 량당은 담판에서 한 걸음 접근되었다. 량당의



공동의 정치 강령 문제, 민중 운동에 자유를 주며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문제, 홍군의 개칭 문제 등에 대하여 공산당 측은 더욱 구체적인 제의를 내놓았다. 비록 공동 강령을 반포하는 것, 민중 운동에 자유를 주는 것, 혁명 근거지의 새 제도를 인정하는 것 등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홍군을 국민 혁명군 제 8 로군(항일 전선의 전투 서열에 있어서는 제 18 집단군이라고도 한다)으로 개칭할 때 대한 명령은 북평, 천진을 상실한 약 1 개월 후에 반포되었다. 그리고 벌써 7월 15일에 국민당에 보낸, 량당 합작의 성립을 선포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선언 및 당시 뒤'이어 발표하기로 약속되었던, 중국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장 개석씨의 담화도 비록 너무 오래 동안 지연되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바로 전선의 형세가 긴장한 때인 9월 22일과 23일에 국민당의 중앙 통신사를 통하여 선후로 발표되었다. 공산당의 이 선언과 장 개석씨의 이 담화는 량당 합작의 성립을 선포하였으며 량당이 연합하여 나라를 구하는 위업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공산당의 선언은 량당의 단결을 위한 방침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인민의 대단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침으로 될 것이다. 장 개석씨의 담화는 전국에서의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단결하여 나라를 구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당의 자고자대하는 정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필요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량당의 통일

전선은 그 성립을 신고하였다. 이는 중국 혁명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았다. 이는 중국 혁명에 광범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늘 것이다.

중국의 혁명은 1924년부터 시작하여 국공 량당의 관계 여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늘고 있다. 일정한 강령에 기초한 량당 간의 합작에 의하여 1924~1927년의 혁명이 일어났다. 손 중산 선생이 40년 간이나 국민 혁명에 힘 쓰면서도 완수하지 못한 혁명 위업이 불과 2~3년 내에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즉 광동 혁명 근거지가 창설되고 북벌 전쟁이 승리하였다. 이것은 량당이 통일 전선을 결성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혁명주의를 견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명이 완성되려 할 무렵에 량당의 통일 전선이 결렬되고 혁명이 실패로 돌아 가게 되었으며 따라서 외적이 이 기회를 타서 침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량당의 통일 전선이 결렬된 결과이다. 지금 량당이 다시 결성한 통일 전선은 중국 혁명의 새로운 시기를 이루어 놓았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이 통일 전선의 역사적 임무 및 그 위대한 전망을 아직 똑똑히 알지 못하고 이러한 통일 전선의 결성을 부득이한 일시적인 변통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통일 전선을 통하여 중국 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갈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우심한 민족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통일 전선의 발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유리한 중

거들이 이미 나타났다. 첫째 증거는 중국 공산당이 통일 전선 정책을 제기하자 그 즉시로 전국 인민의 찬동을 받은 그것이다. 민심의 지향하는 바를 이로써 가히 알 수 있다. 둘째 증거는 서안 사변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량당이 정전을 하게 된 후 즉시 국내의 각당, 각파, 각계, 각군이 전례 없는 단결 상태——비록 이 단결이 항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매우 부족하며 특히 정부와 인민 사이의 단결 문제는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에 들어 서게 된 그것이다. 셋째 증거——이것은 가장 뚜렷한 것이다——는 전국성을 띤 항일 전쟁의 발동이다. 이 항전의 당면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항전이 비록 전국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군대에만 국한된 항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항전으로써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전에 벌써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100년 이래 전례 없던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적에 대한 항전은 확실히 이미 일어났다. 이는 국내의 평화와 량당의 합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량당의 통일 전선이 결렬되었을 때에 일본 침략자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동북 4성을 삼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량당의 통일 전선이 다시 걸성된 오늘에 와서는 일본 침략자가 피의 대'가를 내지 않고서는 중국의 땅을 탈취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증거는 국제적으로 일으키는 영향이다. 전 세계의 로농 대중과 공산당은 모두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통일 전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공 합작이 성립된 후 각국 인민들은, 특히

쏘련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원조하여 줄 것이다. 중 쏘 량국은 이미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으며[7] 금후 량국 관계는 일층 더 좋아질 가망이 있다. 우에서 말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통일 전선의 발전이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중국의 통일된 민주 공화국을 창건하는 광명하고도 위대한 앞길로 나아가게 하리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임무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통일 전선으로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량당의 통일 전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성립된 통일 전선은 아직 충실하고 견고한 통일 전선이 못 되기 때문이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국공 량당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전 민족적인 통일 전선이며 국공 량당은 이 통일 전선 내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각당, 각과, 각계, 각군의 통일 전선이며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계, 실업계 등 모든 애국적 동포들의 통일 전선이다. 지금의 통일 전선은 사실 상 아직 국공 량당의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광범한 노동자, 농민, 병사, 도시 소부르조아지 및 기타의 허다한 애국적 동포들을 아직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발동시키지 못 하였으며 조직하지 못 하였으며 무장시키지 못 하였다. 이것은 당면한 가장 엄중한 사태이다. 그 엄중성은 전선에 영향을 주어 승리적 전투를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화북 전선 및 강소, 절강 전선의 엄중한 위

기는 지금에 와서는 이미 감출 수 없게 되었으며 또 감출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있다. 위기를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민중을 불러 일으킨다》는 손중산 선생의 유족을 실행하는 것이다. 손중산 선생은 립중시의 이 유족에서 40년 동안 쌓은 경험을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다고 하였다. 도대체 무슨 리유로 이 유족을 기어이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도대체 무슨 리유로 이와 같은 위급 존망지수에 있어서까지도 이 유족을 실행할 결심을 내리지 않는가?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 같이 전제, 탄압은 《민중을 불러 일으킨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와 군대의 단독 항전만으로써는 일본 제국주의를 도저히 타승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벌써 금년 5월에 집권자인 국민당을 준렬하게 경고하면서 만일 민중이 걸기하여 항전하지 않는다면 아비시니아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다. 중국 공산당원들 뿐 아니라 각지의 허다한 선진적인 동포들과 국민당 내의 수 많은 현명한 당원들도 모두 이 점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전제 정책은 여전히 개변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부와 인민이 멀어지고, 군대와 인민이 멀어지고, 군대 내의 지휘원과 전투원이 멀어지게 되었다. 통일 전선이 민중에 의하여 충실히 되지 않는 한 전선의 위기는 불가피적으로 그냥 심화될 것이며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의 항일 통일 전선에는 아직도 국민당의 전제 정책

을 대체할, 량당이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정치 강령이 없다. 지금 국민당이 민중에 대하는 방법은 아직도 지난 10년 동안 써 오던 방법 그 대로이며 정부 기구, 군대 제도, 민중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재정, 경제, 교육 등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여전히 지난 10년 동안과 같고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킨 것도 있으며 또한 매우 크다. 그것은 즉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하는 것이다. 량당 간의 내전이 중지되고 전국적인 항일 전쟁이 일어난 이것은 서안 사변 이래의 중국 정치 정세에 있어서 극히 큰 변화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것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변화되지 않은 것이 변화된 것에 적응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의 방법은 대외적으로는 다협하며 대내적으로는 혁명을 탄압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진공에 대처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부합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항일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일단 하려고 하며 또 이미 시작하였으며 더우기 엄중한 위기가 이미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위협하다. 항일에는 충실한 통일 전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국의 인민을 동원하여 통일 전선에 망라시켜야 한다. 항일에는 건고한 통일 전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공동 강령이 있어야 한다. 공동 강령은 이 통일 전선의 행동 방침인 동시에 이 통일 전선의 통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바'줄로 묶듯이 각당, 각파, 각계, 각군 중 통일

전선에 망라된 모든 단체와 개인을 단단히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확고한 단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통제는 민족 혁명 전쟁에 적응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우리는 새로운 통제를 수립하여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것은 즉 공동 강령을 반포하고 혁명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항일 전쟁에 적응할 수 있다.

공동 강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의와 공산당이 8월 25일에 제기한 항일 구국 10대 강령(8)이다.

중국 공산당은 국공 합작을 공포하는 선언에서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고 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공산당이 국민당의 삼민주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제청태(9)는 상해의 어느 출판물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삼민주의는 병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형식주의적인 관찰이다. 공산주의는 혁명 발전의 장래의 단계에 가서야 실시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실시하려고 몽상하는 것이 아니라 력사에 의하여 규정된 민족 혁명주의와 민주 혁명주의를 실시하려 한다. 이것이 공산당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과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을 세울 것을 제기하는 근본 이유이다. 삼민주의를 두고 말한다면 일찍 10년 전 량당의 제 1차 통일 전선 때에 공산당과 국민당은 이를 실시하기

로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하여 공동히 결정하였던 것이며 또한 1924~1927년에 충직한 공산당원들과 충직한 국민당원들을 통하여 전국의 광대한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것이다. 불행히도 1927년에 통일 전선이 결렬되어 이 때로부터 국민당 측이 10년 간에 걸쳐 삼민주주의의 실시를 반대하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 측이 지난 10년 동안 실시하여 온 모든 정책은 근본 상에서 여전히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주의 및 3대 정책의 혁명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바 이것이 바로 철저한 민족주의이다. 로농 민주주의 독재 제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민권주의이다. 토지 혁명은 철저한 민생주의이다. 공산당은 어째서 지금 또 로농 민주주의 독재를 폐지하며 지주 토지의 몰수를 중지할 것을 언명하는가? 이렇게 하는 리유도 우리는 벌써 설명하였다. 그것은 즉 이런 제도와 방법이 근본적으로 못 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국내의 계급 관계에 변화가 일어 남으로써 전 민족의 각 계층을 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으며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도 파쇼를 공동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파쇼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 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가 로농 민주주의 독재 대신에 내세운, 각 계층 연합의 민주 공화국이란 주장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기된 것이다. 《도지는 발같이하는 자에게》라는 토지 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손 중산 선생이 일찍 제기하였던 정책이다. 우리가 오늘 이 정책의 실시를 증지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에서 토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의 객관적 원인과 시간성에 관하여 우리는 조금도 숨김 없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맑스주의적 원칙에 령각하여 제 1 차 국공 통일 전선의 공동 강령 즉 혁명적 삼민주의를 시종 일관 견지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강적이 침입하여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급 존망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인 민족적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 정책을 제때에 제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공산당이 혁명적 삼민주의를 신봉하느냐 않느냐, 실시하느냐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국민당이 혁명적 삼민주의를 신봉하느냐 않느냐, 실시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지금의 임무는 전국적 범위에서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주의의 혁명 정신을 살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정강과 정책을 제정하며 동시에 이를 허위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물쩍하여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절절 끄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실시하는 데 있다. 이것은 실로 중국 공산당이 주야로 축원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로구교 사변 후에 항일 구국의 10대 강령을 제기하였다. 이 10대 강령은 맑스주의에 부합되며 진정한 혁명적 삼

민주의에도 부합된다. 이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혁명 즉 항일 민족 혁명 전쟁에서의 초보적 강령이다. 오직 이를 실시함으로써만 중국을 구해 낼 수 있다. 이 강령과 저촉되는 모든 것을 그 대로 계속한다면 역사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강령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하자면 국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국민당은 아직도 중국에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명한 국민당원들이 이 강령에 동의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 하면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삼민주의는 끝까지 공담으로 되며 손 중산 선생의 혁명 정신은 회복될 수 없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없으며 중국 인민은 망국노의 운명을 피치 못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현명한 국민당원이라면 결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인민도 결코 망국노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장 개석 선생은 9월 23일의 자기의 담화에서 《우리들이 혁명을 신봉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삼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서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급 존망지수에 더구나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과 더불어 철저히 갱신하여 단결을 극력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생명과 생존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말은 참 옳은 말이다. 지금의 급선무는 삼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며 개인 및 소그루빠의 사건을 버리며 과거의 상투적인 방법을 개변하고 즉 삼민주의에 부합되는 혁명적 강령을 실시하며 인민과 더

불어 철저히 갱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유일한 길이다. 더 지체한다면 후회막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민주의와 10대 강령을 실시하려면 실시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 하여 정부의 개조와 군대의 개조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금의 정부는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 전선의 정부가 아니라 아직도 국민당 일당 독재의 정부이다. 삼민주의와 10대 강령의 실시는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 전선의 정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국민당 군대의 제도는 아직도 낡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군대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군대는 모두 항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군대, 특히는 전선에서 항전하고 있는 군대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군대의 제도는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못 하며 삼민주의와 혁명적 강령을 순조롭게 실시하는 데 적합하지 못 하므로 이를 개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은 3개월 래의 항전의 교훈에서 이미 증시되었다. 개변의 원칙은 바로 관병 일치와 군민 일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당 군대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에 배치된다. 팽범한 장병들은 충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낡은 제도에 속박되어 그 적극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낡은 제도를 급속히 개조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싸움을 중지하고 제도를 개조한 후에 다시 싸우자는 것은 아니다. 한 편으로 싸우면서 한 편으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심 임무는 군

대의 정치 정신과 정치 사업을 개변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전제는 북벌 전쟁 시기의 국민 혁명군이다. 이 국민 혁명군은 대체로 판병 일치, 군민 일치의 군대였으므로 그 당시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에스빠냐 전쟁의 교훈을 섭취하여야 한다. 에스빠냐 공화국의 군대는 극도로 곤란한 환경 속에서 창건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조건은 에스빠냐보다 낫지만 충실하고도 견고한 통일 전선이 없으며 혁명적 강령의 전부를 집행할 수 있는 통일 전선의 정부가 없으며 또 대량적인 새로운 제도의 군대가 없다. 중국은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여야 한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홍군은 전반 항일 전쟁에서 아직까지는 전위대의 역할을 늘 뿐이고 전국적 범위에서 결정적 역할을 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상, 군사 상, 조직 상에서의 홍군의 우점들은 전국의 우군들이 채용할 만 한 것이다. 이 군대도 창건 시초부터 지금과 같은 정형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허다한 개조 사업, 주로는 군대 내의 봉건주의의 숙청 및 판병 일치와 군민 일치의 원칙의 실시를 통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이 경험은 전국의 우군의 거울로 될 수 있다.

집권자인 국민당의 항일 동지들, 우리와 당신들은 오늘날 다 같이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와 더불어 항일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당신들은 내일 항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기라의 낡은 정책을 계속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 전

선을 발전시키고 충실히 하며 민중을 이에 참가시켜야 한다. 그것을 공고화하며 공동 강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치 제도와 군대 제도를 고칠 결심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출현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가 있어야만 혁명적 강령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군대의 개혁에 착수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이 제의는 시대적 요구이다. 당신들의 당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요구를 실천할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손 중산 선생은 결심을 내려 정치 제도와 군사 제도를 개조하였기 때문에 1924~1927년 혁명의 기초를 닦아 놓았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개조를 실행할 책임이 오늘에 와서는 당신들의 어깨에 지워졌다. 모든 충직하고 애국적인 국민당원들은 우리의 제의를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제의가 객관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위급 존망의 시각에 처하여 있다. 국공 량당은 친밀히 단결하자! 망국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동포들은 국공 량당의 단결의 기초 위에서 친밀히 단결하자! 일체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여 온갖 난관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혁명의 절박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완수하면 단정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광명한 것이다.

## 주 해

[1] 본 선집 제 1 권의 《합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주해 2문 참조하라.

[2] 본 선집 제 1 권의 《합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주해 3을 참조하라.

[3] 본 선집 제 1 권의 《합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주해 4를 참조하라.

[4] 본 선집 제 1 권의 《장 개석의 성명에 대한 성명》 주해 7을 참조하라.

[5] 본 선집 제 1 권의 《합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주해 6을 참조하라.

[6] 본 선집 제 1 권의 《합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주해 7을 참조하라.

[7] 《중소 호상 불가침 조약》은 1937년 8월 21일에 체결되었다.

[8]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를 보라.

[9] 제 청래는 《국가 사회당》(반동적 지주, 관료 및 대부르췌아지가 조직한 소그루파)의 두목의 한 사람이었으며 후에는 왕 경위의 민족 반역자 정부의 일원으로 되었다.

## 영국 기자 버트람과의 담화

(1937년 10월 25일)

### 중국 공산당과 항일 전쟁

버트람 문: 중일 전쟁 폭발 전후에 중국 공산당은 어떤 구체적 의견 표시가 있었습니까?

모택동 답: 이 번 전쟁이 폭발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향하여 대일 전쟁은 불가피적이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소위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든 언론과 일본 외교가의 감언 리설은 모두가 자기들의 전쟁 준비를 엄폐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재삼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혁명적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민족 해방 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혁명 정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민중을 항일 전선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반드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의 《평화에 대한 담보》를 믿고 전쟁을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민중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본 침략자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오류를 거듭 지적하여 주었

습니다. 전쟁의 폭발과 그 경과를 우리의 이런 의견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습니다. 로구교 사변이 일어난 이튿날 공산당은 각당, 각과, 각 계층이 일치하게 일본 침략에 저항하며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을 전국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항일 구국 10대 강령》을 발표하여 항일 전쟁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취하여야 할 정책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공 합작이 성립될 때에도 중요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혁명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항일 전쟁을 진행하는 이러한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본 구호는 《전면적인 전 민족적 항전》입니다.

## 항일 전쟁의 정형과 교훈

문: 당신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어떠한 결과들을 산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주요한 것으로는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그 한 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도시 공략, 국토 강점, 강간, 약탈, 방화 및 학살이 망국의 위험을 최종적으로 중국 인민에게 들쳐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면은 중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로부터 심각한 인식을 얻게 되어 가일층의 단결과 전 민족적인 항전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위협에 저항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세계의 여러 평화 애호 국가들을 깨우쳐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산생된 결과입니다.

문: 당신은 일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목적이 이미 얼마나 실현된 것 같습니까?

답: 일본의 계획은 제 1 보로 화북과 상해를 점령하고 제 2 보로 중국의 기타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일본 침략자가 그 계획을 실현한 정도를 말한다면 중국의 항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정부와 군대의 단독 항전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침략자는 단시일 내에 벌써 하북, 차할, 수원 등 3 개 성을 탈취하였고 산서성도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민중과 정부의 일치한 항전이 있어야만 이 위급한 국세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문: 당신의 견해로는 중국의 항전에 성과도 있다고 보는지요? 만일 교훈을 말한다면 어떠한 점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당신과 좀 자세히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과를 말한다면 성과는 있으며 또 그것은 거대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데서 표현됩니다. (1) 지금의 항일 전쟁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된 이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지역 상으로 볼 때 확실히 전국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2) 전쟁은 전국의 사분오열되었던 국면을 비교적 단결된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국공 합작은 이 단결의 토대입니다. (3) 국제적 여론의 공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무저항에 대하여 멸시하던 국제적 여론이 지금에 와서는 중국의 저항에 대하여 존경시하는 데로 전변되었습니다. (4) 일본 침략자에게 막대한 소모를 주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일본 침략자의 물자 소모액은 일본 돈으로 매일 2,000만 원이나 되며 인원의 소모도 아직 통계는 없지만 틀림 없이 막대할 것입니다. 가령 지난날에는 일본 침략자가 거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동북 4성을 탈취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혈전을 거치지 않고서는 중국의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는 본래 중국에서 큰 야욕을 채워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장기적 저항은 도리어 일본 제국주의 자신을 붕괴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말한다면 중국의 항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파쇼 전선 내에서 자기의 위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항일 전쟁의 혁명성은 또한 이 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5)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땅과 피로써 바꾸어 온 것입니다.

교훈으로 말하면 그것은 역시 매우 큼니다. 수개월 간의 항전에서 중국의 허다한 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 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 참전 지역으로 보면 전국적인 것이지만 참전한 요소로 볼 때에는 전국적이지 않습니다. 광범한 인민 대중은 여전히 과거 처럼 정부의 제한을 받아 참전할 수 없으므로 지금의 전쟁은 아직도 대중적 전쟁이 아닙니다.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

쟁이면서 그것이 대중성을 띠지 않는다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쟁은 이미 전면적인 전쟁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참전 지역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전한 요소를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면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항전은 인민의 항전이 아니라 아직도 단지 정부와 군대의 항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많은 국토를 상실하고 많은 군대가 패전한 주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항전이 혁명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중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혁명성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단결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각 정당들이 비록 과거보다는 단결되었지만 필요한 정도에까지 단결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치범의 대다수가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였으며 정당 활동의 금령이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인민 간, 군대와 인민 간, 군관과 병사 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나쁩니다. 이들 간에는 단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쟁의 승리는 운운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 밖에 군사 상에서의 파오도 군대의 손실과 국토의 상실을 초래한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태반은 피동적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군사적 술어로는 <단순 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워서 승리할 가망이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정치 면에서와 군사 면에서 지금과는 아주 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

리가 얻은 바 교환입니다.

문: 그러면 정치 면에서와 군사 면에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 정치 면에서 말한다면 첫째, 지금의 정부를 인민의 대표가 참가한 통일 전선의 정부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또 중앙 집권적이어야 합니다. 이 정부는 필요한 혁명적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무장 항적의 자유를 주어 전쟁으로 하여금 대중성을 띠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인민 생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개선 방법에는 가렴 잡세의 폐지, 소작료와 리자의 인하, 노동자와 하급 군관과 병사들에 대한 대우의 개선, 항일 군인 가족의 우대, 리재민과 난민의 구제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재정은 합리적 부담의 원칙, 즉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는 원칙에 령 각하여야 합니다. 넷째, 외교 정책의 적극화입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정책의 개혁입니다. 여섯째, 민족 반역자를 엄격히 진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극히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 지구에서는 적을 원조하고 있고 후방에서는 제 몇 대로 교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일하는 체 하면서 애국적 인민을 도리어 민족 반역자로 몰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반역자들을 진정으로 진압하려면 인민이 권 기하여 정부와 협력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군사 면에서 말한다면 역시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

로는 전략 전술 상에서 단순 방어의 방침을 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침으로 개편하며, 낡은 제도의 군대를 새 제도의 군대로 개편하며, 강제 동원의 방법을 인민을 고무 추동하여 전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며, 비통일적 지휘를 통일적 지휘로 개편하며, 인민과 리탈된 무규률 상태를 각각의 원칙 위에 세워진, 인민의 리익을 털끝 만큼도 해치지 않는 규률로 개편하며, 단순히 정규군만으로 작전하는 국면을 인민 유격 전쟁을 광범히 발전시켜 정규군의 작전에 배합하게 하는 국면으로 개편하는 것 등등입니다. 상술한 모든 정치적 및 군사적 조건들은 모두 우리가 발표한 10대 강령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의와 3대 정책 및 그 유족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여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 공산당은 어떻게 이 강령을 실시하렵니까?

답: 우리가 할 바는 꾸준한 노력으로 현 정세를 해설하며 국민당 및 기타 모든 애국적 정당과 연합함으로써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 공고화하고 모든 령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그 범위가 아직 협소하므로 이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즉 손 중산 선생의 《민중을 불러 일으키자》는 유족을 실행함으로써 사회의 하층 민중을 이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여야 합니다. 통일 전선의 공고화란 하나의 공동 강령을 실시하여 이 강령으로써 각당, 각파의 행동을 단속함을 의미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 3대 정책 및 그의 유족을 각당, 각과, 각 계층의 통일 전선의 공동 강령으로 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강령은 아직까지도 각 정당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선 국민당이 아직도 이러한 강령 전부를 발표할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당은 부분적으로 손 중산 선생의 민족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일 항전을 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권주의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민생주의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 하여 오늘의 항전에 엄중한 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위급한 지 급이야 말로 국민당이 삼민주의를 전부 실시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실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아무리 후회하여도 쓸 데 없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의 책임은 국민당과 전국 인민들에게 열정적으로 꾸준한 해설과 설복을 하여 진정한 혁명적 삼민주의, 3대 정책 및 손 중산 선생의 유족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부 그리고 철저히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 공고화하는 데 있습니다.

###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팔로군

문: 팔로군의 정형에 대하여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면 전략 전술 방면과 정치 사업 방면 등등에 대하여 말입니다.

답: 홍군이 팔로군으로 개편되어 전선에 나간 후 그 행동

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팔로군의 정형을 대략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전투 정형을 말하겠습니다. 전략 상에 있어서 팔로군은 지금 산서성을 중심으로 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팔로군은 이미 여러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테면 평형관의 전투, 정평, 평로, 녕무의 탈환, 래원, 광령의 회복, 자형관의 점령, 대동—안문관 간, 울현—평형관 간, 삭현—녕무 간 등 일본군의 세 개 주요 운수선의 차단, 안문관 이남의 일본군 후방에 대한 공격, 평형관, 안문관의 2 차의 탈환 그리고 근간에 목양, 당현의 회복 등입니다. 산서성에 들어 온 일본 군대는 지금 전략 상에서 팔로군과 기타 중국 군대의 사면 포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후 일본군이 화북에서 가장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산서성에서 횡행해다가는 필연코 이 때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곤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 전술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타 군대가 취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적군의 측 및 후방에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법은 단순한 정면 방어와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일부 병력을 정면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력은 반드시 측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포위 우회 전법으로써 독립 자주적으로 적을 공격하여야만 자기의 력량을 보전하고 적의 력량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병력을 적의 후방에 사용한다면 적의 운수선과 근거지를 교란하게 되므로 그 위력이 특히 크게 됩니다. 정면에서 작전하는 군대라 하더라도 단순 방어와 전법을 써서는 안 되며 주로는 《반돌격》의 전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수개월 태의 군사 상의 실패는 작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금 팔로군이 취하고 있는 전법을 우리는 독립 자주적인 유격전 및 운동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국내 전쟁 시기에 취하였던 전법과 기본적 원칙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 계단의 정형을 놓고 말한다면 병력을 집중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 병력을 분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광대한 지역에서 적의 억측과 후방을 습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의 군대를 놓고 말한다면 그 수효가 많으므로 그 일부로써 정면을 지키고 다른 일부로써 분산하여 유격전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력은 역시 항상 적의 억측에다 집중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사 상의 첫째 요결은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체 피동적이며 기계적인 전법을 피하고 독립 자주적인 유격전과 운동전의 전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량의 군대가 운동전을 하고 팔로군은 유격전으로써 이를 보조한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치 사업 문제입니다. 팔로군은 또한 극히 중요하고 극히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그의 정치 사업입니다. 팔로군의 정치 사업에는 세 개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병 일치의 원칙입니다. 이는 즉 군대 내에서 봉건주의를 숙청하며 때리고 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각적 규율을 세우며 생활에서 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 전군은 일치 단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군민 일치의 원칙입니다. 이는 즉 인민의 이익을 털끝 만큼도 해치지 않는 민중 규율, 민중에게 선전하고 민중을 조직하고 민중을 무장하는 것, 민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 군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에게 타격을 주는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는 인민과 일치 단결되어 있으며 도처에서 인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세째는 적군을 와해시키며 포로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아군의 작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와해에도 의존합니다. 적군을 와해시키며 포로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방법이 목전에는 아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장래에 가서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둘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팔로군은 자기 대멸을 보충함에 있어서 인민을 강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인민을 고무 추동하여 전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압적 방법에 비하여 성과가 훨씬 큼니다.

지금 비록 하북, 차할, 수원 등 성과 산서성의 일부를 잃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군에 모든 우군과 배합하여 산서성을 방위하며 잃은 땅을 도로 찾기 위하여 끝까지 혈전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팔로군은 중국의 기타 부대와 더불어 일치한 행동으로 산서성에서의 항전 국면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는 전반 전쟁에 대하여, 특히는 화북의 전쟁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문: 당신은 팔로군의 이러한 장점들이 중국의 기타 군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의 군대도 원래는 오늘의 팔로군과 대체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1924~1927년 시기에 그러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합작하여 새로운 제도의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시초에 2 개 탄에 불과하였으나 많은 군대를 그 주위에 단결시켜 진 혁명을 제 1 차로 타승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 후 1 개 군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군대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므로 비로소 북벌 전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군대에는 새로운 기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 관병 사이와 군민 사이가 대체로 단결되어 있었으며 용왕매진하는 혁명적 정신이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군대에는 당 대표와 정치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 역사상에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군대의 면모가 일신되었습니다. 1927년 이후의 홍군과 오늘의 팔로군은 이러한 제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924~1927년의 혁명 시기에는 새로운 정신을 가진 군대가 있었으며 그 작전 방법도 자연히 그 정치적 정신과 배합되어 피동적이며 기계적인 작전이 아니라 주동적이고 활기 있는, 공격 정신이 풍부한

작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벌의 승리를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항일의 싸움터에는 바로 이러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군대는 꼭 수백만 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만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전 이래 전국 군대가 영웅하게 헌신적으로 싸운 데 대하여 우리는 매우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전에서 일정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 포로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정책이 일본 군대의 규율 하에서는 효과를 낼 수 없지 않을까요? 케컨대 석방하여 돌려 보내면 일본 측에서 그들을 죽여 버려서 일본군의 전체는 당신들의 정책의 의의를 알지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많이 죽으면 죽일 수록 일본 병사들은 중국 군대를 더욱더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병사 대중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견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군은 팔로군에 대하여 독가스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있지만 가령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포로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우리의 정책은 의연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된 일본 병사 및 강제에 못 이겨 전투에 참가한 일부 하급 간부를 여전히 관대히 대우하고 모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량국 인민의 리해 관계가 일치하다는 것을 해설하여 주고 석방하여 돌려 보낼 것입니다. 돌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팔로군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장차 함일의 싸움터에 《국제 종대》가 출현한다면 그들은 이 부대에 참가하여 무기를 들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 함일 전쟁에서의 투항주의

문: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본은 전쟁을 하는 한 편 상해에서 평화의 공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일본의 목적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답: 일본 제국주의는 자기의 일정한 계획이 실현된 후에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또 한 번 평화의 연막탄을 던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란 즉 (1) 이미 차지한 진지를 공고히 하여 그것을 제 2 보 진공의 전략적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 (2) 중국의 함일 전선을 분렬시키려는 것, (3) 중국을 원조하는 국제 전선을 와해시키려는 것 등입니다. 지금의 평화의 공기는 평화의 연막탄을 던지기 시작한 때 불과한 것입니다. 위험은 중국에서 일부 동요 분자들이 적의 낚시에 걸릴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있으며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들이 그 틈에 끼여서 각종 요언을 류포하면서 중국을 일본에 투항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문: 당신이 보기에 이러한 위험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답: 그 전도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 인민이 투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항주의가 득세하여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며 함일 전선을 분렬시키는

것입니다.

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답: 중국 인민은 전체가 끝까지 항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치 집단 내의 일부 사람들이 실지 행동면에서 투항의 길로 나아간다면 나머지의 항전에 견결한 부분은 반드시 쫓기하여 이를 반대할 것이며 인민과 함께 항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중국 항일 전선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투항주의자는 균중을 가지지 못 할 것이며 균중은 투항주의를 극복하고 전쟁을 견지하여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문: 투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입니까?

답: 언론 상으로는 투항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행동 상으로는 인민 대중을 조직하여 투항 활동을 제지할 것입니다. 투항주의의 근원은 민족 패배주의 즉 민족 비판주의입니다. 이러한 비판주의는 중국은 패전을 거듭한 후 더는 항일할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며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앞으로의 승리의 기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판주의는 항전에서의 실패만을 보고 항전에서의 성과를 보지 못 하며 더구나 우리의 실패 가운데는 승리의 요소가 내포되고 있으며 적의 승리 가운데는 실패의 요소가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대중에게 전쟁의 승리할 전망을 지적하여 줌으로써 실패와 곤난은 일시적이고 굴함 없이 분투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종국적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

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투항주의자가 군중 토대를 가지지 못 하면, 즉 그들이 재주를 부릴 곳이 없게 되면 항일 전선은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제도와 항일 전쟁

문: 공산당이 강령에서 제기한 《민주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시 정부》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답: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1936년 8월에 벌써 《민주 공화국》이란 구호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구호의 정치적 및 조직적 함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 한 계급의 국가 또는 정부인 것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을 제외한 모든 항일 계급의 동맹으로 된 국가 또는 정부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가 망라되어야 합니다. (2) 정부의 조직 형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여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또 중앙 집권적이며 마치 서로 모순되는 듯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일정한 형식에서 통일시켜야 합니다. (3) 이 정부는 인민에게 필요한 온갖 정치적 자유 특히 조직, 훈련, 무장 자위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소위 《전시 정부》와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항일 전쟁에 유리한 국가 제도이며 정부 제도입니다.

문: 그렇지만 《민주주의 중앙 집권》이라는 명사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명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깊은 도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일방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정부는 반드시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 정부는 반드시 전 중국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아야 하며 인민도 반드시 자유롭게 정부를 지지할 수 있고 모든 기회에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 제도의 의의입니다. 타방으로는 행정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필요합니다. 인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일단 민의 기관을 통하여 자기들이 선거한 정부에 회부된 후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미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채택된 방침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아무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중앙 집권제의 의의입니다. 오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취하여야만 정부의 역량이 특히 강대하여질 것입니다. 항일 전쟁 행정에서의 국방적 성격을 띤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취하여야 합니다.

문: 이것은 전시 내각 제도와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 이것은 역사 상의 일부의 전시 내각 제도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부합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까?

답: 부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의 정치 제도는 대체

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중앙 집권제인데 그것은 전쟁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역사 상의 모든 전쟁은 그 성격에 의하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의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의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20여 년 전의 구라과 대전은 부정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제 국가의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위반하고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도록 인민을 강압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는 영국의 로이드 조지 따위의 정부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 하도록 영국 인민을 억압하였으며 이러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여하한 기관과 집회도 그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도 명령에 따라 전쟁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였으며 또한 제국주의자 도당의 기관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의 정부와 인민 간의 불일치로 하여 바로 중앙 집권만 있고 민주주의는 없는 절대적 중앙 집권주의의 정부가 산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상에는 또 혁명 전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혁명 전쟁, 로씨야의 혁명 전쟁, 목전 에스빠냐의 혁명 전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인민이 이러한 전쟁을 매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민이 전쟁을 찬성하지 않을가 두려워 할 것 없으며, 정부의 기초가 인민의 자원적 지지 위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민을 두려워 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드시 인민을 불러



일으키며 의견을 발표하도록 인민을 인도함으로써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민족 해방 전쟁은 인민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전쟁에 있어서 인민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1926~1927년의 북벌 전쟁도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거하여 승리를 전취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전쟁의 목적이 직접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 것일 때에는 정부가 민주주의적일수록 전쟁을 진행하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인민이 전쟁을 반대할까 봐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민이 권기하지 않거나 전쟁에 대하여 랭담하게 되거나 않을가 하는 것을 걱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정부와 인민간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이것은 역사적 원칙입니다.

문: 그러면 당신들은 어떠한 절차로 새로운 정치 체도를 실현하려 합니까?

답: 관진은 국공 량당의 합작에 있습니다.

문: 어째서 그렇습니까?

답: 최근 15년 동안의 중국의 정치 정세에 있어서 국공 량당의 관계 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량당의 합작은 제 1차 혁명의 승리를 가져 왔습니다. 1927년의 량당의 분렬은 지난 10년 동안의 불행한 국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국민당의 억압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으며 우리는 중국 해

방의 영예로운 기치를 고수하였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항일 구국을 위하여 량당은 일정한 강령에 립각하여 철저히 합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 합작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쌍방이 하나의 공동 강령을 승인하고 이 강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이 강령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 어떻게 량당이 합작하여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려고 합니까?

답: 우리는 지금 정부 기구와 군대 제도를 개조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긴급 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립시 국민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대표는 대체로 1924년의 손 중산 선생의 주장을 채택하여 각 항일 정당, 항일 군대, 항일 민중 단체 및 실업 단체로부터 일정한 비례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국가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의 직권을 가져야 하며 거기에서 구국 방침을 결정하며 헌법 대강을 통과하며 정부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전이 긴급한 전환의 시각에 처한 이 때 권력이 있고 또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 대회를 급속히 소집하여야만 정치적 변모를 일신하고 시국의 위기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당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며 그들이 동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 국민 정부에서 국민 대회의 소집을 중지한다고 선포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러한 중지는 옳은 것입니다. 중지한 것은 국민당이 과거에 소집하려고 준비하던 국민 대회입니다. 그 대회는 국민당의 규정에 의하면 아무런 권력도 없는 것이며 그 선거는 더구나 인민의 의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회 각계는 모두가 그러한 국민 대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의한 립시 국민 대회는 이미 중지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립시 국민 대회가 열린 후에는 전국의 면모가 반드시 일신될 것이며 정부 기구의 개조, 군대의 개조 및 인민의 동원에 필요한 전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항전 국면의 전환은 실로 이 점에 달려 있습니다.



## 상해, 태원 상실 이후의 항일 전쟁의 정세와 임무\*

(1937년 11월 12일)

### 1. 현 정세는 일면적 항전으로부터 전면적 항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처하여 있다

(1)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진공을 반대하는 모든 항전을 찬조한다——비록 그것이 일면적 항전일지라도. 왜냐 하면 그것은 무저항주의보다 한 걸음 앞선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혁명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도 역시 조국을 보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우리는 인민 대중의 참가를 거부하고 단지 정부에서만 진행되는 일면적 항전은 그것이 완전한 민족 혁명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대중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1937년 11월 연안의 당 활동 분자 회의에서 한 보고의 제강이다. 이 때로부터 당내의 우경 기회주의 분자들은 이 제강을 반대하여 나섰다. 1938년 10월의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6차 전원 회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우경적 편향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었다.

에 반드시 실패 당할 것이라고 벌써 지적한 바 있다(금년 4월의 연안의 당 활동 분자 회의에서, 5월의 당의 전국 대표 회의에서, 8월의 중앙 정치국의 결정에서<sup>(1)</sup>).

(3) 우리는 전국 인민이 총동원하는 완전한 민족 혁명 전쟁을, 다시 말하면 전면적 항전을 주장한다. 왜냐 하면 이런 항전만이 대중적 전쟁이며 조국 보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국민당이 주장하는 일면적 항전도 민족 전쟁이기는 하지만, 또 혁명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혁명성이 매우 불완전하다. 일면적 항전은 반드시 전쟁을 실패에로 이끌게 될 것이며 도저히 조국을 보위할 수 없다.

(5) 이것은 항전에 대한 공산당의 주장과 항전에 대한 국민당의 지금의 주장과의 원칙적 상이이다. 공산당원으로서 만일 이 원칙성을 잊어 버린다면 그들은 항일 전쟁을 옮겨 지도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당의 일면성을 극복할 힘이 없을 것이며 공산주의자를 무원칙한 위치에 저락시킬 것이며 공산당을 국민당으로 끌어 내리고 말 것이다. 즉 그들은 성스러운 민족 혁명 전쟁과 조국 보위의 임무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된다.

(6) 완전한 민족 혁명 전쟁 또는 전면적 항전에서는 반드시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구국 10대 강령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이 강령을 완전히 실시하는 정부와 군대가 있어야 한다.

(7) 상해, 태원을 상실한 후의 정세는 다음과 같다.

1. 화북에서는 국민당을 주체로 한 정규 전쟁이 이미 끝났고 공산당을 주체로 한 유격 전쟁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강소성과 절강성에서는 국민당의 전선이 이미 격파되었고 일본 침략자들이 난경과 장강 류역으로 진공하고 있다. 국민당의 일면적 항전은 이미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나라의 정부는 그들 자신의 제국주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을 원조하겠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두 상의 동정에만 그치고 있으며 실제적 원조라고는 하나도 없다.

3.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극력 원조하고 있다.

4. 국민당은 그가 일면적 항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당 독재와 민중에 대한 전제 정책에 대하여 아직도 원칙적인 변경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한 면의 정형이다.

다른 한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공산당과 팔로군은 그 정치적 영향이 대대적으로 또 급속도로 확대되어 《민족의 구성》이라는 평판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공산당과 팔로군은 화북에서의 유격 전쟁을 견지함으로써 전국을 방위하며 중원 및 서북에 대한 일본 침략자의 진공을 견제할 결심을 가지고 있다.

2. 민중 운동이 한 걸음 더 전개되었다.

3. 민족 부르주아지들이 좌익으로 끌리고 있다.

4. 국민당 내에서 현 상태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장성되고 있다.

5. 전 세계 인민들의 일본 반대, 중국 원조 운동이 발전되고 있다.

6. 쓰련은 실제적으로 중국을 원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한 면의 정형이다.

(8) 그러므로 지금은 일면적 항전으로부터 전면적 항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처하여 있다. 일면적 항전은 이미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면적 항전은 아직 닥쳐 오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보리'고개와 같은, 위기가 엄중한 과도기인 것이다.

(9) 이 기간에 중국의 일면적 항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방향은 일면적 항전을 종말 짓고 전면적 항전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대다수 사람들의 요구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아직도 이런 결심을 내리지 않고 있다.

둘째 방향은 항전을 종말 짓고 투항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침략자, 민족 반역자 및 친일파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

세째 방향은 항전과 투항이 중국에 병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침략자, 민족 반역자 및 친일파들이 둘째 방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항일 전선을 분열시키



러는 음모 궤계를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위협은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다.

(10) 현 정세로 보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투항주의의 득세를 허용하지 않는 요소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중국을 기어이 멸망시키려는 일본의 방침으로 하여 중국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처하게 된 것, 공산당과 팔로군의 존재, 중국 인민의 요구, 국민당 내 다수 당원의 요구, 영국, 미국, 프랑스가 국민당의 투항이 자기들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넘겨하고 있는 것, 소련의 존재 및 중국을 원조하려는 그의 방침, 소련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이런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니다) 등등이다. 만일 이런 요소들을 훌륭히 조직만 한다면 투항과 분렬의 요소들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일면적 항전에 머물러 있으려는 요소도 극복될 것이다.

(11) 그렇기 때문에 일면적 항전으로부터 전면적 항전으로 전환할 전망은 확실히 존재한다. 이 전망을 쟁취하는 것은 전체 중국 공산당원, 중국 국민당의 전체 진보 분자 및 전체 중국 인민 앞에 나선 공동의 긴절한 과업이다.

(12) 중국의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은 지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는 연장될 수도 있고 비교적 빨리 극복될 수도 있다. 결정적 요인은, 중국 내부에 있어서는 국공량당의 합작 및 이 합작을 기초로 한 국민당 정책의 전환이며 로농 대중의 력량이며 중국 외부에 있어서는 소련의 원조

이다.

(13) 국민당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개조할 필요가 있으며 또 개조할 가능성도 있다<sup>[2]</sup>. 그것은 주로 일본의 압박,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정책, 중국 인민의 요구, 국민당 내부의 신생 력량의 장성 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정부와 군대를 개조하는 기초로서 국민당의 이런 개조의 실현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 개조에 있어서 국민당 중앙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는바 우리는 제의자의 입장에서 있다.

(14) 정부를 개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립시 국민 대회를 소집할 때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도 역시 필요하며 또 가능한 것이다. 이 개조도 두 말 할 것 없이 국민당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5) 군대를 개조하는 임무에는 새로운 군대를 건립하는 것과 낡은 군대를 개조하는 것이 있다. 가령 반년 내지 1년 내에 새로운 정치적 정신을 가진 25만 내지 30만의 군대를 건립한다면 항일 전장에는 반드시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군대는 모든 낡은 군대에 영향을 주며 또 그들을 단합할 것이다. 이것은 항일 전쟁이 전략적 반공으로 전입하기 위한 군사적 기초이다. 이 개조도 마찬가지로 국민당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팔로군은 이 개조 과정에서 모범적 역할을 놀아야 할 것이다. 팔로군 자체도 확대되어야 한다.

## 2. 당내에서와 전국에서 투항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 당내에서 계급에 대한 계급의 투항주의를 반대할 것

(16) 1927년의 진 독수의 투항주의는 그 당시의 혁명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였다. 매개 공산당원은 이 력사 상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7) 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로구교 사변 이전까지는 《좌》경 기회주의 즉 관문주의가 당내의 주되는 위험한 경향이였다. 이것은 주로 국민당이 그 때까지도 항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8) 로구교 사변 이후에 있어서는 당내의 주되는 위험한 경향이 이미 《좌》경 관문주의가 아니라 우경 기회주의 즉 투항주의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주로 국민당이 이미 항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일찌기 4월의 연안의 당 활동 분자 회의 때, 또 5월의 당의 전국 대표 회의 때, 특히 8월의 중앙 정치국 회의(략천 회의)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즉 통일 전선 내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를 령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르조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를 령도하는가, 국민당이 공산당을 끌어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이 국민당을 끌

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천하의 구체적인 정치적 임무에 비추어 말한다면 이 문제는 즉 국민당을 공산당이 주장하는 항일 구국 10대 강령과 전면적 항전에까지 끌어 올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을 국민당의 지주-부르조아 독재와 일면적 항전에까지 끌어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20) 왜 이렇게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데 기인된다.

한 편으로는 중국 부르조아지의 타협성, 국민당의 실력상의 우세, 공산당을 중상하고 모독하며 소위 《계급 투쟁의 증지》를 떠들어댄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의 선언과 결정, 《공산당의 투항》에 대한 국민당의 간절한 념원과 이에 대한 광범한 선전, 공산당을 제압하려는 장개석의 시도, 홍군을 제한하며 약화시키려는 국민당의 정책, 항일 민주 근거지를 제한하며 약화시키려는 국민당의 정책, 국민당이 7월에 려산 훈련반<sup>[3]</sup>에서 제기한 《항일 전쟁 행정에서 공산당의 력량을 5 분의 2를 약화시킨다》는 음모 계획, 국민당이 공산당 간부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세, 재물, 주색, 향락 등으로의 유인, 일부 소부르조아 급진 분자들의 정치 상에서의 투항 거동(장 내기를 대표자로 하는<sup>[4]</sup>) 등등의 정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편으로는 공산당 내부의 리론 수준이 고르지 못한 것, 허다한 당원들에게 북벌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량당 합작에 대한 경험이 결여한 것, 당내에 소부르조아 성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 일부 당원들 가운데 과거의 간고한 투쟁 생

활을 계속하려 하지 않는 기분이 있는 것, 통일 전선 내에 국민당에 융화하려는 무원칙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 팔로군 내부에 신군벌주의적 경향이 발생되고 있는 것, 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에 참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항일 민주 근거지 내부에 융화하려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는 것 등등의 정형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두 개 면에서의 엄중한 정형으로 하여 누가 누구를 평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하여야 하며 투항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21) 수개월 이래, 주로는 항전 이래 공산당 중앙과 그의 각급 조직들은 이미 발생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투항주의적 경향들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책을 강구하였으며 또 성과를 거두었다.

정권에 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 결정 초안<sup>[5]</sup>을 내보내었다.

팔로군 내에서는 신군벌주의 경향에 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은 홍군이 개편된 후 일부의 개별적 분자들이 공산당의 평도를 엄격히 접수하려 하지 않으며 개인 영웅주의로 나아가며 국민당의 위임을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 것(벼슬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 것) 등등의 현상들에서 발로되고 있다. 이 신군벌주의 경향은 비록 사람을 구타하며 사람을 욕하며 규률을 파괴하는 등등 현상에서 나타나는 구군벌주의 경향과 그 근원이 같고(공산당을

국민당으로 끌어 내리는 것) 그 결과가 같지만(균중을 리탈하는 것) 그 경향은 국공 량당의 통일 전선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큰 위험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경향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것을 건결히 반대하여야 한다. 국민당의 간섭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정치 위원 제도와 국민당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훈처로 고쳐졌던 정치부의 명칭은 이미 회복하였다. 《독립 자주적인 산지대 유격전》이란 이 새로운 전략 원칙을 제기하고 또 이것을 건결히 집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팔로군의 작전 상 및 사업 상의 승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였다. 자기들의 당원을 팔로군의 간부로 파견하겠다는 국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산당이 절대적으로 팔로군을 령도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혁명적인 각 항일 근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라는 이 원칙을 내세웠다. 《의회주의》적 경향(물론 제 2 국제당의 의회주의는 아니다. 이런 의회주의는 중국의 당내에는 없다)<sup>[6]</sup>을 시정하였으며 토비, 간첩 및 파피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지하였다.

서안에서는 량당 관계에 있어서의 무원칙한 경향(융화적 경향)을 시정하고 균중 투쟁을 재차 전개하였다.

감숙성 동부에서도 정형이 서안과 대체로 같다.

상해에서는 《호소를 적게 하고 제의를 많이 하자》는 장내기주의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구국 사업에서의 융화적 경향을 시정하기 시작하였다.

남방 각 유격구——이것은 우리가 국민당과의 10년 간의

혈전에서 얻은 전취물의 일부분이며 남방 각 성에 있어서의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의 전략적 지탱점이며 국민당이 서안 사변 후에도 《포위 토벌》 정책으로써 소멸하려 하였고 로구교 사변 후에는 또 범을 산에서 피여 내는 정책으로 약화시키려고 한 력량이다——에서는 우리의 주의력을 다음과 같은 점들에 집중시키고 있다. 1) 무조건적인 집중(이런 지탱점들을 없애 버리려는 국민당의 요구에 적응되는)을 방지할 것, 2) 국민당의 인원 파견을 거부할 것, 3) 하 명이 당한 것과 같은 위험(국민당에게 포위되어 무장 해제를 당할 위험)<sup>[7]</sup>을 경계할 것.

《해방 주간》<sup>[8]</sup> 지상에서 엄정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22) 항전을 견지하며 중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일면적 항전을 전면적 항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통일 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화하여야 한다. 국공 량당의 통일 전선을 결렬시키려는 어떤 주장도 용허할 수 없다. 《좌》경 관문주의를 여전히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든 통일 전선 사업에서 반드시 독립 자주의 원칙을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국민당 또는 기타 일체 파벌과 결성하는 우리의 통일 전선은 일정한 강령을 실시한다는 이 토대 우에서의 통일 전선이다. 이 토대를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 전선도 있을 수 없다. 이 토대를 떠난 합작은 무원칙한 행동으로 되고 말 것이며 이것은 투항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라는 이 원칙을 해설하며 실천하며 견지하는 것은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 고리로 된다.

(23)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일면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미 전취한 진지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 출발지로서 이 진지를 상실하면 모든 것이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된다. 그렇지만 그 주요한 목적은 역시 다른 면에 있다. 그것은 진지를 발전시키며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이 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진지의 보전과 진지의 발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수개월 간에 더욱 광범한 소부르조아지의 좌익 대중이 우리의 영향 하에 단결되었으며 국민당 진영 내의 신생 력량이 장성되고 있으며 산서성에서의 군중 투쟁이 발전되었으며 당 조직도 허다한 지방에서 발전되었다.

(24) 그러나 당의 조직적 력량이 전국적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국의 군중 력량도 아직 매우 미약하며 전국의 로농 기본 군중은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일면으로는 국민당의 제압과 억압 정책에 기인된 것이며 다른 면으로는 우리 자신의 공작이 없었거나 부족한 데 기인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금 항일 민족 혁명 전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다. 이 약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없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



드시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라는 이 원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투항주의 또는 융화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 전국에서 민족에 대한 민족의 투항주의를 반대할 것

(25) 위에서 말한 것은 계급에 대한 계급의 투항주의이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조아 개량주의와 그 불철저성에 적응하도록 이끈다. 이 경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일면적 항전을 전면적 항전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조국을 보위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투항주의가 있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민족의 투항주의이다. 그것은 중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리익에 적응하도록 이끌며 중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모든 중국 사람을 망국노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 경향은 지금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내의 우익 집단 가운데서 발생되고 있다.

(26)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내의 좌익 집단은 공산당이 령도하는 균중으로서 거기에는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및 도시 소부르조아 대중이 망라되어 있다. 우리의 임무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 집단을 확대하며 공고화하는 것이다. 이 임무의 완수는 국민당을 개조하며 정부를 개조하며 군대를

개조하는 기본 조건으로 되며,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을 창건하는 기본 조건으로 되며, 일면적 항전을 전면적 항전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되며, 일본 제국주의를 다도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27)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내의 중간 집단은 민족 부르조아지와 상층 소부르조아지이다. 상해의 여러 큰 신문들이 대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좌익에로 끌리고 있고<sup>[9]</sup> 부흥사 내의 일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CC단 내부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sup>[10]</sup>. 항전을 진행하고 있는 군대는 뼈저린 교훈을 받았으며 그 중의 일부 성원은 개조하기 시작하였거나 개조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중간 집단의 진보와 전환을 쟁취하는 것이다.

(28)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내의 우익 집단은 대지주와 대부르조아지이며 그것은 민족 투항주의의大本영이다. 그들은 전쟁이 자기들의 재산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 하는 한 편 민중이 끌기하는 것을 겁 내고 있으므로 그들의 투항적 경향은 필연적이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민족 반역자로 되었고 친일파로 되었으며 또는 친일파로 되려 하고 있거나 동요하고 있으며 특수한 사정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들만이 견결하다. 그들 가운데의 일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민족 통일 전선에 가담한 것은 꺾박에 못 이겨 또는 마지 못 하여 가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그들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부터 분열되어 나가게 될 날은 멀지 않다. 지금 대지주와 대부르조아지 가운데서 수 많은 가장 악질적인 분자들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요언 제조소이다.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켰다>느니 <팔로군이 퇴각하였다>느니 하는 따위의 요언은 금후 날로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민족적 투항주의를 건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이 투쟁 가운데서 좌익 집단을 확대 및 공고화하며 중간 집단의 진보와 전환을 쟁취하는 것이다.

### 계급적 투항주의와 민족적 투항주의와의 관계

(29) 항일 민족 혁명 전쟁에 있어서 계급적 투항주의는 사실 상 민족적 투항주의의 후비군이며 우익 진영을 원조하여 전쟁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는 가장 악랄한 경향이다. 중화 민족과 근로 대중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투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 내부와 프로레타리아트 내부에 있는 계급적 투항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 투쟁을 각 방면의 사업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 주 해

[1] 즉 1937년 8월 25일 섬서성 북부 탁천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현 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한 결정>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로구교에서의 전쟁 도발과 북징, 친진의 점령은 중국 본부에 대한 일본 침략자의 대규모적 진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침략자들은 전국적인 전시 동원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소위 <확대시키지 않겠다>

는 선전은 그 진공을 엄폐하는 인막단에 지나지 않는다. (2) 남경 정부는 일본 침략자들의 진공과 격분한 민심의 압박 하에서 항전할 결심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국방의 배치와 각지에서의 실제 항전도 이미 시작되었다. 중일 대전은 불가피하다. 7월 7일 로구교에서의 항전은 중국의 전국적인 항전의 기점으로 되었다. (3) 중국의 정치 정세는 이 때로부터 새로운 단계, 즉 항전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 섰다. 항전의 준비 단계는 이미 지나 갔다. 이 단계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업은 지나 간 단계에서 국민당이 동의하지 않고 또 민중의 동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지 못 하였다. 금후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행정에서 이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이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 우리와 국민당 및 기타 항일 파벌들과의 차이점 및 본질은 이미 항전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항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5) 오늘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중심적인 판건은 이미 발동된 항전을 전면적인 권 민족적 항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전면적인 권 민족적 항전만이 항전의 중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오늘 제기하는 항일 구국 10대 강령은 항전의 중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이다. (6) 오늘의 항전에는 매우 큰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국민당이 아직도 전국 인민을 항전에 참가하도록 동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항전을 단지 정부의 일로만 간주하며 처처에서 인민의 참전 운동에 겁을 내고 이를 제한하며 정부와 군대가 민중과 결합되는 것을 저애하며 인민들에게 항일 구국을 위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주지 않으며 정부를 전 민족적 국방 정부로 만들기 위한 정치 기구의 철저한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항전은 국부적인 승리는 얻을 수 있어도 중국적 승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이런 항전에는 엄중한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7) 목전의 항전에는 아직 엄중한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후의 항전 과정에 허다한 파절과 퇴각, 내부 분열과 배반, 일시적 및 국부적인 타협 등 불리한 정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전은 간고한 지구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동된 항전이 앞으로 우리 당과 전국 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온갖 장애물을 물리치고 계속 전진,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제기한, 항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10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강령과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방침을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실망하는 민주 패배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8) 공산당원 및 그

가 명도하는 민중과 무장력은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며 전국적 항전의 핵심으로 되어야 하며 최대의 역량으로 항일을 위한 군중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단 일자의 시간이라도,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천백만 대중을 민족 통일 전선에도 조직하기만 한다면 항일 전쟁의 승리는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2] 랑일 전쟁 초기에 국민당과 장 개석은 인민의 역량에 놀리어 각종 개혁에 관한 허다한 약속을 하였었다. 그러나 뒤'이어 그 약속을 날날이 저버리고 말았다. 당시 전국 인민이 바라고 있던 국민당의 개혁의《가능성》은 현실성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후에 와서 모 태동 동지가《연합 정부에 대하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당시 전국 인민들과 우리 공산당원들 및 기타의 민주 정당들은 모두 국민당 정부에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즉 그가 민족이 위기에 처하여 있고 민심이 분발된 시기를 타서 민주 개혁을 적극 실시하여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를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다》.

[3] 미산 혼련반이란 장 개석이 반동적 동지의 골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서성 미산에 설치하였던 국민당의 당 및 정부의 고급, 중급 인원들의 혼련반이다.

[4] 당시 장 내기는《호소를 적게 하고 제의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상 국민당이 인민을 억압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단순히 국민당에 대하여《세의》만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결기하여 국민당과 투쟁하도록 민중에게 직접《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일을 견지할 수 없었으며 또 국민당의 반동에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장 내기의 이 주장은 오류였다. 후에 와서 그는 점차 이 오류를 깨닫게 되었다.

[5] 즉 1937년 9월 25일의《공산당이 정부에 참가하는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 초안》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현하의 랑일 전쟁 정세는 권 민족적 랑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부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있어야만 랑일 민족 혁명 전쟁을 명도하는 데 유리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다. 공산당은 이러한 정부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즉 직접적, 공개적으로 정부의 행정 책임을 담당하며 또 그 내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 이러한 정부가 없다.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민당의 일당 독재의 정부이다. (2) 오직 국민당의 일당 독재의 정부가 권 인민적 통일 전선의 정부로 전환되었을 때, 즉 오늘날의 국민당 정부가 (7) 우

리 당이 제기한 항일 구국 10대 강령의 기본 내용을 접수하고 이 내용에 의하여 시정 강령을 발표하였을 때, (1) 이 강령을 실천할 성의와 노력을 실제 행동 상으로 표시하기 시작하고 이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2) 공산당 조직의 합법적 존재를 용허하며 공산당에게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교양할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때에야 중국 공산당은 이에 참가할 수 있다. (3) 당 중앙에서 중앙 정부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공산당원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참가하지 못 하며 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 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각종 행정 회의 및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 한다. 왜냐 하면 이런 데 참가하는 것은 공인히 공산당원의 면모를 모호하게 하고 국민당의 독재 통치물 연장시킬 뿐이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을 촉진하는 데 대하여 유해 무익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전쟁 지구와 같은 특수 지구의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구동치자들이 종전 대로 동치할 수 없게 되었고 공산당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공개적 활동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하고 있는 긴급한 정세는 공산당의 참가가 인민과 정부에 필요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일본 침략자의 절명 지역에 있어서 공산당은 더구나 공개적으로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조직자로 되어야 한다. (5) 공산당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참가하기 전에 있어서도 전국 국민 대회와 같은 민주주의적 헌법과 구국 방침을 토의하는 데의 기관에 참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전력을 다하여 자기의 당원들이 당선되어 대회에 참가하며 국민 대회의 언단을 띄우며 공산당의 주장을 선전함으로써 인민을 공산당 주위에 동원 조직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산당 중앙 및 지방 당부는 국민당 중앙 및 지방 당부와 일정한 공동 강령 및 완전 평등의 원칙 하에 각종 연합 위원회(백물 들면 국민 혁명 동맹회, 군중 운동 위원회, 전지 동원 위원회 등)와 같은 통일 전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이런 공동 행동을 통하여 국공 양당의 합작을 달성하여야 한다. (7) 홍군을 국민 혁명군으로 개칭하고 홍색 정권 기관을 독구 정부로 개칭한 후 그들의 대표들은 자기들이 이미 얻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항일 구국에 유리한 일체 군사적 및 대중적 기관에 참가할 수 있다. (8) 원래의 홍군 및 일체 유격대 내에서 공산당의 절대적인 독립적 행동을 보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공산당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상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당시 혁명 근거지 내의 인민 대표 회의의 정권 체도를 부르조아 국가

의 의회 제도로 개편시킬 것을 주장한 당내의 일부 동지들의 의견을 가리켜 말한다.

[7] 1934년 10월에 중앙 홍군이 복상한 후 남방의 강서, 복건, 광둥, 호남, 호북, 하남, 절강, 안휘 등 8 개 성 14 개 지구에 남아 있던 홍군 유격대들은 극히 곤란한 조건 하에서 유격 전쟁을 견지하고 있었다. 항일 전쟁이 폭발되자 그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국민당과 내전을 중지하고 1 개 군으로(즉 후에 장강 남북 일대에서 항일을 견지한 신사군이다) 편성되어 전선으로 나가 항일할 것을 담판하였다. 그러나 장 개석은 담판을 리용하여 이 유격대들 소멸하려고 음모하였다. 복건-광둥 접경 지구는 당시 14 개 유격구 중의 하나였고 하 명은 이 지구 유격대의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다. 하 명은 장 개석의 음모에 대하여 경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인솔한 1,000여 명의 유격대원들이 접경한 후 국민당에게 포위되어 무장 해제를 당하였다.

[8] 《해방 주간》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로서 1937년에 연안에서 창간되었는데 1941년에 《해방 일보》가 발간됨에 따라 폐간되었다.

[9] 당시의 《신보》 등 신문이 대표적인 일부 민족 부르조아지들 가리켜 말한다.

[10] 부흥사와 CC단은 장 개석과 진 텡부들 두목으로 하는 국민당 내의 두 개의 파벌 조직으로서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파두 몹치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부의 많은 소부르조아 분자들은 강박 당하였거나 기만 당하여 가입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사 내의 일부 사람이란 주로 당시의 국민당 군대 내의 일부 중급 및 하급 군관을 가리키며 CC단 내의 일부 사람들이란 주로 당시 권력을 잡지 못한 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 섬감녕 변구 정부 포고 제 8 로군 후방 류수처 포고

(1938년 5월 15일)

로구교 사변 이래 전국의 애국 동포들은 전결히 항전하고 있다. 전선 장병들은 생명을 바치며 피를 흘리고 있다. 각당, 각파는 성심 성의로 단결하고 있다. 각계 인민들은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일치 협력하여 나서고 있다. 이것은 중화 민족의 광명한 길이며 항일 승리의 튼튼한 담보이다. 전체 국민은 누구나 이 길을 따라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섬감녕 변구(1)의 군민은 정부의 령도에 복종하며 구국 위업에 힘 쓰고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공명正大하다. 그들은 고생을 무릅쓰고 간고 분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 인민들은 이구 동성으로 그들을 찬양하고 있다.

• 이 포고문은 모택동 동지가 섬감녕 변구 정부와 팔로군 류수처를 위하여 쓴 것인데 그 목적은 장 개석 도당의 파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공 합작이 성립되어 얼마 되지 않은 그 당시 장 개석 도당은 벌써 공산당이 명도하는 혁명 력량을 파괴하며 음모하고 있었다. 섬감녕 변구를 파괴하려던 것은 이런 음모의 일부분이었다. 모택동 동지는 혁명의 퇴색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진정한 필장을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포고는 당시 당내의 일부 동지들이 항일 통일 전선 내에서 장 개석 도당의 음모 활동에 대하여 취한 기회주의적 필장에 타격을 주었다.

본 정부와 본 류수처도 오직 전 변구의 민중을 격려하여 계속 노력함으로써 이를 관철하여 나가도록 할 것인바 자기 직책을 다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며 구국 위업에 불리한 일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변구 경내에 대국을 돌보지 않는 도배들이 각종 방법으로 혹은 이미 부여된 토지와 가옥들을 반환하도록 농민을 강박하고 있으며 혹은 이미 폐기된 채무를 반환하도록 채무자를 강박하고 있으며(2) 혹은 이미 수립된 민주주의 제도를 개변하도록 인민을 강박하고 있으며 혹은 이미 전립된 군사, 경제, 문화 및 민중 단체의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는 밀정질을 하며 토비와 내통하며 부대의 반란을 선동하며 지도를 작성하며 정황을 비밀리에 조사하며 변구 정부를 반대하는 선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상술한 온갖 행위들은 단결하여 항일한다는 기본 원칙에 배치되고 변구 인민의 공동 의사에 배치되는 것이며 내부 분쟁을 조작하여 통일 전선을 파괴하고 인민의 리익을 해치고 변구 정부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항일 력량의 동원에 곤란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 살펴보건대 그 원인은 전'적으로 소수의 완고 분자들이 민족과 국가의 리익을 돌보지 않고 자의로 망동하는 데 있다. 심지어 일본 침략자에게 리용되어 어떤 명의를 빌어 가지고 그 음모 활동을 엄폐하는 도구로 삼는 자까지 있다. 수개월 이래 각 현의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빈번히 보고하여 왔으며 이를 제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되어 미처 처리할 시간이 없을 지경이다. 본 정부와 본

류수처는 항일 력량을 강화하며 항일 후방을 공고화하며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상술한 행위를 취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백히 포고한다.

(1) 국내의 평화가 시작될 때 변구 관할 지역 내에서 이미 부여한 일체의 토지, 가옥 및 이미 폐기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 정부와 본 류수처는 인민들의 이미 얻은 리익을 수호할 것이며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2) 국내의 평화가 시작될 때 이미 건립되어 있었거나 그 후 항일 민족 동일 전선의 원칙에 의하여 개진 발전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조직과 기타 민중 단체에 대하여 본 정부와 본 류수처는 그 활동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에 대한 일체의 음모, 파괴 행위를 제지한다.

(3) 항일 구국에 유리한 사업이라면 본 정부와 본 류수처는 《항전 건국 강령》을 건결히 집행하는 원칙 하에서 무엇이든 기꺼이 수행할 것이다. 선의적으로 협조하는 각계 인사들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본 정부 혹은 본 류수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본 정부 혹은 본 류수처의 증명서가 없이 외부로부터 변구 경내에 들어 와 머물러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행위를 방지하며 간첩과 앞잡이를 막기 위하여 그것이 어떤 활동임을 불문하고 일률로 금지한다.

(4) 항전이 긴장한 이 시기에 변구 경내에서 음모, 파괴 활동에 종사하거나 함부로 교란 활동을 하거나 유혹 선동하거나 군사 정보를 비밀리에 탐지하는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인민들이 이를 고발하는 것을 허락한다. 증거가 확실한 자에 대하여서는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심문한 결과 사실이 실증되면 용서 없이 일률로 엄벌에 처한다.

우에 열거한 4 개 조목을 변구 전체 군민들은 일률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불법 도배들이 감히 교란하려고 책동한다면 본 정부와 본 류수처는 언명한 그 대로 법을 적용할 것인즉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 절실히 준수하기를 바란다. 이에 포고한다.

## 주 해

[1] 섬감녕 변구란 본래 1931년 이후 섬서성 북부의 혁명 유격 전쟁에서 점차 발전한 혁명 근거지이다. 중앙 홍군이 장정을 하여 섬서성 북부에 도착한 후 이 곳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소재지로, 혁명의 중심 근거지로 되었다. 1937년에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 결성된 후 섬감녕 홍색 구역은 섬감녕 변구로 개칭되었으며 연안, 부현, 감천, 연천, 연강, 안경(지금의 자강), 안새, 지단, 정변(靖邊), 신복, 부곡, 정변(定邊), 순읍, 순화, 환현, 경양, 합수, 진원, 녕현, 정녕, 엄지, 수덕, 성간, 오보, 미지, 가현 등 도합 20여 개 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2] 본래 섬감녕 변구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하며 농민들이 원래 지고 있던 채무를 폐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었다. 1936년 이후 광범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으로 소작토 인하, 리자 인하의 정책으로써 지주 토지 몰수 정책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지 개혁에서 이미 얻은 권위물에 대하여서는 건결히 보장하여 주었다.

# 함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

(1938년 5월)

## 제 1 장 어째서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를 제기하는가

함일 전쟁에서 정규 전쟁은 주되는 것이고 유격 전쟁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정확한 해결을 가져 왔다. 그렇다면 유격 전쟁에는 전술 문제 밖에 없을 것인데 어째서 전략 문제를 제기하는가?

가령 우리 나라가 작은 나라여서 유격 전쟁이 정규군의 전역 작전에 있어서 그저 근거리에서의 직접적인 배합적 역할이나 늘 뿐이라고 한다면 물론 전술 문제만 있을 것이고 전략 문제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또 가령 중국이 쓰런처럼

---

• 함일 전쟁 초기에 당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유격 전쟁의 중대한 전략적 역할을 경시하고 자기의 희망을 정규 전쟁에만, 특히 국민당 군대의 작전에만 걸고 있었다. 모택동 동지는 이러한 견해를 논박하였으며 동시에 이 글을 써서 함일 유격 전쟁 발전의 정확한 길을 제시하였다. 그 전과 함일 시기에 있어서 1937년에 겨우 4만여 명이던 팔로군과 신사군이 1945년에 일본이 투항할 때에는 100만 명의 대군으로 발전되고 또 허다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여 함일 전

그렇게 강대하여 적이 쳐 들어 와도 그것을 속히 몰아 낼 수 있거나 시일은 비교적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점령 당한 지역이 넓지 않아 유격 전쟁은 역시 전역에 있어서의 배합적 역할을 늘 뿐이라고 한다면 물론 전술 문제만 있을 것이고 전략 문제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하여 생긴다. 즉 중국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쓰련과 같은 나라도 아니며 크지만 약한 나라이다. 크지만 약한 이 나라가 작지만 강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크지만 약한 이 나라는 진보하는 시대에 처하여 있다. 이 점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 사정으로 하여 적이 매우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는 현상이 생겼고 전쟁의 장기성도 생겼다. 적은 우리의 이 큰 나라에서 매우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가 작다 보니 병력이 부족하여 점령 지구에 많은 공간을 남겨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유격 전쟁은 주로 내선에서 정규군의 전역 작전에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외선에서 단독적으로 작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즉 공산당이 령도하는 건강한 군대와 광범한 인민 대중이 있기 때문에 항일 유격 전쟁은 소규모적인

---

쟁 행정에서 위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리 하여 장 개석으로 하여금 항일 시기에 감히 일본에 투항하지도 못 하고 전국적 규모의 내전을 일으키지도 못 하게 만들었고 1946년에 장 개석이 전국적 규모의 내전을 일으켰을 때에 와서는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편성된 인민 해방군은 장 개석의 권공에 대처할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것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등등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의 장기성, 또 이에 따르는 잔혹성은 유격 전쟁으로 하여금 많은 비범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래서 근거지 문제, 운동전으로 발전하는 문제 등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항일 유격 전쟁은 전술의 범위에서 벗어나 전략의 문을 두드리면서 유격 전쟁의 문제를 전략적 견지에 놓고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이처럼 광범하고도 지구적인 유격 전쟁은 전 인류의 전쟁사에서도 매우 새로운 일이라는 점이다. 이 일은 시대가 20 세기의 30~40 년대로 발전되었다는 사실과 갈라 놓을 수 없으며 공산당 및 홍군의 존재와 갈라 놓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 아마 우리의 적은 아직도 원조가 송조를 멸망시키고 청조가 명조를 멸망시키고 영국이 북아메리카와 인도를 점령하고 라틴 국가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점령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꿈은 오늘의 중국에서는 벌써 현실적 가치가 없어졌다. 왜냐 하면 오늘의 중국은 상술한 역사에는 없었던 약간의 것들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새로운 유격 전쟁이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의 적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정코 이 점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일 유격 전쟁이 전반 항일 전쟁에서 여전히 보조적 지위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략적 견지에

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그러면 어째서 항일 전쟁의 일반적 전략 원칙들을 유격 전쟁에 적용하지 않는가?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는 본래 전반 항일 전쟁의 전략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으며 허다한 점에서 량자는 일치하다. 그러나 유격 전쟁은 또 정규 전쟁과 구별되는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에는 특수한 것들이 썩 많다. 항일 전쟁의 일반적 전략 원칙들은 결코 특수한 정형의 유격 전쟁에 그 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제 2 장 전쟁의 기본 원칙은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것이다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선 전쟁의 기본 문제를 말하여야 하겠다.

모든 군사 행동의 지도 원칙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렲량을 보전하고 적의 렲량을 소멸하는 이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다. 이 원칙은 혁명 전쟁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항일 전쟁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 즉 정치적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독립, 자유, 행복의 새 중국을 창건하는 것이다. 이를 군사 상에서 실행하면 그것은 즉 군사력으로써 조국을 보위하며 일본 침략자를 몰아 내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 자체의 행동에 있어서 그것은 한 편



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력량을 보전하는 것으로, 다른 편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의 력량을 소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전쟁 행정에서 용감한 희생은 창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매차의 전쟁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때로는 극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를 보전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기실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대립되는 동시에 통일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희생은 비단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분적, 일시적인 《불보전》(희생 또는 지불)은 전체적, 영구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전반적 군사 행동을 지도하는 일련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사격 원칙(몸을 은폐하고 화력을 발휘하는 것——전자는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서이고 후자는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서이다)으로 부터 전략적 원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기본적 원칙의 정신이 판통되고 있다.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원칙들은 모두 이 기본적 원칙을 실행하는 때의 조건이다.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원칙은 모든 군사 원칙의 근거이다.

### 제 3 장 함일 유격 전쟁의 여섯 가지 구체적 전략 문제

이제 우리는 함일 유격 전쟁의 군사 행동에서 어떠한 방

침 또는 원칙을 취하여야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항일 전쟁에서(나아가서는 일제 혁명 전쟁에서) 유격대는 일반적으로 없는 데로부터 있는 데로, 작은 데로부터 큰 데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전하는 외에 또한 자기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떠한 방침 또는 원칙을 취하여야 자기를 보전하거나 발전시키고 적을 소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총적으로 말한다면 주요한 방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방어전에서의 진공전, 지구전에서의 속결전, 내선 작전에서의 외선 작전의 주동적이고 령활하고 계획적인 집행, (2) 정규 전쟁과의 배합, (3) 근거지의 창설, (4)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5) 운동전제로의 발전, (6) 정확한 지휘 관계 등이다. 이 여섯 가지는 전반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적 강령이며 자기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며 적을 소멸하고 구축하며 정규 전쟁과 배합하여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길이다.

#### 제 4 장 방어전에서의 진공전, 지구전에서의 속결전, 내선 작전에서의 외선 작전의 주동적이고 령활하고 계획적인 집행

여기서 또 이것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1) 방어와 진공, 지구와 속결, 내선과 외선과의

관계, (2) 일체 행동에 있어서의 주동적 지위의 확보, (3) 병력의 령활한 사용, (4) 일체 행동의 계획성.

우선 첫째 것을 말하여 보자.

전반 항일 전쟁에 있어서 일본 침략자는 강한 나라로서 진공을 하며 우리는 약한 나라로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상에서 방어전과 지구전을 하게 된다. 작전선으로 말한다면 적은 외선 작전을 하며 우리는 내선 작전을 한다. 이것은 한 개 면의 정형이다. 그러나 다른 한 개 면에 있어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적군은 비록 강하지만(무기와 인원의 어느 정도의 소질과 약간의 조건에 있어서) 수효가 많지 못 하며 아군은 비록 약하지만(마찬가지로 다만 무기와 인원의 어느 정도의 소질과 약간의 조건에 있어서) 수효가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 적들은 타민족으로서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으며 우리는 자국에서 타민족의 침입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 조건을 가산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침이 결정된다. 즉 전략적으로는 방어전을 하면서 전역 및 전투에서는 진공전을 하며 전략적으로는 지구전을 하면서 전역 및 전투에서는 속결전을 하며 전략적으로는 내선 작전을 하면서 전역 및 전투에서는 외선 작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반 항일 전쟁에서 취하여야 할 전략적 방침이다. 정규 전쟁에서도 이렇하고 유격 전쟁에서도 이렇하다. 유격 전쟁에서 다른 것이라면 정도 상 혹은 표현 형태 상에서의 문제 뿐이다. 유격 전쟁은 일반적으로 습격의 형태로써 그 진공을 표현한다. 정규 전쟁도 습격전을 하여야 하며 또 할 수도 있으나

적에 대한 불의의 습격 정도가 비교적 작다. 유격전에 있어서 속결성의 요구는 매우 크고 전역 및 전투에서 적을 포위하는 외선권은 아주 작다. 이 모든 것은 정규전과 상이한 점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격대의 작전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병력을 집중하고 은밀하고도 신속한 행동을 취하여 적을 불의에 습격함으로써 전투를 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소극적 방어를 극력 삼가며 시간의 지연을 극력 삼가며 싸움에 림하여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력 삼가야 한다. 물론 유격 전쟁에도 전술 상의 방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 상의 방어도 있다. 전투 때의 전제 면과 경계 면 그리고 협로, 요해지, 하천 혹은 촌락 등에서 적에게 소모를 주고 적을 피로하게 하기 위한 저항 배치와 퇴각 때의 부대 엄호 등등은 모두 유격 전쟁에서의 전술 상의 방어 부분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의 기본 방침은 진공이어야 한다. 정규 전쟁에 비하면 그 진공성은 더욱 크다. 또 이러한 진공은 기습이어야 한다. 야단 법석하면서 자기를 폭로하는 것은 정규전에 서보다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유격 전쟁에서도 어떤 고립 무원한 작은 적을 공격할 때와 같이 전투를 수일 동안 견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작전은 일반적으로 정규전보다 전투를 급속히 해결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 이것은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정형에 의하여 규정 지어진 것이다. 유격 전쟁은 본래 분산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보편적인 유격전으로 되며 또한 교란, 전제, 파괴 및 군중 공작 등과 같은 허다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두 병력 분산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하나의 유격 부대 혹은 유격 병단을 두고 말하면 적을 소멸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특히 적의 진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는 여전히 그 주요 병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큰 힘을 집중하여 적의 작은 부분을 친다》는 것은 여전히 유격 전쟁에서의 전장 작전의 원칙의 하나로 된다.

또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 항일 전쟁에서 볼 때에 오직 정규전 및 유격전의 전역과 전투에서의 진공전을 많이 거듭하여야만, 즉 진공전에서 승전을 많이 하여야만 전략적 방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할 수 있다. 오직 전역과 전투에서의 축결전을 많이 거듭하여야만, 즉 많은 전역과 전투에서의 진공전에서 급속히 전투를 해결하여 승리를 얻어야만 전략적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간을 쟁취하여 항전의 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정세의 변동과 적의 내부적 붕괴를 촉진하고 또 그것을 기다려 전략적 반공을 진행하여 일본 침략자를 중국으로부터 몰아 낼 수 있다. 또한 매차의 싸움에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고 전략적 방어 시기거나 전략적 반공 시기거나를 물론하고 일물로 전역과 전투에서의 외선 작전을 취하여 적을 포위 소멸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 전부를 포위할 수 없으면 일부라도 포위하며 포위한 적을 전부 소멸할 수 없으면 그 일부라도 소멸하며 포위한 적을 다량적으로 포로할 수 없으면 그 적에게 다량적인 살상이라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심멸전을 많이 거듭하여야만 적아의 형세를 전환시켜 적의 전략적 포위, 즉 적의 외선 작전 방침을

근본적으로 격파하고 최후로는 국제적 역량 및 일본 인민의 혁명 투쟁과 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공동으로 포위 진공함으로써 그를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정규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며 유격전은 부차적인 기여를 할 따름이다. 그러나 많은 작은 승리를 모아 큰 승리로 되게 하는 것은 정규전에서도 유격전에서도 공동하다. 유격 전쟁이 항일 과정에서 위대한 전략적 역할을 논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유격 전쟁의 주동성, 평활성, 계획성 문제를 말하여 보기로 하자.

유격 전쟁의 주동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전쟁에서 적아 쌍방은 모두 전장, 전지, 전구 내지 전반 전쟁에서의 주동권을 쟁취하려고 애를 쓴다. 이 주동권이 바로 군대의 자유권인 것이다. 군대가 주동권을 잃고 하는 수 없이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되면 이 군대는 자유가 없으며 소멸 당하거나 패배 당할 위험성이 있다. 본래 전략적 방어전과 내선 작전에서는 주동을 쟁취하기가 비교적 곤란하며 진공적 외선 작전에서는 주동을 쟁취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즉 병력 부족과 타국에서의 작전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량에 대한 그들의 평가 부족 및 일본 군벌의 내부적 모순으로 인하여 그들의 지휘에는 허다한 오류가 생겼다. 케컨대 병력을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 전략적 협동이 결여한 것, 어떤 시기에는 주공 방향이 없는 것, 어떤 작전에서는

시기를 놓치는 것과 또 포위는 하나 섬멸하지 못 하는 것 등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세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력의 부족(나라가 작은 것, 인구가 적은 것, 자원이 부족한 것, 봉건적 제국주의인 것 등등을 포함함), 타국에서의 작전(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야만성 등등을 포함함), 지휘의 졸렬성 등으로 인하여 일본 군벌은 진공전과 외선 작전의 유리한 지위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 주동권이 나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일본은 아직 전쟁을 끝내려고도 하지 않거니와 끝 낼 수도 없으며 그의 전략적 진공도 아직 중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세의 추향을 보면 그의 진공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이것은 세 가지의 약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바 전 중국을 한정 없이 집어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이 완전히 피동적인 지위에 처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형은 이미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 측은 전쟁 초기에 아주 피동에 처하여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경험을 얻어 새로운 운동전의 방침, 즉 전역과 전투에서의 진공전, 속결전 및 외선 작전의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게다가 유격전을 보편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동적 지위가 나날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유격 전쟁의 주동권 문제는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격대는 대부분 경우에 엄중한 환경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후방이 없이 작전하는 상태,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상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것은 새로 성립된 유격대들을 말함) 및 불통일 상태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

은 그 주동권을 확립할 수 있다. 그 주요한 조건은 우에서 말한 적의 세 가지 약점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들의 병력이 부족한 약점(전반 전쟁으로 보아)을 타서 유격대는 대담히 광대한 활동 지구를 쟁취할 수 있으며 그들이 타민족이고 또 극단적인 야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약점을 타서 유격대는 대담히 수천 수백만 인민들의 지지를 쟁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지휘가 혼란한 약점을 타서 유격대는 대담히 자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정규군도 적의 이 모든 약점을 포착하여 적을 타승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아야 하지만 유격대는 특히 이 점을 포착하는 데 류의하여야 한다. 유격대 자체의 약점은 투쟁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점이 때로는 주동적 지위를 쟁취하는 조건으로도 된다. 례를 들면 그 자신이 약소하기 때문에 비로소 적의 후방에서 신출귀몰하면서 적을 어찌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자유는 방대한 정규군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유격대의 주동권은 적이 여러 갈래로 포위 공격을 하여 올 경우에는 장악하기 힘들고 잃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판단과 조치가 부당하면 피동에 빠지기 쉬우며 따라서 적의 포위 공격을 격파하지 못 하게 된다. 적이 수세를 취하고 우리가 공세를 취할 때에도 이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동권은 정형의 정확한 판단(적의 쌍방의 정형) 및 정확한 군사, 정치적 조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객관적 정형에 부합되지 않는 비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르는 소극적인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주동권을 잃고 자신을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



고 만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정형에 부합되지 않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르는 모험(필요치 않은 모험)적인 조치도 역시 주동권을 잃고 나중에는 비판자의 일로를 걷게 된다. 주동권이란 어떤 천재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지도자가 객관적 정형을 허심하게 연구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군사적 및 정치적 행동을 정확히 취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성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단과 조치의 오류로 인하여, 혹은 불가항력적 압력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된 때의 임무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피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하히 벗어나 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의 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허다한 정형 하에서는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갈 줄 아는 것은 바로 유격대의 특징이다. 가는 것은 피동으로부터 벗어나 주동을 회복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적이 몹시 날뛰고 우리가 아주 곤란한 그 때가 바로 적이 불리하게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유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때이다. 유리한 정형 및 주동의 회복은 《좀더 전지하는》 노력으로부터 산생되는 그러한 경우가 흔히 있다.

이제 병활성에 대하여 말하여 보기로 하자.

병활성이란 주동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병력을 병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규 전쟁보다 유격 전쟁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

병력의 령활한 사용은 적아의 정세를 전변시켜 주동적 지위를 쟁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유격 전쟁의 특성에 근거하여 병력의 사용은 반드시 임무와 적정, 지형, 주민 등 조건에 따라 령활하게 변동하여야 한다. 그 주요한 방법은 병력의 분산적 사용, 집중적 사용 및 병력 이동이다.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유격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치 어부가 그물질 하듯이 던질 줄도 알아야 하고 권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에 물의 깊이와 유속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유격대를 분산하여 사용할 때에도 정황의 불명, 행동의 파오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어부가 그물을 걷기 위하여 벚리'줄을 틀어 쥐어야 하는 것처럼 부대를 사용할 때에도 통신 연락을 확보하며 또 일정한 수량의 주력을 자기 수중에 두어야 한다. 그물질을 할 때 자주 자리를 옮겨야 하듯이 유격대도 자주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분산, 집중 및 이동은 유격 전쟁에서 병력을 령활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유격대의 분산적 사용, 즉 《하나를 여럿으로 나눈다》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적용한다. (1) 적이 수세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은 병력을 집중하여 그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적의 넓은 정면에 위협을 주려고 할 때, (2) 적의 병력이 약한 지구에서 보편적으로 교란과 파괴를 하려고 할 때, (3) 적의 포위 공격을 격파할 수 없게 되어 목표를 작게 함으로써 적의 포위로부터 벗어

나려고 할 때, (4) 지형 혹은 급양의 제한을 받을 때, (5) 광대한 지역에서 민중 운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분산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병력의 절대적인 평균 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큰 일부분의 병력을 적당한 행동 지구에 남겨 두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있을 수 있는 사변에 대처하기 위하여서이며 다음으로, 병력을 분산하여 집행하는 임무에 중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2) 분산한 각 부대에 임무, 행동 지구, 행동 기간, 집합 지점, 연락 방법 등을 명확히 지시하여 주어야 한다.

병력의 집중적 사용, 즉 《여럿을 하나로 합친다》는 방법은 대개 적이 진공하여 올 때에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적이 수세를 취하고 있을 때 주둔하고 있는 어떤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서도 사용한다. 병력을 집중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집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력을 집중하여 어느 중요한 방면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 방면에는 견제, 교란, 파괴 혹은 민중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을 남겨 두거나 파견한다.

정황에 따라 병력을 명활하게 분산하거나 집중하는 것은 유격 전쟁의 주요한 방법이지만 또 병력을 명활하게 이동(전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적들은 유격대가 자기들에게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군대를 출동시켜 그것을 진압하려 하거나 진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격대는 정형을 고려하여 싸울 만 하면 당지에서 싸우고 싸울 수 없으면 시기

를 놓치지 말고 속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때로는 적을 각개 격파하기 위하여 방금 이 곳에서 적을 소멸하고 나서 즉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적을 소멸하기도 하며 또 이 곳에서 전투하기가 불리하면 즉시 이 적을 벗어 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투하기도 한다. 만일 적정이 특히 엄중하면 유격 부대는 한 곳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나 세찬 바람처럼 신속히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력의 이동은 은밀히, 신속히 하여야 한다. 항상 묘한 방법으로 적을 기만하고 유인하며 미혹시켜야 한다. 레를 들면 동쪽을 치는 척 하고 서쪽을 치는 것, 남에서 번쩍 북에서 번쩍하는 것, 얼른 치고 얼른 풀러 서는 것, 야간 행동을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분산, 집중, 이동의 령활성은 유격 전쟁에서 주동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변통성이 없거나 멍하니 있으면 필연코 피동적 지위에 빠지게 되어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지도자의 현명성은 병력을 령활하게 사용하는 중요성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형에 따라 병력을 제때에 잘 분산, 집중, 이동하는 데 있다. 정황을 잘 판단하고 시기를 잘 선택하는 이러한 현명성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오직 허심하게 연구하며 자주 고찰하고 사색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현명성을 가질 수 있다. 령활이 망동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성 문제를 말하여 보기로 하자.

유격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그 계획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여 보려는 생각은 유격 전쟁을 장난'거리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격 전쟁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여 줄 뿐이다. 전반 유격구의 행동이거나 개개의 유격 부대 또는 유격 병단의 행동이거나를 물론하고 사전에 될 수 있는 한 주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체 행동의 사전 준비 사업이다. 정황의 료해, 임무의 확정, 병력의 배치, 군사 및 정치 교양의 실시, 급양의 준비, 장비의 정비, 민중 조건의 배합 등등이 모두 지도자들의 면밀한 고려, 착실한 집행 및 집행 정도의 검열 등 사업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없이는 주동이니, 령활이니, 진공이니 하는 등등이 모두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규 전쟁의 계획성은 보다 큰 것이고 유격 전쟁의 조건은 큰 계획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유격 전쟁에서 고도로 되는 주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허락하는 정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주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적과의 투쟁은 장난'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술한 것들은 유격 전쟁의 전략 원칙의 첫째 문제——방어전에서의 진공전, 지구전에서의 속결전, 내선 작전에서의 위선 작전을 주동적으로, 령활하게,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유격 전쟁의 전략 원칙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유격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 지도 면에서 중요한 보장을 얻게 된다.

여기서 비록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이 모든 것은 전

역과 전투에서의 진공을 에워 싸고 있는 것이다. 주동적 지위는 진공에서 승리한 후에라야 종국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진공전이나 주동적으로 조직하여야 하지 할 수 없이 진공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병력의 명철한 사용은 진공전을 위하여라는 이 중심을 에워 싸는 것이며 계획성이 필요한 것도 주로 진공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전술 상의 방어 수단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진공을 협조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속결이란 진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외선이란 진공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진공은 적을 소멸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자기를 보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단순한 방어와 단순한 퇴각은 자기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 부분적 역할을 늘 뿐이고 적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 원칙은 정규 전쟁에서나 유격 전쟁에서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그 표현 형태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에서 이 차이점에 주의를 돌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상이한 표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격 전쟁의 작전 방법이 정규 전쟁의 작전 방법과 구별된다. 이 상이한 표현 형태를 혼동하여서는 유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 제 5 장 정규 전쟁과의 배합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의 둘째 문제는 정규 전쟁과의 배

합 문제이다. 이것은 유격 전쟁의 구체적 행동의 성격에 의거하여 작전에서의 정규 전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적을 성과적으로 타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유격 전쟁과 정규 전쟁과의 배합에는 전략적 배합, 전역적 배합 및 전투적 배합 등 세 가지가 있다.

전반 유격 전쟁이 적의 후방에서 적을 약화시키고 적을 견제하고 적의 운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정규군과 전국 인민에게 정신적 고무를 주는 등등은 전략 상에서 정규 전쟁에 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3성의 유격 전쟁은 전국적인 항전이 일어 나기 이전에는 물론 배합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항전이 일어난 후에는 배합의 의의가 뚜렷이 나타났다. 동3성의 유격대가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적의 탄환을 한 알이라도 더 소모시키고 적을 한 명이라도 더 견제하여 산해관 이남으로 내며 오지 못 하게 하면 전반 항전에 대하여 그 만큼 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적군과 적국에 주는 정신 상의 불리한 영향 및 전체 아군과 인민에게 주는 정신 상의 좋은 영향도 아주 뚜렷한 것이다. 평수(북평-수원), 평한(북평-한구), 진포(천진-모구), 동포(대동-모주), 정태(정정-태원), 호항(상해-함주) 제 철도 연선의 유격 전쟁이 노는 전략적인 배합적 역할은 더욱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적이 전략적 진공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정규군과 배합하여 전략적 방어의 역할을 높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이 전략적 진공을 끝 내고

점령지에 대한 수비에로 전환할 때에 정규군과 배합하여 적의 수비를 방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규군이 전략적 반공을 진행할 때에 정규군과 배합하여 적군을 격퇴하고 잃은 땅을 전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전략 상에서의 유격 전쟁의 거대한 배합적 역할을 홀시하여서는 안 된다. 유격내외 정규군의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유격 전쟁은 또 전역적인 배합적 역할도 논다. 예를 들면 태원 북부의 혼구 전역 때에 안문관 남북의 유격 전쟁이 동포 철도, 평형관 자동차 도로, 양방구 자동차 도로를 파괴함으로써 논 전역적인 배합적 역할은 매우 컸다. 또 예를 들면 적이 풍릉도를 점령한 후에 산서성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된 유격 전쟁(주로 정규군에 의하여 진행되었다)이 섭서, 하남 두 성의 황하 서남 량안을 따라 전개된 방어전에 배합한 전역적인 배합적 역할은 더욱 컸다. 또 예를 들면 적이 산동성 남부를 진공할 때에도 진 화북 5 개 성의 유격 전쟁이 산동성 남부에서의 아군의 전역적 작전에 배합하여 상당한 힘을 바쳤다.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적의 후방에 있는 모든 유격 근거지의 지도자들이나 립시로 파견된 유격 병단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력량을 잘 배비하고 그 때 그 지방의 정형에 따라 각이한 방법으로 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점 및 약한 점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적을 약화시키며 적을 선제하며 적의 운수를 방해하며 내선의 각개 전역 작전군을 정신적으로 고무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그 전역적 배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유격구 혹은 각 유격대가 전역적 작전의 배합을 돌보지 않고 제가꿈 행동한다면 전반 전략적 작전에서는 여전히 그 배합적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전역적 작전의 배합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전략적 배합의 의의가 감소된다. 모든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비교적 큰 모든 유격 부대와 유격 병단에 보편적으로 무선전 통신을 설치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투적 배합, 즉 전장 작전의 배합은 내선 전장 부근에 있는 모든 유격대의 임무이다. 이것은 물론 정규군에 접근하여 있는 유격대 혹은 정규군에서 립시로 파견된 유격대에 국한된다. 이러한 경우에 유격대는 정규군 지휘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흔히 일부의 적에 대한 견제, 적의 운수에 대한 방해, 적정 정찰, 길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규군 지휘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도 유격대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여야 한다. 보고도 모르는 채 하거나 류동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거나 류동만 하고 싸우지 않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제 6 장 근거지의 창설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의 세째 문제는 근거지의 창설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쟁의 장기성과 잔혹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전국적인 전략적 반공을 진행

할 때에 가서야 잃은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의 전선이 우리 나라의 중부에서까지 깊이 들어 오고 또 그것을 중단하게 되어 국토의 거의 절반이나 심지어는 태반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적의 후방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적에게 점령 당한 이처럼 광대한 지역에서 보편적인 유격 전쟁을 일으켜 적의 후방마저 그들의 전선으로 되게 함으로써 적이 자기의 전 점령지 내에서 전쟁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반공이 진행되지 않는 한, 잃은 땅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적후의 유격 전쟁도 그냥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것만은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장기성이다. 동시에 적들은 점령지의 리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코 유격 전쟁에 날로 더 혹심하게 대처할 것이며 특히 자기의 전략적 진공을 중지한 후에는 필연코 유격대를 잔혹하게 탄압할 것이다. 이처럼 장기성에 잔혹성까지 더 첨가되는 만큼 적후에 처하여 있는 유격 전쟁은 근거지가 없이는 유지하여 나갈 수 없다.

유격 전쟁의 근거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격 전쟁이 그에 의하여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며 자기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고 적을 소멸하고 몰아 내는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기지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지가 없으면 일체 전략적 임무의 집행 및 전쟁 목적의 실현은 그 지탱점을 잃게 된다. 후방이 없이 작전하는 것은 본래 적후 유격 전쟁의 특성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국가의 총후방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지가 없이는 유격 전쟁이 장기적으로 존재, 발전할 수 없다. 이러한 근거지가 바로 유격 전쟁의 후방이다.

력사 상에는 허다한 류구주의적인 농민 전쟁이 있었으나 다 성공하지 못 하였다. 교통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류구주의로써 승리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더구나 더무니 없는 환상이다. 그러나 류구주의는 오늘의 파산 당한 농민들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의식이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의 두뇌에 반영되어 근거지가 필요 없다는, 혹은 근거지를 중시하지 않는 사상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의 두뇌 속에 있는 류구주의를 퇴치하는 것은 근거지 창설의 방침을 확정하는 전제이다. 근거지가 필요하다 혹은 필요 없다, 근거지를 중시한다 혹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문제, 다시 말하면 근거지 사상과 류구주의 사상의 투쟁 문제는 어떠한 유격 전쟁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항일 유격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역시 예외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류구주의와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일 것이다. 오직 류구주의를 철저히 퇴치하며 근거지 창설의 방침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실시하여야만 유격 전쟁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

근거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니 만큼 다음에 설명할 문제는 근거지를 창설함에 있어서 인식하여야 하며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한 문제들로는 몇 가지 근거지, 유격구와 근거지, 근거지 창설의 조건, 근거지의 공고화와 발전, 적아 간의 몇 가지 포위 형태 등이 있다.

## 제 1 절 몇 가지 근거지

항일 유격 전쟁의 근거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즉 산지대와 평지대 그리고 하천, 호소, 하구 지대이다.

산지대에 근거지를 창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미 창설된 혹은 지금 창설하고 있거나 창설하려 하고 있는 장백산[1], 오대산[2], 태항산[3], 태산[4], 연산[5], 모산[6] 등의 근거지가 모두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지들은 항일 유격 전쟁을 가장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장소들일 것이며 항일 전쟁의 중요한 성채들일 것이다. 우리는 적후에 있는 모든 산악 지대에서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

평지대는 산지대에 비하여 물론 좀 못하다. 그러나 결코 유격 전쟁을 발전시킬 수 없거나 여하한 근거지도 창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북 평원, 산동성의 북부 및 서북부의 평원에서는 이미 유격 전쟁이 광범히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평지대에서도 유격 전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증거이다. 평원 지구에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점은 아직까지 실증된 것이 없다. 그러나 임시적 근거지 및 소부대의 혹은 계절성의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자는 이미 실증되었고 후자도 가능하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

면 한 편으로 적들은 병력이 배비하기에 부족하고 또 전대미문의 야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 중국은 광대한 땅이 있고 또 수 많은 함일 인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평원에서 유격 전쟁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립시적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또 적절한 지휘라는 조목을 더 첨가한다면 소부대의 비교적적인 장기적 근거지의 창설은 물론 가능하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7]. 대체로 적이 그 전략적 진공을 끝내고 점령지를 수비하는 단계에로 넘어 설 때에 일체 유격 전쟁 근거지에 대한 잔혹한 진공이 닥쳐 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평원 지대의 유격 근거지가 먼저 그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때 평원 지대에서 활동하던 큰 유격 병단은 원래의 지대에서 장기적으로 작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정황에 따라 산지대로 점차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북 평원으로부터 오대산과 태항산으로 이동하고 산동 평원으로부터 태산과 교동 반도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작은 유격 부대가 남아서 광대한 평원의 각 현에 분산되어 류동 작전을 하는 것은, 즉 근거지를 옮기면서 한때는 이 곳에서 한때는 저 곳에서 작전하는 방법은 민족 전쟁의 조건 하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름철의 무성한 초목과 겨울철의 얼어 붙은 강을 리용하는 계절적인 유격 전쟁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단언코 가능한 것이다. 지금 적의 힘이 채 미치지 못 하며 또 앞으로로도 살살이 미치기가 힘 든 조건 하에서, 지금은 평원 지

대의 유격 전쟁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립시적 근거지를 창설하고 앞으로는 소부대의 유격 전쟁을, 최소 한도로는 계절적 유격 전쟁을 견지하는 동시에 비고정적인 근거지를 창설하는 이런 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천, 호소, 하구에 의거하여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며 근거지를 창설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보아 평원 지대보다 많고 산악 지대보다는 좀 적다. 력사 상의 소위 《해적》과 《수적》은 일찍 수 많은 활극을 상연하였으며 홍군 시대의 홍호 유격 전쟁도 수년 동안이나 견지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천, 호소, 하구 지대에서도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며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지만 각 항일 정당과 항일 인민들은 아직 이 면에 그다지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주관적 조건이 아직 구비되지는 못 하였지만 여기에 주의를 돌리며 이것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장강 북쪽의 홍택호 지대, 장강 남쪽의 태호 지대 및 연강 연해에 있는 적의 모든 점령 지역의 하구 지대에서 유격 전쟁을 잘 조직하며 또 하천, 호소, 하구 지방과 그 부근에 지구적인 근거지를 창설하여 이것을 전국적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 개 면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면이 없으면 적에게 수상 교통의 편의를 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항일 전쟁의 전략 계획의 결함의 하나이므로 제때에 미봉하여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유격구와 근거지

적의 후방에서 작전하고 있는 유격 전쟁에 있어서 유격구와 근거지는 다르다. 사면이 적에게 점령되었지만 그 북반은 적에게 점령되지 않은 지구 혹은 점령되었다가 이미 회복된 지구는 다 기성적인 근거지이다. 예를 들면 오대산 지구(즉 진찰기 변구)의 일부 현들이 그러하며 태항산 지구 및 태산 지구에도 그러한 정형이 있다. 유격대는 이런 곳에 의거하여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기가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지들의 기타 지방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오대산 지구의 동부와 북부——즉 하북성 서부, 차할성 남부의 일부 및 보정 동쪽 창주 서쪽의 허다한 지방들이다. 이런 지방들에서 유격 전쟁의 초기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지방을 완전히 점령할 수 없고 늘 거기에서 유격만 할 뿐인바 유격대가 쳐 들어 가면 유격대의 것이지만 유격대가 거기서 떠나면 다시 괴뢰 정권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지구는 아직 유격 전쟁의 근거지가 아니라 유격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격구는 유격 전쟁의 필요한 과정을 거쳐 많은 적을 소멸 혹은 패배시키고 괴뢰 정권을 짓부시고 민중의 적극성을 발동하고 민중의 항일 단체를 조직하고 민중의 무장력을 발전시키고 항일 정권을 수립하면 유격구로부터 근거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근거지가 본래 있는 근거지에 첨가되는 것을 근거지의 발전이라고 한다.

일부 지방의 유격 전쟁은 그 전반 활동 지구가 시초에는 모두 유격구이다. 예를 들면 하북성 동부의 유격 전쟁이 바로 그러하다. 이 지방에는 오래 전부터 괴뢰 정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지에서 봉기한 민중의 무장력 및 오대산에서 파견한 유격 지대의 전반 활동 지구가 시초에는 모두 유격구로 된다. 그들은 활동을 시작할 때 이 지구 내에서 유리한 지점을 립시적인 후방——혹은 립시적인 근거지라고도 한다——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적을 소멸하고 민중을 발동하는 사업이 전개된 뒤에 가서야 유격구의 상태를 면하고 비교적 튼튼한 근거지로 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격구로부터 근거지로 되는 것은 간고한 창조 과정이며 그것이 유격구로부터 근거지의 단계에로 넘어 켜는가 못 켜는가 하는 것은 적을 소멸하고 민중을 발동한 그 정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다한 지구들은 장기간 유격구의 상태에 처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는 적들이 극력 장악하려고 애 쓰지만 튼튼한 괴뢰 정권을 수립할 수는 없으며 유격 전쟁도 극력 발전하려고 하나 항일 정권을 수립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적이 점령한 철도선, 대도시 부근의 지구 및 일부 평원 지구들이 바로 그러하다.

적이 강대한 력량으로 장악하고 있는 대도시, 정거장 및 일부 평원 지대에 대하여서는 유격 전쟁이 그 부근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속으로 침투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비교적 튼튼한 괴뢰 정권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정형



이다.

우리의 지도가 그릇되거나 적이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결과로 우에서 말한 정형과는 반대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즉 근거지가 유격구로 되고 유격구가 적의 비교적 공고한 점령지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형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의 전반 점령 지구는 유격 전쟁 및 적아 쌍방의 투쟁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형의 지방으로 변화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유격 부대와 우리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항일 근거지이며, 둘째는 일제와 피퇴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피점령지이며, 셋째는 쌍방이 쟁탈하는 중간 지대, 즉 이른바 유격구이다. 유격 전쟁 지도자의 책임은 첫째 지구와 셋째 지구를 극력 확대하고 둘째 지구를 극력 축소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유격 전쟁의 전략적 임무이다.

### 제 3 절 근거지 창설의 조건

근거지 창설의 기본 조건은 항일 무장 부대를 가져야 하며 이 부대로써 적을 타승하고 민중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지의 창설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장 부대의 건립 문제이다. 유격 전쟁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은 자기의 모든 정력을 기울여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유격 부대를 건립하며 그것을 투쟁 행정에서 점차 유격 병단으로, 나아가서는

정규 부대 및 정규 병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무장 부대의 진법은 근거지 창설의 가장 기본적인 고리이다. 이것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무력하다면 모든 것이 다 말할 여지조차 없게 된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근거지의 창설을 위하여 필수적인 둘째 조건은 무장 부대를 사용하고 민중과 배합하여 적을 타승하는 것이다. 적의 장악 하에 있는 지방은 유격 전쟁의 근거지가 아니라 적의 근거지이다. 적의 근거지를 유격 전쟁의 근거지로 전환시키려면 적을 타승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유격 전쟁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적의 진공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적을 타승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이 적의 장악하는 지방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므로 역시 근거지를 창설할 수 없다.

근거지의 창설을 위하여 필수적인 세째 조건은 무장 부대의 령량을 포함한 모든 령량으로써 민중의 항일 투쟁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하여 인민을 무장시켜야 한다. 즉 자위군과 유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투쟁을 통하여 민중 단체를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아동, 상인, 자유 직업자를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투쟁 의욕이 제고된 정도에 따라 그들을 각종 필요한 항일 단체 내에 조직하며 이 단체들을 점차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이 조직되지 않고서는 그 항일 령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하여 공개적인 혹은 숨어 있는 민족 반역자의 세력을 숙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역시 민중의

력량에 의거하는 수 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통하여 민중을 발동하고 당지의 항일 정권을 수립 또는 공고화하는 것이다. 본래의 중국 정권이 적에게 파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개조하고 공고화하여야 하며 본래 있던 중국 정권이 적에게 파괴된 것은 광범한 민중의 노력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정권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책을 실시하는 정권으로서 모든 인민의 력량을 단합하여 유일한 적인 일제와 그 앞잡이인 민족 반역자, 반동들과 투쟁하여야 한다.

유격 전쟁의 모든 근거지는 항일 무장 부대를 건립하며 적을 타승하며 민중을 발동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점차 구비된 후에라야 진정하게 창설될 수 있다.

이 밖에 더 지적하여야 할 것은 지리적 및 경제적 조건이다. 지리적 조건에 대하여서는 《몇 가지 근거지》를 말할 때 이미 세 가지 상이한 정형을 지적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주요한 요구, 즉 지역이 광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서만 말하려 한다. 적의 사면 혹은 삼면 포위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근거지를 창설하려면 물론 산지대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되지만 주로는 유격대가 선회할 여지 즉 광대한 지역이 있어야 한다. 광대한 지역이라는 이 조건이 있으면 평원 지대에서도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으며 하천, 호소, 하구 지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령토가 광대하고 적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유격 전쟁에 이미 부여되고 있다.

유격 전쟁의 가능성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작은 나라 예를 들면 벨지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격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심지어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는 이 조건이 생취하여야 할 조건이거나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의 성격도 그 자연적 면에서 볼 때에는 지리적 조건과 마찬가지로이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적도 없는 사막에 근거지를 창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의 후방에 근거지를 창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이 갈 수 있는 모든 지방에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오래 전부터 중국 사람이 살고 있으며 또 오래 전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지 창설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을 선택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중국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적이 있는 모든 지방에서는 그 경제적 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될 수 있는 한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며 또 영구적 혹은 임시적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면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 정책 문제이다. 이 점은 근거지를 창설함에 있어서 중대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유격 전쟁의 근거지에서서 경제 정책은 함일 민족 통일 전선의 원칙, 즉 합리적 부담과 상업 보호의 원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당지의 정권과 유격대는 이 원칙을 파괴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파괴한다면 근거지의 창설과 유격 전쟁의 지행에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합리적 부담이란 즉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 역시 일정한 한도의 양곡을 유격대에 공급하여야 한다. 상업의 보호는 유격대의 엄격한 규율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민족 반역자 외에는 결코 상점 하나라도 함부로 몰수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힘 드는 일이지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확정적인 정책이다.

#### 제 4 절 근거지의 공고화와 발전

중국에 침입한 적을 소수의 거점 내에, 즉 대도시와 교통 간선 내에 몰아 넣기 위하여 각 근거지의 유격 전쟁은 자기 근거지의 주위로 극력 발전하여 적의 모든 거점에 접근함으로써 적의 생존을 위협하며 적의 군심을 동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유격 전쟁의 근거지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유격 전쟁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보수주의란 그것이 안일을 탐내는 데서 발생된 것이거나 적의 역량에 대한 과대 평가에서 발생된 것이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항일 전쟁에 손실을 주게 될 것이며 유격 전쟁 및 그 근거지 자체에 대하여도 불리한 것이다. 다른 한 편 근거지의 공고화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주되는 사업은 민중을 발동하고 조직하며 유격 부대와 지방 무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고화는 장기적 전쟁을 견지하는 데 필요하며 또 근거지의 발전에도 필요

하다.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힘차게 발전할 수 없다. 발전만 알고 공고화를 잊은 유격 전쟁은 적의 진공에 건디여 내지 못 하여 그 결과로는 발전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근거지 자체가 위태롭게 될 우려까지 생기게 된다. 정확한 방침은 공고히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전진하면 공격할 수 있고 퇴각하면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쟁이 장기적 전쟁이기만 하면 근거지의 공고화와 발전 문제는 매개 유격대 앞에 항상 나서게 된다. 그것의 구체적 해결은 그 정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시기에는 중점을 발전 면에 둔다. 이것이 바로 유격구를 넓히며 유격대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또 어떤 시기에는 중점을 공고화하는 면에 둔다. 이것이 바로 민중을 조직하며 부대를 훈련하는 사업이다. 양자의 성격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군사의 포치와 사업의 집행도 다르므로 정형과 시기에 따라 중점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 제 5 절 적아 간의 몇 가지 포위 형태

전반 함일 전쟁에서 볼 때 적은 전략적 진공과 외선 작전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략적 방어와 내선 작전의 지위에 처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적의 전략적 포위 속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의 첫째 형태의 포위이다. 외선에서 여러 길로 나뉘어 우리에게로 진격하여 오는 적에 대하여 우리는 수량 상 우세한 병력을 가지

고 전역과 전투에서의 진공 및 외선 작전의 방침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길로 나뉘어 진격하여 오는 적의 매개 부분은 우리의 포위 속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적에 대한 우리의 첫째 형태의 포위이다. 또 적후 유격 전쟁의 근거지에서 불 때 매개 고립된 근거지는 적의 사면 혹은 삼면 포위 속에 처하여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오대산 지구이며 후자의 예로는 산서성 서북 지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의 둘째 형태의 포위이다. 그러나 매개의 근거지를 연결시켜 본다면, 또 매개의 유격 전쟁의 근거지와 정규군의 전선을 연결시켜 본다면 이 번에는 우리가 많은 적을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면 산서성에서 우리는 동포선을 삼면으로(철도의 동서 양측 및 남단) 포위하고 있으며 태원시를 사면으로 포위하고 있다. 하북, 산둥 등 성에도 이렇게 포위한 것이 많다. 이것은 적에 대한 우리의 둘째 형태의 포위이다. 적과 우리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포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대체로 바둑[8]을 두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대한 적의, 적에 대한 우리의 전역 작전과 전투 작전은 바둑돌을 따 먹는 것과 같은 것이며 적의 거점과 우리의 유격 근거지는 바둑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집을 짓는》이 문제에서 적후의 유격 전쟁 근거지의 전략적 역할의 중대성이 표현된다. 이 문제를 함일 전쟁 앞에 내세우면 그것은 즉 한 편으로는 전국의 군사 당국이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각지의 유격 전쟁 지도자들이 적후에서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며 모든 가능한 지방에다 근거지를 창설하는 임무를 자기의 의사 일정

에 올려 놓고 그것을 전략적 임무로 삼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외교 상에서 태평양 반일 진영을 결성하여 중국을 그 전략적 단위의 하나로 삼고 또 쓰련 및 기타의 가능한 국가도 각각 그 전략적 단위의 하나로 삼는다면 우리는 적보다 포위가 하나 더 많게 되어, 즉 태평양의 외선 작전이 형성되어 파쇼 일본을 포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점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현실적 의의가 없지만 이러한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제 7 장 유격 전쟁의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의 비껴 문제는 유격 전쟁의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문제이다. 이것은 첫째 문제에서 이미 서술한 진공전의 방침을 항일 유격 전쟁이 방어 태세에 처하고 있을 때와 진공 태세에 처하고 있을 때에 여하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국적인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정확히 말하면 전략적 반공)에 있어서 매개 유격 전쟁의 근거지와 그 주위에는 또한 그 자체의 소규모적인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이 있게 된다. 전자는 적이 공세를 취하고 우리가 수세를 취할 때의 전략적 정세와 전략적 방침이며 후자는 적이 수세를 취하고 우리가 공세를 취할 때의 전략적 정세와 전략적 방침이다.



## 제 1 절 유격 전쟁의 전략적 방어

유격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또 그것이 상당히 발전되면, 특히 적이 우리 전국에 대한 전략적 진공을 중지하고 자기 점령지를 수비하는 방침을 취하게 되면 유격 전쟁의 근거지에 대한 적의 진공은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이런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준비가 전혀 없어서 일단 적의 심한 진공을 받는 정세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당황 망조하여 적에게 격파되고 말 것이다.

적들은 유격 전쟁 및 그 근거지를 소멸하려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상 포위 공격의 방법을 쓰게 된다. 예를 들면 오대산 지구에는 4~5 차의 소위 《토벌》이 있었는데 매차에 3~4 로 내지 6~7 로의 병력을 배치하여 계획적으로 동시에 전진하여 왔다. 유격 전쟁의 발전 규모가 클수록, 그 근거지가 처한 위치가 중요할수록, 적의 전략적 기지와 교통 요로에 주는 위협이 클수록 유격 전쟁 및 그 근거지에 대한 적의 진공도 더욱 심하여진다. 그러므로 유격 전쟁에 대한 적의 진공이 심한 곳일수록 그 곳은 유격 전쟁의 성과가 더 크며 정규 전쟁에 대한 배합적 역할도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된다.

적이 여러 갈래로 포위 공격하여 오는 정형 하에서의 유격 전쟁의 방침은 이런 포위 공격을 격파하고 반 포위 공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적이 여러 갈래로 전진하여 오지만 그 갈래마다 크나 작으나 한 개 부대 뿐이고 후속 부대가 없으며 연로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또치가를 구축하거나 자동차 도로를 수축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러한 포위 공격은 쉽게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 적들은 진공을 하고 외선 작전을 하며 우리는 방어를 하고 내선 작전을 한다. 우리는 병력 배비에 있어서 부차적인 병력으로 적의 여러 갈래를 견제하고 주요 병력으로 적의 한 갈래에 대처하며 전역과 전투에서의 습격 전법(주로는 매복전)을 취하여 적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적에게 타격을 주어야 한다. 적은 비록 강하다 하여도 여러 차례의 습격을 받으면 약화되어 왕왕 중도에서 철퇴하게 된다. 이 때에 유격대는 또 그 적을 추격하면서 계속 습격하여 적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적들은 진공을 중지하기 전에는, 또는 퇴각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근거지 내의 현 소재지 혹은 소도시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 소재지 혹은 소도시를 포위하여 그 식량 원천과 교통 연락을 차단하고 기다리다가 적이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퇴각할 때에 기회를 타서 적을 추격하여야 한다. 한 갈래를 격파한 후에는 또 병력을 이동하여 적의 다른 한 갈래를 격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의 포위 공격을 각개 격파하여야 한다.

큰 근거지에는, 켜킨대 오대산 지구와 같은 곳에는 한 개 《군구》 안에 4~5 개 혹은 더 많은 《군 분구》가 있고 군 분구마다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장 부대들이 있다. 이러한 근거지에서는 상술한 작전 방법에 의하여 흔히 동시에 혹은

선후하여 적의 진공을 격파하게 된다.

반 포위 공격의 작전 계획에서 우리의 주력은 일반적으로 내선에 둔다. 그러나 병력이 넉넉한 조건 하에서는 부차적 역량(폐물 들면 현과 구의 유격대 나아가서는 주력에서 일부분을 파견하여)을 외선에 사용하여 거기에서 적의 교통을 파괴하며 적의 증원 부대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적이 근거지 내에 오래 동안 등지를 틀고 있으면서 퇴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술한 방법을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일부를 근거지 내에 남겨 두어 그 적을 포위 견제하게 하고 주력으로 원래 적이 있던 지방의 일대를 진공하며 그 곳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하면 오래 동안 등지를 틀고 있던 적이 우리 주력을 치려고 철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 나라를 포위하여 조 나라를 구원하는》<sup>(9)</sup> 방법이다.

반 포위 공격의 작전에 있어서 지방 인민의 항일 자위군과 모든 민중 조직은 전체가 동원되어 전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군을 원조하고 적을 반대하여야 한다. 적을 반대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방 계엄을 하는 것과 가능한 정도의 견벽 청야(堅壁清野)를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중요하다. 전자는 민족 반역자를 진압하는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작전을 협조하는(견벽)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식량을 얻지 못하게(청야)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야란 작물이 성숙되었을 때 하루 속히 거두어 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적들은 퇴각할 때 흔히 그가 등지를 틀고 있던 도시의가

옥과 자기들이 지나 가는 길'가의 촌락을 불살라 버린다. 그 목적은 유격 전쟁 근거지를 파괴하려는 데 있지만 동시에 적이 재차 진공하여 왔을 때 잘 접이 없고 먹울 것이 없게 되어 그들 자신도 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한 개 사실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의의가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 인 계층의 하나이다.

몇 차례의 반 포위 공격을 거쳐 거기에서는 심한 포위 공격을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때가 아니라면 유격 전쟁의 지도자는 그 근거지를 버리고 다른 근거지로 옮겨 가 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비판적 기분의 산생 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도 면에서 원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악 지대에서는 포위 공격을 격파할 수 있으며 근거지를 고수할 수 있다. 오 직 평원 지대에서 심한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구 체적 정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소 유격 부대를 당지에 많이 남겨서 분산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대 유격 병단 을 한동안 산지대로 이동시켰다가 적의 주력이 다른 데로 이 동하여 간 뒤 다시 그 곳에 가서 활동하도록 할 문제를 고려 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역이 광대하고 적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 모순된 정형으로 인하여 적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전 때에 국 민당이 쓰던 토치카주의를 취하지 못 한다. 그러나 적의 요 해처를 특히 위협하는 일부 유격 근거지에 있어서는 적이 일 정한 정도로 토치카주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지방의 유격 전쟁을 견지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내전 때에도 유격 전쟁을 견지한 경험으로 보아 민족 전쟁에 있어서는 물론 더 잘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병력 대비에 있어서는 적이 일부 근거지에서 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극히 우세한 병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적자 간의 민족적 모순은 해결할 도리가 없으며 적의 지휘 상 약점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승리는 침투된 민중 공작과 령활한 작전 방법 우에 수렴되어 있는 것이다.

## 제 2 절 유격 전쟁의 전략적 진공

적의 진공이 이미 격파되고 적의 새로운 진공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적이 전략적 수세를 취하고 우리가 전략적 공세를 취하는 때이다.

이러한 때의 우리의 작전 방침은 방어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 적에 대하여 필승을 기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구 내에서 유격대의 역량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적과 민족 반역자의 무장력을 계획적으로 소멸하고 몰아 내며 우리의 점령 지구를 확대하며 민중의 항일 투쟁을 발동하며 부대를 보충하고 훈련하며 새 유격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여 일정한 두서가 잡힌 후에도 적이 그냥 수세를 취하고 있으면 우리의 새 점령 지

구를 일층 더 확대하며 적의 력량이 약한 도시와 교통선을 공격하고 그 곳을 정형에 따라 장기간 혹은 한동안 점령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략적 진공의 임무인바 그 목적은 적이 수세를 취하는 때를 타서 자기의 군사력 및 민중 력량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의 력량을 성과적으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적이 재차 우리를 진공할 때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강력하게 격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부대의 휴식과 훈련은 필요한 것이다. 적이 수세를 취하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전문적으로 휴식, 훈련할 것이 아니라 점령지를 확대하며 작은 적을 소멸하며 민중을 발동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휴식, 훈련하여야 한다. 급양, 피복 등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흔히 이 때이다.

적의 교통선을 대규모적으로 파괴하며 적의 운수를 방해하며 정규군의 전역 작전을 직접 원조하는 것도 이 때이다.

이 때는 전 유격 근거지, 유격구와 유격 부대가 모두의 기 양양할 때이며 적에게 유린 당한 지구도 점차적으로 정리되어 원기가 회복된다. 적의 점령 지구 내의 민중도 매우 기뻐하며 각처에서 유격대의 성망과 위세를 전파한다. 적과 그들의 앞잡이인 민족 반역자들의 내부에서는 공포심과 분화 작용이 증대되는 한 편 유격대와 근거지에 대한 중오가 증대되어 유격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강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전략적 진공 과정에서 득의 양

양하여 적을 경시하거나 내부 단결, 근거지 공고화, 부대 공고화 사업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때에는 적의 동태를 잘 살피 적이 우리를 다시 진공하려는 징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리 하여 일단 적이 진공하면 우리의 전략적 진공을 적당히 그치고 전략적 방어에로 넘어가 전략적 방어 과정에서 적의 진공을 분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장 운동전으로의 발전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의 다섯째 문제는 운동전으로 발전하는 문제이다. 그 필요성과 가능성은 역시 전쟁의 장기성과 잔혹성에서 오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일본 침략자를 속히 타승할 수 있고 잃은 땅을 속히 수복할 수 있어서 지구전이 아니고 또한 잔혹한 전쟁도 아니라면 유격전이 운동전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와 반대이다. 전쟁이 장기적이고 잔혹한 만큼 유격전은 오직 운동전으로 발전하여야 이러한 전쟁에 적응할 수 있다. 전쟁이 장기적이고 잔혹한 까닭에 유격대는 필요한 단련을 받아서 점차 정규적 부대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작전 방식도 점차 정규화되어 유격전에서 운동전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격 전쟁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야 운동전으로 발전하는 방침을 견지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지금 허다한 지방, 레블 들면 오대산 등지의 유격 전쟁은

정규군이 강대한 지대를 파견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그런 지방에서의 작전은 일반적으로는 유격전이지만 처음부터 운동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쟁이 지구화함에 따라 이러한 요소는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함일 유격 전쟁의 장점이다. 이 장점은 유격 전쟁을 급속히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급속히 제고시킨다. 이점에서는 동3성의 유격 전쟁에 비하여 그 조건이 훨씬 우월하다.

유격전을 하는 유격 부대가 운동전을 하는 정규 부대로 되려면 량적 확대와 질적 제고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전자는 직접 인민을 동원하여 부대에 참가시키는 외에 소부대를 집중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후자는 전쟁에서의 단련과 무기의 질적 제고에 의존한다.

소부대를 집중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리익만 돌보아 집중을 방해하는 지방주의를 방지하여야 하는 한편 지방의 리익을 돌보지 않는 단순한 군사주의도 방지하여야 한다.

지방주의는 지방 유격대와 지방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흔히 지방의 리익만 돌보고 전체의 리익을 망각하며 혹은 분산적 활동만 하며 하고 집단적 생활에는 습관되어 있지 않다. 주력 유격 부대 혹은 유격 병단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의를 돌려 점차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지방으로 하여금 유격 전쟁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 협동 행동을 취하고 다음에 합병하며 그 편제를 파괴하지 않고 그 간부들 바꾸지 않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집단을 대집단에 융화시켜야 한다.



단순한 군사주의는 지방주의와 반대로 주력 부대 내의 사람들이 자체의 확충만을 도모하고 지방 무장력에 대한 원조를 돌보지 않는 그릇된 관점이다. 유격전이 운동전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유격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격전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운동전을 진행할 수 있는 주력을 점차 형성함을 의미한다는 것과 이 주력의 주위에는 여전히 광범한 유격 부대와 유격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광범한 유격 부대는 이 주력의 풍만한 날개로 되며 또 이 주력을 계속 확대하는 그칠 줄 모르는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주력 부대의 지도자들이 지방 민중 및 지방 정부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단순한 군사주의적 오류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주력의 확대 및 지방 무장력의 증식을 각각 그 적당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질적으로 제고하려면 정치, 조직, 장비, 기술, 전술, 규율 등 각 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정규군의 규모를 본 받으며 유격대의 작풍을 감소시켜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지휘원, 전투원들에게 유격대를 정규군으로 일보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고무하여야 하며 또한 정치 사업으로써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적으로는 정규 병단으로서 필요한 군사 및 정치 사업 기관, 군사 및 정치 일'군, 군사 및 정치 사업 방법 그리고 공급, 위생 등의 일상적 제도를 점차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면에서는 무기의 질을 제고하고 종류를 증가하며 필요한 통신 기자재를 증가하여야 한다. 기술과 전술 면에서는 유

격 부대의 기술과 전술로부터 정규 병단으로서 필요되는 기술 및 전술로 제고하여야 한다. 규률 면에서는 모두가 한결 같이 하라 하면 하고 그만 두라 하면 그만 두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제고하며 자유주의적이고 산만한 현상을 근절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일조 일석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유격 전쟁 근거지에서의 주력 병단이 건립될 수 있으며 더욱 성과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 운동전의 방식이 생겨 날 수 있다. 정규군에서 파견된 지대 혹은 간부가 있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체 정규군에게서 정규 부대로 발전되도록 유격대를 도와 줄 책임이 있다.

## 제 9 장 지휘 관계

함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의 마지막 한 문제는 지휘 관계 문제이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유격 전쟁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유격 전쟁의 지휘 방법은 유격 부대가 낮은 단계에 있는 무장 조직이며 분산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 전쟁의 지휘 방법과 같은 그러한 고도의 집중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정규 전쟁의 지휘 방법을 유격 전쟁에 쓰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유격 전쟁의 고도로 되는 활발성을 구속하여 유격 전쟁을 아무런 생기도 없는 것으로 만들

고 말 것이다. 고도로 되는 집중 지휘와 유격 전쟁의 고도로 되는 활발성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고도로 활발한 유격 전쟁에 대하여 고도의 집중 지휘 제도를 실시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이라 하여 아무런 집중 지휘도 없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범한 정규 전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또 광범한 유격 전쟁이 존재하는 정형 하에서 양자가 적당한 배합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여기에 정규 전쟁과 유격 전쟁의 배합 행동에 대한 지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작전에 관한 국가 참모부 및 전구 사령관의 통일 지휘이다. 하나의 유격구 혹은 유격 근거지에 여러 개의 유격대가 있으면 그 중에는 흔히 주력으로 되는 하나 내지 수개의 유격 병단(때로는 정규 병단도 있다) 및 보조적 역량으로 되는 허다한 대소 유격 부대가 있으며 또 생산을 리탈하지 않은 광범한 인민 무장력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곳의 적도 흔히 하나의 국면을 이루어 통일적으로 유격 전쟁에 대처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격구 혹은 근거지에서는 통일 지휘 즉 집중 지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유격 전쟁의 지휘 원칙은 절대적 집중주의를 반대하는 한 편 또 절대적 분산주의를 반대한다. 그것은 전략에서의 집중 지휘와 전역 및 전투에서의 분산 지휘가 아니면 안 된다.

전략에서의 집중 지휘에는 전반 유격 전쟁에 대한 국가의 배치, 매개 전구 내에서의 유격 전쟁과 정규 전쟁과의 배합

행동 및 매개 유격구 혹은 근거지 내에서의 그 전체 지역 내의 항일 무장력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면들에서의 불협조, 불통일 및 비집중은 해로운 것이므로 가급적으로 협조, 통일 및 집중을 가져 와야 한다. 무릇 일반적인 사항, 즉 전략적 성격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하급이 상급에 보고하고 또 상급의 지도를 접수하여 협동 동작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중은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 하급의 구체적 사항, 예를 들면 전역, 전투의 구체적 배치 등을 간섭한다면 그 역시 해로운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구체적 사항은 때에 따라 변하며 곳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 정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상급 기관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정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역과 전투에서의 분산 지휘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정규 전쟁의 작전에도 통용된다. 통신 기자재가 불완비한 정형 하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즉 전략적 통일 하에서의 독립 자주의 유격 전쟁이다.

유격 근거지를 하나의 군구로 하고 그것을 몇 개의 군분구로 나누며 군분구를 몇 개의 현으로 나누며 현을 몇 개의 구로 나누는 경우에 군구 사령부, 군분구 사령부, 현정부, 구정부의 계통은 종속적 관계이며 무장 부대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종속된다. 그들 간의 지휘 관계는 상술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적 방침은 상급에 집중하고 구체적 행동은 구체적 정형에 따라 실시하며 하급은 이에 대하여 독립 자주

권을 가진다. 상급이 하급의 어떤 구체적 행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훈령》으로 하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명령》으로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이 광대하면 광대할수록, 정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상하급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러한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 그 독립 자주적인 권한을 더 크게 하며 지방성을 더 띠게 하여 그 지방 정형의 요구에 더 적합하게 함으로써 하급 및 지방 일'군들의 독자적인 사업 능력을 양성하여 복잡한 환경에 대처하며 승리적인 유격 전쟁을 발전시키게 하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부대 혹은 병단이라면 정형을 똑똑히 알기 때문에 그 내부의 지휘 관계는 집중 지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부대 혹은 그 병단이 일단 분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구체적 정형을 똑똑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는 집중하고 구체적으로는 분산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집중하여야 할 것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급으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며 하급으로서의 제멋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떠한 상하급 관계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더구나 허용되지 않는다. 분산하여야 할 것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급으로서의 도말아 하는 것이라 하며 하급으로서의 주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어떠한 상하급 관계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유격 전쟁의 지휘 관계에 있어서는 더구나 허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원칙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침이다.

## 주 해

[1] 장백산이란 중국 동북 변경에 있는 산맥을 가리켜 말한다. 9. 18 사변 후에 장백산 지구는 중국 공산당 명도 하의 항일 유격 근거지로 되었다.

[2] 오대산이란 산서성과 하북성 절경에 있는 산맥을 가리켜 말한다. 1937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팔로군은 오대산 지구를 중심으로 진한기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3] 태항산이란 산서성, 하북성, 하남성 절경에 있는 산맥을 가리켜 말한다. 1937년 11월에 팔로군은 태항산 지구를 중심으로 진동남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4] 태산은 산둥성 중부에 있는 태기 산맥의 주봉의 하나이다. 1937년 겨울에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유격대는 태기산 지대를 중심으로 로승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5] 연산이란 하북성 동북부에 있는 산맥을 가리켜 말한다. 1938년 여름에 팔로군은 연산 산지대를 중심으로 기동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6] 모산은 강소성 남부에 있다. 1938년 6월에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신사군은 모산 산지대를 중심으로 소남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7] 항일 전쟁의 발전 경향은 평원 지구에서 장기적인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중의 허다한 지방은 고정된 근거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그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공산당의 징색이 정확하고 인민의 동원이 보편화되고 토적의 병력이 부족한 등등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그 후 구체적 지시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긍정하였다.

[8] 바둑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는 오락의 하나이다. 쌍방의 바둑돌이 서로 포위하다가 이쪽의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상대방에게 포위 당하면 《죽는다》. 그러나 포위를 당한 여러 개 가운데서 필요한 공간(《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러 개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사는》 것이다.

[9] 기원 전 353년에 위 나라가 조 나라 서울 한단을 포위 공격하였다. 제 나라 왕은 진 기, 손 빈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조 나라를 구원할 것을 명명하였다. 손 빈은 위 나라는 정예 부대가 조 나라에 와 있으므로 내부가 공허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군대를 거느리며 위 나라를 쳤다. 그러자 위 나라 군대는 본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되돌아 왔다. 제 나라 군대는 위 나라 군대가 피로하여진 틈을 타서 계동(지금의 산둥성 하북현 동북부)에서의 싸움에서 위 나라 군대를 대패시킴으로써 조 나라의 포위는 드디어 풀렸다. 그 후부터 중국의 군사들은 《위 나라를 포위하여 조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으로써 이와 유사한 모든 권법을 설명하게 되었다.

# 지구전에 대하여\*

(1938년 5월)

## 문제의 제기

(1) 위대한 항일 전쟁의 1주년 기념일인 7월 7일이 곧 닥쳐 온다. 전 민족적 력량이 단결하여 항전을 견지하고 통일 전선을 견지하여 적과 영용하게 싸운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이 전쟁은 동방의 력사에 있어서 전례 없는 전쟁이며 세계 력사에 있어서도 위대한 전쟁으로 될 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은 모두다 이 전쟁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직접 전쟁의 재난을 받으며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매개 중국 사람은 하루도 전쟁의 승리를 갈망하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나 전쟁의 행정은 필경 어떻게 될 것인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가? 속히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속히 승리할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구전이라고 하는데 어쩌서 지구전인가? 지구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적 승리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1938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연안 항일 전쟁 연구회에서 한 강연이다.

를 말하고 있는데 어쩌서 중국적 승리가 있게 되는가? 중국적 승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매개인이 다 해결한 것은 아니며 심지어는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리 하여 패배주의적인 망국론자들은 나서서 사람들에게 중국은 망할 것이다, 중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 일부 성급한 친구들은 나서서 사람들에게 중국은 곧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힘을 들일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러한 논의들이 옳은 것이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논의들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리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절반은 우리의 선전 해설 사업이 아직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절반은 객관적 사변의 발전이 아직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완전히 폭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그 면모를 사람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 놓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그 전반 추세와 전망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전반적 방침과 방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되었다. 항전 10 개월의 경험은 전혀 무근거한 망국론을 격파하기에 충분하며 또 성급한 친구들의 속승론을 설복하기에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정형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종결성을 띤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우기 지구전에 대하여서는 망국론이나 속승론과 같은 반대의 견도 있고 아무 내용이 없는 텅 빈 리해도 있다. 《로구교 사변 이래 4억만이 한걸같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중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식이 광범한 사람들 가운데 류



행되고 있다. 이 공식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항일 전쟁과 통일 전선이 견지될 수 있는 것은 허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전국의 제 정당——공산당으로부터 국민당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인민——로동자, 농민으로부터 부르조아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군대——주력군으로부터 유격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방면——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정의를 사랑하는 각국 인민에 이르기까지, 적국 방면——국내의 일부 반전적 인민으로부터 전선의 일부 반전적 병사들에 이르기까지이다. 요컨대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의 항전에 있어서 각이한 정도로 자기들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량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기타의 항전 정당 및 전국 인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은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극악 무도한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금년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7주년 기념일이다. 매개 공산당원으로 하여금 항일 전쟁에 있어서 더 훌륭하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역시 지구전을 치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강연에서 지구전을 연구하려고 한다. 나는 지구전이란 이 제목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부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한 강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항전 10 개월 이래의 모든 경험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하나는 중국

필망론이고 하나는 중국 속승론이다. 전자는 타협적 경향을 낳고 있으며 후자는 적을 경시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그들이 문제를 보는 방법은 모두 주관적이며 일면적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비과학적이다.

(3) 항전 이전에는 허다한 망국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무기가 남보다 못 하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항전한다면 반드시 아비시니아처럼 될 것이다》 하는 등이었다. 항전 이후에는 공개적인 망국론은 없어졌으나 암암리에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많다. 예를 들면 타협적 공기가 때로는 일어났다, 때로는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그것이다. 타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계속 싸우면 반드시 망한다》<sup>[1]</sup>는 것이다. 한 학생이 호남에서 편지를 보내어 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농촌에서 모든 일에 다 곤난을 느낍니다. 혼자서 선전 사업을 하는 것 만큼 수시로 어디에서나 사람을 찾아 다니며 담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상들은 무지 몽매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의 담화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척 몇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중국은 승리할 수 없네, 망할 것이네.》라고 말합니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전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야단일 것입니다. 농민들은 물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으니까요!》 이러한 중국 필망론자는 타협적 경향의 사회적 기초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국의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전선 내에서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타협 문제는 아마 전쟁이 끝 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주물 잃고 무한이 위급하게 된 이 때에 이러한 망국론을 한 번 통렬히 논박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4) 항전 10 개월 이래 조급증을 표현하는 각종 견해도 발생하였다. 폐물 들면 항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을 파소 평가하며 심지어는 일본이 산서성에 쳐 들어 올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항일 전쟁에서의 유격 전쟁의 전략적 지위를 경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운동전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유격전이 주요한 것이고 운동전은 보조적인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인 것은 유격전이지만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운동전을 동한히 하지 않는다.»는 팔로군의 전략적 방침을 찬성하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인 견해라고 인정하였다[2]. 상해 전쟁 당시에는 일부 사람들은 «3 개월만 싸우면 국제 정세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쓰런이 반드시 출병할 것이므로 전쟁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항전의 희망을 주로 외국의 원조에 걸고 있었다[3]. 태아장의 승리[4]가 있는 후에는 일부 사람들은 서주 전역이 «준결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지구전의 방침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싸움은 적의 최후의 발악»이라느니, «우리가 승리하면 일본 군벌은 정신적으로 그 텃각지를 잃게 되어 가만히 최후 심판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sup>[5]</sup>이라느니 뭐니 하고 있었다. 평형판에서의 승전은 일부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었으며 태아장에서의 재차의 승전은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리 하여 적이 무한을 진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되었다. 《아마 안 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단정코 안 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러한 의문은 일체 중대한 문제에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일 력량이 충분한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대답이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지금의 력량으로도 적을 더는 진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또 력량을 증가하여서는 무엇 하겠는가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 확대하자는 구호는 여전히 옳은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대답이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현 상태의 통일 전선으로도 적을 격퇴하기에 충분한데 또 강화, 확대하여서는 무엇 하겠는가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면 국제적 외교 및 국제적 선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 대답이 역시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 제도의 개혁, 정치 제도의 개혁, 민중 운동의 발전, 국방 교육의 실시, 민족 반역자와 트로츠키파의 진압, 군수 공업의 발전, 인민 생활의 개선 등 이러한 일들을 진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무한을 방위하자, 팡주를 방위하자, 서북을 방위하자, 적후의 유격 전쟁을 맹렬히 발전시키자는 구호들이 여전히

히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그 대답이 모두 부정적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전쟁의 형세가 약간 호전되면 곧 국공 량당 간의 마찰을 격화시킴으로써 대외로 둘러졌던 시선을 대내어로 돌리게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정형은 대개 매번 비교적 큰 승전이 있은 후나 또는 적의 진공이 잠시 중지된 때마다 언제나 발생된다. 상술한 모든 것을 우리는 정치적 및 군사적 근시안이라고 한다. 듣기에는 리치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은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옳은 것 같으면서 옳지 않은 공담들이다. 이러한 공담을 없애 버리는 것은 승리적인 항일 전쟁의 진행에 틀림 없이 유익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문제는 이렇다. 중국이 망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망하지 않는다, 종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이다. 중국이 속히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속히 승리할 수는 없다, 항일 전쟁은 지구전이다.

(6) 이러한 문제의 주요 론점들에 대하여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일반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다. 1936년 7월 16일에, 즉 서안 사변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로구교 사변이 일어나기 12개월 전에 나는 미국 기자 스노 선생과의 담화에서 중일 전쟁의 형세를 일반적으로 예측하였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각종 방침을 제기하였었다. 비망을 위하여 여기서 그 몇 단을 발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 어떠한 조건 하에서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실력을 타승, 소멸할 수 있습니까?

답,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중국 항일 통일 전선의 결성이고, 둘째는 국제 항일 통일 전선의 결성이며, 세째는 일본 국내의 인민과 일본 식민지 인민의 혁명 운동의 발흥입니다.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중국 인민의 대련합이 주요한 조건입니다.

문, 당신은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끌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것은 중국 항일 통일 전선의 실력과 중일 양국의 다른 많은 결정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중국 자체의 역량에 달렸지만 그 외에 중국에 대한 국제적 원조와 일본 국내 혁명의 원조도 매우 큰 판계를 가집니다. 중국 항일 통일 전선이 강력하게 발전되고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모두 잘 조직된다면, 만일 일제가 자기의 리익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각국 정부와 각국 인민이 중국에 필요한 원조를 주게 된다면, 그리고 일본에서 혁명이 속히 일어 난다면 이 번 전쟁은 신속히 끝날 것이며 중국은 신속히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속히 실현되지 못 한다면 전쟁은 오래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중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지 희생이 더 많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치게 될 것 뿐입니다.

문, 정치, 군사적으로 보아 당신은 이 전쟁의 전도가 어떻게 발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일본의 대륙 정책은 이미 확정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타협하여 중국의 약간의 명토 주권을 좀더 희생시키면 일본의 진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강 하류와 남방의 각 항구가 모두 일제의 대륙 정책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 필리핀, 샴, 웨남, 말라이 반도와 화란령 동인도를 점령하여 외국과 중국을 분리시키고 서남 태평양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의 해양 정책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중국이 극도로 곤란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곤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상업 항구의 부자들만이 때때론 자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어 버릴까 봐 두려워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해안이 일단 일본의 봉쇄를 당하는 날에는 중국은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허튼소리입니다. 그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홍군의 전쟁사를 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항일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세는 내전 때의 홍군의 지위에 비하여 훨씬 낫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1억 내지 2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패하기까지는 아직 그 거리가 매우 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 싸울 큰 력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일본은 전반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후방에서 언제나 방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과 불균형은 항일 전쟁에 대하여 도리어 유리합니다. 이들 때면 상해를 중국의 기타 지방과 떼어 놓는다 하여도 중국이 받는 손실은 결코 뉴욕을 미국의 기타 지방과 떼어 놓는 때서 미국이 받는 손실처럼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안을 봉쇄한다 하여도 중국의 서북과 서남과 서부는 봉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중심점은 역시 중국의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거국 일치의 항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오래 전에 벌써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문: 가령 일본이 철저히 전패하지 않고 전쟁이 오래 끌게 된다면 공산당은 강화에 동의하고 일본의 동북 동치를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답: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 인민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중국 땅을 한 치라도 차지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이 번 해방 전쟁의 주요한 전략적 방침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전략적 방침은 우리의 주력으로써 길고도 항상 변동하

는 전선에서 작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국 군대는 승리하려면 광활한 전장에서 급속히 전진하고 급속히 후퇴하며 급속히 집중하고 급속히 분산하는 고도의 운동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견호물 깊이 파고 도치까물 높이 쌓으며 겹겹이 방어 시설을 구축하며 오로지 방어 시설에 의존하는 진지전이 아니라 대규모의 운동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중요한 군사 지점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리하기만 하면 이러한 지점에 진지전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 국면을 전환시키는 전략적 방침은 반드시 운동전이여야 할 것입니다. 진지전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 성격을 가진 이차적인 방침입니다. 지리적으로 전장이 이와 같이 광대하므로 우리들이 가장 유효한 운동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본군은 아군의 맹렬한 활동에 봉착하면 반드시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 기구는 매우 둔하고 행동이 매우 굼뜨며 효력에 한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병력을 집중하여 어느 협소한 진지에서 소모전적인 저항을 한다면 아군은 지리 상 및 경제 조직 상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아비시니아의 오유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전반기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큰 결전을 피하고 먼저 운동전으로써 적의 군대의 정신과 전투력을 점차 파괴하여야 합니다.

훈원된 군대들 이동시켜 운동전을 진행하는 외에 또 농민 가운데서 많은 유격대들 조직하여야 합니다. 동3성의 항일의 용군은 항전에 동원될 수 있는 전국 농민의 잠재력의 일소부분을 보여 준 데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농민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잘 조직하고 지휘하기만 하면 일본 군대들 하루 24 시간 동안 바삐 돌아 치게 하여 여지 없이 피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중국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일본군은 적대적인 중국 사람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것, 일본군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군수품을 수송



하여 오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 그들은 많은 군대로써 교통선을 보호하며 언제나 습격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 이 밖에 또 만주와 일본 내지에 커다란 력량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 행정에서 중국은 많은 일본 군인을 포로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무기 탄약을 탈취하여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외국의 원조를 얻어 중국 군대의 장비를 점차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후반기에 가면 중국은 진지전을 하여 일본의 점령지에 대한 진지적 공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 하여 일본은 중국의 항전에 의한 장기적 소모에서 그 경제가 붕괴될 것이며 무수한 전쟁의 시달림 속에서 그 사기가 저락될 것입니다. 중국 측은 항전의 잠재력이 날로 더 솟구쳐 올라 수 많은 혁명적 민중이 부단히 전선으로 달려 나가 자유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와 기타 요소의 배합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점령지의 토치카와 근거지에 대하여 최후의 치명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본 침략군을 중국으로부터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노 저 《서북 인상기》)

항전 10 개월의 경험은 상술한 논점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그것이 계속 증명될 것이다.

(7) 로구교 사변이 발생된 지 한 달 남짓한 1937년 8월 25일에 벌써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자기의 《현 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한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였다.

로구교에서의 전쟁 도발과 북평, 천진의 점령은 중국 본부에 대한 일본 침략자의 대규모적 진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침략자들은 전국적인 전시 동원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소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은 그 진공을 엄폐하는 연막탄에 지나지 않

는다.

7월 7일 로구교에서의 항전은 중국의 전국적인 항전의 기점으로 되었다.

중국의 정치 정세는 이 때로부터 새로운 단계, 즉 항전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항전의 준비 단계는 이미 지나 갔다. 이 단계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중심적인 관건은 이미 발동된 항전을 전면적인 전 민족적 항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전면적인 전 민족적 항전만이 항전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북전의 항전에는 아직 엄중한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후의 항전 과정에 허다한 좌절과 퇴각, 내부 분열과 배반, 일시적 및 국부적인 타협 등 불리한 정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전은 간고한 지구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동된 항전이 앞으로 우리 당과 전국 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온갖 장애물을 물리치고 계속 전진,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항전 10 개월의 경험은 또한 상술한 논점의 정당성을 실증하였으며 금후에도 그것이 계속 실증될 것이다.

(8)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관념론적 및 기계론적 경향은 일체 그릇된 견해의 인식론적 근원이다. 그들이 문제를 보는 방법은 주관적이고 일면적이다. 혹은 전혀 근거 없이 순전히 주관적으로 논의하며 혹은 문제의 한 측면이나 한때의 표현에만 근거하여 역시 그것을 주관적으로 과장하여 전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릇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일관성을 띠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이다. 이것은 시정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 가지는 일

시성을 띠고 있는 우연적인 오유이다. 이것은 시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다 오유인 만큼 모두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관념론적 및 기계론적 경향을 반대하고 객관적 견해 및 전면적 견해로써 전쟁을 고찰하여야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옳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문제의 근거

(9) 항일 전쟁은 어째서 지구전인가? 중국적 승리는 어째서 중국의 것인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중일 전쟁은 다른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반식민지, 반봉건적 중국과 제국주의적 일본 사이에 20 세기 30 년대에 진행되는 결사적 전쟁이다. 전반 문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전 쌍방을 길라서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서로 반대되는 허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0) 일본 측, 첫째로, 이 나라는 강한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은 동방에서 첫째이며 세계에서 5~6 개의 유명한 제국주의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일본의 침략 전쟁의 기본 조건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이 속히 승리할 수 없는 원인은 일본이란 이 국가의 제국주의 제도 및 그 강한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일본의 사회 경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의하여 일본의 전쟁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전쟁은 퇴보적이고 야만적이다. 20 세기 30

년대에 이르러 일본 제국주의는 그 내'적 및 외'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전혀 없는 대규모적인 모험적 전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최종적 붕괴의 전야에 팀박하고 있다. 사회적 행정으로 보아 일본은 벌써 통성하는 국가가 아니며 전쟁은 일본의 지배 계급이 기대하는 바의 통성을 가져올 수 없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인 일본 제국주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의 퇴보성이다. 이 퇴보성에 일본은 또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라는 이 특성이 첨가됨으로써 그 전쟁의 특수한 야만성이 산생되었다. 이리 하여 일본 국내의 계급적 대립, 일본 민족과 중국 민족 간의 대립, 일본과 세계 대다수 국가 간의 대립을 최대 한도로 격화시키게 된다. 일본의 전쟁의 퇴보성과 야만성은 일본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주요한 근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째로, 일본의 전쟁은 비록 그 강한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그 선천 부족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량적 면에서 부족하다. 일본은 나라가 비교적 작고 그 인력, 군사력, 재력, 물력이 모두 부족하므로 장기적 전쟁에 전디어 낼 수 없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전쟁을 통하여 이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반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결과는 전쟁으로 인하여 곤난이 증가될 것이며 전

쟁은 그들에게 본래 있던 것까지도 소모하여 버리고 말 것이다. 마지막 내째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파쇼 국가의 원조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또 그 국제적 원조力量的을 통가하는 국제적 반대力量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이 국제적 반대力量은 점차 장성되어 나중에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 원조力量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압력을 일본 자체에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도의를 잃으면 원조자가 적다는 법칙이며 일본의 전쟁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통털어 말하면 일본의 장점은 그 전쟁力量이 강한 것이고 단점은 그 전쟁의 본질의 퇴보성과 야만성에 있으며 그 인력, 물력이 부족한 데 있으며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 원조자가 적은 데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 측의 특성이자이다.

(11) 중국 측, 첫째로, 우리 나라는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이다. 아편 전쟁, 태평 천국, 무술 유신(6), 신해 혁명으로부터 북벌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반식민지, 반봉건적 지위를 벗어 나기 위한 모든 혁명적 또는 개량적 운동들이 다 엄청난 좌절을 당하였으며 따라서 여전히 반식민지, 반봉건적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약한 나라이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 등 각 방면에 있어서 다 적만 못 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이 속히 승리할 수 없는 원인은 이 방면에서도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째로, 근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해방 운동은 오늘에 있어서 이미 그 어떠한 역사적 시기보다도 달라졌다. 내외의 각종 반대力量에 의하여 해방 운

동은 엄청난 좌절을 당하였으나 또 동시에 중국 인민을 단련시켰다. 오늘날 중국의 군사, 경제, 정치, 문화는 비록 일본 만큼 강하지는 못 하나 중국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어느 역사적 시기보다도 더 진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및 그가 령도하는 군대가 바로 이러한 진보적인 요소의 대표자이다. 오늘날 중국의 해방 전쟁은 바로 이러한 진보적인 기초 위에서 지구전과 종국적 승리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마치 막 솟아 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나라이다. 이것은 몰락 상태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와는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전쟁은 진보적이다. 이러한 진보성으로부터 중국 전쟁의 정의성이 나왔다. 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국적 단결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적국 인민의 동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계 다수 국가의 원조를 쟁취할 수 있다. 세째로, 중국은 또한 큰 나라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아 장기적 전쟁을 능히 지탱할 수 있다. 이것도 또한 일본과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 네째로, 중국의 전쟁의 진보성과 정의성으로 하여 생긴 광범한 국제적 원조도 또한 일본이 도의를 잃어서 원조자가 적은 것과 정반대이다. 통털어 말한다면 중국의 단점은 전쟁 력량이 약한 것이고 장점은 그 전쟁의 본질의 진보성과 정의성에 있으며 그가 큰 나라라는 데 있으며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 원조자가 많은 데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국의 특성이다.

(12) 이렇게 본다면 일본은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은 강하지만 그 전쟁이 퇴보적이고 야만적이며 인력, 물력도 부족하며 국제 정세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여 있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바로 진보하고 있는 시대에 처하여 있으며 그 전쟁이 진보적이고 정의적이며 또 큰 나라라는 이 조건이 있으므로 지구전을 능히 유지할 수 있으며 세계의 다수 국가가 중국을 원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일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모순되는 기본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쌍방의 일체 정치 상의 정책과 군사 상의 전략 전술을 규정하였고 또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이 지구적이며 종국적 승리가 일본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또 규정하고 있다. 전쟁은 바로 이러한 특성들의 경쟁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쟁 행정에서 각각 그 본성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생겨 나올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허위적인 날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불완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반적 기본 요소이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일체 대소 문제 및 일체 작전 단계에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중일 전쟁을 관찰할 때에 이러한 특성들을 망각한다면 필연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며 실사 어떤 견해는 일시 믿는 사람이 있고 틀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전쟁 행정은 반드시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특성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말하며 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 망국론을 논박한다

(13) 망국론자들은 적아의 강약 대비란 이 요인만을 보고서 이전에는 《항전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또 《계속 싸우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적은 비록 강하지만 작은 나라이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큰 나라라는 것만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굴복시키기에 부족하다. 그들은 원조가 송조를 멸망시키고 청조가 명조를 멸망시킨 역사적 증거를 들고 나와 작지만 강한 나라가 크지만 약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락후한 나라가 진보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은 옛날 일이어서 증거로 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또 영국이 인도를 멸망시킨 사실을 들고 나와 작지만 강한 자본주의 국가가 크지만 약하고 락후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근거를 더 제기하여야 일체 망국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으며 그들을 심복시킬 수 있으며 또 선전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아직 견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설복함으로써 항전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강화하도록 할 수 있다.

(14) 여기에서 제기하여야 할 근거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시대의 특성이다. 이 특성의 구체적 반영은 일본이 퇴보



적이고 원조자가 적은 것, 중국이 진보적이고 원조자가 많은 것이다.

(15) 우리의 전쟁은 다른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중일 양국이 20 세기 30 년대에 진행하는 전쟁이다. 우리의 적축을 놓고 보면 우선 그것은 죽어 가는 제국주의로서 퇴보하는 시대에 처하여 있다. 그것은 영국이 인도를 멸망시키던 시기에 영국이 아직 자본주의의 진보적 시대에 처하여 있던 것과 다를 뿐 아니라 20 년 전 제 1 차 세계 대전 때의 일본과도 다르다. 이번 전쟁은 세계 제국주의, 우선 파쇼 국가의 대붕괴의 전야에 폭발되었다. 적들도 바로 이 때문에 최후 발악적인 이 모험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 멸망 당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집단이라는 것은 불가피적인 필연성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때는 바로 세계 각국이 벌써 전쟁에 휩싸여 들었거나 곧 전쟁에 휩싸여 들려는 때인바 모두들 야만적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거나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이 국가는 또 세계의 다수 국가 및 다수 인민과 리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세계의 다수 국가 및 다수 인민의 반대를 일으켰으며 또 더욱 심각하게 일으키게 될 근원이다.

(16) 중국 측은 어떠한가? 그것은 이미 다른 어떠한 역사적 시기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반식민지적, 반봉건적 사회라는 것이 중국의 특성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로 불리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또 역사 상에서 진보하고 있는 시대에

쳐하여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능히 타승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이다. 항일 전쟁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아비시니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태평 천국이나 신헌 혁명과 같은 그러한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중국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의 진보는 어떠한 점에 있는가? 그것은 중국이 이미 완전한 봉건 국가가 아니고 이미 자본주의가 있으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있으며 각성한 또는 각성하고 있는 광범한 인민이 있으며 공산당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한 군대, 즉 공산당이領導하는 중국 홍군이 있으며 수십 년 간의 혁명의 전통적 경험, 특히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의 17년 간의 경험이 있는 데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국 인민을 교양하고 중국의 정당들을 교양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단결하여 항일하는 기초로 되고 있다. 가령 로씨야에서 1905년의 경험이 없이는 1917년의 승리가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지난 17년 동안의 경험이 없이는 항일의 승리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국내적 조건이다.

국제적 조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고립되지 않게 하고 있다. 이 점도 력사 상에 전례 없는 것이다. 력사 상에 있어서 중국의 전쟁이나 인도의 전쟁이나를 물론하고 모두 다 고립적인 것이었다. 오직 오늘에 와서야 세계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되고 있는, 전례 없이 광범하고 심각한 인민 운동 및

중국에 대한 그 원조가 있게 되었다. 로씨야의 1917년의 혁명도 세계적 원조를 받았으며 로씨야의 로동자와 농민은 이로 인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 원조의 규모는 오늘날처럼 광범하지 못 하였으며 그 성격도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못 하였다. 오늘 세계의 인민 운동은 전례 없이 대규모적으로, 전례 없이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다. 더우기 쓰련의 존재는 오늘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쓰련은 필연코 극히 큰 열성을 가지고 중국을 원조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20년 전에는 전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들을 조성하였으며 또 조성하고 있다. 대량적이고 직접적인 원조가 아직은 없으며 태일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중국은 진보하고 있다는 조건과 큰 나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의 기간을 연장시켜 국제적 원조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

(17) 거기에다가 일본은 작은 나라로서 땅이 작고 자원이 적고 사람이 적고 군대가 적으며 중국은 큰 나라로서 땅이 크고 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다는 이 조건을 가산한다면 강약의 대비 외에 또 나라가 작고 퇴보적이고 원조자가 적은 것과 나라가 크고 진보적이고 원조자가 많은 것이 대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곧 중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근거이다. 비록 강약의 대비가 일본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정도로 중국에서 횡행할 수 있고 중국은 불가피적으로 한 시기고난의 길을 걷게 되며 항일 전쟁은 속결전이 아니

고 지구권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나라가 작고 퇴보적이고 원조자가 적은 것과 나라가 크고 진보적이고 원조자가 많은 것의 대비는 또 일본이 끝까지 횡행하지 못 하고 필연적으로 종국적인 실패를 당하게 되며 중국이 절대 망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18) 아비시니아는 어째서 멸망 당하였는가? 첫째로, 이 나라는 약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였다. 둘째로, 이 나라는 중국 만큼 진보하지 못 하였다. 이 나라는 낡은 노예제로부터 농노제로 넘어 가고 있던 국가로서 자본주의도 없고 부르주아 당도 없고 공산당은 물론 없었고 중국과 같은 근대도 없었으며 팔로군과 같은 군대는 더구나 없었다. 셋째로, 이 나라는 국제적 원조를 기다릴 수 없었으며 그 전쟁은 고립적이었다. 넷째로——이것은 주요한 것이다——이탈리아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의 지도 면에 오류가 있었다. 아비시니아는 이 때문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아비시니아에는 아직 상당히 광범한 유격 전쟁이 있다. 만일 그것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장차의 세계 변동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자기의 조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9) 만일 망국론자들이 중국 근대의 해방 운동의 실패의 역사를 들고 나와 《항전하면 반드시 망한다》, 《계속 싸우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을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역시 시대가 다르다는 한 마디로써 대답할 수 있다. 중국 자체나 일본 내부나 국제적 환경이나 다 과거와 다르다. 일본은 과

거에 비하여 더 강하여졌고 중국의 반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지위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며 그 역량이 여전히 매우 약하다는 이 점은 엄중한 사태이다. 일본은 아직 당분간 자국의 인민을 제압할 수 있으며 또 국제 간의 모순을 중국 침략의 도구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 전쟁 행정에서 필연코 상반되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점이 지금에 있어서는 아직 사실로 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가서는 필연코 사실로 될 것이다. 망국론자들은 이 점을 넘두에 두지도 않는다. 중국은 어떠한가? 오늘날 중국은 10여 년 전과는 아주 달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당, 새로운 군대 및 새로운 항일 정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은 필연코 발전할 것이다. 력사 상의 해방 운동은 여러 차례의 좌절을 당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오늘 의 항일 전쟁에 사용할 더 큰 역량을 축적할 수 없게 하였지만——이것은 매우 뼈저린 력사적 교훈으로서 금후에는 그 어떤 혁명 력량이라도 스스로 파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기초에서 커다란 노력을 더 가한다면 점차로 전진하여 항전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위대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이러한 노력의 총적 방향이다. 국제적 원조 면에 있어서 아직 다량적이며 직접적인 원조는 보이지 않지만 국제적 국면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다량적이며 직접적인 원조가 지금 조성되는 중에 있다. 중국의 근대의 무수한 해방 운동이 실패한 것은 오늘날의 정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객관적 및 주관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비록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며 적의 곤란은 금방 시작되었을 뿐이고 우리의 진보는 아직 매우 불충분한 등등과 같은 수 많은 곤란한 조건들이 존재하여 함일 전쟁을 간고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을 타승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매우 많다. 오직 주관적 노력을 가하기만 하면 곤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은 오늘 만큼 있어 본 때가 력사 상에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곧 함일 전쟁이 결코 력사 상의 여러 해방 운동처럼 실패로 돌아 가지는 않는다는 리유이다.

### 타협이나, 항전이나? 부패이나, 진보이나?

(20) 망국론이 무근거함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밖에 또 많은 사람들은 망국론자인 것이 아니라 애국지사이기도 하지만 시국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품고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일본과의 타협을 두려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가 진보할 수 없지 않을까 하여 의심하는 것이다. 걱정할 만 한 이 두 가지 문제는 광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논의되고 있으나 해결의 기점을 발견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자.

(2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협 문제는 자체의 사회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회적 근원이 존재하는 한 타협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타협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이 점을 증명하려면 역시 일본, 중국, 국제 등 세 개 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첫째, 일본 측이다. 항전 초기에 벌써 우리는 타협의 풍기를 조성하는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즉 적이 화복과 강소성, 절강성을 점령한 후에 투항 권유 수단을 쓸 것이라는 것이었다. 후에 과연 이 수단을 썼으나 위기는 곧 지나가고 말았다. 그 원인의 하나는 적이 보편적인 야만 정책을 취하여 공개적인 략탈을 감행한 데 있다. 중국이 항복한다면 누구나 다 망국노로 될 것이다. 적의 이러한 략탈적 정책, 즉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정책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비단 하층 민중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상층 분자에 대하여서도 실시되고 있다——물론 후자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사정을 두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인 구별은 없다. 대체로 적들은 동3성에서 쓰던 낡은 방법을 내지에 그 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일반 인민의 입을 것, 먹을 것을 략탈하여 광범한 인민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하며 생산 도구를 략탈하여 중국의 민족 공업을 궤멸시키며 예속화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중국 인민의 민족적 의식을 말살시킨다. 태양기 밑에서 매개 중국 사람은 오직 순량한 백성으로 되어 소나 말처럼 살아야 하며 조금도 중국 사람의 기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들은 이 야만 정책을 더 깊은 내지까지 실시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탐욕이 한 없이 커서 전쟁을 중지하려 하지 않는

다. 1938년 1월 16일에 일본 내각이 선언한 방침<sup>[7]</sup>은 지금도 건결히 집행되고 있으며 또 집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모든 계층의 중국 사람을 격노시켰다. 이것은 적이 진행하는 전쟁의 퇴보성과 야만성으로부터 오는 《피하기 어려운 재난》이다. 이 때문에 절대적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어떤 시기에 이르면 적의 투항 권유 수단이 또 나타날 것이며 일부의 망국론자가 또 준동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갈 데 없이 국제 상의 일부 분자들(영국, 미국, 프랑스의 내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영국의 상층 분자가 그러하다)과 야합하여 나쁜 짓을 하리라는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대세의 추향을 보아 항복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전쟁의 건결성과 특수한 야만성이 이 문제의 한 면을 규정하고 있다.

(22) 둘째, 중국 측이다. 중국에는 항전을 견지하는 세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인민을 항일어로 령도하는 믿음직한 력량이다. 다음 하나는 국민당이다. 국민당은 영국,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투항하라고 하지 않는 한 그 역시 투항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정당들이다. 그 대다수는 타협을 반대하며 항전을 지지한다. 이 3자는 서로 단결되어 있으며 타협하려 하는 자는 곧 민족 반역자 측으로 넘어 서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단죄할 것이다. 민족 반역자가 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하여 항전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타협은 실제 상 성공하기 어렵다.

(23) 셋째, 국제적 방면이다. 일본의 동맹국 및 자본주



의 제 국가의 상층 분자 중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죄다 중국의 타협에 불리하고 중국의 항전에 유리하다. 이 요인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날 전국 인민들은 중국에 대한 국제적 력량의 원조가 반드시 점점 증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특히 쓰련의 존재는 중국의 항전을 고무하고 있다. 전례 없이 강대한 사회주의적 쓰련은 중국과 본래부터 안락과 환난을 같이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체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 상층 분자들과는 정반대로 쓰련은 모든 약소 민족과 혁명 전쟁을 원조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삼고 있다. 중국 전쟁의 비고립성은 일반적으로 전반 국제적 원조에 령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적으로는 쓰련의 원조에 령각하고 있다. 중 소 량국이 지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점은 일본의 위기를 가중하게 하며 중국의 항전에 편리를 준다. 중 일 량국의 지리적 접근은 중국 항전의 끈난을 가중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과 쓰련의 지리적 접근은 중국 항전의 유리한 조건이다.

(24)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타협의 위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적의 정책이 어느 정도 개편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편될 수는 없으며 중국의 내부에 타협의 사회적 근원이 있기는 하나 타협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력량에 있어서도 일부분은 타협을 찬

조하고 있으나 주요한 력량은 항전을 찬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 타협의 위기를 극복하고 항전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다.

(25) 이제 둘째 문제에 대답하기로 하자. 국내 정치의 개진은 항전의 견지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정치가 개진되면 될수록 항전이 더욱 견지될 수 있으며 항전이 견지되면 될수록 정치는 더욱 개진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전을 견지하는 데 의존한다. 국민당의 각 방면에서의 좋지 못한 현상은 엄중히 존재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쌓여 내려 온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은 광범한 애국지사들을 몹시 우려, 번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항전의 경험은 10 개월 간의 중국 인민의 진보가 과거 여러 해 동안의 진보와 대등하므로 비판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쌓여 내려 온 부패한 현상은 인민의 항전 력량의 장성 속도를 엄중히 저해하며 전쟁의 승리를 감소하고 전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 및 세계의 전반 정세는 중국 인민이 진보하지 않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 즉 부패한 현상이 존재하므로 이런 진보는 더디다. 진보하는 것과 진보가 더딘 것은 현 시국의 두 개 특성이다. 후자는 전쟁의 절박한 요구에 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애국지사들이 크게 걱정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 전쟁 중에 있다. 혁명 전쟁은 일종의 항독소로서 적의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점도 제거할 것이다. 정의적이고 혁명적인 모든 전쟁은 그 력량이 매우

크다. 그것은 많은 사물을 개조할 수 있으며 혹은 사물의 개조를 위한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중일 전쟁은 중일 량국을 개조할 것이다. 중국이 항전을 견지하고 통일 전선을 견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낡은 일본을 새 일본으로 만들 수 있고 낡은 중국을 새 중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중일 량국의 사람과 사물은 이번 전쟁 행정에서와 전쟁 후에 모두가 개조될 것이다. 우리가 항전과 국가 건설을 련관시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일본도 개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 통치자들의 침략 전쟁이 실패로 돌아 가고 일본의 인민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인민 혁명이 승리하는 날이 바로 일본이 개조되는 때이다. 이것은 중국의 항전과 밀접하게 련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전망을 내다 보아야 한다.

## 망국론은 옳지 못 하며 속승론도 옳지 못 하다

(26) 우리는 강약, 대소, 진보와 퇴보, 원조자가 많은 것과 원조자가 적은 것 등 적아 간의 몇 가지 모순되는 기본 특성을 대비 연구하고 망국론을 톤박하였으며 어째서 타협이 용이하지 않으며 어째서 정치가 진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였다. 망국론자들은 강약이라는 모순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전체 문제의 톤거로 삼으면서 기타의 모순을 흘시하고 있다. 그들이 강약의 대비만을 들고 나오는 이

것은 그들의 일면성이며 또 그들이 이 일면적인 것을 과장하여 전체로 보는 이것은 그들의 주관성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망국론자도 아니고 일관적인 비판주의자도 아니지만 단지 한때, 한 국부에 있어서의 적아의 강약의 정황 또는 국내의 부패한 현상에 미혹되어 일시적으로 비판적인 심리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의 견해의 근원이 역시 일면적 및 주관적 경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시정하기 쉽다. 그들은 애국지사이며 그들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깨우쳐 주기만 하면 알게 된다.

(27) 그러나 속송론자들도 역시 옳지 못하다. 그들은 혹은 강약이라는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기다의 모순만을 고려하거나 혹은 중국의 장점을 과장하여 진상을 떠난 다른 상태로 만들거나 혹은 나무'잎에 눈이 가리어 태산을 보지 못 하듯이 한때, 한 곳에 있어서의 강약의 현상으로 전체에 있어서의 강약 현상을 대체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흔히 이 점을 말살하기 때문에 진리의 한 면을 말살하게 된다. 그들은 또 자기의 장점의 국한성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므로 진리의 다른 한 면을 말살하게 된다. 이리 하여 크거나 작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도 주관성과 일면성이 장난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벼들의 생각은 선의적인 것이며 이들도 역시 애

국지사이다. 그러나 《그대의 뜻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대의 견해는 옳지 못하므로 그 대로 하여 나아가다가는 틀림 없이 실패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그 판단이 진상과 일치되지 못 하면 그 행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억지로 한다면 싸움에 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여 결과는 패배주의자들과 다를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송론도 취할 바가 못 된다.

(28) 우리는 망국의 위험을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앞길에 해방과 망국이란 두 개 가능한 전도가 놓여 있으며 이 양자가 맹렬히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 우리의 임무는 망국을 피하고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해방을 실현하는 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중국의 진보이며 이 밖에 또 적의 곤난과 세계의 원조가 있다. 우리는 망국론자와 달라서 망국과 해방의 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승인하며 해방의 가능성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해방을 달성할 조건을 강조하여 지적하는 동시에 이 조건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망국론자들은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망국의 가능성만 승인하고 해방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들이 해방의 조건을 지적하지 못 하며 이 조건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타협의 경향과 부패한 현상이 있다는 것도 승인하지만 기라의 경향과 기라의 현상도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양자 중에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점차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과

량자가 맹렬히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후자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지적하면서 타협적 경향을 극복하며 부패한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이다.

(29) 우리도 속승을 좋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일 하루 아침에 당장 《왜놈》을 몰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정한 조건이 없이는 속승이란 머리 속에나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환상이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아의 모든 정황을 객관적으로, 전면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 지구전만이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혀 무근거한 속승론을 배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국적 승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조건이 한 가지라도 더 구비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구비되면 승리의 신심도 그 만큼 더 커지며 승리의 시일도 그 만큼 더 빨라진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야만 전쟁 행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며 편이만 탐하고 공담만 숭상하는 속승론을 배격한다.

### 어째서 지구전인가?

(30) 이제 우리는 지구전 문제를 연구하여 보기로 하자. 《어째서 지구전인가》라는 이 문제는 적아 대비의 모든 기본

적 요인에 의거하여야만 그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케컨대 적은 제국주의적 강국이고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건적 약국이라고만 말한다면 망국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적하는 것이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물론하고 지구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대소의 대비나 단순한 진보와 퇴보, 원조자가 많은 것과 원조자가 적은 것과의 대비도 마찬가지이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키거나 작은 것이 큰 것을 삼키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진보적인 국가나 진보적인 사물이라 하더라도 령량이 강하지 못 하면 크고 퇴보적인 국가나 크고 퇴보적인 사물에 의하여 멸망 당하는 일이 흔히 있다. 원조자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그것은 부차적 요인이며 그 작용의 대소는 적아 자체의 기본적 요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일 전쟁을 지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아의 모든 요인의 호상 관계로부터 나온 결론이다.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므로 우리에게서 멸망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적은 또 기타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또 기타의 우점을 가지고 있다. 적의 우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약화시킬 수 있고 그 결점도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 측은 이와 반대로 우리의 우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강화할 수 있고 결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멸망을 면할 수 있으며 적은 종국적 패배를 당할 것이고 전체 제국주의 제도의 붕괴를 면치

못 할 것이다.

(31) 적들은 우점이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다 결점이며 우리는 결점이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다 우점이라면 왜 균형을 가져 오지 못 하고 도리어 지금 적이 우세하고 우리가 열세한 사태를 조성하게 되었는가? 문제를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문제는 지금 적의 강약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여 적의 결점이 아직 당분간 그 강한 요인을 감쇄시키기에 필요한 정도에까지 발전하지 못 하였고 또 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우점도 아직 당분간 그 약한 요인을 극복하기에 필요한 정도에까지 발전하지 못 하였고 또 할 수도 없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나타나지 못하고 불균형이 나타났다.

(32)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며 적이 우세하고 우리가 열세한 이러한 사태가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좀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기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적들은 일정한 정도의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이나 우리가 할 것 없이 모두 일정한 단계에서 일정한 정도로 승리하거나 패배할 뿐 이 한계를 넘어서 전승 또는 전패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첫째로,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원래의 상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우리의 노력이 이러한 상대



적 형세를 더욱 조성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상태로 말한다면 적이 강하기는 하지만 적이 강하다는 이 점은 이미 기타의 불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감쇄되었다. 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아직 적의 우세를 파괴함에 필요한 정도에까지 감쇄되지 않았을 뿐이다. 또 우리가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이 점은 이미 기타의 유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 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아직 우리의 열세를 전번시키는 데 필요한 정도에까지 극복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리하여 적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적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형세가 형성되었다. 쌍방의 강약과 우열이 본래부터 절대적인 것이 아닌 데다가 또 전쟁 행정에서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우리의 노력이 적아의 본래의 강약과 우열의 형세에 더욱 변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적이나 우리가 할 것 없이 일정한 단계에서의 일정한 정도의 승리 또는 패배에 국한되게 되며 따라서 지구전의 국면이 조성된다.

(33) 그러나 정세는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전쟁 행정에서 우리가 올바른 군사적 및 정치적 전술을 운용하며 원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만 한다면 적의 불리한 요인과 우리의 유리한 요인은 전쟁이 연장됨에 따라 발전되어 필연코 적아의 본래의 강약 정도를 계속 변화시킬 것이며 적아의 우열의 형세에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일정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는 때에는 강약의 정도와 우열의 형세에 대변화가 발생되어 적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34) 지금 적은 그 강한 요인을 간신히나마 아직 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항전은 아직 그것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적들은 인력과 물력이 부족한 그 요인이 아직 그 진공을 저지할 정도에까지는 달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아직 그 진공을 일정한 정도에까지 유지하기에 넉넉하다. 자국 내의 계급적 대립과 중국 민족의 반항을 격화시킬 수 있는 요인, 즉 전쟁의 퇴보성과 야만성이라는 이 요인도 아직 그 진공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적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 요인도 지금 변화, 발전 중에 있으나 아직 완전한 고립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우리를 원조하겠다고 표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허다한 군수 자본가와 전쟁 원료 자본가들은 리윤만 추구하느라고 아직도 다량의 전쟁 물자를 일본에 공급하고 있으며<sup>(8)</sup> 그들의 정부<sup>(9)</sup>도 아직 소련과 함께 일본을 제재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항전은 속승할 수 없고 지구전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을 두고 말한다면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약한 요인이 10 개월의 항전에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가져 오기는 하였지만 적의 진공을 저지하며 우리의 반공을 준비할 만한 정도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그 거리가 매우 멀다. 뿐만 아니라 량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유리한 각종 요인이 적극적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적의 진공을

중지시키며 우리의 반공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려면 아직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적으로 부패한 현상을 극복하고 진보의 속도를 증가하며, 대외적으로 일본을 원조하는 세력을 억제하고 일본을 반대하는 세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직 목전의 현실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전쟁은 속승할 수 없고 지구전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지구전의 세 단계

(35) 중일 전쟁이 지구전이고 또 종국적 승리가 중국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구전이 세 단계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1 단계는 적의 전략적 진공, 우리의 전략적 방어의 시기이며, 제 2 단계는 적의 전략적 수비, 우리의 반공 준비의 시기이며, 제 3 단계는 우리의 전략적 반공, 적의 전략적 퇴각의 시기이다. 이 세 단계의 구체적 정형은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지금의 제 조건에 의거하여 전쟁의 추세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것들은 지적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의 행정은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 목질이 많을 것이므로 아무도 중일 전쟁의 《행년책》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전쟁 추세의 룬곽을 그려 내는 것은 전략적 지도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이 룬곽이 장래의 사실과 완전히 부합되지는 못하고 사실에 의하여 시정된다 하더라도 지구전의 전략적 지도를 확호히,

합목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견지에서 그 룹밖을 그려 내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36) 제 1 단계는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 적의 기도는 광주, 무한, 란주 등 세 지점을 점령하고 그것들을 련결시키려는 것이다. 적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50 개 사단, 약 150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1 년 반 내지 2 년이라는 시일과 일본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될 것이다. 적이 이와 같이 깊이 들어 오자면 그 곤난은 비상히 클 것이며 그 후과는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월한[광주-한구] 철도와 서란[서안-란주]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적들은 비상히 위험한 전쟁을 겪어야 할 것이며 그러고서도 그 기도가 꼭 그 대로 달성되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작전 계획은 적이 세 지점, 심지어는 세 지점 이외의 어떤 부분적 지구도 점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런 곳들을 서로 련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지구전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설혹 적이 그 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법이 있게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는 전쟁 형태는 주로 운동전이고 유격전과 진지전은 이에 대한 보조로 된다. 이 단계의 제 1 기에 있어서 국민당 군사 당국의 주관적 오류로 말미암아 진지전을 주요한 지위에 올려 놓았으나 전체 단계로 보면 진지전은 여전히 보조적인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광범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전례 없는 단결을 가져 왔다. 적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자기의 속결 계획을 실현하여 전 중국을 몽땅 정

복하기 위하여 야비하고 파렴치한 투항 권유 수단을 취하여 왔고 또 취할 것이지만 그것은 지난날에도 실패하였거니와 앞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큰 손실을 입었지만 동시에 또 매우 큰 진보를 가져왔다. 이러한 진보는 제 2 단계에서 항전을 계속하기 위한 주요한 기초로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 쓰련은 벌써 우리나라에 대량적인 원조를 주었다. 적측을 보면 적의 사기는 저락되기 시작하였고 적의 육군은 그 진공의 예기가 이 단계의 중기에 있어서 벌써 초기보다 못 하여졌으며 말기에는 초기보다 더욱 못 하게 될 것이다. 적의 재정과 경제는 고갈 상태를 보여 주기 시작하였고 인민과 병사의 염전 기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 지도층 내부에서는 그 《전쟁의 번민》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의 진도에 대한 비판이 자라나고 있다.

(37) 제 2 단계는 전략적 대치 단계라고 이름할 수 있다. 제 1 단계의 말기에 이르면 적의 병력 부족과 우리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적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전략적 진공의 종점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종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전략적 진공을 중지하고 점령지를 수비하는 단계로 넘어 갈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적의 기도는 점령지를 수비하며 괴뢰 정부를 조직하는 기만적 방법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중국 인민에게서 모든 것을 모조리 약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 완강한 유격 전쟁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유격 전쟁은 제 1 단계에 적후

가 빈 틈을 타서 보편적으로 발전되어 허다한 근거지를 창설하고 적의 점령지 수비를 기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2 단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광범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작전 형태는 주로 유격전일 것이고 운동전은 이에 대한 보조로 될 것이다. 이 때에 중국은 여전히 대량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한 편으로는 적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대도시와 주요 교통선에서 전략적 수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기술적 조건이 당분간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즉시로 전략적 반공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면 방어 부대를 제외하고 아군은 대량적으로 적후에 들어가 비교적 분산적으로 배치되어 적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모든 지구에 의지하고 민중의 무장력과 배합하여 적의 점령지에 대한 광범하고 맹렬한 유격 전쟁을 진행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을 운동전에 끌어 들여 소멸할 것이다. 즉 지금 산서성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의 전쟁은 잔혹할 것인바 지방들은 엄청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은 승리할 수 있으며 잘 하기만 하면 적으로 하여금 점령지의 3분의 1 좌우의 지역 밖에 차지할 수 없게 하며 3분의 2 좌우는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적의 대실패이며 중국의 대승리이다. 그 때에는 적의 전체 점령지가 세 가지 지구로 구분될 것이다. 즉 제 1 종은 적의 근거지이며, 제 2 종은 유격 전쟁의 근거지이며, 제 3 종은 쌍방이 쟁탈하는 유격구일 것이다. 이 단계의 시일의 장단은 적아

력량의 증감 변화 정도 여하와 국제 정세의 변동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시일을 비교적 길게 끌 준 비를 하여 이 고난의 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극히 고통스러운 시기인 것이며 경제적 곤란과 민족 반역자들의 교란이 두 가지의 큰 문제로 될 것이다. 적들은 중국의 통일 전선을 파괴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게 될 것이며 적의 점령지에 있는 민족 반역자들의 일체 조직은 합류되어 소위 《통일 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대도시의 상실과 전쟁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동요 분자들이 타협론을 크게 부르짖게 될 것이며 비관적 기분이 심히 증대될 것이다. 이 때에 있어서의 우리의 임무는 전국의 민중을 동원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절대 동요함이 없이 전쟁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하며 일체의 비관주의와 타협론을 배격하며 간고한 투쟁을 창도하며 새로운 전시 정책을 실시하여 이 고난의 길을 지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건결히 통일적 정부를 유지하고 분렬을 반대하며 계획적으로 작전 기술을 증강하며 군대를 개조하며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반공격을 준비할 것을 전국에 호소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 있어서 국제 정세는 일본에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며 비록 체임벌린 따위의 소위 《기성 사실》에 옹화하는 《현실주의》적 론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한 국제 세력은 한 걸음 더 중국을 원조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남양과 씨비리에 대한 일본의 위협은 과거보다 더 심하여질 것이며 심지어는 새로운 전쟁까지 폭발될 것이다. 적측

을 본다면 적들은 중국의 진흙 구렁에 빠져 있는 수십 개의 사단을 빼 낼 수 없을 것이다. 광범한 유격 전쟁과 인민의 항일 운동은 이 대량의 일본 군대를 몹시 지치게 하여 그것을 대량적으로 소멸하는 한 편 그들의 향수, 염전적 심리, 나아가서는 반전적 심리를 일층 더 조장시켜 정신적으로 이 군대를 와해시킬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략탈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 하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자본이 부족하고 또 유격 전쟁에 시달려 급격하고 대량적인 성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제 2 단계는 전반 전쟁에 있어서의 과도적 단계이며 또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환의 계기로 될 것이다. 중국이 독립국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로 전락되느냐 하는 것은 제 1 단계에 있어서의 대도시의 상실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2 단계에 있어서의 전 민족적 노력 정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며 지구전을 견지한다면 중국은 이 단계에서 약한 역량으로 부러 강한 역량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 항전의 3 막 극 중에서 이것이 제 2 막이다. 전체 배우들의 노력에 의하여 가장 다채로운 종막이 훌륭하게 상연될 수 있을 것이다.

(38) 제 3 단계는 잃은 국토를 수복하는 반공 단계이다. 잃은 국토의 수복은 주로 제 2 단계에서 준비되고 제 3 단계에서 계속 장성되는 중국 자체의 역량에 의존한다. 그러나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역시 부족하므로 또 국제적 역량의 원조와 적국 내부의 변화에 의한 원조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국제적 선전과 외교 활동의 임무가 가중하여지게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 전쟁은 벌써 전략적 방어가 아니라 현상에 있어서 전략적 진공으로 표현되는 전략적 반공으로 전환될 것이며 벌써 전략적 내선이 아니라 점차 전략적 외선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 하여 압록강변까지 쳐 나가야만 이 전쟁을 종결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단계는 지구전의 최종 단계이다. 전쟁을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은 이 단계의 전 행정을 다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게 될 주요한 전쟁 형태는 여전히 운동전일 것이지만 진지전도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만일 제 1 단계의 진지 방어가 당시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제 3 단계의 진지 공격은 조건의 변화와 임무의 요구로 말미암아 꼭 중요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유격전은 제 2 단계에 있어서 주요 형태였던 것과는 달리 운동전과 진지전을 보조하여 다시 자기의 전략적 배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9) 이로 보아 전쟁의 장기성과 이에 따르는 잔혹성은 명백한 것이다. 적이 중국을 몽땅 삼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동안 중국의 허다한 지방을 점령하고 있을 수는 있다. 중국도 일본을 급속히 구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령토가 여전히 중국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최후에 가서는 적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지만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0) 중국 인민은 이러한 장기적이며 잔혹한 전쟁 과정에서 훌륭히 단련될 것이다. 전쟁에 참가한 각 정당도 단련되고 시련될 것이다. 통일 전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직 통일 전선을 견지함으로써만 전쟁을 견지할 수 있으며 오직 통일 전선과 전쟁을 견지함으로써만 종국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과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곤난을 극복할 수 있다. 전쟁의 고난의 길을 지난 후이면 승리의 탄탄 대로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자연적인 논리이다.

(41) 세 단계에 있어서 적의 역량 변화는 다음과 같은 길을 따라 진행될 것이다. 제 1 단계에 있어서 적들은 우세하고 우리는 열세이다. 우리의 이러한 열세에는 항전 이전으로부터 이 단계의 말기까지에 두 가지 상이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첫째는 하강적 변화이다. 중국의 본래의 열세는 제 1 단계에 있어서의 소모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것은 즉 토지, 인구, 경제력, 군사력, 문화 기관 등의 감축이다. 제 1 단계의 말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정도에까지 감축될는지 모른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그렇다. 이 점은 일부 사람들에게 망국론 및 타협론의 근거로 리용될 것이다. 그러나 둘째 변화, 즉 상승적 변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즉 전쟁에 있어서의 경험, 군대의 진보, 정치의 진보, 인민의 동원, 문화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 유격 전쟁의 출현, 국제적 원조의 증가 등등이다. 제 1 단계에 있어서 하강하는 것은 낡은 량과 질인바 그것은 주로 량에서 표현되며 상승하는 것은 새로운 량과 질인바

그것은 주로 질에서 표현된다. 이 둘째 변화는 우리에게 지구전을 할 수 있고 종국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준다.

(42) 제 1 단계에 있어서 적측에도 역시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하강적인 변화이다. 그것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 무기와 탄약의 소모, 사기의 저락, 국내 인심의 불만, 무역의 축소, 일본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의 지출, 국제 여론의 비난 등등의 방면에서 나타난다. 이 점은 또 우리에게 지구전을 할 수 있으며 종국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준다. 그러나 적의 둘째 변화, 즉 상승적 변화도 예견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령토와 인구와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점은 또 우리의 항전이 지구전이며 속승할 수 없다는 근거로 되는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 망국론 및 타협론의 근거로도 리용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 이러한 상승적 변화의 일시적 및 국부적인 성격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은 곧 붕괴될 제국주의자이며 그들의 중국 령토 점령은 일시적이다. 중국 유격 전쟁의 맹렬한 발전은 그들의 점령 지역을 실제 상 협소한 지대에 국한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의 중국 령토 점령은 일본과 외국과의 모순을 발생시키며 또 그것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3성의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은 일반적으로 리익을 얻는 시기에 처하지 못하고 자본을 지출하는 시기에 처하게 될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또 우리가 망국론과 타협론을 격파하고 지구론과 종국적 승리론을 확립하는 근거로 된다.

(43) 제 2 단계에 있어서 쌍방의 상술한 변화는 계속 발전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정형은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일본은 계속 하강할 것이고 중국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sup>[10]</sup>. 예를 들면 일본은 그 군사력, 재력이 중국의 유격 전쟁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소모되며 국내의 인심이 더욱 불만에 차게 되며 사기가 더욱 저락되며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그 정치, 군사, 문화 및 인민 동원이 더욱 진보되며 유격 전쟁이 더욱 발전되며 경제적 영역에서도 내지의 소공업과 광대한 농업에 의지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며 국제적 원조도 점차 증가되어 지금의 정형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제 2 단계는 아마 상당히 긴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에 적아의 역량 대비에는 상반되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되어 중국은 점차 상승하게 되고 일본은 점차 하강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 중국은 열세로부터 벗어 나고 일본은 우세로부터 벗어 나 처음에는 균형적인 지위에 도달하고 다음에는 우열이 상반되는 지위에 도달할 것이다. 그 다음 중국은 대체로 전략적 반공의 준비를 완성하고 반공을 실행하여 적을 국외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 설 것이다. 열세를 우세로 전화시키고 반공 준비를 완성한다는 것에는 중국 자체의 역량의 장성과 일본의 곤난의 증대 그리고 국제적 원조의 증대가 포함되며 이 모든 역량이 종합되어 중국의 우세가 형성되고 반공의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여야 하겠다.

(44)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적 상태에 의하여 제

3 단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반공이 그 초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획일적인 형태로가 아니라 지역성을 띠게 되며 여기에서 일어 나면 저기에서 가라앉는 형태로 될 것이다. 각종 분화 수단을 취하여 중국의 통일 전선을 파멸시키려는 적의 시도는 이 단계에서도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내부적 단결의 임무는 더욱 중요하여진다. 내부적인 불화로 인하여 전략적 반공이 중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국제 정세는 중국에 크게 유리한 데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의 임무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리용하여 자신의 철저한 해방을 쟁취하고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창건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세계의 반파쇼 운동을 원조하는 것으로 된다.

(45) 중국은 열세로부터 균형을 거쳐 우세에 도달하며 일본은 우세로부터 균형을 거쳐 열세에 도달하며 중국은 방어로부터 대치물 거쳐 반공에 도달하며 일본은 진공으로부터 수비를 거쳐 퇴각에 도달하는 것——이것이 즉 중일 전쟁의 과정이며 중일 전쟁의 필연적 추세이다.

(46) 그러므로 문제와 결론은 이렇다. 중국이 망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망하지 않는다, 종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이다. 중국이 속히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속히 승리할 수 없다, 지구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론이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47) 여기까지 말하면 망국론자와 타협론자들은 또 나서서 중국이 열세로부터 균형에 도달하려면 일본과 대등한 균

사력과 경제력을 가져야 하며 균형으로부터 우세에 도달하려면 일본을 통과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상술한 결론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48) 이것은 소위 《무기 만능론》<sup>[11]</sup>이며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이며 문제를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우리의 견해는 이와 반대로 무기를 볼 뿐만 아니라 인력을 보는 것이다. 무기는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결정적 요인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역량 대비는 군사력 및 경제력의 대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력 및 인심의 대비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사람이 장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사람의 대다수와 일본 사람의 대다수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의 대다수가 항일 전쟁 측에 선다면 일본의 소수인이 강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래도 우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열세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우세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도 없이 중국이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점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장기적인 전쟁 및 내외적 모순에서 오는 약화로 말미암아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또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도 중국이 우세로 전환될 수 없단 말인가? 이 뿐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대량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자기 측의 력

량에 가산할 수 없으나 장래에도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만일 일본의 적이 중국 한 나라 뿐이 아니라면, 만일 장차 한 개 나라 또는 몇 개 나라가 상당히 대량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일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 또는 공격하며 우리를 공개적으로 원조하게 된다면 우세는 더욱 우리 측에 있을 것이 아닌가? 일본은 작은 나라이며 그 전쟁은 퇴보적이고 야만적이며 그 국제적 지위는 더욱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며 그 전쟁은 진보적이고 정의적이며 그 국제적 지위는 날로 원조자가 더 많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장기적 발전을 경과한 후에도 적아 간의 우련의 형세에 확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단 말인가?

(49) 속승론자들을 놓고 보면 그들은 전쟁이 력량의 경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전 쌍방의 력량 대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되기 전에 전략적 결전을 진행하려 하며 지레 해방의 길에 들어 서려 하는데 이것 역시 무근거한 것이다. 그 견해대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정말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담이나 하고 흠족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사실이라는 선생이 뛰여 나와 이러한 공담가들에게 랭수를 한 바가지 끼었을 것이며 그들이 힘은 멀 들이고 수확은 많이 거두려는, 편이만 탐하는 공담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러한 공담주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으나 아직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전쟁이 대치 단계와 반공 단계를

에까지 발전되면 공담주의가 아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제 1 단계에서 중국의 손실이 비교적 크고 제 2 단계의 기간이 아주 오래 끌게 되면 망국론과 타협론이 더욱 대대적으로 유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력은 주로 망국론과 타협론에 돌려져야 하며 이차적인 화력으로 공담주의적인 속승론을 반대하여야 한다.

(50) 전쟁의 장기성은 확정된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일을 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적의 전력의 변화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전쟁의 시일을 단축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자체의 역량을 증가하며 적의 역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전에서 승전을 많이 하여 적의 군대를 소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유격 전쟁을 발전시켜 적의 점령지를 최소 한도의 범위에 국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 전국의 역량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운 군대의 창건과 새로운 군수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진보를 추동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로동자, 농민, 실업계, 지식계 등 각계 인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적군을 와해시키고 적군의 병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제적 원조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적 선전에 노력하며 일본 인민 및 기타 피압박 민족의 원조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서만 전쟁의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밖에는 다른 어떠한 교묘하고 간편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 견아 상처의 전쟁

(51) 우리는 지구전인 항일 전쟁이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특수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견아 상처의 전쟁 형태는 이 전쟁의 매우 특수한 점의 하나이다. 이것은 일본이 야만적이고 병력이 부족하며 중국이 진보적이고 국토가 광대한 이런 모순되는 요인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견아 상처의 전쟁은 역시 역사 상에 있었던 것이다. 로씨야의 10월 혁명 이후의 3년 간의 국내 전쟁에 이러한 정형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의 그것의 특성은 그 특수한 장기성과 광범성에 있으며 이것은 역사적 기록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아 상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황에서 표현된다.

(52) 내선과 외선——항일 전쟁은 전반적으로 보아 내선 작전의 지위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주력군과 유격대와의 관계를 보면 주력군은 내선에 있고 유격대는 외선에 있다. 이리 하여 적을 협공하는 기이한 광경을 형성하고 있다. 각 유격구 간의 관계도 역시 그러하다. 각 유격구는 모두 그 자체를 내선으로 하고 기타의 각 구를 외선으로 하고 있다. 이리 하여 또 적을 협공하는 매우 많은 화선을 형성하고 있다. 전쟁의 제 1 단계에 있어서 전략 상으로 내선 작전을 하는 정

규군은 후퇴하지만 전략 상으로 외선 작전을 하는 유격대는 광범히 적의 후방을 향하여 대활보로 전진할 것이며 제 2 단계에 있어서는 더욱 맹렬히 전진할 것이다. 이리 하여 후퇴와 전진의 기이한 형태가 형성될 것이다.

(53) 후방이 있는 것과 후방이 없는 것——국가의 총후방을 리용하여 작전선을 적의 점령지의 최후 한계에까지 내뻗치는 것은 주력군이다. 총후방으로부터 리탈하여 작전선을 적후에까지 내뻗치는 것은 유격대이다. 그러나 매개의 유격구에는 의연히 그 자체의 소규모의 후방이 있으며 또한 이에 의거하여 비교적적인 작전선을 설정한다. 이와 구별되는 것은 매개의 유격구에서 파견되어 그 유격구의 적후에 가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유격대이다. 그들에게는 후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전선도 없다. 《후방이 없는 작전》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령토가 팽대하며 인민이 진보적이며 선진적 정당과 선진적 군대가 있는 정황 하에서의 혁명 전쟁의 특성이 다.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크게 유리한 것이며 회의할 것이 아니라 창도하여야 할 것이다.

(54) 포위와 반포위——전반 전쟁을 놓고 본다면 적이 전략적 진공과 외선 작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략적 방어와 내선 작전의 지위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는 적의 전략적 포위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의 첫째 형태의 포위이다. 전략 상의 외선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우리에게로 전진하는 적에 대하여 우리는 수량 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 작전의 방침

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진진하는 적의 한 갈래 또는 몇 갈래를 우리의 포위 가운데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적에 대한 우리의 첫째 형태의 반포위이다. 또 적후에 있는 유격 전쟁의 근거지를 놓고 본다면 매개의 고립된 근거지는 적의 사면 또는 삼면 포위 속에 있다. 전자로는 오대산을 빼돌 수 있고 후자로는 산서성 서북부를 빼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의 둘째 형태의 포위이다. 그러나 가령 각 유격 근거지를 련결시켜 본다면 그리고 각 유격 근거지와 정규군의 진지도 련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또 허다한 적을 포위하고 있다. 빼돌 들면 산서성에서 우리는 동포선을 삼면 포위하고 있고(철도선의 동서 양측 및 남단) 태원시를 사면 포위하고 있으며 하북, 산둥 등 성에서도 이렇게 포위한 것이 많다. 이것은 또 적에 대한 우리의 둘째 형태의 반포위이다. 이와 같이 적아가 다 각각 상대방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포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로 보아 바둑을 두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에게 대한 적의, 적에 대한 우리의 전역 및 전투의 작전은 마치 바둑돌을 서로 따 먹는 것과 같으며 적의 거점(빼돌 들면 태원)과 우리의 유격 근거지(빼돌 들면 오대산)는 마치 바둑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가령 세계적 성격을 띤 바둑까지 넘두에 두고 본다면 또 세째 형태의 적아 간의 포위가 있게 된다. 그것은 침략 전선과 평화 전선과의 관계이다. 적들은 전자로써 중국, 소련, 프랑스, 체스코슬로벤스꼬 등 제 국가를 포위하고 있으며 우리는 후자로써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반포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포위는 마치 석가 여래

의 손'바닥과 갈아서 결국은 우주를 가로막은 오행산으로 화하여 이 몇 개의 신식 손 오공——파쇼 침략주의자들을 그 산 밑에 짓눌러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sup>[12]</sup>. 만일 우리가 외교 면에서 태평양 반일 전선을 결성하여 중국을 하나의 전략적 단위로 삼고 또 소련 및 기타의 가능한 나라들도 각각 하나의 전략적 단위로 삼으며 또 일본의 인민 운동도 하나의 전략적 단위로 삼아 파쇼 손 오공으로 하여금 도망할 곳이 없게 하는, 천지를 뒤덮는 그물을 형성시킨다면 그 때는 바로 적이 멸망하는 때일 것이다. 사실 상 일본 제국주의가 완전히 타도될 날은 반드시 이러한 천지를 뒤덮는 그물이 대체로 펼쳐지는 때일 것이다. 이것은 결코 룡담이 아니라 전쟁의 필연적 추세이다.

(55) 큰 지역과 작은 지역——한 가지 가능성은 적의 점령 지구가 중국 본부의 태반을 차지하게 되고 중국 본부에서의 온전한 구역은 작은 부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정형이다. 그러나 적이 점령하고 있는 태반의 지역 가운데서 적들은 동3성 등지를 제외하고는 실제에 있어서 대도시, 주요 교통선 및 일부의 평지대 밖에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 중요성에서 말하면 첫째로 가지만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말하면 적의 점령 지역의 작은 부분 밖에 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격구가 도리어 그 태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정형이다. 만일 본부의 범위를 초월하여 몽고, 신강, 칭해, 서장까지 가산한다면 그 면적에 있어서 중국은 상실 당하지 않은 지구가 여전히 태

반이고 적의 점령 지구는 동3성까지 포함시켜도 작은 부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정형이다. 온전한 구역은 물론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력량을 집중하여 이것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치, 군사, 경제 등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 있어서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은 우리의 과거의 문화 중심지물 문화적으로 낙후한 구역으로 만들었으나 우리는 과거에 문화적으로 낙후하던 구역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적후의 광대한 유격구의 건설도 극히 필요하므로 역시 그 각 방면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문화 사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요컨대 중국은 그 큰 지역인 농촌이 진보적이고 광명한 지구로 될 것이며 작은 지역인 적 점령 지구, 특히 대도시가 일시적으로 낙후하고 암흑한 지구로 될 것이다.

(56) 이렇게 보면 장기적이고도 광범한 항일 전쟁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의 건아 상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전쟁사에 있어서의 기관이며 중화 민족의 장거이며 천지를 진감하는 위업이다. 이 전쟁은 중일 량국에 영향을 주어 량국의 진보물 대대적으로 추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 영향을 주어 각국, 우선 인도 등 피압박 민족의 진보물 추동하게 될 것이다. 전체 중국 사람은 모두 이 건아 상처의 전쟁에 자각적으로 투신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화 민족이 자체로 해방을 구하는 전쟁 형태이며 반식민지 대국이 20 세기 30~40 년대에 진행하는 해방 전쟁의 특수한 형태이다.

##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운다

(57) 중국 항일 전쟁의 지구성은 중국 및 세계의 항구한 평화의 쟁취와 분리될 수 없다. 어떠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도 오늘날처럼 전쟁이 항구한 평화와 접근한 적은 없다. 계급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활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다. 민족들마다 민족 집단 내에서 혹은 민족 집단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국주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특히 광범하며 특히 잔혹하게 되었다. 20 년 전의 제 1 차 제국주의 대전은 과거 역사에 있어서 전례 없는 전쟁이었으나 마지막 전쟁인 것은 아니었다. 지금 시작된 전쟁만이 마지막 전쟁에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항구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미 3 분의 1의 인구가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와 일본, 아비시니아와 에스파냐 그리고 또 중국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인구는 약 6억으로서 전 세계 총인구의 거의 3 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목전의 전쟁의 특징은 계속 부절찬 성격과 항구한 평화에 접근하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왜 계속 부절하다고 하는가? 이탈리아는 아비시니아와 싸운 후 뒤'이어 또 에스파냐와 싸우고 있으며 독일도 이에 한 몫을 들고 있으며 뒤'이어 일본이 또 중국과 싸우고 있다. 또 누가 뒤를 이을 것인가? 의심할 바 없이 허를

러가 뒤를 이어 털강들과 싸울 것이다. 《파쇼주의——이것은 전쟁이다》[13]——이 말은 조금도 틀림 없다. 목전의 전쟁이 세계 대전에까지 발전하는 동안에 전쟁은 계속 부질할 것이며 인류는 전쟁의 재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또 이 번 전쟁은 항구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가? 이 번 전쟁은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발전된 기초 위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전반적 위기는 자본주의 제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우선 파쇼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전쟁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로 자본주의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붕괴에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이 전쟁은 20 년 전의 전쟁보다 더 크고 더 가혹할 것이며 모든 민족은 불가피적으로 거기에 끌려들어 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시일은 매우 오래 끌게 될 것이며 인류는 막대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존재와 세계 인민의 각성 정도의 제고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일체의 반혁명 전쟁을 반대하는 위대한 혁명 전쟁이 나타나서 이 전쟁으로 하여금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성격을 띠게 할 것이다. 그 후에 전쟁 시기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는 그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일단 자본주의를 소멸하면 항구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 때에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군대가 필요하지 않고 군함도 필요하지 않으며 군용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고 독가

스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때로부터 인류는 억만 년을 가도 전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혁명 전쟁은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이 전쟁의 일부분이다. 5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일 양국 간의 전쟁은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중화 민족은 이 전쟁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장래의 해방된 새 중국은 장래의 해방된 새 세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일 전쟁은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58) 력사 상의 전쟁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정의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의 전쟁이다. 모든 진보적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진보를 저애하는 모든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진보를 저애하는 모든 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진보적인 정의의 전쟁은 반대하지 않는다. 후자에 속하는 전쟁에 대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전자에 속하는 전쟁, 예를 들면 제 1 차 세계 대전은 쌍방이 다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전결히 반대하였던 것이다. 반대하는 방법은 전쟁이 폭발하기 전에는 극력 그 폭발을 막으며 폭발한 후에는 가능하기만 하면 전쟁으로써 전쟁을 반대하며 정의의 전쟁으로써 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쟁은 진보를 저애하는 부정의의 전쟁이다. 일본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민은 이것을 반대



하여야 하며 또 반대하고 있다. 우리 중국은 인민으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으로부터 국민당에 이르기까지 일체히 정의의 기치물 추켜 들고 반침략적 민족 혁명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전쟁은 성스러우며 정의적이며 진보적이며 그리고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이며 일시적인 평화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결사전을 하여야 하며 일체 희생은 각오하고 끝까지 견지하여야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 희생은 비록 크고 시일은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항구한 평화와 항구한 광명의 새 세계는 이미 우리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에 종사하는 우리의 신념은 이 항구한 평화와 항구한 광명의 새 중국 및 새 세계를 쟁취하려는 데 립각하고 있다. 파쇼주의와 제국주의는 전쟁을 무제한으로 연장시키려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을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인류의 대다수는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 인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4억 5천만 중국 사람이 한결같이 노력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유, 평등의 새 중국을 창건한다면 전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쟁취하는 위업에 매우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 발전 행정이 이미 이 점에 접근하고 있다. 오직 이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가한다면 몇 10 년 동안에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쟁에 있어서의 능동성

(59) 이상에서 말한 것들은 어쩌서 지구전이며 어쩌서 종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며 대체로 모두가 《어쩌서 그런가》와 《어쩌서 그렇지 않은가》를 말한 것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지 말 것인가》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데로 넘어 가기로 하자. 어떻게 지구전을 진행하며 어떻게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에 대답하려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차례차례 설명하자. 즉 전쟁에 있어서의 능동성, 전쟁과 정치, 항전을 위한 정치적 동원, 전쟁의 목적, 방어에 있어서의 진공, 지구에 있어서의 축결, 내선에 있어서의 외선, 주동성, 령활성, 계획성, 운동전, 유격전, 진지전, 섬멸전, 소모전, 적의 틈을 탈 가능성, 항일 전쟁의 결전 문제,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기본이다 등 문제이다. 그러면 이제 능동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말하여 보자.

(60) 우리가 문제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 말은 어느 사람의 사상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나 또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상이고 허구이며 만일 그 대로 한다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지구전이나 종국적 승리도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출현되지 않는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사람이 객관적 사실

에 근거하여 사상, 원리, 견해를 도출하고 계획, 방침, 정책, 전략, 전술을 제기하여야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 등등은 주관적인 것이며 실행 또는 행동은 주관이 객관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류의 특수한 능동성이다. 이 능동성을 우리는 《자각적 능동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사물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그것에 부합되는 모든 사상은 옳은 사상이며 옳은 사상에 근거한 모든 실행 또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상과 행동을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런 자각적 능동성을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일 전쟁은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낡은 중국을 새 중국으로 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전 중국 인민을 동원하여 항일에 대한 그 자각적 능동성을 충분히 발양하게 함으로써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앓아만 있으면 멸망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지구전이 없이는 종국적 승리도 없다.

(61) 자각적 능동성은 인류의 특성이다. 인류는 전쟁에서 이런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전쟁의 승부는 물론 쌍방의 군사, 정치, 경제, 지리, 전쟁의 성격, 국제적 원조 등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단지 이러한 것에만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만으로는 승부의 가능성이 있을 뿐 그것들 자체로써 승부가 갈라진 것은 아니다. 승부를 가르기 위하여서는 거기에다 주관적인 노력을 더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전쟁을 지도하고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전쟁에 있어서의 자각적 능동성이다.

(62)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객관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를 벗어 나서 전쟁의 승리를 기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 조건의 한도 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능동적으로 쟁취할 수 있으며 또한 쟁취하여야 한다. 전쟁 지휘원들의 활동 무대는 반드시 객관적 조건이 허락하는 기초 위에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들은 이 무대 위에서 다채롭고도 웅장한 수많은 활극을 상연할 수 있다. 제공된 객관적인 물질적 토대 위에서 항일 전쟁의 지휘원들은 자기들의 위력을 발휘하며 전군을 거느리고 민족의 원수들을 타도하여 침략 당하고 있고 압박 받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와 국가의 상태를 개변시키며 자유, 평등의 새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관적 지도 능력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운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 전쟁의 어떠한 지휘원이든지 객관적 조건을 떠나서 되는 대로 부딪쳐 보는 무모한 자가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일 전쟁의 매개 지휘원이 용감하고도 지혜 있는 장군이 될 것을 창도하여야 한다. 그들에게는 적을 압도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전반 전쟁의 변화 발전을 구사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전쟁의 큰 바다 가운데서 헤엄 치고 있는 지휘원은 자신을 가라앉히지 않고 결정적으로 절차 있게 대안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전쟁의 지도 법칙으로서의 전략 전술은 곧 전쟁이라는 큰 바다에서의 유영술이다.

## 전쟁과 정치

(63)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이 점에서 말할 때 전쟁은 곧 정치이며 전쟁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띤 행동이다. 자고로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는 전쟁이란 없었다. 항일 전쟁은 전 민족적 혁명 전쟁으로서 그 승리는 전쟁의 정치적 목적——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자유, 평등의 새 중국을 창건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총방침과 분리될 수 없으며 전국 인민의 동원과 분리될 수 없으며 판병 일치, 군민 일치, 적군 와해 등의 정치적 원칙과 분리될 수 없으며 통일 전선 정책의 훌륭한 집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문화적 동원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국제적 역량 및 적국 인민의 원조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한시라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항일 군인 가운데 만일 정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쟁을 고립시켜 보고 전쟁 절대주의자로 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유를 범한 것이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64) 그러나 전쟁은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이 점에서 말할 때 전쟁은 일반적 정치와 같지 않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sup>[14]</sup>. 정치가 일정한 단계에까지 발전하면 더는 종전 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정치의 길 위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쓸어 버리기 위한

전쟁이 폭발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반독립적인 지위가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 발전의 장애물로 되므로 일본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제국주의의 압박은 일찍부터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장애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해방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 일본이 중국 혁명의 진로를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전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일 전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물이 제거되면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고 전쟁이 종결된다.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목적의 관철을 위하여 전쟁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항일의 임무가 완수되지 않는 한 타협하려는 시도들은 틀림 없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설혹 어떤 연유로 타협하였다 할지라도 전쟁은 또 일어날 것이며 광범한 인민은 반드시 이에 불복하고 전쟁을 계속하여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비류혈적인 전쟁이며 전쟁은 류혈적인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65) 전쟁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전쟁에는 일련의 특수한 조직, 일련의 특수한 방법, 일종의 특수한 과정이 있게 된다. 그 조직이란 즉 군대와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이다. 그 방법이란 즉 전쟁을 지도하는 전략 전술이다. 그 과정이란 즉 적대적 군대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전략 전술을 사용하여 공격 혹은 방어에 종사하는 특수한 사회적

활동 형태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경험은 특수한 것이다.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소의 습관을 버리고 전쟁에 습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 항일을 위한 정치적 동원

(66) 이와 같이 위대한 민족 혁명 전쟁은 보편적이고도 심입된 정치적 동원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항일 이전에 항일을 위한 정치적 동원이 없었던 것은 중국의 큰 결함이며 여기에서 벌써 적에게 한 수를 지고 들어 간 것이다. 항일 이후에 있어서도 정치적 동원이 극히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심도에 있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인민의 대다수는 적의 포화와 비행기의 폭탄에 의하여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일종의 동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적이 우리 대신 해 준 것이다. 포성을 듣지 못한 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대로 조용히 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개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적에게 또 한 수를 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이 한 수를 훌륭히 써서 적을 이겨야 한다. 이 한 수는 아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기 등등이 남만 못한 것은 아직 제 2 차적인 것이고 이 한 수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적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망망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며 무기 등등의 결함을 메울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전쟁의 모든 곤난을 극복하는 전체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승리하려면 항전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견지하며 지구전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과 갈라 놓을 수 없다. 승리하려 하면서도 정치적 동원을 홀시하는 것은 《수레의 앞채를 남쪽에 향하게 하고 수레를 북쪽으로 물러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승리를 말살하고 말 것이다.

(67) 정치적 동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군대와 인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매개 병사와 인민에게 왜 싸워야 하며 싸움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항일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자유, 평등의 새 중국을 창건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모든 군대와 인민에게 알려 주어야만 항일의 거센 물결을 일으켜 수억만 사람들로 하여금 일치 단결하여 모든 것을 전쟁에 바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적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 강령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항일 구국 10대 강령》이 있고 또 《항전 건국 강령》이 있다. 이것을 군대와 인민에게 널리 알려 주는 동시에 그것을 실행하도록 모든 군대와 인민을 동원하여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치 강령이 없이는 끝까지 항일하도록 전체 군대와 전체 인민을 동원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구두 해설을 통하여, 선전 삐라와 포고를 통하여, 신문 출판물



들을 통하여, 연극과 영화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민중 단체를 통하여, 간부를 통하여 동원한다. 지금 국민당 통치 지구에서 이런 것들을 약간 하고는 있으나 창태의 일속에 불과하며 또 그 방법이 민중의 구미에 맞지 않고 그 정신이 민중과는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질실히 개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동원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항일 전쟁의 정치적 동원은 경상화하여야 한다. 그것은 정치 강령을 암송하여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암송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전쟁의 발전 정형에 련게시키며 병사와 백성들의 생활에 련게시키며 전쟁의 정치적 동원을 일상적 운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의존하여 승리하게 된다.

## 전쟁의 목적

(68)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항일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내고 자유, 평등의 새 중국을 창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류의 류혈적 정치로서의 소위 전쟁, 랑군이 서로 살육하는 전쟁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것》이다(적을 소멸한다는 것은 적의 육체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것, 즉 소위 《적의 저항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고

대의 전쟁에서는 창과 방패를 썼다. 창은 진공하는 것으로서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방패는 방어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기는 여전히 이 량자의 연장이다. 폭격기, 기관총, 장거리포, 독가스 등은 창의 발전이며 방공 엄폐부, 철갑모, 콘크리트 시설, 방독면 등은 방패의 발전이다. 탱크는 창과 방패를 하나로 결합시킨 신식 무기이다. 진공은 적을 소멸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방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진공은 직접적으로 적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적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멸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또 진공을 보조하거나 진공에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퇴각은 방어수에 속하는 것으로서 방어의 연장이고 추격은 진공의 연장이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전쟁의 목적에 있어서 적을 소멸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고 자기를 보전하는 것은 제 2 차적이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적을 대량적으로 소멸함으로써만 자기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을 소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되는 진공이 주요한 것이고 적을 소멸하는 보조적 수단인 동시에 자기를 보전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되는 방어는 제 2 차적인 것이다. 전쟁 실제에 있어서는 비록 허다한 경우에 방어물 위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 진공을 위주로 하는 일이 있으나 전반 전쟁을 통하여 본다면 어디까지나 진공이 주요한 것이다.

(69) 전쟁에 있어서 용감한 희생을 창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보전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립되는 동시에 통일되는 것이다. 전쟁은 류혈적인 정치로서 대'가를 내게 되며 때로는 막대한 대'가를 내게 된다. 부분적, 일시적 희생(불보전)은 전체적, 영구적 보전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아 적을 소멸하기 위한 수단인 진공 가운데 자기를 보전하는 작용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방어에는 반드시 동시에 진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방어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리치이다.

(70)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한다는 전쟁의 이 목적은 전쟁의 본질이며 일체 전쟁 행동의 근거이다. 기술적 행동으로부터 전략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본질이 관철되어 있다.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기본적 원칙이며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원리 원칙들은 이를 조금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몸을 엄폐하고 화력을 발휘하라》는 사격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자는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적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를 위하여 지형 지물의 리용, 약진 운동, 대형 산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었으며 후자를 위하여 역시 사계의 청소, 화력망의 조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었다. 전술 상의 돌격대, 견제대, 예비대는 첫째의 것은 적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의 것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세째의 것은 정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돌격대를 증원하거나 추격대로 삼으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 적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며 혹은 전제대를 증원하거나 엄호대로 삼으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원칙과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행동은 전쟁의 목적을 조금도 떠날 수 없으며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전반에 미치고 있으며 전쟁의 시종에 일관되어 있다.

(71) 항일 전쟁의 각급 지도자들은 중일 양국 간의 서로 대립되는 각종 기본 요인을 떠나서 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전쟁의 이러한 목적을 떠나서 전쟁을 지도할 수도 없다. 양국 사이의 서로 대립되는 각종 기본 요인이 전쟁 행동 가운데 전개되면 서로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우리의 전쟁은 매차의 전투에서 대소를 막론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매차의 전투에서 적의 일부분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적의 일부분의 인마, 기자재에 손상을 주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적을 부분적으로 소멸하는 이런 성과들을 거듭하면 큰 전략적 승리를 이루게 되어 적을 우리나라로부터 종국적으로 몰아 내고 조국을 보위하며 새 중국을 건설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방어에 있어서의 진공, 지구에 있어서의 속결, 내선에 있어서의 외선

(72) 이제부터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전략적 방

침을 연구하기로 하자. 우리는 항일의 전략적 방침은 지구전이라는 것을 이미 말하였다. 그렇다, 이것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방침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아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구전을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토론하려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제 1 및 제 2 단계, 즉 적의 진공 및 수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의 전역 및 전투 상의 진공전이여야 하고 전략적 지구에 있어서의 전역 및 전투 상의 속결전이여야 하며 전략적 내선에 있어서의 전역 및 전투 상의 외선 작전이여야 한다. 제 3 단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반공전이여야 한다.

(73) 일본은 제국주의적 강국이고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건적 약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략적 진공의 방침을 취하고 우리는 전략적 방어의 지위에 처하여 있다. 일본은 전략적 속결전을 취하며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의식적으로 전략적 지구전을 취하여야 한다. 일본은 전투력이 매우 강한 수십 개 사단의 특군(지금 벌써 30 개 사단에 달하고 있다)과 일부의 해군으로써 중국을 육, 해 양면으로 포위 봉쇄하고 있으며 또 공군으로써 중국을 폭격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특군은 이미 포두로부터 항주에 이르는 긴 전선을 점령하였으며 그 해군은 복건성과 광둥성에 왔다. 이리 하여 그들은 큰 범위의 외선 작전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내선 작전의 지위에 처하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이 특성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것은 한 면의 정형이다.

(74) 그러나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일본은 비록 강하나 병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비록 약하나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다. 이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생기었다. 첫째로, 적들은 적은 병력으로써 큰 나라를 대적하는 것 만큼 일부의 대도시와 주요한 교통선과 일부의 평지대 밖에 점령하지 못한다. 이리 하여 그들의 점령구역 내에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광대한 지역이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유격 전쟁에 광대한 활동 기반을 지어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령 적이 광주—무한—란주 일선과 그 부근의 지역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은 점령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에 지구전을 진행하며 중국적 승리를 쟁취할 총후방과 중추 근거지를 주고 있다. 둘째로, 적들은 적은 병력으로써 많은 병력을 대적하는 것 만큼 많은 병력의 포위 속에 빠지게 된다. 적들은 여러 갈래로 우리를 진공하는 바 적은 전략적 외선에 처하여 있고 우리는 전략적 내선에 처하여 있으며 적은 전략적 진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전략적 방어를 하고 있어서 보기에 우리는 매우 불리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땅이 넓고 군대가 많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리용함으로써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진지전을 하지 않고 령활한 운동전을 취하여 수개 사로 그의 1개 사단을 대적하고 수만 명으로 그의 1만 명을 대적하고 수로로 그의 1로를 대적함으로써 전장의 외선으로부터 돌연히 그의 1로를 포위하여 공격할 수 있다. 이리 하여 적의 전략적 작전에 있어서의 외선과 진공이 전역 및 전투의 작전에 있어서의 내선과 방어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작전에 있어서의 내선과 방어는 전역 및 전투의 작전에 있어서 외선과 진공으로 전화된다. 그 1로에 대하여 이러하며 그 타로에 대하여서도 이러하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은 적이 작고 우리가 큰 이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적의 군대는 수량은 적지만 강하며(무기와 인원의 소양 정도에 있어서) 우리의 군대는 수량은 많지만 약하기(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만 무기와 인원의 소양 정도에 있어서) 때문에 전역 및 전투의 작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병력으로써 적은 병력을 치며 외선으로부터 내선을 쳐야 할 뿐만 아니라 속결전의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결전을 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적을 칠 것이 아니라 운동 중에 있는 적을 쳐야 한다. 우리는 적이 꼭 지나 갈 길 옆에 미리 많은 병력을 은밀히 집결시켰다가 적이 운동하는 때를 타서 돌연히 전진하여 적을 미처 손 쓸 사이 없이 포위 공격함으로써 신속히 전투를 해결한다. 잘 되면 적의 전부 혹은 대부분 혹은 일부를 소멸할 수 있고 잘 되지 못한다 하여도 적에게 큰 살상을 주게 된다. 한 전투에서 이러할 뿐 아니라 다른 전투에서도 모두 이러하다. 많이는 그만 두고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평형판이나 태아장에서와 같은 비교적 큰 승전을 한다면 적의 사기를 크게 저락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분발시키며 세계의 성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략적 지구진이 전장 작전에 있어서 속결전으로 전화되며 적의 전략적 속결전은 허다한 전역 및 전투에서의 패전을 거침

으로써 지구전으로 전변되지 않을 수 없다.

(75) 상술한 바와 같은 전역 및 전투에서의 작전 방침은 한 마디로 말하면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 방침인 《내선적, 지구적 방어전》에 대하여 말하면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략적 방침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침이다. 만일 항전 초기에 한 것처럼 전역 및 전투의 방침도 마찬가지로 《내선적, 지구적 방어전》이라면 그것은 적이 작고 우리가 크며,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이 두 정형에 전혀 맞지 않는바 도저히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총적인 지구전을 달성할 수 없으며 적에게 격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약간의 큰 야전 병단을 편성하고 그 병력을 적의 매개 야전 병단 병력의 2 배, 3 배 혹은 4 배로 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방침으로써 광대한 전장에서 적과 싸울 것을 언제나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정규전에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격전에서도 취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전쟁의 어느 한 단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반 과정에도 적용된다. 전략적 반공 단계에 들어 가서 우리의 기술적 조건이 증강되어 약한 힘으로 강한 적을 대적하는 이러한 정형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외선으로부터 속결적인 진공전을 진행하면 적을 다량적으로 포로, 로획하는 성과를 일층 더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화한 2 개 혹은 3 개 혹은 4 개의 사로 적의 1 개의 기계화 사단을 대적한다



면 그 사단을 더 확정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장정 여러 명이 장정 한 명을 때려 눕히기 쉽다는 이것은 상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이다.

(76) 우리가 전장 작전에서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을 전결히 취한다면 전장에서 적아 간의 강약, 우열의 형세를 개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 형세도 점차 개변시키게 될 것이다. 전장에 있어서 우리는 진공하고 적은 방어하며 우리는 다수의 병력으로 외선에 처하여 있고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내선에 처하여 있으며 우리는 속결하고 적은 비록 지구하면서 증원을 기다리려 하여도 그들의 마음 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적군 측은 강자이던 것이 약자로 되고 우세이던 것이 열세로 되며 아군 측은 이와 반대로 약자이던 것이 강자로 되고 열세이던 것이 우세로 된다. 이러한 승진을 많이 거듭하고 나면 적아의 전반적 형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전장 작전에 있어서의 허다한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의 승리가 축적되면 점차 자기를 강화하고 적을 약화시키게 되며 따라서 전반적인 강약, 우열의 형세는 그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때에 가서 우리 자체의 기타 조건을 배합시키고 또 적 내부의 변동 및 국제적인 유리한 형세를 배합시키면 적아의 전반적 형세를 균형에 달하게 하며 다시 균형으로부터 우리가 우세하고 적이 열세한 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반공격을 진행하여 적을 우리 나라로부터 몰아 내는 시기이다.

(77) 전쟁은 력량의 경쟁이다. 그러나 력량은 전쟁 행정에서 그 본래의 형태가 변화된다. 이에 있어서는 주관적 노력이, 승전을 많이 하고 오유를 적게 범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객관적 요인은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실현시킴에는 옳은 방침과 주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는 주관적 작용이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 주동성, 령활성, 계획성

(78) 우에서 말한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적, 축결적 진공전의 중심점은 진공에 있다. 외선이란 진공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축결이란 진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외선적, 축결적 진공전》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구전을 실시하는 가장 좋은 방침이며 또 이른바 운동전의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침은 주동성, 령활성 및 계획성을 떠나서는 실시될 수 없다.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자.

(79) 우에서 이미 자각적 능동성을 말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또 주동성을 말하는가? 자각적 능동성이란 자각적인 활동 및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사물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전쟁에서 특히 강렬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에서 이미 말한 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동성이란 군대 행동의 자유권을 가리키

며 이것은 부득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행동의 자유는 군대의 생명이다. 이 자유를 잃는다면 군대는 패전 혹은 소멸에 접근하게 된다. 한 병사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 병사가 행동의 자유를 잃고 부득불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 결과이다. 한 군대의 전패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 쌍방은 모두 주동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피동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제기한 의선적, 속결적 진공전 및 이 진공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령활성, 계획성은 모두 주동권을 쟁취함으로써 적을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며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동 또는 피동은 전쟁 령량의 우세 또는 열세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관적 지도의 집합성 또는 오유와도 분리될 수 없다. 이 밖에 또 적의 착각과 불의를 리용하여 자기의 주동을 쟁취하고 적을 피동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점들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80) 주동은 전쟁 령량의 우세와 분리될 수 없고 피동은 전쟁 령량의 열세와 분리될 수 없다. 전쟁 령량의 우세 또는 열세는 주동 또는 피동의 개관적 기초이다. 전략적인 주동적 지위는 물론 전략적 진공전에 의하여 비교적 잘 장악되고 발휘될 수 있지만 시종 일관한, 어느 곳에도 다 미치는 주동적 지위 즉 절대적 주동권은 오직 절대적 우세로써 절대적 열세에 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몸이 전장한 사람이 중병 환자와 격투를 한다면 그는 절대적 주동권을 가지게 된

다. 만일 일본이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폐건대 단꺼번에 수백만 내지 천만 대군을 출동시킬 수 있고 재원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많고 또 민중 및 외국의 적대도 없고 또 중국 인민의 결사적 반항을 일으키는 야만적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는다면 일본은 절대적 우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시종 일관한, 어느 곳이나 다 미치는 절대적 주동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이러한 절대적 우세의 경우가 전쟁 및 전역의 종국에는 있지만 전쟁 및 전역의 시초에는 보기 드물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있어서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을 페로 들어 보면 당시 연합국은 절대적 우세로 전환되었고 독일은 절대적 열세로 전환되어 결국 독일이 패배 당하고 연합국이 승리하였다. 이것은 절대적 우세와 절대적 열세가 전쟁의 종국에 존재한 실체이다. 또 태아장에서 승리하기 직전을 페로 들어 보면 그때 그 곳에 고립되어 있는 일본군은 악전 고투를 겪고 나서 이미 절대적 열세에 처하였고 아군은 절대적 우세를 조성하여 결국 적이 패배 당하고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것은 절대적 우세와 절대적 열세가 전역의 종국에 존재한 실체이다. 전쟁이나 전역이 또 상대적 우열 혹은 균형 상태를 가지고 종결되는 일도 있다. 이 때 전쟁에 있어서는 타협이 나타나며 전역에 있어서는 대치가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절대적 우열에 의하여 승부가 갈라지는 것이 다수의 경우이다. 이 모든 것은 전쟁 혹은 전역의 시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혹은 전역의 종국에 있는 것이다. 중일 전쟁의 종말에 가서

는 일본이 절대적 열세로 되어 패배 당하고 중국이 절대적 우세로 되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미리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쌍방의 우열은 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일본은 그 강한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의 유리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조직력에 대하여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주동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군사력 등등의 양이 많지 못 하며 또 기타의 많은 불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세는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하여 감쇄된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는 또 중국의 넓은 땅, 많은 사람, 많은 군대 및 건강한 민족적 항전에 봉착하게 되어 그 우세는 더욱 감쇄된다. 이리 하여 전반적인 면에서 그 지위는 상대적 우세로 전환되며 따라서 그 주동권도 발휘 및 유지에 제한을 받아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된다. 중국 측은 비록 역량량의 강도에 있어서 열세이고 따라서 전략 상에서의 모종의 피동적 상태가 조성되었지만 지리, 인구 및 군대의 수량에 있어서와 또 인민 및 군대의 적개심과 사기에 있어서 우세에 처하여 있으며 이러한 우세에다 기타의 유리한 요인을 가산하면 자기의 군사력, 경제력 등의 열세의 정도를 감쇄하여 그것을 전략 상에서의 상대적 열세로 전환시키게 된다. 따라서 피동의 정도도 감쇄되어 전략 상에서의 상대적인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될 따름이다. 그러나 피동은 여하튼 불리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벗어나기에 힘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군사적 대책은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을 건결히 실시하고 적

후에서의 유격 전쟁을 발동하여 전역적 운동전과 유격전에서 적을 압도하는 허다한 국부적인 우세와 국부적인 주동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전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많은 국부적인 우세와 국부적인 주동적 지위를 통하여 전략적인 우세와 전략적인 주동적 지위를 점차 조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략적인 열세와 전략적인 피동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곧 주동과 피동, 우세와 열세와의 호상 관계이다.

(81) 이로부터 주동 또는 피동과 주관적 지도와의 관계도 알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상대적인 전략적인 열세와 전략적인 피동적 지위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우리의 많은 국부적인 우세와 국부적인 주동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적의 많은 국부적인 우세와 국부적인 주동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적을 열세와 피동에 몰아 넣는 것이다. 이러한 국부적인 것이 집적되어 우리의 전략적 우세와 전략적 주동이 이루어지고 적의 전략적 열세와 전략적 피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환은 옳은 주관적 지도에 의존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우세와 주동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적도 그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전쟁이란 양군의 지휘원이 군사력, 재력 등의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우세와 주동을 쟁탈하는 주관적 능력의 경쟁인 것이다. 경쟁의 결과 승부가 갈라지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의 대비를 제외하고 승리는 반드시 주관적 지휘가 정확한 데서 오고 패배는 반드시 주관적 지휘가 틀린 데서 온다. 전쟁 현상은 다른 어떠한 사회적 현상보다도 포착

하기 더 어려우며 확실성이 더 적다는 것, 즉 이른바 《개연성》을 더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승인한다. 그러나 전쟁은 신의 조작인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 세계의 필연적인 운동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상대편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sup>[15]</sup>는 손자의 법칙은 여전히 과학적 진리이다. 오유는 상대편과 자기를 알지 못 하는 데서 생긴다. 전쟁의 특성도 허다한 경우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편과 자기를 충분히 알지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전쟁 상황 및 전쟁 행동의 불확실성이 산생되며 오유와 실패가 산생된다. 그러나 어떠한 전쟁 상황과 전쟁 행동을 막론하고 그 대략이나 그 요점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각종 정찰 수단으로써, 다음에는 지휘원의 현명한 추리와 판단으로써 오유를 감소시키고 일반적으로 옳은 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일반적으로 옳은 지도》를 무기로 삼으면 우리는 승전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열세를 우세로, 피동을 주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것이 주동 또는 피동과 주관적 지도의 정확 여부와 관계이다.

(82) 주관적 지도의 정확 여부가 우세, 열세 및 주동, 피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강대한 군대가 패전하며 약소한 군대가 승전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중국이나 외국의 역사에는 이러한 사실이 매우 많다. 중국에 있어서 진 나라와 초 나라의 성북의 싸움<sup>[16]</sup>, 초 나라와 한 나라의 성고의 싸움, 한 신이 조 나라를 격파한 싸움<sup>[17]</sup>, 신 나라와 한 나라의 끈양의 싸움, 원 소와 조 조의

관도의 싸움, 오나라와 위나라의 적벽의 싸움, 오나라와 촉나라의 이릉의 싸움, 진나라와 동진의 비수의 싸움 같은 것과 외국에 있어서 나폴레옹의 여러 차례의 전역[18], 10월 혁명 후의 쓰련의 국내 전쟁 같은 것은 모두 적은 병력으로써 많은 병력을 격파하고 열세로써 우세에 대적하여 승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우선 자기의 국부적인 우세와 주동으로써 적의 국부적인 열세와 피동에 대처하여 한 번 싸워 이기고 다시 그 나머지에 대하여 각개 격파함으로써 전반 국면에서 우세로 전환되고 주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본래 우세와 주동을 차지하고 있던 적들은 이와 반대로 그의 주관적 오유와 내부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매우 유리하였던 또는 비교적 유리하였던 우세와 주동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패군지장, 망국지군으로 될 수가 있다. 이로부터 전쟁력량의 우열 자체는 물론 주동 또는 피동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초이지만 그것이 아직 현실적인 주동 또는 피동은 아니며 투쟁을 거쳐야만, 주관적 능력의 경쟁을 거쳐야만 사실 상의 주동 또는 피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쟁 가운데서 주관적 지도의 옳고 그름에 따라 열세가 우세로, 피동이 주동으로 될 수 있으며 또 우세가 열세로, 주동이 피동으로 될 수도 있다. 통치자인 모든 왕조가 혁명군을 타승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단지 어느 정도의 우세만으로는 주동적 지위를 확정하지 못하며 중국적 승리는 더구나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동과 승리는 진실한 정형에 근거하고 주관적 능력의 활약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을 취



득함으로써 열세와 피동에 있는 자가 우세와 주동에 있는 자의 수중으로부터 탈취하여 올 수 있는 것이다.

(83) 착각과 불의에 의하여서도 우세와 주동을 상실하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적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며 불의의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세를 조성하고 주동을 탈취하는 방법이며 또한 중요한 방법이다. 착각이란 무엇인가? 《팔공산의 초목이 모두 병사로 보인다》<sup>[19]</sup>는 것은 착각의 일례이다. 《동쪽에서 치는 척 하고 서쪽을 친다》는 것은 적의 착각을 조성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우월한 민중 조건이 구비되어 정보를 무설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적을 기만하는 각종 방법을 쓰면 흔히 효과적으로 적을 판단 착오와 행동 착오의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우세와 주동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군략 상에는 기만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불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즉 무준비이다. 우세하여도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세가 아니며 또 주동도 없다. 이것을 안다면 열세하여도 준비가 있는 군대는 흔히 적에게 불의의 공격을 가하여 우세한 자를 패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운동 중에 있는 적은 치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적이 불의, 즉 무준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일——적의 착각을 조성하는 것과 적에게 불의의 공격을 가하는 것은 즉 적에게 전쟁의 불확실성을 주고 자신에게 최대 한도의 확실성을 줌으로써 자신의 우세와 주동을 쟁취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은 훌륭한 민중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반대하는 모든 백성들을 걸기시키고 그들을 한결같이 무장시켜 적에 대하여 광범한 습격을 진행하게 하는 동시에 정보의 무실을 방지하며 아군을 엄호하게 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군이 어느 때 어디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인가를 알 수 없게 하며 그의 착각과 불의의 객관적 기초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과거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중국 홍군이 약소한 군사력으로써 늘 승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직되고 무장된 민중에게서 입은 힘이 대단히 큰 데 있다. 민족 전쟁은 의례 토지 혁명 전쟁보다 더 광범한 민중의 원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력사적인 오류<sup>[20]</sup>로 말미암아 민중은 분산되어 창졸간에 우리가 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에게 리용되고 있다. 오직 전체 민중을 단호히 그리고 광범히 반동시켜야만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진장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에게 착각과 불의를 조성하여 줌으로써 적을 싸워 이기는 이 전쟁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은 반드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송양공이 아니므로 돼지 같이 미련한 그런 인의 도덕<sup>[21]</sup>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의 눈과 귀를 될 수 있는 한 틀어 막아 그들을 소경과 귀머거리로 되게 하며 그들의 지휘원의 마음을 될 수 있는 한 혼란시켜 그들로 하여금 미치광이로 되게 함으로써 자기의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주동 또는 피동과 주관적 지도와의 호상 관계이다. 일본을 타승하는 데는 이러한 주관적 지도가 없이는 안 된다.

(84) 대체로 일본은 그 진공 단계에 있어서 그의 군사력이 강하고 또 우리의 주관적인 역사적 오유와 현시의 오유를 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동적 지위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동은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리한 요인 및 전쟁 중에서 범한 그들의 일부 주관적인 오유(상세한 것은 뒤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분적으로 감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적의 태아장에서의 실패와 산서성에서의 곤경은 그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의 적후 유격 전쟁의 광범한 발전은 적의 점령지 수비군으로 하여금 완전히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하고 있다. 비록 적이 아직까지는 주동적인 전략적 진공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주동은 그 전략적 진공의 중지와 함께 종결될 것이다. 적들은 병력 부족으로 인하여 무제한으로 진공할 수 없다——이것은 그가 주동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첫째 근원이다. 우리의 전역적 진공전, 적후에서의 유격 전쟁 및 기타의 조건들——이것은 적이 일정한 한도에서 진공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동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둘째 근원이다. 쓰련의 존재 및 기타 국제 정세의 변화——이것은 그 세째 근원이다. 이로부터 적의 주동적 지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또 그것은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작전 방법에 있어서 주력군의 전역 및 전투에서의 진공전을 전지하며 적후의 유격 전쟁을 맹렬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면에서 민중을 대대적으로 발동시킨다면 우리의 전략적인 주동적 지위는 점차 확립될 수

있다.

(85) 이제 령활성에 대하여 말하여 보기로 하자. 령활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전에서 주동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며 병력을 령활히 사용하는 것이다. 병력을 령활히 사용하는 이것은 전쟁 지휘에 있어서의 중심 임무이며 또 잘 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전쟁 사업은 군대를 조직, 교양하며 인민을 조직, 교양하는 등을 제한 외에는 군대를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투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군대를 조직하는 등등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약한 힘으로 강한 적에 대적하는 정황 하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군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극히 큰 주관적 능력이 필요하며 전쟁의 특성 내에 있는 혼란, 암흑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조리와 광명과 확실성을 찾아 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휘에 있어서의 령활성을 실현할 수 있다.

(86)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전장 작전의 기본 방침은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이다. 이 방침을 집행함에는 병력의 분산과 집중, 분진과 합격, 공격과 방어, 돌격과 견제, 포위와 우회, 전진과 후퇴 등 여러 가지 전술 혹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전술들을 알기는 쉬우나 이러한 전술들을 령활히 사용하며 변환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시기와 지점과 부대 등 세 개의 고리가 있다. 시기를 옳게 선택하지 못 하거나 지점을 옳게 선정하지 못 하거나 부대의 정형을 옳게 포착하지 못 하면 모두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케를 들면 운동 중

에 있는 어떤 적을 진공할 경우에 그 시기가 이르면 자체를 폭로시켜 적에게 미리 방비할 조건을 주게 되고 그 시기가 늦으면 적이 벌써 집중하여 주둔하게 되기 때문에 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기 문제이다. 돌격전을 좌익에 선정한 결과 그것이 마침 적의 약한 고리이면 승리하기 쉽고 우익을 선정한 결과 적의 강한 고리에 부딪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점 문제이다. 우리의 어느 부대로써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 승리하기가 쉬우나 다른 부대로써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대의 정형 문제이다. 전술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전술들을 변환하여야 한다. 공격을 방어로, 방어를 공격으로, 전진을 후퇴로, 후퇴를 전진으로, 견제대를 돌격대로, 돌격대를 견제대로 변환하며 포위, 우회 등등을 호상 변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아의 부대 및 적아의 지형의 정형에 근거하여 제때에 적절하게 전술들을 변환하는 것은 명활한 지휘의 중요한 임무이다. 전투 지휘에 있어서 이러하며 전역 지휘와 전략 지휘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하다.

(87) 《운용의 묘리는 마음에 있다》는 옛사람의 말의 이 《묘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활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명한 지휘원의 소산물이다. 명활은 망동이 아니다. 망동은 거부하여야 한다. 명활이란 현명한 지휘원이 객관적 정형에 기초하여 《시(時)와 세(勢)를 잘 헤아리고》(이 세라는 것에는 적세, 아세, 지세 등이 포함된다) 제때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재능으로서 즉 《운용의 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용의

표리에 기초하면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은 승리를 비교적 많이 전취할 수 있으며 적아의 우월의 형세를 전환시킬 수 있으며 적에 대한 우리의 주동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적을 압도하여 격과할 수 있다. 그러면 종국적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된다.

(88) 이제 계획성에 대하여 말하여 보기로 하자. 전쟁에 특유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계획성을 실현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계획성을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준비가 있으면 성공하고 준비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말과 같이 사전의 계획과 준비가 없이는 전쟁의 승리를 전취할 수 없다. 전쟁에는 절대적 확실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상대적 확실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측은 비교적 확실하다. 적측은 매우 확실하지 못하나 그래도 찾아 볼 수 있는 징조가 있고 고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며 사색하는 데 제공될 수 있는 전후 현상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상대적 확실성이라는 것을 구성하며 이리 하여 전쟁의 계획성이 객관적 기초를 가지게 된다. 근대적 기술(유선 전신, 무선 전신, 비행기, 자동차, 철도, 기선 등)의 발달도 또한 전쟁의 계획성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는 정도가 꼭 낮고 시간상 꼭 잠시적인 확실성 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의 계획성은 완전하거나 고정되기 아주 어렵다. 그것은 전쟁의 운동(혹은 류동, 혹은 이행)에 따라 운동하며 또 전쟁의 범위의 대소에 의하여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전술 계획, 예를 들면 소병단이나

소부대의 공격 혹은 방어 계획은 흔히 하루에도 수차 변경하게 된다. 전역 계획, 즉 대병단의 행동 계획은 대체로 전역의 종국까지 관철될 수 있으나 그 전역 내에서 부분적 변경은 흔히 있는 것이며 전체적인 변경도 간혹 있게 된다. 전략 계획은 교전하는 쌍방의 전반 상황에 기초하여 산생되는 것으로서 더욱 큰 정도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일정한 전략적 단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옮겨지면 전략 계획도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술 계획, 전역 계획 및 전략 계획을 각각 그 범위와 정형에 의하여 확정하며 변경하는 것은 전쟁 지휘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이것은 즉 전쟁의 령할성의 구체적 실시이기도 하며 실제적 운용의 모리이기도 하다. 항일 전쟁의 각급 지휘원들은 응당 이 점에 주의문 돌려야 한다.

(89) 일부 사람들은 전쟁의 류동성에 기초하여 전쟁 계획 혹은 전쟁 방침의 상대적 고정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러한 계획 혹은 방침을 《기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완전히 시인한다. 즉 전쟁의 정형에는 단지 상대적 확실성 밖에 없고 또 전쟁은 신속히 앞으로 류동(혹은 운동,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계획 혹은 방침에도 단지 상대적 고정성만을 부여하여야 하고 정형의 변화와 전쟁의 류동에 근거하여 제때에 변경 혹은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계론자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상대

적으로 고정적인 전쟁 계획 혹은 방침은 절대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며 전쟁 자체까지, 말하는 그 사람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된다. 전쟁의 정형과 행동에 상대적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산생되는 전쟁 계획 혹은 방침에도 상대적 고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화북 전쟁의 정형 및 팔로군의 분산적 작전 행동은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팔로군의 《기본적인 것은 유격전이지만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운동전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는 이 전략적 작전 방침에 상대적 고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역 방침은 상술한 전략 방침에 비하여 그 적용 기간이 짧으며 전술적 방침은 더욱 짧지만 모두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전쟁에 손을 댈 수조차 없으며 일정한 주권이 전혀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전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어느 일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방침이라 하여도 역시 류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류동이 없이는 한 방침이 폐지되고 다른 방침이 채택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류동에는 제한이 있다. 즉 이 방침의 근본적 성질의 류동이 아니라 이 방침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전쟁 행동의 범위 내에서의 류동이다. 다시 말하면 절적 류동이 아니라 량적 류동이다. 이러한 근본적 성질은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는 절대 류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



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상대적 고정성이란 바로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류동하는 전반 전쟁의 긴 강물에는 그 각개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상대적 고정성이 있다——이것이 전쟁 계획 혹은 전쟁 방침의 근본적 성질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90) 전략 상에서의 내선적, 지구적 방어전과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에 대하여 이미 설명하였고 또 주동성, 령활성 및 계획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항일 전쟁은 계획적이어야 한다. 전쟁 계획, 즉 전략 및 전술의 구체적 운용은 그것이 전쟁의 정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령활성을 띠여야 한다. 적아 간의 형세를 개변시키기 위하여 렬세를 우세로 전환시키며 피동을 주동으로 전환시키기에 언제나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역 및 전투 상에서의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에서 표현되며 동시에 전략 상에서의 내선적, 지구적 방어전에서도 표현된다.

## 운동전, 유격전, 진지전

(91) 전쟁의 내용으로 되는, 전략적 내선, 전략적 지구,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의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이 전쟁의 형태 면에서는 운동전으로 표현된다. 운동전이란 정규적 병단이 긴 전선 및 큰 전구에서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동시

에 이러한 진공전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시기에 수행하는 소위 《운동성을 띤 방어》도 여기에 포함되며 또 보조적 역할을 노는 진지 공격 및 진지 방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특성은 정규적 병단, 전역 및 전투에서의 우세한 병력, 진공성 및 류동성인 것이다.

(92) 중국은 판도가 광대하고 군대가 많으나 군대의 기술과 소양이 부족하며 적들은 병력이 부족하나 기술과 소양이 비교적 좋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진공적인 운동전을 주요한 작전 형태로 하고 기타의 형태로써 이를 보조하여 총체적 운동전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소위 《후퇴만 있고 전진은 없는》 도망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위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결사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93) 운동전의 특성의 하나는 그 류동성으로서 그것은 야전군의 대환보의 전진과 후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복구식의 도망주의<sup>[22]</sup>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전쟁의 기본적 요구는 적을 소멸하는 것이며 그의 다른 한 요구는 자기를 보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보전하는 목적은 적을 소멸하는 데 있으며 적을 소멸하는 것은 또 자기를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전은 절대로 한 복구와 같은 자들에게 구실로 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후퇴만 있고 전진은 없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운동전의 기본인 진공성을 부정하는 것인바 그것을 실시하면 결국에 가서는 비록 중

국이 크다 할지라도 《운동》에 의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94)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사상, 즉 소위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결사주의도 옳지 못 하다. 우리는 전역 및 전투에서의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을 그 내용으로 하는 운동전을 주장한다. 그 가운데는 보조적 역할을 노는 진지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운동성을 띤 방어》와 퇴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운동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결사주의는 군사 상에서의 근시안이며 그 근원은 흔히 국토의 상실을 두려워 하는 데 있다. 결사주의자들은 운동전의 특성의 하나는 그 류동성으로서 그것은 야전군의 대할보의 전진과 후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적극적인 면으로는 적을 불리한 지경에 빠뜨려 우리의 작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이 운동 중에 있을 것을 항상 요구하게 되며 또 우리에게 유리한 허다한 조건들, 례컨대 유리한 지형, 치기 좋은 적정, 정보의 무설을 막을 수 있는 주민, 적의 피로 및 불의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즉 일시적으로 일부분의 국토를 상실하게 된다 하여도 그것을 아까와 하지 말고 적의 전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토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국토를 전부 영구히 보전하며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면으로는 부득이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어 군사력의 보전이 근본적으로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는 군사력을 보전하였다가 새로운 시기에 다시 적을 타격하기 위하여 용감히 퇴각하여야 한다. 결사주의자들은 이 리치를

모르고 확정적으로 불리한 정형에 처하게 된 것이 분명한 메도 불구하고 그냥 한 도시나 한 지방의 득실만을 다루려 한다. 그 결과 도시와 지방을 다 잃을뿐더러 군사력도 보전하지 못하고 만다. 우리가 항상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상대하여 작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군사 정책이기 때문이다.

(95) 항일 전쟁의 작전 형태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운동전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격전을 꼽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반 전쟁에 있어서 운동전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정규전,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전에 의거하며 유격전은 전쟁의 운명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한 책임을 담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일 전쟁에서 유격전의 전략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전반 항일 전쟁에서 유격전의 전략적 지위는 바로 운동전 다음으로 간다. 왜냐 하면 유격전의 보조가 없이는 적을 타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유격전이 운동전으로 발전하여야 할 이 전략적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인 가혹한 전쟁 행정에서 유격전은 본래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전으로 자체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리 하여 유격전의 전략적 역할에는 두 개 면이 있게 된다. 즉 그 하나는 정규전을 보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도 정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 항일 전쟁에서 유격전이 전례 없이 광

범하게, 전례 없이 지구적으로 진행된다는 그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 전략적 지위는 더욱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유격전은 그 자체가 전술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수한 전략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일 전쟁의 세 개 전략적 단계의 작전 형태를 보면 제 1 단계에서는 운동전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전과 진지전은 보조적인 것이며 제 2 단계에서는 유격전이 주요한 지위로 올라 가고 운동전과 진지전은 이를 보조하게 되며 제 3 단계에서는 운동전이 다시 주요한 형태로 올라 가고 진지전과 유격전은 이를 보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 3 단계의 운동전은 본래의 정규군이 그 전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유격군이 유격전으로부터 운동전으로 제고되어 그 일부분을,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세 단계를 통하여 본다면 중국의 항일 전쟁에 있어서 유격전은 결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전쟁사에서 전례 없이 위대한 한 막을 상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수백만 정규군 중에서 적어도 수십만 명을 지정하여 적의 모든 점령 지구에 분산되어 민중 무장을 발동하고 그것과 배합하여 유격 전쟁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지정된 군대는 자각적으로 이 신성한 임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큰 싸움을 할 기회가 적다고 일시 민족적 영웅답지 못 하다가 자력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옳지 못하다. 유격 전쟁에는 정규 전쟁에서와 같은 그러한 신속한 성과와 혁혁한 명성은 없으나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일이 오래 끌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격으로 장기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유격 전쟁은 그 거대한 위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실로 비범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군은 분산하면 유격전을 진행하고 집합하면 또 운동전을 진행할 수 있다. 팔로군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팔로군의 방침은 《기본적인 것은 유격전이지만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운동전을 동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방침은 완전히 옳다. 이 방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96) 방어적 및 공격적 진지전은 중국의 오늘의 기술적 조건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은 또 우리의 약한 점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적들은 또 중국 국토의 광활성을 리용하여 우리의 진지 시설을 회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전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전쟁의 제 1, 제 2 두 단계에 있어서 운동전의 범위에 포괄되어 전역 작전에서 보조적 역할을 노는 국부적인 진지전은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 걸음마다 저항함으로써 적에게 소모를 주고 시간 여유를 쟁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진지적 성격을 절반 면 소위 《운동성을 띤 방어》는 더구나 운동전의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전략적 반공 단계에 있어서 진지 공격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형 무기를 증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전략적 반공 단계에 가서는 의심할 바 없이 진지전의 지위가 제고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때에는 적이 진지를 고수할 것이므로 우리가 강유력한 진지 공격으로써 운동전에 배합하지 않는다면 상실한 국토를 수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제 3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운동전을 전쟁의 주요한 형태로 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전쟁의 지도 예술과 사람의 활약성도 제 1차 세계 대전의 중기 이후의 서구라와 지구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진지전에 부딪치게 되면 그 태반이 마비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도가 넓은 중국 경내에서 작전하고 있으며 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 측은 기술의 빈약성을 의연히 가지고 있게 될 것이므로 《전쟁을 전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일이 자연히 나타나게 된다. 제 3 단계에 가서 할지라도 중국은 그 기술적 조건이 증강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을 봉가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득불 고도의 운동전에 힘 쓰지 않고서는 중국적 승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 항일 전쟁을 통하여 중국은 진지전을 주요 형태로 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주요하고 중요한 형태는 운동전과 유격전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 형태들에서 전쟁의 지도 예술과 사람의 활약성은 충분히 발휘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 우리의 불행 중의 다행이다!

## 소모전, 섬멸전

(97)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의 본질, 즉 전쟁의 목적은 자기를 보전하고 적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 형태에는 운동전, 진지전, 유격전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때의 효과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위 소모전과 섬멸전의 구분이 있게 된다.

(98) 우리는 우선 항일 전쟁은 소모전인 동시에 또 섬멸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적의 강하다는 요인이 아직 작용하고 있고 전략 상의 우세와 주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전역 및 전투에서의 섬멸전이 없이는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그 강하다는 요인을 감쇄할 수 없으며 그 우세와 주동을 파탄시킬 수 없다. 우리의 약하다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전략 상의 틈새와 피동으로부터 아직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한 전역 및 전투에서의 섬멸전이 없이는 시간을 쟁취하여 국내적 및 국제적 조건을 강화하며 자기의 불리한 상태를 개선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역에서의 섬멸전은 전략적 소모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섬멸전은 곧 소모전이다. 중국이 지구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섬멸로써 소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99) 그러나 전략적 소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는



또 전역적 소모전이 있다. 대체로 운동전은 섬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진지전은 소모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유격전은 소모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또 섬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3자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섬멸전은 소모전과 다르다. 전역적 소모전은 보조적인 것이지만 역시 지구적 작전에 필요한 것이다.

(100) 이론적으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중국은 방어 단계에 있어서 운동전의 주되는 섬멸성과 유격전의 부분적인 섬멸성을 리용하고 이와 함께 보조적 성격을 띤 진지전의 주되는 소모성과 유격전의 부분적인 소모성을 리용하여 적을 다량적으로 소모시키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대치 단계에 있어서는 유격전 및 운동전의 섬멸성과 소모성을 계속 리용하여 또 적을 다량적으로 소모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전쟁 국면을 지구화하여 적아의 형세를 점차 전변시키고 반공격 조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적 반공 시기에 가서는 적을 종국적으로 몰아 내기 위하여 계속 섬멸로써 소모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01) 그러나 사실 상에 있어서 10 개월의 경험은 허다한, 심지어 다수의 운동전의 전역이 소모전으로 되고 말았으며 또 유격전이 놀아야 할 바의 섬멸적 기능도 일부 지구에서는 아적 제 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정형의 긍정적 면은 어쨌든 우리가 적을 소모시켰으므로 지구적 작전 및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며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결점은 첫째로, 적에 대한 소모가 부족하며 둘째로, 우리 자신의 소모도 비교적 많지 않을 수 없었고 로획도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객관적 원인, 즉 적아의 기술 및 군대의 소양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론 면과 실제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력군이 모든 유리한 경우에 섬멸전을 수행하기에 노력할 것을 창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격대는 비록 파파 및 교란 등과 같은 허다한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순한 소모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적을 다량적으로 소모시키는 동시에 자기를 다량적으로 보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모든 유리한 경우에 전역 및 전투에 있어서의 섬멸성을 띤 작전을 하는 것을 창도하여야 하며 또 그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02)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에 있어서의 소위 외선, 속결, 진공과 운동전에 있어서의 소위 운동은 전투 형태에 있어서 주로 포위 및 우회의 전술을 취하게 되므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집중하여 포위 우회 전술을 취하는 것은 운동전, 즉 외선적, 속결적 진공전을 수행하는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적을 섬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103) 일본 군대의 장점은 그 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의 소양——그 조직성, 과거에 패전한 일이 없는 데서 생긴 그 자신심, 천황 및 귀신에 대한 그들의 미신, 그 교만한 자존심, 중국 사람에 대한 그들의 경시 등등의 특점에도 있다. 이것은 일본의 군벌이 다년간 실시하여 온 무단

적 교육과 일본 민족의 관습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아군이 일본군을 살상하는 수효는 아주 많으나 포로하는 수효가 아주 적은 현상도 그 주요 원인이 이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데는 장구한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특점들에 중시를 돌리고 이 점에 대하여 정치, 국제 선전, 일본의 인민 운동 등 다방면에서 인내성 있게 계획적으로 공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사 면에서의 섬멸전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비판주의자들은 이것을 론거로 하여 망국론으로 이끌어 나가며 소극적인 군사자들은 또 이것을 론거로 하여 섬멸전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정반대이다. 우리는 일본 군대의 이러한 장점은 파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이미 파괴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한다. 파괴하는 주요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일본 병사에 대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모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자존심을 리해하고 그것을 옹계 이끌어 가며 포로를 관대히 취급하는 방법으로써 일본 통치자들의 반인민적 침략주의를 리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에게 중국 군대와 중국 인민의 굴함 없는 정신과 영용하고 완강한 전투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즉 섬멸전에 의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작전 면에서 말한다면 10 개월의 경험은 섬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평형관, 태아장 등의 전역이 바로 그 뚜렷한 실증이다. 일본군의 군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는 것,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중국 군대와 중국 인민의 포위에 빠져 있다는 것, 돌격의 용기가 중국 군대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 등등은 다 우리가 섬멸전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은 또 전쟁이 오래 끌게 됨에 따라 날로 발전될 것이다. 섬멸전으로써 적군의 기업을 꺾는다는 이 점에서 말한다면 섬멸하는 것은 또 전쟁의 과정을 단축시켜 일본 병사와 일본 인민을 빨리 해방시키는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고양이와 고양이가 벗으로 되는 일은 있어도 고양이와 쥐가 벗으로 되는 일은 없다.

(104) 다른 한 편으로는 기술 및 군대의 소양 정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적보다 못하다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도의 섬멸, 벼슬 들면 전부 혹은 대부분을 포로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평원 지대의 전투에 있어서는 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의 속송론자들의 지나친 요구도 역시 옳지 못 하다.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옳은 요구는 될 수 있는 한 섬멸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유리한 경우에 있어서 전투 때마다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포위 우회 전술을 취한다——그 전부를 포위할 수 없으면 그 일부라도 포위하며 포위한 적을 전부 포로할 수 없으면 그 일부라도 포로하며 그 일부를 포로할 수 없으면 그 일부에 다량적인 살상이라도 준다. 그리고 섬멸전을 수행하기에 불리한 모든 경우에는 소모전을 수행한다. 전자에 대하여서는 병력 집중의 원칙을 쓰며 후자에 대하여서는 병력 분산의 원

칙을 쓴다. 전역의 지휘 관계에 있어서 전자에 대하여서는 집중 지휘의 원칙을 쓰며 후자에 대하여서는 분산 지휘의 원칙을 쓴다. 이러한 것이 항일 전쟁의 전장 작전에 있어서의 기본적 방침이다.

### 적의 틈을 탈 가능성

(105) 적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말한다 면 적의 지휘 면에도 역시 그 기초가 있다. 자고로 오유를 범하지 않는 장군이란 없다. 적에게 실책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실책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적의 틈을 탈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전략 및 전역 상에서 말한다면 적은 10 개월 간의 침략 전생에서 이미 히다한 오유를 범하였다. 그 중 큰 것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력을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평가 부족에서 나온 것이며 또 그 자체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원인도 있다. 적은 본래부터 우리를 업수이 여겨 왔으며 동북 4 성을 손쉽게 강점한 후 또 하북성 동부, 차할성 북부를 점령하였다. 이것은 모두 적의 전략적 징찰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얻은 결론이라면 중국은 쟁반에 담긴 모래와 같다는 것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은 한 주먹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한 그들은 소위 《속결》의 계획을 작성하고 약간의 병력을 출동시켜 우리를 위협으로 패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지난 10 개월 동안에 표현된 중국의 이처럼 큰 단결과 이처럼 큰

저항력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 하였던 것이며 또 그들은 중국이 이미 진보하고 있는 시대에 처하여 있으며 중국에는 이미 선진적인 정당, 선진적인 군대 및 선진적인 인민이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게 되어서야 병력을 점차 증가하였다. 그들은 10여 개 사단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야 30 개 사단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들은 더 전진하려면 또 병력을 더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쓰련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또 인력 및 재력의 선진적 부족으로 인하여 일본의 최대의 출병 수와 최종의 진공점은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주공 방향이 없는 것이다. 태아장 전역 전까지 적들은 화중, 화북에 대체로 병력을 고무 분산시켰으며 또 이 두 지방 내부에서도 각기 고무 분산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화북에서는 진포, 평한, 농포 등 세 전선에 병력을 고무 분산시키고 있었는데 매 전선에서 일부는 살상 당하고 일부는 점령지를 수비하게 되어 더 전진하려 하여도 병력이 없었다. 태아장에서 패전 당한 후에 교훈을 총화하여 주력을 서주 방면에다 집중시킴으로써 이 오유는 일시적으로 시정된 셈이다. 세째는, 전략적 협동이 없는 것이다. 화중, 화북에 있는 적의 두 집단을 두고 보면 매 개 집단 내부에는 대체로 협동이 있었으나 두 집단 간에는 협동이 극히 적었다. 진포선 남쪽 구간의 부대가 소방부를 칠 때에는 그 북쪽 구간의 부대가 움직이지 않았고 북쪽 구간의 부대가 태아장을 칠 때에는 남쪽 구간의 부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리 하여 두 곳에서 모두 패전하자 룽군 대신이

와서 순시하고 참모 총장이 와서 지휘하는 데서 일시적으로나마 협조가 있게 된 셈이다. 일본의 지주 계급, 부르주아지 및 군벌들 내부에는 매우 엄중한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전쟁에 협동이 없는 것은 이 모순의 구체적 표현의 하나이다. 네째는, 전략적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 점은 남경, 태원 두 곳을 점령한 후의 정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주로 병력이 부족하고 전략적 추격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포위는 많으나 섬멸이 적은 것이다. 태아장 전역 이전의 상해, 남경, 창주, 보정, 남구, 훈구, 립분의 세 전역에서 격파는 많았으나 포로는 적었다. 이것은 그 지휘가 졸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병력을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 주공 방향이 없는 것, 전략적 협동이 없는 것, 시기를 놓친 것, 포위는 많으나 섬멸이 적은 것 등이 태아장 전역 이전에 일본의 지휘가 그릇된 점이다. 태아장 전역 이후에 약간 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병력 부족 및 내부적 모순 등의 제 요인으로 보면 오유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 얻으면 저 곳에서 잃고 만다. 폐물 들민 화북의 병력을 시주에 집중시키자 화북의 점령지가 크게 비게 되어 우리에게 유격 전쟁을 마음 놓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우리가 적에게 오유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오유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또 의식적으로 적의 오유를 조성시킬 수가 있다. 즉 현명하고 효과적인 자기의 동작으로써 조직적인 민중의 엄호 하

에 적의 착각을 조성하여 적을 우리의 작전권 내에 끌어 들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동쪽에서 치는 척 하고 서쪽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에서 이미 말한 바이다. 이 모든 것은 적의 지휘 면에서도 우리의 전쟁 승리의 어떤 근원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점을 우리의 전략적 계획의 중요한 기초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오히려 적이 오유를 적게 범한다는 가정 우에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성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의 틈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도 우리의 틈을 탄 수 있으므로 적에게 틈을 적게 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지휘 면에서의 임무이다. 그러나 적의 지휘 상의 오유는 사실 상 이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며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일 장군들은 이 점을 극력 포착하여야 한다. 적의 전략 지휘, 전역 지휘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으나 그 전투 지휘, 즉 부대 전술 및 소병단 전술에는 교명한 점이 적지 않으므로 이 점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결전 문제

(106)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결전 문제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즉 자신 있는 모든 전역 및 전투에서는 단호히 결전을 하여야 하며, 자신 없는 모든 전역 및 전투에



서는 결전을 피하여야 하며, 국가의 운명을 내걸고 하는 전략적 결전은 근본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항일 전쟁의 다른 많은 전쟁과 같지 않은 특성은 이 결전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 1, 제 2 단계에 있어서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므로 적들은 우리가 주력을 집중하여 그와 결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이와 반대로 평형판, 태아장 및 기타의 허다한 전투에서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전역 및 전투에서 적과 자신 있는 결전을 하며 창덕 등지의 전역에서 취한 방침과 같이 불리한 조건에서의 자신 없는 결전을 피하는 것이다. 최근에 서주로부터 철퇴한 것과 같이 국가의 운명을 내걸고 하는 전략적 결전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적의 《속결》 계획을 파탄시키게 되며 적들은 우리를 따라 지구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령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정치가 지나치게 낙후한 나라에서도 실시하기 어렵다. 우리는 큰 나라이며 또 진보하고 있는 시대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전략적 결전을 피한다면 《청산이 남아 있을진대 뽕나무가 걱정이라》라는 격으로 비록 약간의 국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아직 광대한 선회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내의 진보, 국제적 원조의 증대 및 적의 내부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이 항일 전쟁의 상책이다. 조급중에 걸린 속승론자들은 지구전의 고난의 길을 꼭 참고 견디어 내지 못 하고 속승을 기도하면서 형세가 약간 호전되기만 하면 곧 전략적

결전을 하자고 웨친다. 만일 그 대로 한다면 전반 항전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지구전은 실패로 돌아 가게 되어 바로 적의 독계에 걸리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야 말로 하책이다. 결전하지 않으려면 국토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불가피적인 정형 하에서는(또 단지 이러한 정형 하에서만) 국토를 용감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국토로써 시간을 바꾸는 옳은 정책이다. 력사 상에서 로써야 하는 결전을 피하고 용감한 퇴각을 수행하여 한때 세상에 위세를 떨치던 나뭇대옹을 타승하였다[23].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여야 한다.

(107) 《무저항주의》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두렵지 않다. 전히 싸우지 않고 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무저항주의인바 이것은 욕을 먹어야 할 일이며 또한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일이다. 건걸히 항전하되 적의 독계를 피하여 아군의 주력이 적의 일격 하에 상실되지 않게 함으로써 항전의 계속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혹을 품는 것은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근시안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망국론자와 같아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일찌기 소위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결사주의를 비판한 것은 이러한 결사주의가 만일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면 그 결과는 항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망국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08) 우리는 전투에 있어서나 대소 전역에 있어서나 모든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결전을 주장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극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이러한 결전에 의하여서만 적에게 섬멸을 주며 적에게 소모를 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일 군인은 누구나 다 이러한 결전을 전결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부분적인, 상당히 다량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어떠한 희생이나 피하려는 견해는 비겁쟁이나 일본에 대한 공포증에 걸린 자의 견해이므로 이를 전결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복응, 한복구 등 도망주의자들이 피살된 것은 잘 된 일이다. 전쟁에 있어서 용감한 희생과 영웅한 전진의 정신 및 행동을 창도하는 것은 옳은 작전 계획 하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구전 및 중국적 승리는 이와 갈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찌기 소위 《후퇴만 있고 전진은 없는》 도망주의를 신랄히 규탄하고 규물의 엄격한 집행을 지지한 것은 이러한 정확한 계획 하에서의 영웅한 결전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강한 적을 타승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도망주의는 망국론의 직접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109) 영웅하게 싸우고 나서 국토를 포기하고 말면 이것은 자체 모순이 아닌가? 이런 영웅한 투사들의 피는 헛되어 흘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주 타당하지 못한 질문이다. 밥을 먹고 나서 뒤를 보면 헛먹은 것이 아닌가? 잠을 자고 나서 일어 나면 헛잔 것이 아닌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는다면

뜯장 먹기만 하고 잠을 잔다면 뜯장 자기만 하고 영용하게 싸운다면 압록강까지 뜯장 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환상인 것이며 실생활에는 그런 일이 없다. 시간을 생취하며 반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우면 일부의 국토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대신 시간이 생취되며 적에게 섬멸과 소모를 주는 목적이 달성되며 자기의 전투 경험을 쌓게 되며 꺾이지 않았던 인민이 꺾이게 되며 국제적 지위가 제고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피는 헛되이 흘린 것인가? 조금도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니다. 국토를 포기하는 것은 군사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또 바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 하면 불리한 조건 하에서 부분적인 국토를 포기하지 않고 전혀 자신 없는 결전을 맹목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군사력을 상실한 후 또 반드시 이에 따라 전체 국토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잃은 국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구나 말할 여지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장사를 하려면 밀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파산 당한 후에는 자본가라고 할 수 없다. 도박군에게도 역시 도박 밀천이 필요하며, 밀천을 한 번에 툭 털어 다 걸었다가 불행히도 맞지 않는다면 도박을 더 늘 수 없게 된다. 사물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회 곡절이 있는 것이며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직 형식주의자만이 이 리치를 해득하지 못 한다.

(110) 나는 전략적 반공 단계에 있어서의 결전도 역시 이 려하다고 생각한다. 그 때에 가면 적이 열세에 처하고 우리가

우세에 처하게 되지만 압록강변까지 이르기 전에는 《유리한 결전을 수행하고 불리한 결전을 피하는》 원칙이 그냥 적용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는 시종 일관 주동적 지위에 설 수 있다. 일체 적의 《도전서》나 제삼자의 《격장법》 따위는 저쪽에 밀어 놓고 거들떠 보지도 말며 조금도 그것에 충동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항일 장군들은 이러한 견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전드리기만 하여도 왈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운운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제 1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략적 피동에 처하지만 일체 전역에 있어서는 역시 주동적이어야 하며 이후 어떠한 단계에 있어도 언제나 주동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도박군들처럼 밀친을 한 번에 툭 털어 다 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구론자이며 총국적 승리론자이다.

##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기본이다

(111) 혁명적인 중국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는 절대로 그 진공과 탄압을 늦추지 않는다. 그의 제국주의적 본질이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순조롭게 중국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동북 4 성의 상실이 그 전례이다. 중국이 저항한다면 일본은 이러한 저항력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것이며 그 압력이 중국의 저항력을 이길 수 없게 되는 때에 가서야 비

로소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법칙이다. 일본의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야심은 대단히 크다. 남으로 남양 군도를 공격하고 북으로 씨비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중간 돌파의 방침을 취하여 먼저 중국을 치는 것이다. 일본이 화북과 강소, 절강 일대를 점령한 후에는 그 진공을 중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단계에 발전되어 사선에 접근하고 있는 일본 세국주의가 이미 과거 력사 상의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연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출병 수와 진공점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본 측으로 볼 때에는 일본이 그 력량의 기초에서 타방면에 대한 진공을 더 감행하며 다른 한 방면의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정도의 력량을 출동시켜 자기의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중국을 쫓 수 밖에 없으며 중국 측으로 볼 때에는 또 중국이 자기의 진보성과 완강한 저항력을 나타낼 것이므로 일본의 맹렬한 공격만 있고 중국의 필요한 저항력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 중국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중국의 반항을 탄압할 것이며 일본의 내외의 조건에 의하여 일제가 무덤으로 들어 가는 직접적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는 이러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는 두 가지 출로가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집권 계급 전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정권이 인민에게 넘어 감으로써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 다른 하나는 지주 계급과

부르쵸아지가 날로 더 파쇼화하여 자기가 멸망 당하는 날까지 전쟁을 지탱하는 것이다.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 두 길 외에 세째의 길은 없다. 일본 부르쵸아지의 중화파가 나서서 전쟁을 중지시킬 것을 바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부르쵸아지의 중화파가 이미 지주 및 금융 과두들의 포로로 되었다는 것은 다년래의 일본 정치의 현실이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한 후 만일 중국의 항전이 아직 일본에 치명적 타격을 주지 못 하고 일본에 아직 충분한 력량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일본은 반드시 또 남양 혹은 씨비리를 공격할 것이며 심지어는 이 두 곳을 다 공격할 것이다. 구라과 대전이 일어 나면 일본은 뜬 이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 통치배들의 침략적 야욕은 아주 크다. 물론 쏘련의 강대함과 중국 전쟁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대적인 약화로 말미암아 일본은 부득불 씨비리로 진공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버리고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가 나타나는 때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진공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에 대한 진공을 강화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때 일본에는 약자를 병탄, 략탈하는 길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중국은 항전을 전지하며 통일 전선을 전지하며 지구전을 전지해야 할 임무가 더욱 중대하여질 것이며 이에 대하여 더구나 조금도 해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12) 이러한 정형 하에서 중국이 일본을 타승하는 주요 조건은 전국적인 단결과 각 방면에서 과거보다 십 배, 백 배

더 진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진보하고 있는 시대에 처하여 있으며 또 위대한 단결을 가져 왔다. 그러나 지금 정도로는 아직 극히 부족하다. 일본의 점령지가 이렇듯 넓은 것은 한 편으로는 일본이 강하기 때문이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100년래 특히 최근 10년래의 각종 역사적인 오류가 거듭된 결과이며 그것이 중국의 진보적 요인을 오늘의 상태에 국한시켜 놓았던 것이다. 오늘날 이처럼 강한 적을 타승하려면 장기적인 다대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하여야 할 일은 많지만 나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두 면만, 즉 군대의 진보와 인민의 진보만을 말하고자 한다.

(113) 군사 제도의 혁신은 군대의 현대화 및 기술적 조건의 증강과 갈라 놓을 수 없다. 이 점이 없이는 적을 압록강 저쪽으로 몰아 낼 수 없다. 군대를 사용하는 데는 진보적이고 명활한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역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군대의 기초는 병사에 있다. 진보적인 정치적 정신이 군대 내에 침투되어 있지 않고서는, 진보적인 정치 사업으로 이러한 침투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군관과 병사 간의 진정한 일치가 이룩될 수 없으며 장병들의 궤대한의 항전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없으며 모든 기술과 전술은 그 발휘하여야 할 효력을 발휘할 가장 좋은 기초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일본은 기술적 조건이 비록 우월하기는 하나 중국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섬멸과 소모의 타격을 가하는 것도 있



지만 그 밖에 또 그들의 군심이 중국에 가서는 우리의 타격에 따라 반드시 동요되어 무기 조건과 군대의 사기가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항일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군관과 병사 사이에 있어서 일치하다. 이점에 항일 군대의 모든 정치 사업의 기초가 있다. 군대는 일정한 한도의 민주화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그것은 주로 때리고 육설하는 봉건주의적 제도를 폐지하며 군관과 병사가 생활 상에서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관병 일치의 목적이 달성되고 군대의 전투력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장기간의 가혹한 전쟁을 견지하지 못할 염려가 없게 될 것이다.

(114) 전쟁 위력의 가장 깊은 근원은 민중에 있다. 일본이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게 되는 그 주요한 원인은 중국 민중의 무조직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결함을 극복한다면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의 결기한 수억만 인민 앞에서 마치 화진에 돌입한 들'소처럼 우리의 한 마디 고향 소리에도 크게 놀라게 될 것이며 이 들'소는 불 속에서 타 죽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측으로 말하면 군대를 계속 부단히 보충하여야 한다. 지금 하부에서 함부로 하고 있는 《붙들어 가는 법》이나 《사 대는 법》<sup>[24]</sup>은 즉시 금지하여야 하며 광범하고 열렬한 정치적 동원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백만 사람들을 군대로 되게 하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항일의 재정 원천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민중을 동원하면 재정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어찌 재정 궁핍이 우려될 리가 있겠는가? 군대가 민중

과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민중이 군대를 자기의 군대로 보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대는 천하 무적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하나쯤은 타승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115) 많은 사람들이 군관과 병사의 관계, 군대와 인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이것은 근본적 태도(또는 근본적 취지) 문제라고 말한다. 근본적 태도는 병사를 존중하며 인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부터 출발하면 그에 따르는 각종 정책, 방법, 방식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떠난다면 정책, 방법, 방식도 반드시 그릇되게 되며 군관과 병사 간, 군대와 인민 간의 관계도 도저히 잘 될 수 없게 된다. 군대의 정치 사업의 3대 원칙은 첫째로, 관병 일치이며 둘째로, 군민 일치이며 셋째로, 적군 와해이다.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병사를 존중하고 인민을 존중하며 이미 무기를 놓은 적군 포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근본적 태도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것을 근본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116) 무한 등지를 방위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고 있는 이 때 전체 군대, 전체 인민의 모든 적극성을 동원하여 전쟁을 견지하는 것은 극히 중대한 임무이다. 전혀 의심할 바 없이 무한 등지를 방위하는 임무는 진지하게 제기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결국 이를 잃어 버리지 않고 확

정적으로 방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념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체 군대와 전체 인민을 투쟁에 궤기하도록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모든 필요한 조건을 쟁취하기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필요한 조건이 하나라도 불비하다면 남경 등지를 잃은 전철을 꼭 다시 밟게 될 것이다. 중국의 마드리드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곳이 마드리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마드리드가 하나도 없었으나 금후에는 그것을 몇 개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 여하에 달렸다. 그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전체 군대, 전체 인민의 광범한 정치적 동원이다.

(117) 일체 사업에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총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방침에 의하여서만 항전을 견지하고 지구전을 견지할 수 있으며 군관과 병사의 관계, 군대와 인민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철저히 개선할 수 있으며 아직 잃지 않은 모든 지역을 방위하고 이미 잃은 모든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도록 전체 군대, 전체 인민의 모든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8) 군대와 인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이 문제는 실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점을 재삼 거듭하여 말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 점이 없이는 승리가 없기 때문이다. 기타의 많은 필요한 조건들이 없어도 물론 승리할 수 없지만 이것은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절대로 몇몇 정당의 당부나 당원들의 통일 전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 전체 인민의 통일 전선이다. 전체 군대,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이 통일 전선에 참가시키는 것만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발기한 근본적 목적이다.

## 결 론

(119)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실력을 타승, 소멸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중국 항일 통일 전선의 결성이고, 둘째는 국제 항일 통일 전선의 결성이며, 셋째는 일본 국내의 인민과 일본 식민지 인민의 혁명 운동의 발흥이다.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중국 인민의 대련합이 주요한 조건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끌게 되겠는가? 그것은 중국 항일 통일 전선의 실력과 중일 양국의 다른 많은 결정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속히 실현되지 못한다면 전쟁은 오래 끌게 될 것이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중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단지 희생이 더 많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치게 될 것 뿐이다.》 《우리의 전략적 방침은 우리의 주력으로써 길고도 항상 변동하는 전선에서 작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군대는 승리하려면 광활한 전장에서……고도의

운동전을 진행하여야 한다.》《훈련된 군대들 이동시켜 운동전을 진행하는 외에 또 농민 가운데서 많은 유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전쟁 행정에서……중국 군대의 장비를 점차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전쟁의 후반기에 가면 중국은 진지전을 하여 일본의 점령지에 대한 진지적 공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하여 일본은 중국의 항전에 의한 장기적 소모에서 그 경제가 붕괴될 것이며 무수한 전쟁의 시달림 속에서 그 사기가 저락될 것이다. 중국 측은 항전의 잠재력이 날로 더 솟구쳐 올라 수 많은 혁명적 민중이 부단히 전선으로 달려 나가 자유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모든 요소와 기타 요소의 배합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점령지의 포치카와 근거지에 대하여 최후의 치명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본 침략군을 중국으로부터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1936년 7월 스노와의 담화). 《중국의 정치 정세는 이 때로부터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이 단계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중심적인 관건은 이미 발동된 항전을 전면적인 전 민족적 항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전면적인 전 민족적 항전만이 항전의 중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목전의 항전에는 아직 엄중한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후의 항전 과정에 허다한 좌절과 퇴각, 내부분열과 배반, 일시적 및 국부적인 타협 등 불리한 징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전은 간고한 지구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동된 항전이 앞으

로 우리 당과 전국 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온갖 장애물을 물리치고 계속 전진,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1937년 8월 《현 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이러한 것이 결론이다. 망국론자들은 적을 귀신처럼 보고 자기를 초개와 같이 여기며 속승론자들은 적을 초개처럼 보고 자기를 귀신처럼 여긴다. 이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우리의 견해는 이와 반대이다. 즉 항일 전쟁은 지구전이며 종국적 승리는 중국의 것이다——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다.

(120) 나의 강연은 이것으로써 끝 마친다. 위대한 항일 전쟁은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경험을 총화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은 10 개월 간의 경험 중의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역시 총화라고 하여 두자. 이 문제는 광범한 주의를 일으키며 토론을 할 만한 문제이다. 내가 말한 것은 개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시정, 보충하여 주기 바란다.

## 주 해

[1] 이러한 망국론은 국민당의 견해였다. 그들은 항일하기 싫어 하였다. 그들이 후에 와서 항일하게 된 것은 하는 수 없이 한 것이다. 로구코 사변 이후 장 개척 일파가 마지 못 해 항일에 참가하자 왕 경위 일파는 망국론자들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일본에 투항할 준비를 하였고 후에 와서는 과연 투항하고 말았다. 그러나 망국론의 사상은 국민당 내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일부의 중승

사회계, 심지어는 일부의 탁후한 근로 인민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던 것이다. 이것은 국민당 정부가 부패, 무능하여 항일 전쟁에서 턴'이어 실패 당하고 일본군은 장구 적진하여 셋해에 벌써 무한 부근에까지 쳐 들어 오는 데서 일부 탁후한 인민들 사이에 엄중한 비판적 기분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2] 이상의 이러한 견해는 모두 공산당 내에 있는 것이다. 항일 전쟁의 첫 반년 동안에 당내에는 일본을 한 수먹거리도 못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적을 경시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에 공산당이 명도하는 군대와 민중의 조직적 역량이 아직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만큼 그들이 적을 경시한 근거는 자기의 역량이 크다는 것을 느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당이 항일하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그들은 국민당이 공산당과 배합하여 일본을 성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매우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국민당이 일시적으로 항일하는 일련만 보고 국민당의 반동적이며 부패한 일면은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릇된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3] 이것은 장 개석 등의 견해였다. 장 개석 국민당이 하는 수 없이 항전하게 되자 그들은 외국의 신속한 원조만 열망하고 자기의 역량은 믿지 않으며 인민의 역량은 더구나 믿지 않았다.

[4] 태아장은 산동성 남부에 있는 소도시이다. 1938년 3월에 중국 군대와 일본 점령군은 태아장 일대에서 회전한 적이 있었다. 중국 군대는 40만 명으로써 일본군 7~8만 명에 대적하였으며 따라서 승리하였다.

[5] 이것은 당시의 국민당 정학계의 신문《대공보》가 자기의 사설에서 제기한 견해였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는 심리로부터 출발하여 수차의 태아장에서와 같은 승전으로 일본을 막아 넘으로써 지구전에서 인민의 역량을 동원하지 않게 되어 자기 계급의 안전에 위협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전체 국민당은 모두 이러한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6] 무술년(1898년)에 발생된 개량주의 운동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일부 자유 부르주아지 및 개명 지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장 우위, 량 개초, 담 사동 등을 위수로 하였다—광서 황제의 찬조를 받았으나 균중 기초가 없었다. 당시 무력을 쥐고 있던 원 세력은 완고파의 두목 자회 태후에게 유신과의 기밀을 팔아 먹었다. 그리 하여 자회 태후는 다시 정권을 탈취하고 광서 황제를 감금하였으며 또 담 사동 등 6 명을 살해하였다. 이 운동은 이리 하여 비참히 실패하였다.

[7] 1938년 1월 16일 일본 내각에서는 무력으로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방침을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국민당 정부에 대하여는 협박과 투

함 권유를 하면서 만일 국민당 정부가 《여견히 항전을 재동》한다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다 새로운 괴뢰 정권을 부식하고 다시는 국민당 정부를 담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8] 여기에서는 주로 미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9]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의 정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10] 여기에서 모택동 동지가 함일 전쟁의 대치 단계에 있어서 중국 측에는 상승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예언은 중국 공산당이 행도하는 해방구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 국민당 통치구에 있어서는 광 개석을 비롯한 통치 집단의 소극적 항일과 적극적인 반공, 반인민으로 인하여 상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강되었다. 그러나 또한 이리하였기 때문에 광범한 인민의 반항과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모택동 동지가 《연합 정부에 대하여》에서 이러한 모든 사실에 관하여 한 분석을 참조하라.

[11] 《무기 단능론》이란 중국의 무기가 일본만 못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중국이 반드시 패배 당한다고 인정하는 논조이다. 국민당 반동파의 두목들(광 개석도 포함한)은 모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12] 석가 여래탄 불교의 시조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손 오공은 16세기의 중국의 신화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영웅이다. 이 신화에 의하면 손 오공은 원래 원숭이이다. 그는 곤두박질 한 번에 10만 8,000 리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손 오공은 석가 여래의 손'바닥에 서서 있는 힘을 다 내어 곤두박질하였으나 그 손'바닥을 벗어 나지 못 하였고 도리어 석가 여래가 손'바닥으로 한 번 덮치자 그 다섯 손'가락이 다섯 개의 산이 면하여진 오행산으로 변하여 손 오공을 짓누르고 말았다.

[13] 1935년 8월 코린테온 제 7 차 대회에서 지미트로브 동지는 《반전쟁, 반파쇼 투쟁의 당면 문제》라는 자기의 보고에서 《파쇼주의——이것은 필모 무도한 민족 침략주의이며 강도적 전쟁이다.》라고 말하였다. 1937년 7월 지미트로브 동지는 또 《파쇼주의——이것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4] 매년의 《사회주의와 전쟁》 제 1 장과 매년의 《제 2 인더나쇼날의 과산》 제 3 절을 참조하라.

[15] 《손자·모공》에 있다.

[16] 성북은 지금의 산둥성 전성현 서남쪽에 있다. 기원 전 632년에 진 나라와 초 나라가 여기에서 크게 싸웠다. 전쟁의 시초에는 초 나라 군대가 우세하였다. 진 나라 군대는 90 리를 퇴각하였다가 초 나라 군대의 역량이 약한 좌우



양익을 선택하여 그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초 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

[17] 기원 전 204년에 한 나라 장군 한 신은 부대를 명솔하여 경형에서 조 힐과 크게 싸웠다. 조 힐의 군대는 20만이나 되었으며 한 나라의 군대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한 신은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친 다음 군대를 명솔하여 분진한 동시에 일부의 군대를 파견하여 조 힐의 군대의 방어가 약한 후방을 습격 점령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앞뒤로 공격을 받게 하여 드디어 조 힐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18] 18 세기 말, 19 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 프로쎌야, 오지리, 로쎌야 및 구라파의 기타 많은 나라들과 싸웠다. 많은 전쟁들에서 나폴레옹의 부대는 수량 상으로 적만 못 하였지만 언제나 승리하였다.

[19] 기원 383년에 본래부터 동진군을 경시하고 있던 진 나라 군주 부 건은 슬병하여 동진을 공격하였다. 동진군은 안휘성의 수양과 락간 지방에서 진 나라 군대의 권위 부대를 패배시키고 수복으로 계속 전진하였다. 부 건은 수양성에 올라 가서 바라 보니 동진군이 진을 빈 틈없이 치고 있으며 또 팔공산을 바라 보니 그 초목이 모두 동진의 군대로 보이므로 강적을 만났다고 생각되어 겁을 먹었다.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주해 29을 참조하라.

[20] 장 개석, 왕 경위 등이 1927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 1 차 민족 민주주의 통일 전선을 배반하고 10 년 간의 반인민적 전쟁을 감행하여 중국 인민으로 하여금 광범히 조직될 수 없게 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오류는 장 개석을 비롯한 국민당 반동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

[21] 송 양공은 기원 전 7 세기 춘추 시대의 송 나라 임금이다. 기원 전 638년 송 나라는 강대한 초 나라와 싸웠다. 송 나라 군대가 이미 진세를 벌이고 있는데 초 나라 군대가 바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송 나라의 한 관원은 초 나라 군대가 많고 송 나라 군대가 적은 것을 알고 초 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지 못한 틈을 타서 출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 양공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서는 안 된다. 군자는 남의 곤란한 시기물 타서 남을 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초 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 온 후 아직 진세를 벌이지 못하고 있을 때 송 나라 관원은 또 출격을 요청하였다. 송 양공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서는 안 된다. 군자는 진세를 벌이지 못한 데오를 공격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초 나라 군대가 준비를 다한 후에야 송 양공은 출격을 명령하였다. 그 결과 송 나라는 대패 당하고 송 양공 자신도 부상 당하였다. 이 옛'이야기는 《좌전》 회공 22년에 있다.

[22] 1937년 일본 침략군이 북평, 천진을 점령한 후 진포선을 따라 남하하

여 산동성을 진공하자 다년간 산동성을 통치하고 있던 국민당 군벌 한 복구는 썩우지도 않고 산동성으로부터 하남성에까지 도망쳤다.

[23] 1812년 나뭇베용은 50만 대군을 가지고 토씨야푼 진공하였다. 토씨야군은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 버린 결과 나뭇베용군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후로가 고란되고 군대가 포위 당한 절망적 지경에 빠지게 되어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토씨야군은 이 기회를 타서 반공하였다. 도망쳐 돌아 간 나뭇베용군은 겨우 2만여 명에 불과하였다.

[24] 국민당의 군대 확장 방법은 군대와 경찰을 사방에 파견하여 인민을 붙들어다가 군인으로 증강하는 것이다. 붙잡은 자는 마치 쇠수와도 같이 끈으로 묶었다. 돈뿐이나 있는 사탐이면 국민당의 관리에게 뇌물을 먹이고 사탐을 사서 대신 보내었다.

## 민족 전쟁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위\*

(1938년 10월)

동지들! 우리에게서 광명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하며 새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틀림 없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광명한 미래에 이르기까지에는 간난한 길이 가로놓여 있다. 광명한 중국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전국 인민은 절차 있게 일본 침략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 침략자를 패배시키려면 장기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쟁의 여러 방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많이 논의하였다. 항전 이래의 경험도 총화하였고 당민한 징세에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이다. 이 회의는 모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정치국의 모선율 비준한 회의로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모택동 동지가 이 보고에서 《민족 전쟁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위》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체 당원 동지들로 하여금 항일 전쟁을 영도하는 우리 당의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착실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전원 회의는 항일 통일 전선을 견지할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동시에 통일 전선 내에는 단결도 있고 투쟁도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것은 통일 전선을 통하여》라는 문법은 중

대한 평가도 내렸고 전 민족적인 긴급한 임무도 제기하였고 장기적인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써 장기적 전쟁을 지탱하여야 할 리유와 그 방법도 설명하였고 국제 정세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또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는가? 동지들,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즉 민족 전쟁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지위에 처하여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자체를 인식하며 자체를 강화하며 자체를 단결시켜야만 이 번 전쟁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국제주의자인 공산당원이 동시에 또 애국주의자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애국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 침략자와 히틀러의 《애국주의》가 있

---

국의 정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리 하여 통일 전선 문제에 있어서의 옹화주의적 오류를 비판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결론에서 말한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 문제》는 바로 이러한 면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동시에 전선 회의는 또 건당이 동원되어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하는 극히 큰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당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전쟁 지휘와 격후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 침략자들 타승할 희망을 국민당 군대에 걸고 인민의 운명을 국민당 반동파의 동지 하에서의 합법적 운동에 의탁하려는 등 그릇된 사상을 비판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결론에서 말한 《전쟁과 전략 문제》는 바로 이 면에 관한 문제이다.

고 우리의 애국주의가 있다. 일본 침략자와 히틀러의 소위 《애국주의》에 대하여 공산당원들은 건결히 반대하여야 한다. 일본의 공산주의자와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국의 전쟁에 있어서의 패배주의자이다.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일본 침략자와 히틀러의 전쟁을 패배시키는 것은 일본 인민과 독일 인민의 리익이며 이러한 패배가 철저하면 할수록 좋다.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여야 하며 또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일본 침략자와 히틀러의 전쟁은 세계 인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국 인민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형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피침략 국가이다.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주의자인 동시에 또 애국주의자이며 우리의 구호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자를 반대하기 위하여 싸우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패배주의는 최악이며 항일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남에게 밀 수 없는 책임이다.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싸워야만 침략자를 패배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 민족이 해방을 얻어야만 프롤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이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승리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자를 타도하면 이것은 동시에 외국의 인민들을 원조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애국주의란 민족 해방 전쟁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의 실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의 공산당원은 자기의 모든 적극성을 발휘하여 민족 해방 전쟁의 싸움터로 영웅 파감하게 달려 나가 총을 들고 일본 침략자를 겨누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9.18 사변 때부터 민족 자위 전쟁으로 일본 침략자를 반항하라는 호소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또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주장을 제기하고 홍군에게 항일 국민 혁명군으로 개편하여 전선으로 나가 작전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자기의 당원들에게 항일 전쟁의 최전선에 나서서 마지막 과한 방울까지 바쳐 조국을 보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모든 애국주의적 행동은 정당한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의 실현이며 국제주의에 조금도 배치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몽매한 자나 딴 심'보를 가진 자 밖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헛소리를 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국제주의를 포기하였다고 헛소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

## 민족 전쟁에 있어서의 공산당원의 모범적 역할

상술한 리유로 보아 공산당원은 민족 전쟁에서 고도의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극성을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즉 여러 면에서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우리의 전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범한 인민 대중의 민족적 각성과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이 부족한 것, 대다수 민중이 무조직 상태에 있는 것, 군사적 역량이 건강하지 못 한 것, 경제가 낙후한 것, 정치가 민주주의적이 못 되는 것, 부패 현상과 비판적 기분이 존재하는 것, 통일 전선 내부가 단결되지 못 하고 공

고하지 못 한 것 등등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은 전국 인민을 단합하여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을 퇴치하는 중대한 책임을 자각적으로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면에서 공산당원의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원은 팔로군과 신사군 내에서英勇하게 싸우는 모범으로, 명령 집행의 모범으로, 규률 준수와 모범으로, 정치 사업의 모범으로, 내부의 단결과 통일 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우당, 우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산당원은 단결하여 항일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의 강령을 견지하여 항전 임무 실행의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또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오만하지 않고 성심 성의로 우당, 우군과 문제들 토의하고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통일 전선 내의 각 정당 호상 관계에 있어서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정부 사업에 있어서 공산당원은 극히 청렴하며 정실 관계로 사람을 쓰지 않으며 일은 많이 하고 보수는 적게 받는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민중 운동에 있어서 민중의 웃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민중의 벗으로 되어야 하며 관료주의적 정객으로 될 것이 아니라 남을 꾸준히 가르쳐 주는 교원으로 되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민족 및 인민 대중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 때문에 사리 사욕, 소극 태업, 탐오와 부패, 개인 들쭉날쭉의 등등은 가장 비루한 것이고 오직 공명 정대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자기 희생적으로 사업하며 간고 분투하는

정신만이 존경할 만 한 것이다. 공산당원은 당외의 일체의 선진 분자와 일치 협력함으로써 전국 인민을 단합하여 각종 불량한 현상을 퇴치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전 민족 중의 소부분에 불과하며 당외에는 우리들이 협력하여 사업하여야 할 광범한 선진 분자와 열성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제일이고 남은 다 틀렸다는 생각은 절대로 옳지 못한 것이다. 공산당원으로서 락후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질 바 태도는 그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단결하며 그들을 설복하며 그들을 전진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공산당원은 사업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만회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 외에는 배척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연 회과하여 새 출발을 하게 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실사 구시의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또 원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실사 구시하여야만 확정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원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은 또 학습에서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의 교원인 동시에 민중의 학생이어야 한다. 오직 민중에게서 배우며 주위 환경에서 배우며 우당, 우군에게서 배워 그들을 리해하여야만 사업에 있어서 실사 구시로 될 수 있으며 전도에 대한 원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질 수 있다. 장기적 전쟁과 간고한 환경 속에 있어서 오직 공산당원이 우당, 우군 및 인민



대중 내의 일체 선진 분자와 협력하고 자기의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고도로 발휘하여야만 곤난을 극복하며 적을 타승하며 새 중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분투하도록 전 민족의 일체 생동하는 력량을 동원할 수 있다.

## 전 민족을 단합하고 민족 내부의 적의 앞잡이들을 반대할 것

곤난을 극복하고 적을 타승하며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고화하고 확대하며 전 민족의 모든 생동하는 력량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유일 무이한 방침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민족 통일 전선 내부에는 파괴 작용을 하는 적의 앞잡이들 즉 민족 반역자, 트로츠키파, 친일 분자 등이 있다. 공산당원은 시시각각으로 그러한 적의 앞잡이들에 주의를 돌려 확실한 증거에 의거하여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 가지 않도록 인민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민족 내의 적의 앞잡이들에 대한 정치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적의 앞잡이들을 적발하고 숙청하는 것은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 공고화함에 있어서 빼여 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공산당원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 면만을 고려하고 다른 한 면을 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다.

## 공산당을 확대하며 적의 앞잡이들의 잠입을 방지할 것

곤난을 극복하고 적을 타승하며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반드시 자기의 조직을 확대하여야 하며 진정히 혁명적이고 당의 주의(主義)를 신봉하고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규률에 복종하려 하고 사업에 노력하는 광범한 노동자, 농민 및 청년 열성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 당을 위대한 대중적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관문주의 경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적의 앞잡이들의 잠입에 대한 경각성이 없어도 절대 안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특무 기관은 시시각각으로 우리 당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숨어 있는 민족 반역자, 트로츠키파, 친일파, 부화 분자, 투기 분자를 리용하여 그들을 열성자로 가장시켜 시시각각으로 우리 당에 잠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각성과 엄밀한 방비를 일각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적의 앞잡이들이 무서워서 자기 당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대담하게 당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정적인 방침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대담히 발전시킨다고 하여 적의 앞잡이들과 투기 분자가 이 기회를 타서 잠입하는 데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도 안 된다. 한 면만을 고려하고 다른 한 면을 망각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대담하게 발전시키되 나쁜 분자를 하나도 잠입하지 못 하게 하라》——이것만이 정확한 방침이다.

## 통일 전선을 견지하고 당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

민족 통일 전선을 견지하여야 곤난을 극복하고 적을 타  
승하며 새 중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 전선에 가담한 모든 정당  
들의 사상, 정치, 조직 상의 독립성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것은 국민당이거나 공산당이거나 기타의 정당이거나를 물론  
하고 모두 이려하다. 삼민주의 중의 민권주의를 정당 문제  
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각 정당 간의 호상 연합을 허용하며 또  
각 정당의 독립적 존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통  
일성만을 운운하고 독립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민권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공산당이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어떠한 정당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성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상대적인  
것이다. 만일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단결하여  
대적하는 총방침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독립성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상적으  
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각 정당은 상대적인 독립성  
즉 상대적인 자유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상대적인  
자유권이 말할 당하거나 자신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이 역시  
단결하여 대적하는 총방침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점  
은 매개의 공산당원이, 동시에 매개의 우당 당원도 알고 있

어야 할 바이다.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항일 전쟁에 있어서 일체가 항일의 리익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정된 원칙이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의 리익은 항일 전쟁의 리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항일 전쟁의 리익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급과 계급 투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계급 투쟁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계급 투쟁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리론은 전혀 그릇된 리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한다. 우리가 창도하는, 호상 방조하며 호상 양보하는 정책은 정당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관계에도 적용된다. 단결하여 항일하기 위하여 각 계급 간의 호상 관계를 조절하는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로고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 상 및 생활 상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부유한 자의 리익도 고려하여 줌으로써 단결하여 대적할 필요성에 적응하여야 한다. 한 면만을 고려하고 다른 한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일에 불리할 것이다.

## 전체 국면을 돌보며 다수를 돌보며 동맹자들과 함께 사업할 것

공산당원은 대중을 지도하여 적과 투쟁할 때 전체 국면을 돌보며 다수를 돌보며 동맹자들과 함께 사업하려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국부적 수요를 전체 국면의 수요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이 리치를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의견이 국부적 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나 전체 국면의 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국부를 전체 국면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와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로 국부적 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지 못하나 전체 국면의 정형에서 볼 때에는 합당하다면 역시 그 국부를 전체 국면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 국면을 돌보는 관점이다. 공산당원은 군중의 다수로부터 리탈되어 다수 사람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소수의 선진 대렬을 데리고 단독적으로 모험적으로 돌진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선진 분자와 광범한 대중 간의 밀접한 련계를 조직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수를 돌보는 관점이다. 우리와 합작할 용의가 있는 민주 정당 및 민주 인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공산당원은 그들과 함께 문제를 협의하며 함께 사업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동맹자를 도외시하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훌륭한 공산당원이라면 전체 국면을 잘 돌보고 다수를 잘 돌보며 동맹자와 함께 잘 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큰 결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정하는 데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 간부 정책

중국 공산당은 수억의 인구를 가진 대민족 가운데서 위

대한 혁명 투쟁을 령도하는 당이므로 재덕이 겸비한 많은 지도 간부가 없이는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지난 17년 동안에 우리 당은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을 양성하여 군사, 정치, 문화, 당 사업, 민중 운동 등 여러 분야에 모두 우리의 골간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의 영광이며 또한 전 민족의 영광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골간만으로는 투쟁이란 이 큰 건물을 지탱하여 나가기에 부족하므로 인재를 더 광범히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인민의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 많은 열성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또 계속 배출되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조직하며 양성하며 애호하는 동시에 그들을 잘 쓰는 데 있다. 정치 로선이 확정된 후에는 간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1]. 따라서 많은 새 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의 전투적 과업이다.

당원 간부를 관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당 간부도 관심하여야 한다. 당의에는 많은 인재가 있다. 공산당은 그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교만성을 버리고 비당 간부와 함께 사업을 잘 하며 그들을 성심 성의로 도와 주며 열렬한 동지적 태도로 대하며 그들의 적극성을 항일과 건국의 위업으로 인입하는 것은 매개 공산당원의 책임이다.

간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간부의 한때 한 사업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간부의 리력과 사업 전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간부를 식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간부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은 주로 방책을 내세우는 것과 간부를 쓰는 이 두 가지에 귀결된다. 일체

의 계획, 결정, 명령, 지시 등등은 모두가 《방책을 내세운다》는 데 속하는 것이다. 이 모든 방책을 실행하려면 간부들을 단합하며 이것을 실행하도록 간부들을 추동하여야 한다. 이것은 《간부를 쓴다》는 데 속하는 것이다. 간부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이전부터 두 가지의 대립되는 로선이 존재하여 왔다. 즉 하나는 《오직 현명 여부를 보아 사람을 쓰는》 로선이며 하나는 《오직 친분 여부를 보아 사람을 쓰는》 로선이다. 전자는 정당한 로선이고 후자는 부정당한 로선이다. 공산당의 간부 정책은 당의 로선을 견결히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당의 규률에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 대중과의 련계가 밀접한가 안 한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사리 사욕을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현명 여부를 보아 사람을 쓰는》 로선이다. 과거 장 국도는 간부 정책에 있어서 이와 정반대로 《오직 친분 여부를 보아 사람을 쓰는》 로선을 실시하여 개인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끌어 들여 소종파를 형성하였으며 결국에는 당을 배반하여 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의 큰 교훈이다. 장 국도의 력사적 교훈과 그와 유사한 력사적 교훈에 비추어 간부 정책 문제에 있어서 정당하고 공정한 작풍을 견지하며 부정당하고 불공정한 작풍을 반대함으로써 남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 및 각급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임이다.

간부들 애호할 줄 알아야 한다. 애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사업하게 하며 대담하게 책임 지게 하는 동시에 또 제때에 그들에게 지시를 주어 당의 정치 로선 하에서 자기의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들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주며 그들을 교육하여 리론 수준 및 사업 능력을 한 걸음 더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경험을 총화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들을 도와 주는 것이다. 사업을 맡기지만 하고 검열하지 않다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였을 때에야 주의를 돌리는 것은 간부를 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넷째로, 오류를 범한 간부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설복하는 방법을 써서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도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하여서만 투쟁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경솔하게 《기회주의》라는 큰 감투를 씌우거나 또 경솔하게 《투쟁을 전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로, 그들의 곤난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질병이 있거나 생활, 가정 등 면에서 곤난이 있는 간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간부를 애호하는 방법이다.

## 당의 규율

규율을 엄중하게 파괴한 장 국도의 행위에 비추어 당의



규율 즉 (1)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2)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3)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며, (4) 전 당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규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율을 파괴하는 자는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자이다. 경험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당의 규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규율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번히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장 국도 같은 자는 많은 당원들이 모르는 것을 리용하여 작간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에게 당의 규율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여 일반 당원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게 하며 동시에 또 일반 당원들로 하여금 당의 최고 령도 일'군들까지도 함께 규율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게 함으로써 장 국도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내의 관계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는 상술한 가장 중요한 네 조항의 규율 외에 또 비교적 상세한 당내 법규를 제정하여 각급 지도 기관의 행동을 통일 하여야 한다.

## 당의 민주주의

위대한 투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당의 모든 지도 기관, 전체 당원 및 간부들에게 드높은 적극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드높은 적극성을 발휘하여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도 기관과 간부 및 당원들의 창발성, 책임성, 사업에서의 활약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발표하며 결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의 대담성과 능숙성에서 그리고 또 지도 기관과 지도 간부들에 대한 애호하는 견지로부터 출발한 감독적 역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적극성이라는 것은 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의 발휘 여부는 당내 생활의 민주화에 달려 있다. 당내에 민주주의적 생활이 결여하면 적극성을 발휘시킬 수 없다. 다량의 능력 있는 인재의 양성도 민주주의적 생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소생산적인 가부장제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또 전국적 범위에서 아직까지 민주주의적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이 우리 당내에 반영되어 민주주의적 생활이 부족한 현상이 산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 당의 적극성의 충분한 발휘를 방해하고 있다. 동시에 이 영향으로 하여 통일 전선 내부와 민중 운동 내에 민주주의적 생활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생활과 관련한 교양을 진행하여 당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생활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 제도와 중앙 집권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일방으로 당내의 민주주의적 생활을 확실히 확대할 수 있으며 타방으로 극단적 민주화애로 나아가지 않고 규률을 파괴하는 자유 방종주의애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군대 내의 당 조직도 당원의 적극성을 제고하며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민주주의적

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대 내의 당 조직에서는 민주주의가 지방 당 조직에서보다 적어야 한다. 군대 내에서나 지방에서나 당내의 민주주의는 규율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공고히 하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당내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당을 공고히 하고 당을 발전시키는 필요한 절차로 간주하여야 하며 당으로 하여금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 생동하고 활약하며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담당하며 새 령량을 양성시키며 전쟁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두 전선에서의 투쟁 과정에서 공고화되고 잠성되었다

지난 17년 동안에 우리 당은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투쟁의 무기를 사용하여 두 개 면에서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것, 즉 한 면으로는 우경 기회주의, 다른 한 면으로는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배웠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5차 전원 회의 이전(2)에는 우리 당은 진 독수의 우경 기회주의와 리 럽삼 동지의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였다. 이 두 차례의 당내 투쟁의 승리에 의하여 당은 거대한 진보물 가져 왔다. 제 5차 전원 회의 후에 또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두 차례의 당내 투쟁이 있었다. 그것은 준의 회의에서의 투쟁과 장 국도를 출당시킨

투쟁이다.

중의 회의는 제 5 차 반 《포위 토벌》 투쟁에서 범한 《좌》 경 기회주의적 성격을 면 엄중한 원칙적인 오류를 시정하고 당과 홍군을 단결시켰다. 그리 하여 당 중앙과 홍군 주력은 장정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항일의 전진 진지에도 이동할 수 있었으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새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파서 회의(3)와 연안 회의(4)(장 국도 로선을 반대하는 투쟁은 파서 회의로부터 시작되어 연안 회의에서 완성되었다)에서 장 국도의 우경 기회주의를 청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홍군이 회합하고 전 당이 더욱 단결되어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기회주의적 오류는 국내 혁명 전쟁 과정에서 산생된 것으로서 전쟁 과정에서의 오류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두 차례의 당내 투쟁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산생되었고 제 5 차 반 《포위 토벌》 투쟁에서 나타난 엄중한 원칙적인 오류는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좌》적인 조급증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혁명 전쟁에 극히 불리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혁명 운동에 다 불리한 것이다. (2) 장 국도의 기회주의는 혁명 전쟁에서의 우경 기회주의로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그의 퇴각 로선과 군벌주의 및 반당 행위의 종합체이다. 오직 이러한 것을 청산함으로써만 본질적으로 매우 좋고 또한 장기간 영용하게 투쟁하여 온 홍군 제 4

방면군의 광범한 간부와 당원들이 장 국도의 기회주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중앙의 올바른 로선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3) 10 년 간의 토지 혁명 전쟁 시기의 위대한 조직 사업은 군사 건설 사업에서나, 정부 사업에서나, 민중 사업에서나, 당 건설 사업에서나를 물론하고 성과가 컸다. 전선의 영웅적인 전투에 이러한 조직 사업이 배합되지 않았더라면 장 개석을 반대하는 당시의 가혹한 투쟁을 견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기에 와서는 당의 간부 정책과 조직 정책 면에서 엄중한 원칙적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은 종파 경향, 정벌주의 및 사상 투쟁에서의 과격한 정책에서 표현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틱삼 로선의 잔재를 숙청하지 못한 결과이며 또 당시 정치 상에서의 원칙적 오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류도 준의 회의에서 시정되어 당은 정확한 간부 정책과 정확한 조직 원칙의 방향으로 돌아 서게 되었다. 장 국도의 조직 로선으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공산당의 일체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며 당의 규율을 파괴하는 것이며 분파적 활동으로부터 반당, 반중앙, 반국제당적 행위에까지 발전한 것이다. 장 국도의 최악적인 로선적 오류와 반당 행위에 대하여 중앙 위원회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동시에 장 국도 본인까지도 전혀 내려고 힘 썼다. 그러나 장 국도가 자기의 오류를 고집하면서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양면파적 행동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당을 배반하고 국민당의 품안으로 들어 가게 되자 당은 그를 단호히 출당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처분은 전 당'적

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 사업에 충실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국제 공산당도 이 처분을 비준하였으며 동시에 장 국도를 탈주병이며 반역자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훈과 성공들은 금후 전 당을 단결시키고 사상적, 정치적 및 조직적인 일치를 강화하여 항일 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우리 당은 두 전선에서의 투쟁 과정에서 이미 공고화되고 장성되었다.

### 당면한 두 전선의 투쟁

금후의 항일 형세에서는 정치 면에서 우적 비판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좌》적 조급증을 반대하는 데도 여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 통일 전선 문제에 있어서, 당의 조직 문제에 있어서, 민중의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각 항일 정당과의 합작을 실현하며 공산당을 발전시키며 민중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좌》적 관분주의 경향을 계속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조건적인 합작, 무조건적인 발전과 같은 우경 기회주의적인 경향을 반대하는 데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작을 방해하게 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투항주의적인 합작과 무원칙한 발전으로 되고 말 것이다.

두 전선에서의 사상 투쟁은 구체적 대상의 정형에 부합

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문제를 보아서는 절대 안 되며 《합부로 감투를 씌우는》 그러한 낡은 악습을 존속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양면파적 행위를 반대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양면파적 행위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것이 분파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 국도의 력사가 바로 그 증거이다. 표면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나 리면으로는 위반하며 말로는 찬동하나 속으로는 반대하며 당면하여서는 듣기 좋게 말하나 배후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이것이 바로 양면파적 행위의 표현이다. 양면파적 행위에 대한 간부와 당원들의 주의력을 제고시켜야만 당의 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

## 화 습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당한 정도의 연구 능력을 가진 모든 공산당원들은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리론을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를 연구하여야 하며 당면 운동의 정황 및 그 추세를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문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당원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특수적으로 말하면 간부는 이러한 연구에 치중하여야 하며 중앙 위원과 고급 간부는 더욱 힘써 연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혁명 운동을 지도하는 정당으로서 혁명적 리론이 없고 력사 지식이 없고 실제 운동에 대한 심각한 리해가 없으면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리론은 《세계의 어디에나 다 맞는》 리론이다. 이들의 리론을 교조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문구만을 학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혁명적 과학으로서 학습하여야 한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이 광범한 현실 생활 및 혁명의 경험을 연구하여 얻어 낸 일반적 법칙에 관한 결론들을 리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관찰하며 문제를 해결한 령장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수양은 과거보다 약간의 진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매우 보편화되지 못 하고 있으며 깊이 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수억만 인구를 가진 큰 민족을 령도하여 전례 없는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보편적이고도 심각하게 연구할 임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큰 문제이며 또 많은 힘을 들여야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이다. 우리의 이번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끝난 후에 전 당'적으로 학습 경쟁을 일으켜 누가 진정으로 배웠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으며 더 잘 배웠는가를 볼 것을 나는 희망한다. 주요한 지도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지에서 말할 때 만일 우리 당내에,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허하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한 동지들이 100 명 내지 200 명만 있다면 우리 당의 전투력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또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우리의 사업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학습하며 맑스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우리 학습의 또 하나의 임무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허다한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소학생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역사적 중국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적 역사주의자이므로 역사를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자로부터 손 중산에 이르기까지의 것들을 총화하여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면의 위대한 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으로 된다. 공산당원은 국제주의적 맑스주의자이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결합되고 또 일정한 민족적 형식을 통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힘은 바로 그것이 각 나라의 구체적인 혁명적 실천과 련결되어 있는 데 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말한다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중국의 구체적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중화 민족의 일부분이며 이 민족과 혈육적으로 련결된 공산당원으로서 중국의 특성을 떠나 맑스주의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텅 빈 맑스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를 중국에서 구체화하며 그 매개의 표현들에서 반드시 떠여야 할 중국의 특성을 떼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의 특성에 비추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 당'적으로 시급히 인식하여야 할 문제로 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되고

있다. 양팔고〔5〕는 폐지하여야 하며 공허하고 추상적인 소리는 작작 하여야 하며 교조주의는 없애 버려야 한다. 그리 하여 신선하고 활기 있고 중국의 백성들이 좋아 하고 즐기는 중국 작풍과 중국 기풍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국제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분리시키는 것은 국제주의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양자를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의 엄중한 오류를 참답게 극복하여야 한다.

당면한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합법적 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운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에 관하여 그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 관하여도 그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운동은 발전하고 있고 그 앞에는 또 새로운 사물들이 있으며 새로운 사물은 끊임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운동의 전체 면 및 그 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할 큰 과제이다. 만일 이러한 것에 대한 진지하고도 극히 세밀한 연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학습에 있어서의 적은 자기 만족이다. 무엇을 좀 착실하게 배우려면 우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는 《배움에 싫증을 내지 않고》 남에게 대하여서는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단결과 승리

중국 공산당 내부의 단결은 전국 인민을 단결시켜 항일의 승리를 전취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7년 간 단련되어 온 중국 공산당은 자기 내열을 단결시키는 허다한 방법을 이미 배웠으며 전보다 훨씬 로련하여졌다. 이리 하여 우리는 전국 인민 속에서 견강한 핵심으로 되어 항일의 승리를 전취하며 새 중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동지들, 우리가 단결하기만 하면 이 목적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주 해

[1] 스탈린은 1934년 1월 전 연맹 공산당(분례워크) 제 17차 대회에서 한 자기의 보고에서 《붉은 정치적 로선이 나선 다음에는 조직 사업이 모든 것을——정치적 로선 자체의 운명까지도 즉 그의 실행이나 혹은 실패까지도 포함하여——결정한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옮겨 선발하는》 문제들 말하고 있다. 스탈린은 1935년 5월 크렘린리궁에서 거행된 붉은 군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에서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호를 제기하고 그것을 설명하였다. 또 1939년 3월 전 연맹 공산당(분례워크) 제 18차 대회에서 한 스탈린의 보고를 참조하라. 스탈린은 이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제에서 검열된 정당한 정치적 로선을 작성한 다음에는 당의 간부들이 당'적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맥당으로 되어 있다》.

[2] 1927년 8월 제 5기 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긴급 회의로부터 1934년 1월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5차 전원 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3] 파서 회의란 1935년 8월에 파서에서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

원회 정치국 회의이다. 파서는 사천성 서북부와 감숙성 동남부의 절경에 있는 지방으로서 사천성 송반현 현 소재지의 서북부에 있다. 당시 장 국도는 일부의 홍군을 명솔하고 중앙과 분별되어 나갔으며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중앙을 해치려고 시도하였다. 중앙은 이 회의에서 위험한 지역을 벗어 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령에 복종하는 홍군을 명솔하여 심서성 북부로 전진하였다. 장 국도는 자신에게 기만 당한 홍군을 명솔하고 천전, 로산, 대금천, 소금천 및 아바 지구로 남하하여 《중앙》을 따로 세우고 반당의 기치를 들었다.

[4] 연안 회의란 1937년 4월에 연안에서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이다. 이 이권에 장 국도가 명솔하고 있던 홍군의 광범한 간부와 전사들은 장 국도의 기만 수단에 넘어 간 것을 깨닫고 심감 번구를 향하여 복진하였으나 그 일부는 중도에서 또 그릇된 명도로 말미암아 감주, 탕주, 숙주 지구로 서진하여 적에게 태반이 소멸되고 나머지의 소부분은 신강에 갔다가 후에 역시 심감 번구에 돌아 왔다. 그리고 다른 일부분은 그전에 벌써 심감 번구에 도달하여 중앙 홍군과 회합하였다. 장 국도 자신도 심서성 북부에 와서 이 연안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장 국도의 기회주의 및 반당적 행위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총화하였다. 장 국도는 길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였으나 사실은 종국적으로 반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 본 선집 제 3권의 《당관고물반대하자》중의 양팔고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라.

##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 문제\*

(1938년 11월 5일)

### 방조와 양보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 합작을 위하여서는 통일 전선 내의 각 정당 간에 호상 방조하며 호상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조와 양보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당과 우리 군대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야 하는 동시에 우당과 우군의 공고화와 확대도 창조하여야 하며, 인민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한 결론의 일부분이다.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 문제는 당시 모택동 동지와 진 소우 동지 간에 항일 통일 전선 문제에 대하여 의견 상이가 있던 가장 들쭉날쭉한 문제의 하나이다. 본질 상에 있어서 이것은 통일 전선 내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명도권 문제이다. 이러한 의견 상이에 대하여 모택동 동지는 1947년 12월에 한 보고(《원 정세와 우리의 과업》)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총화하였다. 《항일 전쟁 시기에 우리 당은 이러한 투항주의 사상(주,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의 진 독수의 투항주의 사상을 가리킨다)과 류사한 사상, 즉 국민당의 반인민적 정책에 양보하며 인민 대중보다 국민당을 더 신임하며 군중 투쟁을 감히 대담하게 발동하지 못 하며 일본 점령 지구에서 해방구와 인민군대를 감히 확대하지 못 하며 항일 전쟁의 명도권을 국민당에 넘겨 주려는 사

은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항일에 유리한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정부에 주어야 하며, 노동자는 공장주에게 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하여 항일에 리롭도록 하여야 하며, 지주는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여야 하고 동시에 농민은 소작료와 리자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결하여 외적에 대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호상 방조의 원칙 및 방침으로서 소극적이고 일면적인 방침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침이다. 호상 양보도 이와 같다. 피차간에 남의 담 밑을 파지 말고 피차간에 상대방의 당, 정부, 군대 내부에 비밀 지부를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측으로 말한다면 국민당 및 그 정부, 군대 내부에 비밀 지부를 조직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당을 안심시키여 항일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sup>(1)</sup>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정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군의 개편, 홍색 지역 제도의 개편, 폭동 정책의 취소가 없이는 전국적인 항

상을 반대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이와 같은 연약 무능하고 부패한 사상에 대하여 난호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신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경위하고 완고 세력을 고립시키는> 정치 로선을 견결히 집행하였으며 해방구와 인민 해방군을 견결히 확대하였다. 이리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투항한 후 장 개석이 반혁명 전쟁을 일으킨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인민 혁명 전쟁으로써 장 개석의 반혁명 전쟁을 반대하는 궤도로써 순조롭게, 손실 없이 진찬하고 단시일 내에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전 당 동지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잘 기억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일 전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를 양보하여 후자를 얻었으며 소극적인 조치로써 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 《더 잘 도약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 선다》(2)는 것은 바로 레닌주의이다. 양보를 순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맑스-레닌주의가 용허하지 않는 것이다. 순전히 소극적인 양보도 있었다. 그것은 즉 제 2 국제당의 로마 협조론(3)으로서 전체 계급, 전체 혁명을 양보하여 버렸었다. 중국에는 처음에 진 독수가 있었고 다음에 장 극도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투항주의자였다. 우리는 투항주의를 극력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양보, 퇴수, 방어 혹은 정체를 그것이 동맹자에 대한 것이든지 적에 대한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전반적 혁명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전반적 혁명 로선과 연결된 불가결의 한 고리로 간주하며 폭선 운동에서의 한 개 단편으로 간주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인 것이다.

## 민족 투쟁과 계급 투쟁의 일치성

장기적 합작으로써 장기적 전쟁을 지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계급 투쟁을 오늘의 항일 민족 투쟁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통일 전선의 근본적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정당과 계급의 독립성을 보전하며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를 보전하여야 한다. 합작하고 통일한다 하여 정당과 계급의 필요한 권리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정당과 계급의 일정한 한도의 권리를 전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만 합작에 유리하며 또 합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작이 혼일로 변하여 필연적으로 통일 전선을 회생시키고 맡게 될 것이다. 민족 투쟁에 있어서는 계급 투쟁이 민족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에 양자의 일치성이 표현된다. 일면으로 계급의 정치 경제적 요구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 내에 있어서 합작을 결렬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른 일면으로 일체 계급 투쟁의 요구는 민족 투쟁의 수요(항일을 위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통일 전선 내에서의 통일성과 독립성, 민족 투쟁과 계급 투쟁을 일치시키게 된다.

### 〈모든 것은 통일 전선을 통하여〉라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당은 집권하고 있는 당이다. 이 당은 지금까지 통일 전선의 조직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류 소기 동지가 매우 옳게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모든 것은……통하여》라는 것이 장 개석과 영 석산을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일면적인 북종일 따름이며 《통일 전선을 통하여》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의 후방에 있어서는 국민당이 이미 허락한 것(폐를 들면 《항전 건국 강령》)에 근거하여 독립 자주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통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혹은 국민당이 허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먼저 처리하고 후에 알리는 수 밖에 없다. 폐를 들면 행정



전원을 설치한 것, 산동으로 군대를 파견한 것과 같은 것은 먼저 《통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듣는 바에 의하면 프랑스 공산당이 한때 이 구호를 제기하였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 프랑스에 각 정당의 공동 위원회가 있었으나 공동으로 결정한 강령을 사회당 측에서 그 대로 실시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이 구호를 제기한 것이지 결코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구호를 제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정형은 국민당이 각 정당의 평등 권리를 박탈하고 자기 한 당의 명령을 듣도록 각 정당을 지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호를 제기하는 것이 만일 국민당에 《모든 것》을 우리의 동의를 《통하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웃음'거리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에 대하여 모두 사전에 국민당의 동의를 얻어 하려 하는 것이라면 그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국민당의 방침은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이 구호를 제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는 것에 불과한바 그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현시기에 있어서 먼저 국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도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3 개 사의 번호를 3 개 군의 번호로 확충하여 편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먼저 알리고 후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성 사실을 만들어 놓은 후에 알릴 것도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20여만의 군대를 발전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먼저 처리하고 후에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도 당분간 알려지 않을 것도 있다. 그것은 케를 들면 번구의 의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분간 처리도 하지 않고 알려지도 않을 것도 있다. 케를 들면 그것에 손을 댔다가는 전반 국면에 방해를 주게 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결코 통일 전선을 결렬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스스로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여도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통일 전선을 통하여》라는 구호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통일 전선에 복종시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장 개석과 엄 석산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우리의 방침은 통일 전선 내에서의 독립 자주로서 통일하면서 또 독립하는 것이다.

## 주 해

[1] 이것은 《맹자》에서 나온 말이다.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탐은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2] 베닌의 《철학 노트》의 《헤겔의 저서〈철학사 강의〉의 적요》에서 인용한 것이다.

[3] 《토자 협조론》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혁명적 수단에 의하여 부르주아지의 동지들 전부를 포섭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협조를 주장한 제 2 국제당의 반동적 이론이다.

# 전쟁과 전략 문제\*

(1938년 11월 6일)

## 1. 중국의 특성과 혁명 전쟁

혁명의 중심 과업 및 그 최고 형태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원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중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다 옳은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 하에서도 프로레타리아 당이 각종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한 결론의 일부분이다. 모택동 동지는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와 《지구전에 대하여》란 토착에서 이미 항일 전쟁에 대한 당의 명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경 기회주의의 소유물 범한 동지들은 통일 전선에서의 독립 자주를 부인하는 만큼 전쟁과 전략 문제에 대한 당의 방침에 대하여서도 의혹을 품으며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당내의 이런 우경 기회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전당으로 하여금 중국 혁명 문제에서 전쟁과 전략 문제가 차지하는 그 첫째로 가는 중요한 위치를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전당을 동원하여 이런 사업에 참담하게 중사하게 하기 위하여 모택동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중국의 정치 투쟁의 역사적 측면으로부터 또 이 문제를 지중하여 설명한 동시에 우리의 군사 사업의 발전과 전략 방침의 구체적인 변천의 길을 설명하였다. 이리 하여 명도 사상 및 사업에 있어서의 전당'적 일치를 가져 왔다.

조건 밑에서 이 원칙을 집행하는 그 표현을 두고 말하면 그것은 조건이 같지 않음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 각국에 있어서 아직 파쇼가 없고 전쟁이 없는 시기의 조건을 놓고 보면 국내적으로는 봉건 제도가 없어졌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제도가 있을 뿐이며 외부적으로는 타민족으로부터의 압박이 없고 타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의 압박이 있을 뿐이다. 이런 특성에 의하여 자본주의 제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당의 임무는 장기적인 합법적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를 교양하고 역량을 길러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전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합법적 투쟁을 진행하며 의회 연단을 리용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며 직업 동맹을 조직하고 노동자들을 교양한다. 그 곳에서의 조직 형태는 합법적인 것이며 투쟁 형태는 비류혈적(비전쟁적)인 것이다. 전쟁 문제에 있어서 이런 나라들의 공산당은 자기 나라의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한다. 일단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당의 정책은 자국의 반동 정부를 패배케 하는 것이다. 당 자체가 요구하는 전쟁은 다만 준비 중에 있는 국내 전쟁 뿐이다〔1〕.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 말한다면 부르조아지가 참으로 무능하게 되기 전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다수가 무장 봉기와 전쟁을 진행할 결심을 가지기 전에는, 농민 대중이 자진하여 프로레타리아트를 원조하게 되기 전에는 봉기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봉기와 전쟁을 할 때에는 도시를 먼저 점령하고 그 후에 농촌으로 진공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였던 것이며 로씨야의 10월 혁명에서 실증된 바이다.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특성은 독립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이며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가 없고 봉건 제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민족적 독립이 없고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할 의의가 없고 로동자들을 조직하여 파업을 일으킬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여기에서의 공산당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합법적 투쟁을 통하여 봉기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먼저 점령한 후에 농촌을 탈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와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국주의가 무력 침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혹은 1924~1927년의 광둥 전쟁<sup>(2)</sup> 및 북벌 전쟁 때처럼 부르조아지와 함께 군벌(제국주의의 앞잡이)을 반대하는 국내 전쟁을 진행하거나 혹은 1927~1936년의 토지 혁명 전쟁 때처럼 농민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와 연합하여 지주 계급과 매관 부르조아지(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다)를 반대하는 국내 전쟁을 진행한다. 제국주의가 무력 침공을 감행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항일 전쟁과 같이 외국 침략자를 반대하는 국내의 일체 계급, 계층들과 연합하여 대외적으로 민족 전쟁을 진행한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주요한 투쟁 형태는 전쟁이고 주요한 조직 형태는 군대이다. 민중의 조직 및 민중의

투쟁 등등과 같은 기타 모든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며 표시하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전쟁을 위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모든 조직과 투쟁은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다. 페컨대 5.4 운동(1919년)으로부터 5.30 운동(1925년)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그러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모든 조직과 투쟁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쟁에 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벌 전쟁 시기에 혁명군 후방의 모든 조직과 투쟁은 직접 전쟁에 배합하였으며 북양 군벌 통치 지역 내의 모든 조직과 투쟁은 간접으로 전쟁에 배합하였다. 또 예를 들면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홍색 지역 내의 모든 조직과 투쟁은 직접 전쟁에 배합하였으며 홍색 지역 밖에 있는 모든 조직과 투쟁은 간접으로 전쟁에 배합하였다. 또 예를 들면 현재 항일 전쟁 시기에 항일군의 후방 및 적군 점령지 내의 모든 조직과 투쟁 역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쟁에 배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혁명의 특수성의 하나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3). 쓰딸린 동지의 이 명제는 전'적으로 옳다. 북벌 전쟁에 있어서나 토지 혁명 전쟁에 있어서나 오늘의 항일 전쟁에 있어서나를 물론하고 다 옳다. 위에서 말한 전쟁은 다 혁명 전쟁으로서 그 전쟁이 반대하는 대상은 다 반혁명이고 전쟁에 참가한 주되는 성분은 다 혁명적 인민이다. 그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것은 국내 전쟁이고 어떤 것은 민족 전쟁이며 어떤 것은 공산당이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전

쟁이고 어떤 것은 국공 량당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전쟁이라는 것 뿐이다. 물론 이런 차이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쟁 주체의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의 차이(로동자와 농민이 연합하였는가 또는 로동자, 농민과 부르주아지가 연합하였는가)와 전쟁 대상의 내외의 차이(국내의 적을 반대하는가 또는 국외의 적을 반대하는가, 국내의 적은 또 북양 군벌인가 또는 국민당인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중국 혁명 전쟁은 그 역사 행정의 각 시기에 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모두가 혁명 전쟁인 것으로서 중국 혁명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 전쟁이 《중국 혁명의 특수성의 하나와 우월성의 하나》라고 한 이 명제는 중국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 프로레타리아 당의 주요한 그리고 대체로 창건 초기부터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임무는 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동맹군을 연합하여 무장 투쟁을 조직하고 정세에 비추어 내부의 또는 외부의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무장 투쟁을 떠나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지위가 없으며 어떠한 혁명 임무도 완수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당은 1921년에 창립된 때로부터 1926년 북벌 전쟁에 참가하기까지의 5~6년 동안은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 시기에는 중국에 있어서의 무장 투쟁의 극히 큰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 하여 전쟁에 대한 준비와 군대의

조직을 착실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며 군사적 전략과 전술의 연구를 중시하지 않았다. 북벌 과정에서는 군대의 생취를 혼시하고 일면적으로 민중 운동에만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당이 일단 반동으로 나아가자 모든 민중 운동이 파단되고 만았다. 1927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동지들은 당의 중심 과업을 여전히 도시에서의 봉기 준비와 백색 지구에서의 공작 민에 두었다(4). 일부 동지들이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온 것은 1931년 적들의 제 3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하여 승리를 얻은 후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전당'적인 전환이 아니었으며 일부 동지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중국 문제는 무력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점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항일 전쟁의 승리적 수행에 유익한 것이다. 항일 전쟁에서 전 민족이 무장 항쟁에 일떠선 구체적 사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전 당을 교육할 것이다. 매개 당원들은 어느 때나 무장하고 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당의 주요 사업 방면이 전쟁 지구와 적후에 있다는 우리의 이 번 회의의 결정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것은 일부 당원들이 당의 조직 사업이나 민중 운동 사업은 하려고 하면서 전쟁을 연구하거나 전쟁에 참가하기는 싫어 하며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선으로 나가도록 고무 격려하는 데 주의물 돌리지 않는 동등의 현상에 대하여 중세에 맞는 좋은 약으로



될 것이다. 대부분 중국 령토 내에서의 당의 조직 사업과 민중 운동 사업은 무장 투쟁과 직접 련결되어 있다. 단독적이며 고립적인 당 사업이나 민중 운동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전쟁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후방(운남, 귀주, 사천과 같은)과 적의 지배 하에 있는 일부 지구(북평, 천진, 남경, 상해와 같은)에서의 당의 조직 사업과 민중 운동도 역시 전쟁에 배합하는 것으로서 전선의 요구에 복종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오직 그것에 복종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 당은 전쟁을 중시하여야 하며 군사를 배워야 하며 전쟁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2. 중국 국민당의 전쟁사

우리가 국민당의 역사를 살펴 보며 그가 어떻게 전쟁에 주의를 돌려 왔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이다.

손 중산은 그가 혁명적 소그루빠를 조직한 때로부터 청조를 반대하는 여러 차례의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sup>[5]</sup>. 동맹회 시기에 와서는 무장 봉기의 사적으로 더욱 충만되었으며<sup>[6]</sup> 신해 혁명에 이르러서 무력으로 청조를 전복하였다. 중화 혁명당 시기에는 무력으로 원 세개를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였다<sup>[7]</sup>. 그 후의 해군의 남하<sup>[8]</sup>, 계림에서의 북벌<sup>[9]</sup> 및 황포 군관 학교의 창설<sup>[10]</sup>은 모두 손 중산의 전쟁 업적이었다.

손 중산을 대체한 장 개석은 국민당의 군사 전성 시대를 이루어 놓았다. 그는 군대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북벌, 내전

및 항일의 세 시기를 거쳤다. 과거 10년 동안의 장 개석은 반혁명적이었다. 혁명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는 방대한 《중앙군》을 창건하였다. 군대가 있으면 권력이 있고 전쟁이 만사를 해결한다는 이 기본적인 점을 그는 틈틈히 틀어 잡았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를 따라 배워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손 중산이나 장 개석은 모두 우리의 선생이다.

신해 혁명 후 모든 군벌들은 군대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겼으며 《군대가 있으면 권력이 있다》는 원칙을 중요시하였다.

담 연개[11]는 명리한 판료였다. 그는 호남성에서 몇 차례나 올라 앉았다 떨어졌다 하였으나 단순히 성장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독군 겸 성장 노릇을 하였다. 후에 그는 광둥 및 무한의 국민 정부의 주석 노릇을 할 때에도 역시 제 2군 군장을 겸임하였다. 중국에는 이런 군벌이 매우 많다. 그들은 다 중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또 군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정당도 있다. 진보당[12]이 그 주요한 하나이다. 그러나 진보당도 역시 어떤 군벌에 등을 대야만 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리 하여 원 세개, 단 기서[13], 장 개석(장 개석에게 붙어 있는 것은 진보당의 일부가 전환되어 이루어진 정학계[14]이다)이 진보당의 의지로 되었다.

청년당[15]과 같은 력사가 길지 않은 몇몇 작은 정당들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해 내지 못 하고 있다.

외국의 부르조아 정당들은 각자가 일부의 군대를 직접 장악,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

국에는 봉건적 할거가 있기 때문에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집단 또는 정당은 총이 있는 자가 세력이 있고 총이 많은 자가 세력이 크다. 이런 환경 속에 처하여 있는 프로레타리아 당은 문제의 중심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공산당원은 개인적 군권 다툼을 하지는 않지만(그런 다툼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다시는 장 국도를 본 받아서는 안 된다) 당의 군권, 인민의 군권은 쟁취하여야 한다. 지금은 민족적 항전을 하고 있으므로 또 민족의 군권을 쟁취하여야 한다. 군권 문제에서 소아병에 걸리면 필연코 아무런 것도 얻지 못 하게 될 것이다. 근로 인민들은 수천 년 동안 반동 지배 계급의 기만과 공갈에 속아 왔기 때문에 총을 자기의 수중에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가 대단히 용이하지 않다. 일제의 압박과 전 민족적 항전은 근로 인민을 전쟁 무대에 올려 놓았다. 공산당원은 이 전쟁에서 가장 자각적인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총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휘하는 것이며 총이 당을 지휘하는 것은 절대 용허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총이 있으면 확실히 당을 만들 수도 있다. 팔로군은 화북에서 커다란 당 조직을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총이 있으면 간부도, 학교도, 문화도, 민중 운동도 나올 수 있다. 연안의 모든 것은 총이 가져 온 것이다. 총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의 견지에서 보면 군대는 국가 정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하려 한다면 강대한 군대

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전쟁 만능론자》라고 비웃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혁명 전쟁 만능론자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맑스주의적인 것이다. 로씨야 공산당의 총은 사회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는 민주 평화국을 만들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계급 투쟁의 경험은 우리에게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오직 총의 힘으로써만 무장한 부르주아지 및 지주를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온 세계도 총에 의하여서만 개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쟁 소멸론자이다.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전쟁을 통하여서만 전쟁을 소멸할 수 있으며 총이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한다.

### 3. 중국 공산당의 전쟁사

우리 당은 1921년(중국 공산당의 창건)부터 1924년(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에 이르는 3~4 년 동안에는 직접 전쟁을 준비하며 군대를 조직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 하였으며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기간에도, 심지어는 그 이후의 한 시기까지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다. 그러나 1924년에 황포 군사 학교의 사업에 참가한 후로부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었으며 군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국민당의 광둥 전쟁 및 북벌 전쟁을 원조하면서 당은 이미 일부의 군대를 장악하게 되었다[16]. 혁명의 실패에서 쓰라린 교

훈을 받아 남창 봉기, 추수 봉기 및 팽주 봉기를 일으켰고 홍군을 창건하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서게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 당이 군대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 극히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홍군 및 그가 진행한 전쟁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진 독수의 청산주의를 취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항일 전쟁과 그 장기간의 전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927년 8월 7일의 당 중앙의 긴급 회의는 정치 면에서의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함으로써 당을 한 걸음 크게 전진시켰다. 1931년 1월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는 명목 상으로는 정치 면에서의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였지만 실제 상으로는 《좌》경 기회주의의 오유를 제차 범하였다. 이 두 회의의 내용과 그 역사적 역할은 같지 않지만 이 두 회의는 다 전쟁과 전략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당 사업의 중점이 아직도 전쟁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1933년 당 중앙이 홍색 지역으로 옮겨 간 후에 정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전쟁 문제(그리고 모든 주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원칙적인 오유를 범하여 혁명 전쟁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었다[17]. 1935년의 준의 회의는 주로 전쟁에서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전쟁 문제를 첫자리에 올려 놓았다. 이것은 전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17년의 투쟁 행정에서 확호한 맑스주의적 정치 로선을 단련하여 내었을 뿐만 아니라 확호한 맑스주의적 군사 로선도 단련

하여 내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 문제의 해결에 맑스주의를 운용할 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문제의 해결에도 맑스주의를 운용할 줄 알게 되었으며 당과 국가를 관리할 줄 아는 유력한 골간들을 많이 양성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할 줄 아는 유력한 골간도 많이 양성하여 내었다. 이것은 무수한 선렬들의 뜨거운 피로 길러 낸 혁명의 꽃이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공산당과 세계 인민들의 영광이기도 하다. 세계적 범위에서 아직은 소련, 중국, 에스빠냐 세 나라의 공산당이 령도하는 세 군대만이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 측에 속하는 것이며 기타 각국의 당은 아직 군사적 경험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군대 및 군사적 경험은 특히 귀중하다.

오늘의 항일 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팔로군, 신사군 및 우리 당이 령도하는 모든 유격대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원칙 하에서 당은 가장 우수한 그리고 충분한 수량의 당원과 간부들을 전선에 파견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야 하며 조직적 임무는 정치적 임무에 복종하여야 한다.

#### 4. 국내 전쟁과 민족 전쟁에서의 당의 군사적 전략의 전환

우리 당의 군사적 전략의 전환 문제는 연구할 가치가 있

는 문제이다. 국내 전쟁과 민족 전쟁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 말하려 한다.

국내 전쟁 과정은 대체로 전후 두 개의 전략적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유격 전쟁이고 후반기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정규 전쟁이다. 그러나 정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적인 것으로서 단지 병력을 집중하여 운동전을 하는 데서와 지휘 상, 조직 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집중성과 계획성에서 표현될 뿐이며 그 외의 것은 여전히 유격적이고 저급적인 것이다. 그것은 외국 군대의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국민당 군대의 것과도 좀 다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이런 정규전은 제고된 유격전이다.

항일 전쟁 과정도 우리 당의 군사적 임무로 말한다면 역시 대체 상 두 개의 전략적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반기(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대치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유격 전쟁이고 후반기(전략적 반공 단계)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정규 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항일 전쟁 전반기의 유격 전쟁은 국내 전쟁 전반기의 유격 전쟁보다는 많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규성(어느 정도의)을 띤 팔로군으로써 유격 임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항일 전쟁 후반기의 정규 전쟁도 역시 국내 전쟁 후반기의 정규 전쟁과는 다를 것이다. 이것은 신형 무기로 장비된 후에는 군대나 작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하는 말이다. 그 때의 군대는 고도의 집중성과 조직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작전은 그 유격성이 크게

감소되고 고도의 정규성을 띠게 될 것이며 저급적이던 것이 고급적인 것으로 전환될 것이며 중국적이던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 반공 단계 중의 과업으로 될 것이다.

이로부터 국내 전쟁과 함일 전쟁의 이 두 개 과정 및 네 개 전략적 시기 사이에는 도합 세 개의 전략적 전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국내 유격 전쟁으로부터 국내 정규 전쟁으로의 전환이고 둘째는, 국내 정규 전쟁으로부터 함일 유격 전쟁으로의 전환이며 세째는, 함일 유격 전쟁으로부터 함일 정규 전쟁으로의 전환이다.

세 개의 전환 가운데서 첫째 전환은 매우 큰 곤란에 봉착하였었다. 여기에는 두 개 면의 임무가 있었다. 한 면으로는, 유격성에 사로잡혀 정규성으로 전환하려 하지 않는 우적인 지방주의적 경향과 유격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간부들이 이미 변화된 걱정 및 임무에 대하여 평가가 부족한 데서 생긴 것이었다. 이 면에서 중앙 홍색 지역을 보면 간고한 교양 사업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이를 점차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정규화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좌>적인 집중주의적 경향과 모험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일부 지도 일'군들이 걱정과 임무에 대하여 지나친 평가를 내리고 또한 실정을 돌보지 않고 외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옮겨 온 데서 생긴 것이다. 이 면에서 중앙 홍색 지역에서는 3 년이란 오랜 기간(준의 회의 이전까지)에 걸쳐 막대한 희생을 내었으며 그런 후에 피의 교



훈 가운데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정은 준의 회의의 성과이다[18].

둘째 전환은 두 개의 상이한 전쟁 과정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937년 가을(로구교 사변 이후)의 일이었다. 이 때 적은 새로운 적, 즉 일본 제국주의이고 우군은 과거의 적이었던 국민당(국민당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의를 품고 있다)이며 싸움터는 지역이 광대한 화북(당분간 아군의 정면으로 되어 있지만 오래지 않아 적의 장기적 후방으로 될 것이다)이었다. 우리의 전략적 전환은 이런 특수한 정황 하에서 수행된 극히 중대한 전환이었다. 이런 특수한 정황 하에서는 과거의 정규군과 운동전을 유격군(조직성 및 규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과 유격전으로 전환시켜야만 적정과 임무에 부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전환은 외형 상으로는 뒤'길음 치는 전환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면으로는 적을 경시하는 경향이며 다른 한 면으로는 일본에 대한 공포증이였다. 이 양자가 국민당 내에서는 다 발생되었던 것이다. 국민당은 국내 전쟁의 싸움터로부터 민족 전쟁의 싸움터로 전환할 때에 주로 적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또 일본에 대한 공포증이 존재하였기 때문에(한 복구, 류 치[19]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입지 않을 손실을 많이 입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환을 상당히 순조롭게 수행하였다. 비단 실패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비록

중앙과 일부 군사 간부들 사이에 엄중한 문제가 있었지만 광범한 간부들이 중앙의 정확한 지도를 제때에 받아 들이고 병활성 있게 정황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거두게 된 것이다. 이 전환이 전반 항일 전쟁의 전지, 발전 및 승리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전도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민족 해방의 운명에 있어서 항일 유격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여 보기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항일 유격 전쟁은 그 특수한 광범성과 장기성에서 말한다면 동방에서 전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상에서도 아마 전례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항일 유격 전쟁으로부터 항일 정규 전쟁으로의 전환, 즉 세째 전환은 전쟁 발전의 장래에 속하는 것이며 그 때에 가서 또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곤란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5.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적 지위

항일 전쟁 전반을 두고 말한다면 정규 전쟁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 전쟁은 보조적인 것이다. 왜냐 하면 항일 전쟁의 종국적 운명은 정규 전쟁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말하면 항일 전쟁의 전반 과정의 세 전략적 단계(방어, 대치, 반공) 중에서 첫째와 마지막의 두 단계에서는 정규 전쟁을 주로 하고 유격 전쟁으로써 그것을 보조한다. 중간 단계에서는 적이 점령지를 수비하고 우리는 비록

반공격을 준비하기는 하나 아직 반공격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격 전쟁이 주요 형태로 나타나고 정규전은 그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가장 오렐 수 있겠지만 전쟁의 전 행정에 있어서는 세 단계 중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하면 정규 전쟁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 전쟁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 정형을 인식하지 못 하고 정규 전쟁이 전쟁의 종국적 운명을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고 정규군의 건설과 정규전의 연구 및 지도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일본을 타승할 수 없다. 이것이 한 개 면이다.

그러나 유격 전쟁은 전쟁의 전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격 전쟁이 없고 유격대와 유격군의 건설을 홀시하고 유격전의 연구와 지도를 홀시하여도 역시 일본을 타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리유는 이러하다. 즉 중국의 태반이 적의 후방으로 될 것이므로 만일 가장 광범하고 가장 완강한 유격 전쟁이 없어서 적이 아무런 뒤'근심도 없이 우리의 지역을 편안히 점령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정면의 주력이 입는 손실은 반드시 클 것이며 적은 반드시 더욱 발광적으로 진공할 것이며 대치 상태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항전의 계속에 동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반공격 역량의 준비가 불충분하며 반공격을 진행할 때에 호응하는 역량이 없으며 적의 소모가 보상될 수 있는 등등의 불리한 정형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령 이런 정형이 나타났는 데도 불구하고

광범하고도 완강한 유격 전쟁을 제때에 발전시켜 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일본을 타승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격 전쟁이 전쟁 전반에 있어서는 비록 보조적 지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실은 극히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항일을 하면서 유격 전쟁을 홀시하는 것은 틀림 없이 큰 오류이다. 이것이 또 한 개 면이다.

큰 나라라는 이 조건만 구비하면 유격 전쟁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도 유격 전쟁이 있었다. 그렇지만 유격 전쟁을 전지하는 것은 공산당의 령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유격 전쟁은 대개가 다 실패로 돌아 간 유격 전쟁이었고 오직 현대에 있어서 공산당이 있는 큰 나라에서만, 려킨대 내전 시기의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승리적인 유격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전쟁 문제에 있어서 국공 량당의 항일 전쟁 중에서의 분공은 목전의 조건과 일반적인 조건으로 보아 국민당이 정면의 정규전을 담당하고 공산당이 적후의 유격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이며 서로 필요하며 서로 배합하며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당의 군사적 전략 방침이 국내 전쟁 후반기의 정규 전쟁으로부터 항일 전쟁 전반기의 유격 전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 유리한 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열 여덟 가지가 있다. (1) 적군의 점령지를 축소시킨다. (2) 아군의 근거지를 확대한다. (3) 방어 단계에서는 정면 작전에 배합하여 적

을 견제한다. (4) 대치 단계에서는 적후의 근거지를 고수하여 정면에서의 군대 정비에 유리하게 한다. (5) 반공 단계에서는 정면에 배합하여 잃은 국토를 회복한다. (6) 군대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확대시킨다. (7) 공산당을 가장 보편적으로 발전시켜 농촌마다 당 지부를 조직할 수 있게 한다. (8) 민중 운동을 가장 보편적으로 발전시켜 적의 거점 이외의 전체 적후의 인민들을 조직할 수 있게 한다. (9) 항일 민주 정권을 가장 보편적으로 수립한다. (10) 항일적인 문화 교육 사업을 가장 보편적으로 발전시킨다. (11) 인민의 생활을 가장 보편적으로 개선한다. (12) 적군을 와해시키는 데 가장 편리하다 (13)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지구적으로 전국의 인심에 영향을 주며 전국의 사기를 분발시킨다. (14) 우군과 우당의 진보를 가장 보편적으로 추동한다. (15)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조건에 적응하여 우리의 손실을 적게 하며 승전을 많이 하게 한다. (16) 적이 작고 우리가 큰 조건에 적응하여 적으로 하여금 손실을 많이 입게 하고 승전을 적게 하게 한다. (17) 많은 지도 간부들을 가장 신속히 또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낸다. (18) 급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편리하다.

장기간의 투쟁 행정에서 유격대와 유격 전쟁은 원래의 지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높은 단계어로 발전하여 점차 정규군과 정규 전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것도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격 전쟁을 통하여 력량을 축적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의 하

나로 자신을 장성시킬 것이다.

## 6. 군사 문제의 연구에 주의를 돌리자

량군 적대의 모든 문제는 전쟁에 의하여 해결되며 중국의 존망도 전쟁의 승패 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이론을 연구하며 전략 전술을 연구하며 군대의 정치 사업을 연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전술에 대한 연구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군사 사업에 종사하는 동지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조건에 근거하여 제기한 새로운 것들도 많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총화하지 못한 것이 결함이다. 전략 문제와 전쟁 이론 문제의 연구는 아직도 극소수인의 일로 국한되어 있다. 정치 사업의 연구는 그 성과가 가장 크며 그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 창조한 것들이 많고 또 훌륭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쓰련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것이 결함이다. 전 당 및 전국적 수요를 위하여 군사 지식을 통속화하는 것이 절박한 과업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앞으로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전쟁과 전략의 이론이 모든 것의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 군사 이론의 연구로부터 흥미를 일으키어 군사 문제의 연구에 주의를 돌리도록 전 당을 환기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주 해

[1] 메닌의 《전쟁과 로씨야 사회 민주당》, 《로씨야 사회 민주 노동당 제의 지부 대표자 회의》, 《제국주의 전쟁에 있어서의 자국 정부의 패배에 대하여》, 《로씨야의 패배와 혁명적 위기》 등 토작을 참조하라. 메닌의 이 토작들은 1914년부터 1915년에 이르는 기간에 당시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하여 쓴 것이다. 또 《쓰런 공산당(불쉐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6 장 제 3 절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불쉐위크당의 미론과 견술》을 참조하라.

[2] 1924년 손 증산은 공산당 및 혁명적 노동자, 농민과 연합하여 그 당시 영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광주 내부에서 반혁명 활동을 진행하는 매판 토호 별선의 무장력인 《상단》을 격파하였다. 1925년 초에 국공 합작에 의하여 조직된 혁명군은 광주로부터 출발하여 동경의 길에 올라 농민의 원조를 받으면서 군벌 진 혁명의 군대를 격파한 후 온 광주로 되돌아 와 광주에 반기하고 있던 운남, 광서 군벌을 소멸하였다. 이 해 가을 국공 합작에 의하여 조직된 혁명군은 제 2 차 동정을 실시하여 진 혁명의 군대를 쇠퇴적으로 소멸하였다. 공산당원과 공산주의 청년단원들은 이 전역들에서 모두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영용하게 싸웠다. 이 전역들은 그 당시 광동의 통일을 이루어 놓았고 북벌 전쟁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3] 쓰말린의 《중국 혁명의 전망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4]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의 제 4 부분을 참조하라.

[5] 1894년 손 증산은 호노플루에서 《홍중회》라는 혁명적 소그루파를 조직하였다. 청조 정부가 1895년 중일 전쟁에서 패배 당한 후 손 증산은 광동 경내에서 지난날 민간의 비밀 단체인 《회당》에 의지하여 청조를 반대하는 무장 봉기를 2 차나 일으켰다. 즉 1895년의 광주의 싸움, 1900년의 혜주의 싸움을 일으켰다.

[6] 1905년 홍중회는 청조를 반대하는 기타의 두 단체인 화중회, 광북회와 연합하여 동맹회(이것은 당시 부르조아지, 소부르조아지 및 청조를 반대하는 일부 유지들의 연합 전선의 조직체였다)를 조직하고 《달로를 물아 내고 승화할 회부하며 민족을 수립하며 모지 소유권을 고모게 한다》라는 부르조아 혁명의 정강을 제기하였다. 동맹회 시기에 손 증산은 《회당》 및 신공과 연합하

여 청조를 반대하는 무장 봉기들 여러 번 일으켰다. 그 중에서 비교적 큰 것으로는 1906년의 평향, 류양, 폐동의 싸움, 1907년의 조주, 황강의 싸움, 흥주의 싸움과 진남판(지금의 광서 우의판)의 싸움, 1908년의 운남성 하구의 싸움, 1911년의 광주의 싸움과 무창 봉기 등이다.

[7] 1912년 동맹회는 국민당으로 재조직하고 당시의 북양 군벌 동지자 원 세개와 타협하였다. 1913년 원 세개의 군대가 남하하여 강서, 안휘, 광둥 등 성에서 신해 혁명에 의하여 형성된 세력에 압력을 가하게 되자 손 중산은 이에 대하여 무장 저항을 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실패 당하였다. 1914년 손 중산은 타협의 실책에 비주어 일본 도쿄에서 따로 중화 혁명당을 조직함으로써 당시의 국민당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 원 세개를 반대하는 일부 소부르조아지와 일부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대표자들의 동맹세였다. 손 중산은 이 동맹에 의지하여 1914년 상해에서 소규모의 봉기를 일으켰다. 1915년 원 세개가 황제로 자칭하자 원 세개를 반대하는 채 악 등의 세력은 운남에서 원 세개 토벌 전쟁을 일으켰다. 손 중산도 역시 당시 원 세개를 무력으로 반대함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고위자였으며 활동가였다.

[8] 1917년 손 중산은 자기의 영향 하에 있던 해군을 거느리고 상해로부터 광주에 가서 광둥을 근거지로 하고 당시 북양 군벌 단 기서를 반대하고 있던 서남 군벌과 연합하여 단 기서를 반대하는 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9] 1921년 손 중산은 계림에서 복벌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부하 진 혁명이 북양 군벌과 결탁하여 배반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10] 1924년에 손 중산이 중국 공산당원 및 소련의 방조 하에 광주 부근의 황포에서 육군 군관 학교를 창립하였는데 보통 그것을 황포 군관 학교라 한다. 당시 그것은 국공 합작에 의하여 창립된 군사 학교였다.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 운 대영, 초 초녀, 웅 웅 및 기타의 동지들은 선후하여 이 학교에서 정치 사립 및 기타 사업을 담임하여 혁명적 정신으로써 당시의 혁명 군대를 위하여 적지 않은 공산당원과 공산주의 청년단원을 포함한 많은 골간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은 장 개성이었다. 그는 자기의 직권을 리용하여 백방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고 자기의 도당을 길러 내어 1927년의 4. 12 반혁명 정변 후에 와서는 결국 이 학교를 반혁명 조직으로 권락시켰다.

[11] 담 연개는 호남 사람으로서 청조의 한림이었다. 원래 군주 립헌을 주장하다가 후에는 무기적으로 1911년 혁명(신해 혁명)에 참가하였다. 그 후 그는 국민당 진영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호남 지방의 지주 세력과 북양 군벌 간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다.



[12] 진보당이만 민족 초년에 당 계초 등 일당이 원 세계에 불어서 조직한 정당이다.

[13] 단 기서는 원 세계의 오랜 부하로서 북양 군벌 안휘파의 두목이었다. 원 세계가 죽은 후 그는 수좌에 걸처 북경 정부의 정권을 장악하였었다.

[14] 정학계란 1916년에 일부 진보당원과 일부 국민당원들이 조직한 극단적 우익의 정치 파벌로서 적위를 닦기 위하여 남북 군벌 사이에서 투기를 하였다. 1926~1927년의 북벌 전쟁 기간에 친일파 황 부, 장 군, 양 영태 따위와 같은 정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장 개석과 결탁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들의 반동적 정치 경향을 가지고 장 개석의 반혁명 정권의 수립을 도와 주었다.

[15] 《청년당》이란 소위 《국가주의파》의 《중국 청년당》을 말하는 것이다.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 주해 1을 보라.

[16] 여기에서는 주로 북벌 전쟁 기간에 있어서 공산당원 열 정 장군을 비롯한 독립단을 가리킨다. 본 선집 제 1 권의 《정강산 투쟁》 주해 14를 참조하라.

[17]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와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의 제 4 부분을 참조하라.

[18]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의 제 3 부분을 참조하라.

[19] 한 복구는 원래 산동에 주재하던 국민당 군벌이다. 류 치는 장 개석에게 군벌로서 원래 하남에 있었으며 황일 전쟁 폭발 후에는 허복성 보정 일선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이 두 군벌은 일본 침략자들이 진공할 때 싸우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



## 5. 4 운동\*

(1939년 5월)

20년 전의 5.4 운동은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이 이미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4 운동이 문화 혁신 운동으로 된 그것은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의 일종 표현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기의 새로운 사회력량의 성장과 발전에 의하여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에는 강유력한 진영, 즉 중국의 노동계급, 학생대중 및 신흥 민족 부르췌아지로 구성된 진영이 나타나게 되었다. 《5.4》시기에 이 운동의 선두에 영웅하게 나타난 것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었다. 이것은 5.4 운동이 신헌 혁명에 비하여 일보 전진한 점이다.

중국의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은 그 준비 시기로 부터 말한다면 이미 아편전쟁, 태평천국전쟁, 갑오중일전쟁(1), 무술유신, 의화단운동, 신헌혁명, 5.4운동,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등 여러 발전 단계를 경과하였다.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의 신문을 위하여 쓴 5.4운동 20주년 기념본문이다.

오늘의 항일 전쟁은 그 발전의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이며 또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생동하며 가장 약동적인 단계이다. 외래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봉건 세력이 기본적으로 전복되고 독립적 민주주의 국가를 창건한 때에 가서야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편 전쟁 이래 각개의 혁명 발전 단계에는 각각 약간의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출현하기 전과 후의 차이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 혁명은 중국 역사 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회 제도 즉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회의 전신은 봉건주의 사회(최근 100년래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 되었다)이고 그 후신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만약 공산주의자로서 무엇 때문에 먼저 부르쥬아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그 후에 가서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를 실현하는가고 묻는다면 그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대답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는 일정한 사회 세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 세력이란 로동 계급, 농민 계급, 지식인 및 진보적 부르쥬아지, 즉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계, 실업계이며 그 근본적인 혁명력량은 로동자, 농민이고 혁명의 령도 계급은 로동 계급이다. 만일 이런 근본적인 혁명력량을 떠나서, 로동 계급의 령도를 떠나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면 그것

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혁명의 근본적인 적은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이고 혁명의 근본 정책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며 이 통일 전선의 구성 요소는 항일하는 일체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계, 실업계이다. 항일 전쟁의 중국적 승리는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계, 실업계의 통일 전선이 크게 공고화되고 발전되었을 때에 가서야 달성되는 것이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 운동에 있어서 지식인은 제일 먼저 각성한 사회층이다. 신해 혁명과 5.4 운동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그런데 5.4 운동 시기의 지식인은 신해 혁명 시기의 지식인보다 수효가 더욱 많았으며 더욱 각성하였다. 그러나 지식인은 만일 로농 민중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식인으로서 혁명적인가 혹은 혁명적이 아닌가 혹은 반혁명적인가 하는 최후 분계선은 그가 로농 민중과 결합하려 하느냐 않느냐 또 이를 실행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그들의 최후 분계선은 오직 이 점에 있을 따름이며 입으로만 삼민주주의요, 맑스주의요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혁명자라면 틀림 없이 로농 민중과 결합하려 하며 또 이를 실행한다.

5.4 운동은 오늘까지 이미 20 주년이 되었으며 항일 전쟁도 곧 2 주년이 되어 온다. 전국의 청년들과 문화계는 민주주의 혁명과 항일 전쟁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중국 혁명의 성격과 동력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사업을 로농 민중과 결합시키며 로농 민중 속에 들어 가서 로농 민중의 선전자 및 조직자로 될 것을 바란다.

전국의 민중이 걸기하는 날은 곧 항일 전쟁이 승리하는 날이다. 전국의 청년들이여, 노력하라!

## 주 해

[1] 즉 1894년에 일어난 중일 전쟁이다. 중국의 기년법에 의하면 1894년은 갑오년이므로 갑오 전쟁이라고 한다. 이 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동시에 중국의 북해군에 대하여 집탈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전쟁에서 중국 군대는 영웅하게 싸웠다. 그렇지만 청조 정부가 부패하고 침략을 단호히 반대할 준비가 걸여하였기 때문에 중국 측은 실패를 당하였다. 그 결과 청조 정부는 일본과 수치스러운 마관 조약을 체결하여 대만과 평도물 할양할 것과 군사비로 은 2억 냥을 배상할 것과 일본 사람이 중국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과 사시, 중경, 소주, 함주 등지를 상항으로 개방할 것을 승인하였다.

## 청년 운동의 방향\*

(1939년 5월 4일)

오늘은 5.4 운동 20 주년 기념일이다. 우리 연안의 전체 청년들은 여기에서 이 기념 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중국 청년 운동의 방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로, 지금 5월 4일을 중국 청년절로 정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1]. 《5.4》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비로소 전국적으로 이 날을 청년절로 정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중국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곧 그 전환점에 들어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제 반봉건적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무차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은 지금 전환을 가져 오려 하고 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가져 오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방향으로 전환하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5.4 운동 20 주년을 기념하는 연안의 청년 군중 집회에서 한 연설이다. 모택동 동지는 이 연설에서 중국 혁명 문제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켰다.

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혁명은 전진하고 있으며 승리로 전진하고 있다. 력사 상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정형은 이 이상 계속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계속시켜서는 절대 안되며 그것을 승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전환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 전환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승리는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항일 전쟁에서는 실패로부터 승리로 나아가는 이 전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운동이 반대한 것은 매국 정부이며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는 정부이며 인민을 압박하는 정부였다. 이러한 정부를 반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령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면 5.4 운동은 잘못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는 반드시 반대하여야 하며 매국 정부는 타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손 중산 선생은 5.4 운동이 있기 썩 전에 벌써 당시 정부의 반역자였으며 청조 정부를 반대하였을뿐더러 청조 정부를 전복하였다. 그가 한 일이 옳았는가? 나는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그가 반대한 것은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정부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결탁한 정부였으며 혁명 정부인 것이 아니라 혁명을 억압하는 정부였기 때문이다. 5.4 운동은 바로 매국 정부를 반대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혁명적 운동이었다. 전 중국의 청년들은 5.4 운동을 이렇게 인식하여야 한다. 전국 인민이 항일 투쟁에 궤기하고 있는 이 때 모두들 과거의 혁명이 실패 당한 경험에 비추어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패배시키는 동시에 다시는 매국 역적이 존재하지 못 하게 하며 다시는 혁명이 실패로 돌아 가지 않게 할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의 청년들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작성하였고 이런 필승의 결의를 가지고 있다. <5. 4>를 청년절로 정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 전국 인민이 한결같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중국 혁명은 항일 과정에서 단정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의 혁명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혁명의 대상은 무엇인가? 다 알다 싶이 하나는 제국주의이고 하나는 봉건주의이다. 지금의 혁명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하나는 민족 반역자이다.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야 하며 반드시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여야 한다. 혁명은 누가 하는가? 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중국의 백성들이다. 혁명의 동력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있고 농민 계급이 있으며 그리고 기타 계급 중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봉건주의를 반대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 반제, 반봉건적 혁명 력량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력량이며 혁명의 골간인가? 그것은 곧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이다. 중국 혁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혁명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르쵸아 성격의 민주주의 혁명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부르쵸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다. 지금은 아직 부르쵸아 사유 재산 제도 일반을 파괴하여

서는 안 되며 파괴하여야 할 것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이다. 이것을 부르조아 성격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는 이 혁명을 완성할 힘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광범한 인민의 노력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혁명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하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창건하려는 것이다. 이런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은 바로 혁명적 삼민주의 공화국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반식민지, 반봉건적 상태와 다른 것이며 미래의 사회주의 제도와도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 하에서는 자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아직 자본가의 존재를 허용하여야 한다. 중국은 영원히 자본가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된다. 비단 중국에서 이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이러하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장차 모두다 자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소련은 사회주의를 건설한 나라이다. 앞으로 전 세계가 소련을 따라 나아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중국이 앞으로 반드시 사회주의에로 발전한다는 이 법칙은 아무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분쇄하고 중국의 현재의 반식민지, 반봉건적 지위를 개변시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전국 청년들은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째로, 과거 중국 혁명의 경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청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손 중산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미 50여 년이나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본주의 외국의 침략은 거의 100 년이나 된다. 100 년 래 중국의 투쟁은 영국의 침략을 반대한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태평 천국 전쟁, 갑오 전쟁, 무술 유신, 의화단 운동, 신해 혁명, 5.4 운동, 북벌 전쟁, 홍군 전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 정형이 각각 같지 않지만 모두 외적에 반항하거나 현 상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손 중산 선생 때에 와서야 비로소 비교적 명확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있게 되었다. 손 중산 선생 때부터 시작된 혁명은 지난 50 년 동안에 승리한 점도 있었고 실패한 점도 있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신해 혁명은 황제를 쫓아 버렸다. 이것이 승리가 아닌가? 신해 혁명이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혁명이 황제를 쫓아 버렸을 뿐이고 중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압박 하에 있게 되었으며 반제, 반봉건적 혁명 임무가 완수되지 못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4 운동이란 무엇을 하려 한 것인가? 이 역시 반제, 반봉건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실패로 돌아가 중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통치 하에 있게 되었다. 북벌 전쟁의 혁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하다. 국민당이 공산당을 반대한<sup>(2)</sup> 이래 중국은 또다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천하로 되었다. 그리 하여 10 년

간에 걸친 홍군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10년 간의 분투도 역시 국부적인 혁명적 임무를 완수하였을 뿐이고 전국적인 혁명적 임무는 완수하지 못하였다. 만일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혁명을 총화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승리를 얻었을 뿐, 영구적이고 전국적인 승리는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손 중산 선생이 《혁명은 아직 성공되지 못하였으니 동지들은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다. 그러면 중국 혁명은 수십 년 동안이나 진행하였는데 어째서 아직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원인이 두 가지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적의 력량이 너무 강한 것이고, 둘째로, 자신의 력량이 너무 약한 것이다. 저 쪽은 강하고 이 쪽은 약하기 때문에 혁명이 승리하지 못하였다. 적의 력량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이것이 주되는 것이다)와 봉건주의의 력량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력량이 너무 약하다는 것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표현된 약점도 있지만 주로는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로농 근로 대중이 동원되지 못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표현되었으며 반제, 반봉건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혁명을 총화한다면 그것은 전국 인민이 충분히 동원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반동파가 언제나 이 동원을 반대하고 짓밟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하려면 오직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로농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야만 가능한 것이다. 손 중산 선생은 자기의 유족에서 《내가 국민 혁명에 40년 동안 힘 써 온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는 데 있었다. 40년 동안 쌓은 경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민중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의 민족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로 선생이 서거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그가 말한 40년까지 합치면 50여 년인데 이 50여 년 간의 혁명의 경험 교훈은 무엇인가? 근본 문제는 바로 《민중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이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연구하여야 한다. 전국 청년들이 다 잘 연구하여야 한다.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로농 대중을 동원하여야만 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고 봉건주의를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일본을 타승하고 새 중국을 세우려는 목적을 달성하자면 전국의 로농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베짜로, 나는 다시금 청년 운동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20년 전의 오늘, 력사 상에서 5.4 운동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참가한 대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 운동이다. 《5.4》이래 중국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놀았는가? 일종의 선봉대적 역할을 놀았다. 이것은 완고 분자들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선봉대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솔신적인 역할이며 혁명 대렬의 선두에 서는 것이다.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인민 대오 가운데는 중국의 지식 청년과 학생 청년들로 조직된 부대가 있다. 이 부대는 상당히 크며 죽은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수백만 명이나 된다. 이 수백만 명의 부대는 반제, 반봉건의 한 개 방면군이며 또한 중요한 한 개 방면군이다. 그러나 이 방면군에만 의지하여서는 부족하며 그것만으로는 적을 타승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주력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력군은 누구인가? 바로 로농 대중이다. 중국의 지식 청년들과 학생 청년들은 반드시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들어 가서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로농 대중을 동원하며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이란 이 주력군이 없이 지식 청년과 학생 청년들의 부대에만 의지하여 반제, 반봉건 투쟁의 승리를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지식 청년과 학생 청년들은 반드시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과 한데 뭉치고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강유력한 부대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수억만 명으로 되는 부대이다! 이러한 대부대가 있어야만 적의 견고한 진지를 돌파할 수 있으며 적의 최후의 아성을 격파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과거의 청년 운동을 살펴 볼 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청년 운동 과정에 있어서 일부 청년들이 로농 대중과 연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을 반대한 그런 그릇된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청년 운동 조류 중의 역류이다. 전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로농 대중과 연합하지 않고 도리어 로동자, 농민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

다. 이런 조류가 좋은가? 내가 보기에는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동자, 농민을 반대한 것은 즉 혁명을 반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년 운동 중의 역류라고 한다. 이런 청년 운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며칠 전에 나는 짧은 글<sup>[3]</sup>을 한 편 썼는데 그 글에서 나는 《지식인으로서 혁명적인가 혹은 혁명적이 아닌가 혹은 반혁명적인가 하는 최후 분계선은 그가 로농 민중과 결합하려 하느냐 않느냐 또 이를 실행하느냐 않느냐에 있다.》고 썼다. 나는 이것이 유일한 표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표준을 내어 놓았다. 어느 한 청년이 혁명적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무엇으로써 표준을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써 그를 식별할 것인가?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표준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즉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과 결합하려 하느냐 않느냐 또 그것을 실행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다. 로동자, 농민과 결합하려 하며 또 그것을 실행하면 혁명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혁명적이 아니거나 반혁명적이다. 오늘 그가 자기를 로동자, 농민 대중과 결합시킨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래일에 가서 그가 결합하지 않거나 혹은 도리어 인민을 억압한다면 그는 혁명적이 아니거나 혹은 반혁명적인 것이다. 일부 청년들은 삼민주의를 신봉한다느니 맑스주의를 신봉한다느니 하고 굉장히 떠들어 대지만 이것은 대중할 수 없는 것이다. 보라, 히틀러도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무솔리니도 20년 전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가! 그들의 《사회주의》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파쇼주의이다! 진 독수도 역시 맑스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는가? 그러던 그가 후에 무슨 짓을 하였는가? 그는 반혁명 측으로 달아 나 버렸다. 장 국도도 맑스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는가? 그러던 그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는 도망하여 구렁텅이에 떨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삼민주의의 신도》로, 로삼민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가? 알고 보면 그들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와 결탁하는 것이고 그들의 민권주의라는 것은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그들의 민생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의 피를 더 많이 빨아 먹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럴듯 하게 말하나 속은 단판인 삼민주의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가짜 삼민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삼민주의자인가, 가짜 맑스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맑스주의자인가를 알려면 그와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기만 하면 완전히 명백하여 진다. 식별하는 표준은 오직 이것 하나 뿐이고 제 2의 표준은 없다. 나는 전국 청년들이 그 암담한 역류 속에 빠지지 말고 로동자, 농민이 자기의 벗이란 것을 똑똑히 인식하며 광명한 전도를 향하여 진군하기를 바란다.

다섯째로, 현재의 항일 전쟁은 중국 혁명의 새로운 단계이며 또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약동적이고 가장 생동적인 새로운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청년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 중국의 수십 년 래의 혁명 운동은 허다한 투쟁 단계를 거쳤지만 오늘날의 항일 전쟁처럼 이렇게 광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지금의 중국 혁명은 과거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즉 혁명이 실패로부터 승리로 전환하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중국의 광범한 인민이 진보하였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바 청년의 진보가 바로 그 실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 항일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 알다 싶이 항일 전쟁의 근본 정책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며 그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고 낡은 중국을 새 중국으로 전환시키며 전체 민족을 반식민지, 반봉건적 지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다. 지금 중국의 청년 운동이 통일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큰 결함이다. 여러 분들은 계속 통일을 요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통일되어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분은 전국 청년들로 하여금 현 정세를 인식하고 단결하여 끝까지 항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연안의 청년 운동에 언급하려 한다. 연안의 청년 운동은 전국 청년 운동의 모범이다. 연안의 청년 운동의 방향은 곧 전국 청년 운동의 방향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연안 청년 운동의 방향이 옳기 때문이다. 보라, 연안의 청년들은 통일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히 달성하였다. 연안의 청년들은 단결되어 있으며 통일되어 있다. 연안의 지식 청년, 학생 청년, 노동자 청년, 농민 청년들은 단결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해외에 있는 화교들 가운데서 대량의 혁명적 청년들이 연안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대다수가 천리, 만리

밖에서 왔지만 성이 장가이건 리가이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로동을 하건 농사를 짓건 할 것 없이 모두다 한 마음 한 뜻이다. 이런 데도 전국의 모범이 아니겠는가? 연안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단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동자, 농민 대중과도 결합되어 있다. 이 점은 더욱 전국의 모범으로 된다. 연안의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혁명 리론을 학습하고 있으며 항일 구국의 도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 운동을 전개하여 수천 수만 무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일은 공자도 하여 보지 못 한 일이다. 공자가 글을 가르칠 때 그에게도 학생이 적지 않았다. 《현인이 70 명이고 제자가 3,000 명이라》고 하였으니 실로 굉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의 학생은 연안에 비하면 훨씬 적었고 또 생산 운동이란 것을 좋아 하지 않았다. 그의 학생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모른다. 나는 농민보다 못 하다.》고 하였으며 또 소채를 어떻게 가꾸는가고 물었을 때 공자는 《모른다. 나는 소채 심는 사람보다 못 하다.》고 말하였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성인들에게서 공부한 청년들은 혁명 리론을 배우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전국의 광대한 지역의 학교들에서도 혁명 리론을 그다지 가르치지 않으며 생산 운동도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연안과 그리고 직후 각 항일 근거지의 청년들만이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참으로 항일 구국의 선봉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정치적 방향이 옳으며 사업 방법도 옳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나는 연안의 청년 운동은 전국 청년 운동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대회는 대단히 의의가 크다. 내가 말하려던 말은 다 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50년 동안의 중국 혁명의 경험을 연구하여 그 우점을 발휘하고 그 오유를 제거함으로써 전국 청년을 전국 인민과 결합시키며 혁명을 실패로부터 승리로 전환시키기를 바란다. 전국 청년과 전국 인민이 모두 발동되고 조직되고 단결되는 날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타도되는 날이다. 매개 청년들은 모두 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오늘날 매개 청년들은 과거와 같아서 안 된다. 반드시 큰 결심을 내려 전국의 청년들을 단합하고 전국의 인민들을 조직하여야 하며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야 하며 반드시 낡은 중국을 새 중국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 주 해

[1] 5월 4일을 중국 청년절로 한 것은 원해 섬감녕 변구의 청년 조직에서 정한 것이다. 당시 국민당도 광범한 청년 대중의 앙양된 애국적 조류의 압력 하에서 하는 수 없이 이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 후 청년들의 혁명화를 두려워 하는 국민당은 이 결정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청년절을 3월 29일(1911년의 광주 황화강 혁명 열사 기념일)로 고쳤다. 그러나 공산당이 영도하는 혁명 근거지 내에서는 계속 5월 4일을 청년절로 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후 1949년 12월에 중앙 인민 정부 정부위원회에서는 5월 4일을 중국 청년절로 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2] 1927년 장 개석이 상해, 남경에서 일으켰고 왕 정위가 무한에서 일으킨 반혁명적 정변을 가리킨다.

[3] 《5.4 운동》이란 문문을 가리킨다.



## 투항 활동을 반대한다

(1939년 6월 30일)

일본 침략자를 앞에 놓고 중화 민족에게 있어서 오래 전부터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온 것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9. 18》로부터 로구교 사변에 이르는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아주 격렬하였다. 《싸우면 생존하고 싸우지 않으면 망한다》——이것은 모든 애국 정당과 모든 애국 동포들의 결론이며 《싸우면 망하고 싸우지 않으면 생존한다》——이것은 모든 투항주의자들의 결론이다. 로구교의 항전의 포성은 이 논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포성은 첫째 결론이 옳고 둘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로구교의 포성은 어째서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였을 뿐이고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 짓지는 못 하였는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투항 권유 정책 때문이며 국제 투항주의자(1)들의 타협 시도 때문이며 중국 항일 전선 내부의 일부 사람들의 동요성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또 이 문제의 문구를 다소 고쳐 가지고 소위 《화이하느냐 싸우느냐 하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 하여 중국 내부에서는 싸울 것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화의할 것을 주장하는 주화파 사

이의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의 논점은 여전히 마찬가지로이다. 즉 《싸우면 생존하고 화의하면 망한다》——이것은 주전파의 결론이고 《화의하면 생존하고 싸우면 망한다》——이것은 주화파의 결론이다. 그러나 주전파에는 모든 애국 정당, 모든 애국 동포, 즉 전 민족의 대다수가 망라되어 있으며 주화파 즉 투항파는 그 인원 수로 말하면 다만 항일 전선 내부에서 일부분 밖에 되지 않는 동요 분자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주화파는 기만적 선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그들은 소위 《공산당이 교란한다》, 《팔로군, 신사군은 류동만 하고 싸우지 않으며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 《섬감녕 변구는 할거를 실시하며 외부로 확장하고 있다》, 《공산당은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나아가서는 《쏘련은 중국을 침략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하는 등등의 거짓 소식, 거짓 보고, 거짓 문건, 거짓 결정들을 무수히 만들어 내어 사실의 진상을 엄폐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하여 화의 즉 투항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화파 즉 투항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산당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발기한 자이며 그것을 견지하는 자이므로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고서는 국공 합작을 파괴할 수 없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분열시킬 수 없으며 투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양보에 그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이미 맥이 빠졌으므로 그 근본 정책을 변경하고 자진하여 화중, 화남 심지어는 화북으로부터 철퇴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더 싸우지 않아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국제적 압력에 그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위 주화파 분자들은 여러 큰 나라들이 나서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하는 수 없이 양보하게 함으로써 화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각국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주화파가 주전파에게 《보라! 국제적 분위기가 이러하니 화의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태평양 국제 회의(2)는 중국에 유리하다. 이것은 문헌(3)인 것이 아니라 중국을 부흥시키는 절차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국의 주화파 즉 투항파의 전반 견해이며 전반 방법이며 전반 음모이다(4). 이런 것들은 왕 정위가 공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엄중한 것은 많은 장 정위, 리 정위들이 항일 전선 내부에 숨어서 어떤 자는 쌍황(5)을 놀기도 하고 어떤 자는 얼굴에다 붉게 혹은 회색 화장(6)을 하고 나서는 등으로 왕 정위와 더불어 내외로 호응하여 공연하고 있는 그것이다.

우리 동산당원들은 시종 일관 주전파 측에 서며 주화파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애국 정당, 애국 동포들과 함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며 국공 합작을 공고히 하며 삼민주의를 실시하며 끝까지 항전함으로써 압록강변까지 처나가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할 것(7)을 념원할 뿐이고 그 밖의 것은 모른다. 우리는 공개적인 왕 정위나 숨어 있는 왕 정위 같은 그런 도배들이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마찰(8)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또 한 차례의 내전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이런 분렬 음모의 본질은 당신들의 투항하려는 준비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당신들의 투항 정책과 분렬 정책은 민족의 이익을 팔아 먹음으로써 소수인의 사리를 도모하려는 당신들의 전반적 계획을 보여 주는데 지나지 않으며 인민은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들의 음모는 인민들에게 폭로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태평양 회의가 결코 동방의 문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황당 무계한 말을 단호히 규탄한다. 소위 태평양 회의라는 것은 동방의 문헌인 것이며 중국을 체스꼬슬로벤스꼬로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각성할 수 있다거나 양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공담을 단호히 규탄한다.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본 방침은 결코 변경될 리가 없다. 무한 합락 후의 일본의 감언 리설들, 예를 들면 소위 《국민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포기하고(9) 국민 정부를 상대로 할 것을 승인한다는 것과 소위 화중, 화남에서의 철병 조건과 같은 것들은 물'고기를 낚시모 낚아 내어 삶아 먹으려는 음흉한 술책인바 이 낚시에 걸리면 잡아 먹히고 말 것이다. 국제 투항주의자들이 중국을 유인하여 투항하게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음흉한 술책이다. 그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고서 자기들은 《산마루에 앉아서 범의 싸움을 구경하는》 격으로 보고 있다가 시기가 닥쳐 오면 소위 태평양 조정 회의라는 것을 회책하여 어부지



리를 보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음모가들에게 희망을 둔다면 마찬가지로 큰 속임'수에 들게 될 것이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날에 와서는 싸우느냐 화의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쳐 놓았지만 그 성질은 여전히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첫째로 가는 큰 문제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반년 이래 일본이 투항 권유 정책을 다그쳐 집행하고 있으며 국제 투항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으로 하여, 주로는 역시 중국 항일 전선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가일층 동요되어 소위 화의하느냐 싸우느냐 하는 문제를 아주 야단스럽게 논의하고 있음으로 하여 투항의 가능성은 목전 정치 정세에서 주되는 위협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반공, 즉 국공 합작을 분렬시키며 항일 단결을 분렬시키는 것은 투항파들이 투항을 준비하는 주요한 절차로 되고 있다. 이런 정형 하에서 전국의 모든 애국 정당, 모든 애국 동포들은 눈을 크게 뜨고 투항파들의 활동을 주시하여야 하며 현 정세에 있어서 투항은 주되는 위협이며 반공은 곧 투항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 주요한 특징을 인식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투항과 분렬을 반대하여야 한다. 전 민족의 피와 살로써 일본 제국주의와 2년 동안이나 싸워 온 전쟁은 결코 일부 사람들의 동요와 반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 민족의 노력에 의하여 결성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결코 일부 사람들의 파괴와 분렬을 허용하지 않는다.

계속 싸우고 계속 단결하면——중국은 반드시 생존한다.

그냥 화의하고 그냥 분렬하면——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우리 동포들은 속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단정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며 계속 단결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애국 정당과 모든 애국 동포들도 반드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며 계속 단결할 것이다.

투항파의 투항 음모와 분렬 음모가 일시적으로 득세한다 하더라도 최후에는 반드시 인민들에게 폭로되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중화 민족의 역사적 임무는 단결하여 항전함으로써 해방을 얻는 것이다. 투항파는 이 길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려 한다. 그들이 제 아무리 득세하고 제 아무리 의기 양양하여 이 세상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후에 가서는 반드시 전국 인민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투항파 분렬을 반대하는 것——이것은 전국의 모든 애국 정당, 모든 애국 동포들의 당면한 급선무이다.

전국 인민은 단결하여 항전과 단결을 견지하며 투항 음모와 분렬 음모를 진압하자!

## 주 해

[1] 국제 투항주의자만 당시 중국을 희생시켜 일본과 타협하려고 음모하던 영, 미 제국주의자뿐 아니라 가리켜 말한다.

[2] 당시 영국, 미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주화파들이 소위 《태평양 국제 회의》를 통하여 일본 침략자와 타협하고 중국을 팔아 먹으며 음

모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여론계에서는 이것을 극동에서의 문헌 음모라고 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이 글에서 규탄한, 태평양 회의는 결코 동방의 문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황당 무제한 말이란 당시 장 개석이 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3] 1938년 9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 개국 수뇌자들은 독일의 문헌이란 곳에서 회의를 열고 문헌 합정을 체결하였다. 이 합성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쓰련을 진공한 것을 교환 조건으로 하여 셰스프슬로벤스프볼 독일에 팔아 먹었다. 1938년과 1939년 사이에 영, 미 제국주의는 중국을 회생 시킴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와의 타협을 얻으려고 수차에 걸쳐 준비한 바 있다. 1939년 6월 즉 모택동 동지가 이 글을 쓸 때 영국과 일본은 재차 회담을 진행하여 또다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런 음모가 문헌에서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음모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동방 문헌》이라고 하였다.

[4] 모택동 동지가 여기서 말한 《중국의 주화파 즉 투항파의 전반 견해, 전반 방법, 전반 음모》란 곧 장 개석의 견해, 방법 및 음모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왕 정위는 공개적인 투항파의 주요한 두목이었고 장 개석은 항일 전선 내부에 숨어 있는 투항파의 주요한 두목으로서 즉 모택동 동지가 말한 《숨어 있는 왕 정위》 또는 《장 정위, 리 정위》였다.

[5]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장 개석과 왕 정위의 호상간의 활동이 마치 쌍황을 노는 두 배우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쌍황이란 극히 간단한 형태의 중국 고전극의 일종인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뜻에 맞추어 손'짓, 몸'짓을 한다.]

[6] 당시 장 개석을 피수로 하는 국민당의 주화파는 양면과적인 활동을 하였다. 마치 중국 고전극의 배우들이 어떤 사람은 얼굴을 붉게, 어떤 사람은 얼굴을 희게 화장하는 것과 같이 일면으로는 항전하는 체 하고 다른 일면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투항 활동을 진행하였다.

[7] 1939년 1월 장 개석은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5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 그의 소위 끝까지 항전한다는 이 《끝까지》란 《로구로 사변 이전의 상태물 회복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모택동 동지는 특히 끝까지 항전한다는 계선을 《암흑강변까지 쳐 나가 없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하는 것》이라고 제기함으로써 장 개석의 투항 정책에 대항하였다.

[8] 《마찰》이란 당시 유행되던 말로서 그것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파괴하며 공산당과 진보 세력을 반대하던 국민당 반동파의 각종 반동 행위물 가

리키는 것이다.

[9]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은 남경을 점령하였다. 일본 정부는 1938년 1월 16일에 《금후에는 국민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신정부의 수립을 바란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해 10월 일본군은 광주와 무한을 점령하였다. 일본 정부는 항전에 대한 장 개석의 동요를 리용하여 장 개석을 투항으로 유인하는 방침으로 고지였다. 그리 하여 11월 3일에 또 《국민 정부가 만일 종래의 그릇된 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인물이 나서서 갱생의 길은 열며 질서를 유지한다면 제국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 반동파를 반드시 제재 하여야 한다\*

(1939년 8월 1일)

오늘은 8월 1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추도 대회를 열고 있다. 왜 이런 추도회를 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반동파가 혁명 동지들을 살해하였으며 항일 투사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 자들을 죽여야 하는가? 응당 민족 반역자를 죽여야 하며 일본 제국주의자를 죽여야 한다.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2년 간이나 싸웠지만 아직 결판을 내지 못하였다. 민족 반역자들은 아직도 창궐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을 죽인 수도 꽤 적다. 그런데 도리어 혁명 동지와 항일 투사들이 살해 당하였다. 어떤 자가 살해하였는가? 군대가 살해하였다. 군대가 왜 항일 투사를 살해하였는가? 군대는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살해하라고 군대를 시킨 자가 있다. 어떤 자가 군대를 시켜 살해하게 하였는가? 반동파가 시킨 것이다[1]. 동지들! 경위 대로 말하면 어떤 자가 항일 투사를 살해하려 하는가? 첫째로, 일본 제국주의자가 그들을 살해하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경강 참살 사건의 순난 민사들을 추도하는 연안 인민의 결회에서 한 연설이다.

며 하며 둘째로, 왕 정위 등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들이 그들을 살해하려 한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을 살해한 곳은 상해, 북평, 천진, 남경이 아니라, 즉 일본 침략자와 민족 반역자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지방, 즉 함진의 후방이며 살해 당한 사람은 신사군 평강 통신처의 책임 동지들인 도 정곤, 라 재명 등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은 중국의 반동파들이 일제와 왕 정위의 명령을 받고 살해한 것이다. 이 반동파들은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과 왕 정위의 명령을 공손히 집행함으로써 우선 가장 견결한 항일 분자들을 살해한 것이다. 이 일은 소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단연코 이를 반대하여야 하며 우리는 단연코 이에 항의하여야 한다!

지금 전국이 항일을 하고 있으며 전국 인민이 항인의 목표 하에 대단결을 이루고 있다. 이 대단결 내부에는 일부 반동파와 투항파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일 분자를 살해하며 진보를 압제하며 일본 침략자 및 민족 반역자와 결탁하여 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항일 동지를 살해한 이런 큰 사건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추궁하였는가? 6월 12일 오후 3시에 살해 사건이 있는 후 8월 1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추궁하려 나선 사람을 보았는가? 보지 못 하였다. 이 사건은 누가 나서서 추궁하여야 할 것인가? 중국의 법문이 나서서 추궁하여야 하며 사법관이 나서서 추궁하여야 한다. 만일 섬감녕 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났다면 우리의 고등 법원은 벌써 이를 추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강 참살 사건은 2 개월이 되어 가는 이 때까지 법률도 사법관도 이를 전혀 추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중국이 통일<sup>[2]</sup>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이란 무엇인가? 동일이란 모두가 항일하여야 하며 모두가 단결하여야 하며 모두가 진보하여야 하며 표창이 있고 징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표창하여야 하는가? 항일하는 사람을 표창하여야 하며 단결하는 사람을 표창하여야 하며 진보하는 사람을 표창하여야 한다. 어떤 자들을 징벌하여야 하는가? 항일, 단결, 진보를 파괴하는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를 징벌하여야 한다. 지금 통일되었는가? 되지 않았다. 평강 참살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통일되어야 할 것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전국적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항진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지금 도 정곤, 라 재명 등 항일 동지들은 표창을 받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학살 당하였다. 그리고 항진을 반대하며 투항을 준비하며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악당들은 도리어 징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통일이다. 우리는 이런 악당들을 반대하여야 하며 이런 투항 분자들을 반대하여야 하며 이런 살인 흉범들을 체포하여야 한다. 둘째로, 단결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단결을 찬성하는 사람은 표창을 받아야 하며 단결을 파괴하는 자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단결을 찬성하는 도 정곤, 라 재명 등 동지들이 도리어 징벌을

받았고 학살 당하였으며 단결을 파괴하는 악당들은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통일이다. 세째로, 진보예로 통일되어야 한다. 전국이 진보하여야 하며 락후한 사람들이 진보한 사람들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하지 결코 진보한 사람들을 락후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서는 안 된다. 평강 참살 사건의 살인 백정들은 진보 분자들을 살해하였다. 항전 이래 암살 당한 공산당원과 애국지사는 벌써 수십 명, 수백 명이나 되며 평강 참살 사건은 최근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야단일 것이다. 항일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살해 당하게 될 것이다. 항일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반동파가 일제와 왕 정위의 명령을 집행하고 투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항일 군인을 살해하며 먼저 공산당원을 살해하며 먼저 애국지사를 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런 반동파들 손에 멸망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국적인 사건이며 매우 큰 사건이다. 우리는 이런 반동파들을 엄격히 징벌할 것을 국민 정부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지들은 또 근래에 와서 일본 제국주의의 교란 활동이 더욱 심하여졌으며 일본을 방조하는 국제 제국주의의 활동이 더욱 적극화되었으며<sup>[3]</sup> 항전을 파괴하며 단결을 파괴하며 뒤'걸음질을 치려는 중국 내부의 민족 반역자들, 공개적인 왕 정위와 숨어 있는 왕 정위들의 활동도 더욱 적극화되었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중국의 대부분을 투항시키며 내부를 분열시키며 국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는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sup>(4)</sup>이라는 비밀 조치가 유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전부가 반동적이며 일본 제국주의를 방조하는 것이며 항전에 불리하고 단결에 불리하고 진보에 불리한 것이다. 무엇이 《이당》인가? 일본 제국주의가 이당일 것이며 왕 정위가 이당일 것이며 민족 반역자가 이당일 것이다. 공산당과 일체 항일 정당들은 일치 단결하여 항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당》이겠는가? 그런데 지금 투항파, 반동파, 완고파는 항전 대렬 내부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행위가 옳은가? 전'적으로 옳지 못 하다(만장의 박수). 《제한》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자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일본 제국주의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왕 정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반동파를 제한하여야 하며 투항 분자를 제한하여야 한다(만장의 박수). 그런데 어째서 가장 항일적이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공산당을 제한하려 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 하다. 우리 연안의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건결한 반대와 건결한 항의를 표시한다(만장의 박수). 우리는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이라는 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는 단결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최악적 행위의 근원이다. 우리가 오늘 이 대회를 연 것은 항전을 계속하며 단결을 계속하며 진보를 계속하기 위하여서이다. 이르기 위하여서는 《이당 활동 제한법》을 취소하여야 하며 투항파, 반동파들을 제재하여야 하며 일체 혁명 동지, 항일 동

지, 항일 인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열렬한 박수, 높이 웨치는 구호 소리)

## 주 해

[1] 장 개석의 비밀 명령에 근거하여 1939년 6월 12일 국민당 제 27 집단군은 군대를 파견하여 호남성 평강 지방에 있는 신사군 통진서를 포위하고 신사군의 침의도 정곤 동지와 팔로군의 소와 부판 라 재명 동지 등 6 명을 참살하였다. 이 참살 사건은 각 항일 민주 근거지 인민들과 국민당 동지구의 정의로운 사람들의 의분을 일으켰다. 이 참살 사건은 장 개석과 그의 도당들이 시킨 것이다. 모택동 동지가 이 연설에서 규탄한 반동파란 것은 장 개석과 그의 도당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2] 모택동 동지가 여기서 해석한 《통일》이란 《통일》의 명의를 리용하여 공산당의 항일 무장력과 항일 근거지를 소멸하려고 시도하는 국민당 반동파들의 음모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다. 국공 당당이 재차 합작하여 공동으로 항일운하게 된 그날부터 국민당이 공산당을 타격하는 데 쓴 주요한 무기는 《통일》이란 이 구호였다. 그들은 공산당이 만 꿈을 꾸며 통일을 방해하며 항일에 불리하게 한다고 비방하였다. 1939년 1월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5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 장 개석이 제출한 《이당 활동 제한법》을 채택한 이후 이런 반동적 소음은 더욱 높아졌다.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통일》이라는 이 구호를 국민당 반동파로부터 빼앗아다가 혁명적 구호로 고쳐서 그것을 국민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인 본질 행동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였다.

[3] 모택동 동지가 《투항 활동을 반대한다》는 글에서 분석한 것을 참조하라. 1933년 10월 무한이 함락된 후 일본 침략자들은 국민당에 대하여 주로 정치적 유선으로써 투항시키려는 정책을 썼고 영국, 미국 등 국제 제국주의도 무단히 장 개석에게 화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영국의 세입빌린은 《국농건설》에 참가할 것을 표시하였다. 1939년에 와서 일본 침략자와 국제 제국주의의 음모 활동은 더욱 저극화되었다. 중국 주재 영국 대사 케트는 4월 경에 장 개석과 일본 사이를 래왕하면서 화의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7월 경에 영국과 일본 간에는 협의가 달성되었고 영국 정부는 일본 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조성한 소위 《실제적 정세》를 완전히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 1939년에 국민당 중앙은 《이당 활동 제한법》을 비밀리에 반포하고 공산당과 일세 진보 분자들의 사상, 언론, 행동을 엄밀히 제한하며 갖은 방법을 다하여 항일적인 일세 인민 단체를 파괴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그들이 《공산당의 활동이 가장 맹렬한 지구》라고 인정하는 곳에서 인민의 활동을 수시로 감시하며 제한하기 위하여 《언보 련좌법》을 실시하며 보갑 조직 내부에 《통신망》, 숙 반혁명적 특무 조직을 보편적으로 설치하기로 규정하였다. 보갑이란 국민당 반동파가 파쇼 동지들 실시하는 기층 정치 조직으로서 10 호로 한 갑을 만들고 10 갑으로 한 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 새로운 국제 정세에 관하여 신화 일보 기자와 한 담화

(1939년 9월 1일)

기자의 물음,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의 체결**<sup>[1]</sup>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 태동의 대답,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은 **쏘련의 사회주의 력량이 장성되고 쏘련 정부가 평화 정책을 견지한 결과**입니다. 이 조약은 **쏘독 전쟁을 도발하려는 체임벌린, 달라디에 등 국제 반동 부르조아지들의 음모를 파탄시켰으며 쏘련에 대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반공 집단의 포위를 타파하였으며 쏘독 양국 간의 평화를 공고히 하였으며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동방에 있어서 이 조약은 일본에 타격을 주고 중국을 원조하였으며 중국 항전파의 지위를 강화하고 중국의 투항파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에서 전 세계 인민들의 자유 해방을 위한 투쟁을 원조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의 정치적 의의의 전부입니다.**

문, 사람들은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이 영국, 프랑스, 쏘련 간의 담판의 결렬의 결과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

하고 도리어 영국, 프랑스, 소련 간의 담판의 결렬이 실패 조약의 결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소련 간의 담판이 이째서 성공되지 못 하였는가에 대하여 신빙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답: 영국, 프랑스, 소련 3 개국 담판이 성공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영국, 프랑스 정부가 성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와서 세계 반동 부르조아지들, 특히 영국, 프랑스의 반동 부르조아지들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파시스트의 침략에 대하여 일종의 반동 정책 즉 소위 《불간섭》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침략 전쟁을 그 대로 방입하여 두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리득을 보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진정한 반침략 전선을 조직할 것을 제기한 소련의 제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불간섭》의 립장을 취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침략을 그 대로 방입하여 두고 자기들은 한 쪽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교전 쌍방이 호상 소모되기를 기다려 자기들이 나서서 간섭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반동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의 절반을 일본에 줌으로써 그것을 회생시켰으며 아비시니아의 전부, 에스빠냐의 전부, 오지리의 전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전부를 독일과 이탈리아에 줌으로써 이 나라들을 회생시켰습니다[2]. 이 번에는 또 소련을 회생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이 번의 영국, 프랑스, 소련 3 개국 담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담판은 4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4 개월 이상 진행

되었으며 그 동안 쓰련 측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시종 일관하게 평등 호혜의 원칙을 찬성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만을 쓰련에 요구하고 쓰련의 안전은 보장하려 하지 않으며 발석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의 안전은 보장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독일이 진군의 통로를 열어 주려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쓰련 군대가 뿔스카를 거쳐 침략자를 반대하려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판이 결렬된 원인입니다. 이 기간에 독일은 반쓰 행위를 중지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소위 《방공 협정》<sup>[3]</sup>을 포기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쓰련 변경의 불가침성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쓰독 호상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제 반동들, 특히 영국, 프랑스 반동들의 이와 같은 《불간섭》 정책은 바로 《산마루에 앉아서 범의 싸움을 구경하는》 정책인 것이며 완전히 남을 해치고 자기만을 리롭게 하려는 제국주의적 정책인 것입니다. 그것은 체임벌린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작년 9월 뮌헨 협정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 번의 영국, 프랑스, 쓰련 간의 담판에 이르러 최후적으로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의 량대 제국주의 집단 간의 직접 충돌의 국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1938년 10월의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들을 들어 제 반'등을 까는 것이 바로 체임벌린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체임벌린은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를 해치는

결과로써 끝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체 반동 정책의 발전 방침일 것입니다.

문: 당신이 보기에는 현 정세가 어떻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답: 현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여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제 2 차 제국주의 전쟁의 일면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불간섭》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한 쪽에서는 진공하고 한 쪽에서는 관망하는 국면이 구라파 방면을 놓고 볼 때 금후에 있어서는 필연코 전면적인 전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제 2 차 제국주의 전쟁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구라파 방면에 있어서 식민지 인민에 대한 통치권의 쟁탈을 위한 독일, 이탈리아 제국주의 집단과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 집단 간의 제국주의 대전은 이미 눈앞에 박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에 인민을 기만하며 여론을 동원하기 위하여 교전 쌍방은 파렴치하게도 모두 자기 편이 정의적이고 상대방은 부정의적이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기실 그것은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쌍방의 목적은 모두 제국주의적인 것이며 모두 식민지, 반식민지 및 세력 범위에 대한 통치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이며 모두 약탈성을 띤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목전에 있어서는 빨스까를 쟁탈하며 발칸반도와 지중해 연안을 쟁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전혀 정의적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오직 약탈성을 띠지 않은, 해방을 위한 전쟁만이 정의적인 전쟁입니다. 공산당은 결코 어떠한 약탈적 전쟁도 찬조하지 않습니다. 정



의적이고 비략탈적이고 해방을 위한 모든 전쟁에 대하여 공산당은 단연히 이를 찬조할 것이며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입니다. 제 2 국제당 산하에 있는 사회 민주당들은 체임벌린과 달라디에 등의 협박과 유인으로 지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상층 반동 분자들은 제 1 차 대전 때의 전철을 밟으면서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찬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공산당과 함께 반전, 반파쇼 인민 전선을 결성할 것입니다. 지금 체임벌린과 달라디에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본받아 점점 반동화하고 있으며 전쟁 동원을 리용하여 국가 조직을 파쇼화하며 경제 조직을 전시화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량대 제국주의 집단은 지금 발광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살의 위험이 천백만 인민의 머리 위에 림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형들은 의심할 것 없이 광범한 인민의 반항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나 영국, 프랑스에서나 구라파와 세계의 기타 어느 지방에서나를 막론하고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대포 '밥'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나서 각종 방법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는 상술한 량대 집단 외에 또 제 3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망라한, 미국을 위수로 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분간은 전쟁에 뛰여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장차 출마하여 활동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전쟁의 어느 일방에도 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르쵸아지가 국내에서의 민주주의 정치와 평시의 경제 생활을 당분간은 폐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 점은 세계의 평화 운동에 유리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실패 조약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니 그 전도는 더욱더 곤란하여질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두 파로 갈리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군벌들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을 독점하며 남양을 침략하며 영국, 미국, 프랑스를 동방으로부터 배척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의 부르쵸아지들은 영국, 미국, 프랑스에 대하여 양보하고 목표를 중국 약탈에 집중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영국과 타협하려는 추세가 아주 큼니다. 영국 반동파들은 중국을 같이 분할하며 일본에 재정 경제적 원조를 줄 것을 교환 조건으로 하여 일본을 동방에 있어서의 영국의 리권을 위한 앞잡이로 충당시켜 중국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쓰련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일본이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그 근본적 목적은 결코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규모의 군사적 진공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중국 사람으로써 중국 사람을 제압하는》<sup>[4]</sup> 정치적 진공과 《전쟁으로써 전쟁을 유지하는》<sup>[5]</sup> 경제적 침략을 더욱더 혹심하게 감행할 것이며 그의 점령 지구에서는 발광적인 군사적 《소탕》<sup>[6]</sup>을 계속할 것이며 또 영국을 통하여 중

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투항을 강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리한 어떤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일본은 동방 문헌을 조작하고 비교적 큰 어떤 양보를 미끼로 중국을 유인 협박하여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인민 혁명이 일어 나기 전에는 일본의 통치 계급이 내각을 아무리 바꾼다 하여도 일본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목적은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세 자본주의 세계 외에 광명한 다른 하나의 세계 즉 사회주의 쓰련이 있습니다. 쓰독 조약은 쓰련이 세계 평화 운동을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하였으며 중국 항일애 대한 그의 원조의 가능성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제 정세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문: 이러한 정세 하에서 중국의 전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 중국의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전을 견지하며 단결을 견지하며 진보를 견지하는 전도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전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협, 분렬, 퇴보하는 전도입니다. 그것은 망국의 전도입니다.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이 더욱더 곤란하여지며 우리 나라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 나라의 전략적 퇴각 단계는 이미 끝 나고 그 대신에 전략적 대치 단계가 닥쳐 왔습니다. 전략적 대치 단계라는 것은 반공격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면에서의 대치와 적후에서의 대치는 서로 반비례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면에서의 대치 국면이 출현되면 적후 투쟁의 국면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이 함락된 후부터 시작된 피점령 지구에서(주로 화북에서)의 적들의 대규모적인 군사적 《소탕》은 금후에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적들의 주요 정책은 《중국 사람으로써 중국 사람을 제압하는》 정치적 진공과 《전쟁으로써 전쟁을 유지하는》 경제적 침략이며 영국의 동방 정책은 극동 문혜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부분이 투항하고 내부가 분열될 위험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은 적과 대비하면 아직 차가 많은 만큼 반공격을 할 역량을 준비하려면 전국이 일치하게 간고 분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항전을 견지하는 임무는 여전히 매우 중대한 임무로 되고 있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절대로 지금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절대로 옥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확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항전의 입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타협 운동이라도 반대하여야 합니다. 공개적인 왕 정위거나 숨어 있는 왕 정위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유인이거나 영국의 유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단호히 거부하여야 하며 중국은 절대로 동방 문혜

에 참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단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분열 운동이라도 반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 측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나, 기타 외국 측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나, 국내 투항파 측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충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항전에 불리한 어떠한 내부적 마찰이든지 모두 엄정한 태도로 제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진보의 입장을 견지하고 어떠한 퇴보 운동이라도 반대하여야 합니다. 군사 면에서나, 정치 면에서나, 재정 경제 면에서나, 당 사업 면에서나, 문화 교육 면에서나, 민중 운동 면에서나를 막론하고 항전에 불리한 일체의 사상, 제도, 방책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착실히 개진함으로써 항전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중국은 반공격 역량을 훌륭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국은 《반공격의 준비》를 항전의 총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일면으로는 정면에서의 방어를 단호하게 지탱하고 적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원조하여야 하며 다른 일면으로는 정치 개혁, 군사 개혁 등 각종 개혁을 진행하여 거대한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일단 시기가 닥쳐 오면 전력을 기울여 대규모로 반공격함으로써 잃었던 국토를 수복하여야 합니다.

## 주 해

[1] 소독 호상 불가침 조약은 1939년 8월 23일에 체결되었다.

[2] 1935년 10월에 이탈리아는 아비시니아에 대한 무력 침공을 시작하여 1936년 5월에 아비시니아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1936년 7월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동으로 에스파냐 내정을 무력으로 간섭함으로써 에스파냐 인민 전선 정부를 배반하는 파시스트 프랑코를 지지하였다. 인민 전선 정부는 독일, 이탈리아 간섭군 및 프랑코 반역군과 장기간 전쟁을 진행하다가 드디어 1939년 3월에 실패 당하고 말았다. 독일은 1938년 3월에 슬로바키아 오지리안을 점령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또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제트루를 점령하였으며 1939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강점하였다. 독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이와 같은 반공적인 취략 행위들은 당시의 영국, 프랑스 정부의 《불간섭》 정책에 의한 독일과 고구 격려 하에 진행되었고 또 성공한 것이다.

[3] 1936년 11월에 일본과 독일은 《방공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37년 11월에는 이탈리아도 이 협정에 가담하였다.

[4] 《중국 사람으로써 중국 사람을 제압하는》 정책이란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음모 계획의 하나이다. 본래부터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에다 자기들이 리용할 수 있는 력량을 길러서 중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항일 전쟁이 폭발된 후 일본은 국민당 내의 왕 정위파와 같은 공개적인 친일 분자물 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 개석파의 력량을 리용하여 항전에 가장 견결한 공산당을 진척하였다. 1939년부터 일본은 장 개석 군대에 대한 진공을 중지하고 방공 활동을 진행하도록 정치적으로 장 개석을 고구 격려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으로써 중국 사람을 제압하는》 정책의 실시인 것이다.

[5] 일본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점령지 내에서 잔혹한 약탈을 감행하였다. 일본 군벌들은 이러한 정책을 《전쟁으로써 전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항일 전쟁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 해방구를 진공하면서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약탈하는 극히 야만적인 소위 《삼광 정책》을 실시하였다. 적들은 이것을 《소탕》이라고 하였다.

## 중앙사, 소탕보, 신민보<sup>(1)</sup>의 세 기자와의 담화

(1939년 9월 16일)

기자의 물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중화보》 지상에서 모 선생의 9월 1일 담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거기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아직도 선생께서 보충하여 주었으면 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바로 종이에 써서 드린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한 문제씩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모 태동의 대답, 선생들이 제기한 문제의 순서에 따라 한 문제씩 말하기로 합시다.

선생들은 항전의 대치 단계가 닥쳐 왔는가 아니 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두고 말한다면 대치 단계가 닥쳐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국제 정세를 두고 말한다면, 일본이 더욱더 곤란하여지고 중국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조건을 두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미 닥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적들이 아직 비교적 큰 전역적 진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

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를 들면 적들은 북해, 장사를 진공하며 지어는 서안을 진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대규모적인 전략적 진공과 우리의 전략적 퇴각이 일정한 조건을 두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진공의 모든 가능성과 퇴각의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반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 개념에 포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의 반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치 단계에서 모든 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공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당장 반공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구비되기 전에는 반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역적 반공이 아니라 전략적 반공입니다. 전역에서의 반공, 폐를 들면 산서성 동남부에서의 적들의 군사적 《소탕》에 대처하여 우리가 그것을 격퇴한 것과 같은 그러한 전역적 반공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상에서의 대규모적 반공 시기는 아직 닥쳐 오지 않았으며 지금은 이런 대규모적 반공을 적극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또 있을 수 있는 정면의 적들의 일부 전역적 진공을 격퇴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단계의 임무를 각각 나누어 말한다면 적의 후방에서는 반드시 유격 전쟁을 견지하고 적들의 《소탕》을 분쇄하고 적들의 경제적 침략을 파괴하여야 할 것이며 정면에서는 반드시 군사적 방어를 공고히 하고 있을 수 있는 적들의



전역적 진공을 격퇴하여야 할 것이며 대후방에서는 주로 정치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반공을 준비하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적들이 목전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적 진공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특히 강화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 정치라는 문제가 급속히 해결되어야만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군사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전은 주로 자력 갱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력 갱생을 주장하여 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제 환경 하에서는 자력 갱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력 갱생의 주요 내용은 곧 민주 정치입니다.

문: 방금 선생께서는 자력 갱생으로 항전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환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 제도를 실시할 것입니까?

답: 군정, 훈정, 헌정의 세 시기의 구분<sup>[2]</sup>은 본래 손中山 선생이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 선생은 서거 전 자기의 《복상 선언》<sup>[3]</sup>에서 세 시기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고 다만 중국은 즉시 국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손 선생의 주장은 벌써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손 선생 자신이 이를 변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항전의 이런 엄중한 정세 하에서 망국의 참화를 면하고 또 적을 몰아 내기 위하여서는 시급히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민주

정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동한 의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항전 기간에 백성들은 매우 빠른 진보를 가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령도와 방침만 있으면 단장코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북과 같은 데서는 이미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장, 향장, 보장, 갑장들이 대부분 인민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습니다. 현장도 어떤 데서는 인민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많은 선진적인 인물들과 유위한 청년들이 현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응당 제기하여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생들이 제기한 둘째 부분의 문제에는 소위 《이당 제한》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마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정황이 좀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등의 변화도 없습니다.

문: 공산당은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중앙 정부에 표시한 일이 있습니까?

답: 우리는 이미 항의문 제출하였습니다.

문: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였습니까?

답: 지난 7월에 우리 당의 대표 주 은래 동지는 이미 장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8월 1일에 또 연안의 각

계 인사들은 비밀리에 실시되어 각지에서의 마찰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여 장 위원장과 국민 정부에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문: 중앙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답이 있었습니까?

답: 회답이 없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국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알다 싶이 공동으로 항일하는 군대를 우군이라고 하지 《이군》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항일하는 정당은 우당일 것이고 《이당》이 아닐 것입니다. 항전 대렬 내부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으며 또 그 정당들의 역량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로 항전을 하고 있으므로 응당 호상 단결하여야 할 것이고 결코 서로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당이겠습니까? 일본의 앞잡이 왕 정위의 민족 반역자 당이 이당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항일 정당과 정치적으로 추호의 공동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은 응당 제한하여야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항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는 전력을 집중하여 반공, 방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력을 집중하여 반일, 방일하고 반왕, 방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구호는 오직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왕 정위는 반장, 반공, 친일의 세 가지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왕 정위는 국공 량당과 전국 인민의 공동의 원수입니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적이 아니며 국민당도 공산당의 적이 아닌 만큼 서

로 반대하며 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단결하며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호는 반드시 왕 정위의 구호와 구별되어야 하고 왕 정위의 구호와 대립되어야 하며 결코 그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장 개석을 반대하면 우리는 장 개석을 지지하고 그가 공산당을 반대하면 우리는 공산당과 연합하며 그가 친일을 하면 우리는 항일을 하여야 합니다. 여하튼 적이 반대하는 것이면 우리는 지지하여야 하고 적이 지지하는 것이면 우리는 반대하여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글에는 《친한 사람을 괴롭히고 원수를 기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한 때 류수의 한 장군이었던 주 부라는 사람이 어양의 태수 팽 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편지에는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친한 사람을 괴롭히고 원수를 기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 부의 이 말은 명확한 정치적 원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생들이 제기한 문제에는 또 소위 마찰에 대처하는 공산당의 태도에 관한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당신들에게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항일 정당 간에 서로 력량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마찰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면에서든지 만약 무리하게 달려 든다면, 사람을 지나치게 업신여긴다면, 압박을 가한다면 공산당은 반드시 단호한 태도로 이에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즉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

도 반드시 남을 건드린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정한 자위적 립장에서 있으며 어떠한 공산당원도 자위의 원칙을 초월하지 못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 화북에서의 마찰 문제는 어떠합니까?

답: 화북의 장 음오와 진 계영이라는 두 사람은 마찰 전 문가입니다. 장 음오는 하북에서, 진 계영은 산둥에서 그야말로 불법 천지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민족 반역자들의 행위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과 싸우는 때가 적고 팔로군을 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 음오가 자기 부하에게 팔로군을 진공하라고 한 명령서와 같은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장 위원장에게 보내었습니다.

문: 신사군 방면에는 마찰이 없습니까?

답: 역시 있습니다. 평강 참살 사건은 전국을 놀라게 한 대사건입니다.

문: 통일 진선은 중요하지만 통일이라는 데 비추어 말하면 변구 정부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여러 가지 횡설수설들이 각지에 돌고 있습니다. 변구를 없애 버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실례의 하나입니다. 심감녕 변구는 민주주의적인 항일 근거지이며 전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한 지구인데 그것을 없애 버려야 할 리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변구는 장 위원장이 벌써 승인한 것이며, 국민 정부 행정원에서도 일찍 민국 26년 겨울에

정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중국은 확실히 통일을 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전에로의 통일이여야 하며 단결에로의 통일이여야 하며 진보에로의 통일이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통일된다면 중국은 변망하고 말 것입니다.

문: 통일에 대한 전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국공이 분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 가능성에 대하여서만 말한다면 단결과 분열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 량당의 태도 여하에 의하여, 특히 전국 인민의 태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합작에 대한 우리 공산당 측의 방침으로 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장기적 합작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합작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장 위원장도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 국내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큰 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한 국공 량당이 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량당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합작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열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합작에 정치적 보장이 부여되어야만 분열의 가능성을 철저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보장이란 곧 항전을 끝까지 견지하며 민주 정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능히 분열을 피하고 계속 단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량당과 전국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달렸으며 또한 량당과 전국 인민은 반드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전을 견지하고 투항을 반대하자》, 《단결을 견지하고 분열을 반대하자》, 《진보를 견지하고 퇴보를 반대하자》——이것은 우리 당이 금년 《7. 7 선언》에서 제기한 3대 정치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야만 중국이 멸망을 피할 수 있으며 적을 몰아 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주 해

[1] 중앙사는 국민당의 통신사이고 《소당보》는 국민당 정부의 군사 계통의 신문이며 《신민보》는 민족 부르조아지를 대표한 신문의 하나이다.

[2] 손 중산은 그의 저서 《전국 대강》에서 《건국》의 순서를 첫째, 《군정(軍政) 시기》, 둘째, 《훈정(訓政) 시기》, 셋째, 《헌정(憲政)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장 개척을 비롯한 국민당 반동들은 장기간 손 중산의 이런 《군정》, 《훈정》이란 칼을 리용하여 반혁명적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구실로 삼았다.

[3] 1924년 겨울, 제 2 차 봉직 전쟁 때 본래 적에게 계통에 속하였던 풍 육상이 자기 군대를 인솔하고 전선으로부터 북경으로 돌아 왔기 때문에 적에게 군벌인 오 깨부는 넘어지고 말았다. 풍 육상이 손 중산에게 북경으로 온 것을 전보로 요청하자 11월 12일 손 중산은 이 요청에 응하여 북상하였다. 팽주를 떠나기 이틀 전에 손 중산은 《북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선언에서 손 중산은 제국주의와 군벌을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국민 회의론 소집하여 국가의 근본 방침을 해갈한 것을 호소하였다. 이 선언은 전국 인민의 환영을 받았다.





## 쏘련의 리익과 인류의 리익과의 일치

(1939년 9월 28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22 주년 기념일이 닥쳐 오고 있는 이 때 중쏘 문화 협회에서는 나에게 글 한 편을 써 달라고 하였다. 나는 나의 관찰에 의하여 쏘련과 중국에 다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왜냐 하면 이 문제들이 지금 광범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회에 구라파 대전과 중 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약간의 견해를 참고로 제공하라는 것도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쏘련은 세계 대전이 폭발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므로 세계 평화의 유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번의 세계 대전의 폭발은 곧 쏘련이 영국, 프랑스와 호상 원조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일과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과거 오랜 동안 쏘련의 대외 정책은 출분 평화 정책이었으며 이 평화 정책은 쏘련의 리익을 세계 인류의 대다수의 리익과 서로 련결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어서 소련은 자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평화가 필요하였고 소련과 세계 각국 간의 평화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반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파쇼 국가들의 침략을 제지하며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쟁 도발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제국주의적 세계 대전의 폭발을 될 수 있는 데까지 지연시킴으로써 세계적 범위에서의 평화를 전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소련은 세계 평화 위업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였다. 예를 들면 소련은 국제 연맹(1)에 가입하였으며 프랑스 및 체스코슬로벤스키와 호상 원조 협정(2)을 체결하였으며 영국 및 기타 평화를 념원하는 모든 국가들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합하여 에스빠냐를 침략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가 명의 상으로는 《불간섭》이지만 실지로는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을 방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 소련은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에 반항하는 에스빠냐 정부군을 적극 원조하였으며 영국, 미국, 프랑스의 《불간섭》 정책을 반대하였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가 동일한 《불간섭》 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 소련은 중국과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항일을 적극적으로 원조하였다. 영국, 프랑스 양국이 오지리와 체스코슬로벤스키를 회생시키면서 히틀러의 침략을 묵인하고 있을 때 소련은 문헌 정책의 흑막을 폭로하기에 힘을 다하였으며 침략의 가일층의 발전을 제지할

것을 영국과 프랑스에 제의하였다. 금년 봄과 여름에 걸쳐 뿔스가 문제가 긴장하여지고 세계 대전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체임벌린과 달라디에에게는 아무런 성의도 없었지만 쏘련은 의연히 영국, 프랑스와 4 개월 이상이나 담판을 진행하면서 영국, 프랑스, 쏘련 호상 원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전의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국, 프랑스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 즉 전쟁을 묵인하며 전쟁을 도발하며 전쟁을 확대시키는 정책에 의하여 장애를 받았다. 이리 하여 세계의 평화 위업은 끝내 좌절을 당하였으며 제국주의 세계 대전이 드디어 폭발되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각국 정부는 대전의 폭발을 방지하려는 성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전의 폭발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그들이 쏘련과 타협할 것을 거부하였으며 쏘련과 더불어 평등 호혜의 기초에서 참으로 효과적인 호상 원조 조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만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쏘련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점은 부르쵸아지의 대표적 인물인 영국의 로이드 조지도 역시 알고 있다(3). 이러한 정형 밑에서 또 바로 이 때에 독일이 반쏘 행동을 중지하며 《방공 협정》을 포기하며 쏘련 변강의 불가침성을 승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의 계획은 독일을 추동하여 쏘련을 진공하게 하고 자기들은 《산마루에 앉아서 범의 싸움을 구

경》하다가 쓰련과 독일이 기진 맥진한 다음에 자기들이 나서서 시국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쏘독 호상 불가침 조약에 의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국내 사람들이 이러한 음모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은, 전쟁을 묵인하며 전쟁을 도발하며 세계 대전의 폭발을 촉진시킨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의 음모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은 사실 상 이런 음모가들의 탈콤한 선전에 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음모가들은 에스파냐 문제에 있어서, 중국 문제에 있어서, 오지리와 체코슬로벤스코 문제에 있어서 침략을 제지하려는 의사가 조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침략을 묵인하며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남을 도요새와 조개로 만들고 자기는 어부가 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듣기 좋게 《불간섭》이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산마루에 앉아서 범의 싸움을 구경》하려는 것이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체임벌린과 그 동료들의 탈콤한 언설에 넘어 가 그들의 웃음 속에 들어 있는 칼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으며 체임벌린과 달라디에가 쓰련을 거부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진행할 결심을 하였을 때에 이르러서야 쓰련, 독일 간에 호상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쓰련이 이와 같이 세계 평화를 최후의 순간까지 수호한 이것은 곧 쓰련의 리익과 인류 대다수의 리익이 서로 일치하다는 표현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첫째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 2 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이 폭발된 이상 쓰련이 전쟁의 어느 한 편에 가담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즉 쏘련 붉은 군대가 마치 독일 제국주의 전선에 끈 참가하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폭발된 전쟁은 영국, 프랑스 측에 있어서나 독일 측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모두 부정의적, 약탈적, 제국주의적 전쟁이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과 세계 각국의 인민들은 모두다 쫓기하여 이러한 전쟁을 반대하여야 하며 교전 쌍방의 제국주의적 성격, 즉 세계 인민에게는 해로운 뿐이고 추호도 리로움이 없는 이러한 성격을 폭로하여야 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배반한 사회 민주당의 최악적 행위를 폭로하여야 한다. 쏘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전쟁에 대한 그 태도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선명한 태도가 있게 된다. (1) 부정의적, 약탈적, 제국주의적 전쟁에 결정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며 교전 쌍방에 대하여 중립을 엄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의 붉은 군대는 절대로 무원칙하게 제국주의 전선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2) 정의적, 비약탈적 그리고 해방을 위한 전쟁을 적극 원조한다. 케를 들면 13년 전에 중국 인민의 북벌 전쟁을 원조하였으며 1년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침략에 반항하는 에스빠냐 인민의 전쟁을 원조하였으며 최근 2년 동안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을 원조하여 주고 있으며 최근 수개월 동안 몽골 인민의 항일 전쟁을 원조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기타 국가들과 기타 민족들 중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인민 해방 전쟁과 민족 해방 전쟁을 필연코 원조할 것이며 또 평화 옹호에 유

리한 전쟁을 필연코 원조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소련의 지난 22 년 간의 력사가 증시하고 있으며 금후의 력사도 계속 이를 증시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 소독 통상 협정에 근거하여 독일과 통상하는 사실을 소련이 독일 전선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도 역시 옳지 못하다. 이것은 통상과 참전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과 참전을 혼동하여 말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상과 원조도 혼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스빠냐 전쟁 때 소련은 독일, 이탈리아 량국과 통상을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련이 에스빠냐를 침략하는 독일, 이탈리아를 원조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에 반항하는 에스빠냐를 원조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소련이 확실히 에스빠냐를 원조하였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면 중일 전쟁에 있어서도 소련은 일본과 통상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련이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을 원조한다고 말하지 않고 일본의 침략에 반항하는 중국을 원조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이 확실히 중국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대전의 쌍방은 모두 소련과의 통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일방에 대하여도 원조라고 말할 수 없으며 참전이라고는 더구나 말할 수 없다. 전쟁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 어느 한 나라 혹은 몇 나라의 전쟁이 일정한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거친 후에 그것이 소련과 세계 인민에 대하여 유리하게 될 때에라야 원조 혹은 참전할 가능성이 있게 되며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

고 조선에 대한 교전 각국의 태도가 친소적인가 반소적인가에 의하여 조선은 그들에 대한 통상에 있어 많고 적음과 후하고 박함에 부득불 차별을 두게 된다. 이것은 조선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전 각국 자신의 태도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실혹 어느 한 나라 혹은 몇 나라가 반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들이 계속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며 조선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8월 23일 이전의 독일처럼 그러하다면 조선도 그러한 나라들과의 통상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통상 관계는 원조가 아니며 참전은 더구나 아니다. 이 점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둘째 문제이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군이 뿔스까에 진주한<sup>[4]</sup> 문제에 대하여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뿔스까 문제는 독일 측, 영국과 프랑스 측, 뿔스까 정부 측, 뿔스까 인민 측, 조선 측 등 이 몇 개 측면으로부터 관찰하여야 한다. 독일 측을 두고 본다면 그들은 뿔스까 인민을 랍탈하기 위하여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며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 전선의 일익을 격파하기 위하여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며 따라서 동정할 수 없으며 반대하여야 한다. 영국, 프랑스 측을 두고 본다면 그들은 뿔스까를 영국, 프랑스 금융 자본의 랍탈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장물을 재분배하려는 독일 제국주의를 세계적 범위에서 반대하기 위하여 뿔스까를 리용하고 있으며 뿔스까를 그

들 제국주의 전선의 일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의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고 영국, 프랑스의 소위 뿔스까 원조란 뿔스까에 대한 통치권을 독일과 쟁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역시 동정할 수 없고 반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뿔스까 정부 측을 두고 본다면 이 정부는 파쇼 정부이며 뿔스까의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반동 정부로서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뿔스까의 민주주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대뿔스까주의의 정부이다. 그것은 이 정부가 뿔스까 민족 이외의 많은 소수 민족들, 즉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유대인, 게르만인, 리트바인 등 1,000여만의 비뿔스까 민족에 대하여 가혹한 민족적 억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그 자체가 곧 제국주의의 정부이다. 이 빈 전쟁에서 뿔스까 반동 정부는 자진하여 뿔스까 인민들을 영국, 프랑스 금융 자본의 대포'밥으로 내어물었으며 또 자진하여 국제 금융 자본의 반동 전선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다. 지난 20 년 간 뿔스까 정부는 일관적으로 쏘련을 반대하여 왔으며 영국, 프랑스, 쏘련 담판 과정에서 쏘련 군대의 원조를 전격히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정부는 또한 아주 무능한 정부여서 그의 150만 이상의 대군이 일격에 와해되어 불과 두 주일 동안에 나라를 망쳐 버렸으며 뿔스까 인민들을 독일 제국주의의 유린에 맡겨 버렸다. 이 모든 것은 뿔스까 정부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다. 우리가 이러한 정부를 동정한다면 옳지 못하다. 뿔스까 인민 측을 두고 본다면 그들은 희생자이다. 그들은 응당 쫓겨하여



독일 파쑈의 억압을 반대하여야 하며 자국의 반동적인 시주, 부르쑈아지들을 반대하여야 하며 뿔스까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국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동정은 뿔스까 인민 측에 두어야 할 것이다. 쑈련 측을 두고 본다면 쑈련은 완전히 정의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다. 당시 쑈련 앞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놓여 있었다. 첫째 문제는 뿔스까 전체를 독일 제국주의의 통치하에 처하도록 놓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부 뿔스까의 소수 민족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쑈련은 둘째의 길을 택하였다. 백로씨야 민족과 우크라이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광대한 지역은 1918년 브레스트 강화 조약이 체결될 때 당시의 독일 제국주의가 청소한 쑈련의 수중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떼여 갔던 것이며 그 후 또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강요되어 뿔스까 반동 정부의 통치하에 넘어 갔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 쑈련은 과거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며 억압 당하던 백로씨야 민족과 우크라이나 민족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독일의 억압을 받지 않게 하는 데 불과하다. 최근 며칠 동안의 통신은 이러한 소수 민족들이 붉은 군대를 얼마나 열렬하게 맞이하고 있는가와 붉은 군대를 자기들의 구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군이 점령한 서부 뿔스까 지방과 프랑스군이 점령한 서부 독일 지방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쑈련의 전쟁이 정의적, 비락탈적 그리고 해방을 위한 전쟁이며 약소 민족의 해방을 원조하고 인민의 해방을 원조하

는 전쟁이라는 것과 독일의 전쟁이나 영국, 프랑스의 전쟁은 모두다 부정적, 약탈적, 제국주의적 전쟁이며 타국 민족을 억압하고 타국 인민을 억압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밖에 쓰련 앞에 놓여진 둘째 문제는 즉 체임벌린이 쓰련을 반대하는 자기의 일관적인 정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체임벌린의 정책은 한 면으로는 독일의 서쪽을 대규모적으로 봉쇄하여 독일의 서부에 압력을 가하며 다른 한 면으로는 미국과 연합하고 이탈리아, 일본 및 북구라파 국가들을 매수하여 자기 편에 세움으로써 독일을 고립시키려 시도하며 또 다른 한 면으로는 뿔스까를 선물로 삼아, 지어는 웅그리아와 로므니아까지도 선물로 삼아 독일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협박, 유인 등의 각종 방법으로써 독일을 추동하여 쓰독 호상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고 그 총'부리를 돌려 쓰련을 진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음모는 과거나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쓰련의 대군이 뿔스까 동부에 진주한 것은 자기의 국토를 수복하며 약소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독일 침략 세력이 동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제지하며 체임벌린의 음모를 격파하는 구체적인 절차이기도 하다. 최근 며칠 동안의 소식에 의하면 쓰련의 이 방침은 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이 곧 쓰련의 리익이 세계 인류의 대다수의 리익과 일치되며 뿔스까 반동 통치 하의 피압박 인민들의 리익과도 일치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세째 문제이다.

쓰독 호상 불가침 조약 체결 후의 전반 정세는 일본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중국을 원조하였으며 중국 항전파의 지위를 강화하였고 투항파에게 타격을 주었다. 중국 인민들이 이 조약에 대하여 환영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그러나 노몽한 정전 협정<sup>[5]</sup>이 체결된 후 영, 미 통신사들에서 일쏘 호상 불가침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빈번히 전하자 중국 인민들 가운데서는 일종의 우려가 생기게 되었으며 쏘련이 중국을 원조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관찰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노몽한 정전 협정의 성질은 과거 장교봉 정전 협정<sup>[6]</sup>과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본이 굴복함으로써 일본 군벌들이 쏘련과 몽골 변경의 불가침성을 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전 협정은 중국에 대한 쏘련의 원조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일쏘 호상 불가침 조약에 관하여 말한다면 과거 여러 해 전부터 쏘련은 일본에 그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시종 이를 거부하여 왔던 것이다. 지금 일본의 지배 계급 내부의 일파는 이 조약의 체결을 쏘련에 요구하고 있는데 쏘련이 이 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조약이 쏘련의 리익 및 전 세계 인류의 대다수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아니 되는가 하는 이 기본 원칙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조약이 중국 민족해방 전쟁의 리익에 충돌되는가 충돌되지 않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금년 3월 10일 쏘련 공산당 제 18 차 대회에서 한 쓰딸린의 보고와 금년 5월 30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

에서 한 몰로토프의 연설에 의하여 나는 쓰련이 이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일쓰 호상 불가침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련은 결코 이 조약에서 중국을 원조하는 자기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쓰련의 이익과 중국 민족 해방의 이익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일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절대로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반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몽한 정전 협정의 체결과 일쓰 호상 불가침 조약에 대한 풍설을 리용하여 풍파를 일으키며 중 쏘 량대 민족 간의 감정을 도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음모가들 가운데와 중국의 투항파들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그 흑막을 철저히 폭로하여야 한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항일적 외교 정책이여야 할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이 정책은 자력 갱생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의 원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외국의 원조라는 것은 제국주의적 세계 대전이 폭발된 정세 하에서는 주로 다음의 세 면에서 온다. 즉 (1) 사회주의 쓰련, (2) 세계 자본주의 제 국가 내의 인민들, (3) 세계 각 식민지, 반식민지의 피압박 민족들이다. 오직 이들만이 믿을 수 있는 원조자들이다. 이 밖의 외국의 원조라는 것은 설사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밖에 분수 없다. 물론 이런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원조라도 쟁취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원

조로 간주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제국주의 전쟁의 교전 각국에 대하여 중국은 중립을 엄수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 전선에 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는 투항파의 견해이며 항일과 중화 민족의 독립 해방에 불리한 견해인바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비째 문제이다.

상술한 문제들은 다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의론이 분분한 문제들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국제 문제 연구에 주의를 돌리며 제국주의 세계 대전과 중국 항일 전쟁과의 관계에 주의를 돌리며 쏘련과 중국과의 관계에 주의를 돌리고 있는 그 목적은 중국의 항일의 승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다. 나는 지금 상술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것이 타당하겠는지 독자 여러 분들의 아낌 없는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

## 주 해

[1] 국제 연맹은 제 1 차 세계 대전 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분할을 협의하며 상호간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체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에 중국 동북을 점령한 후 침략 행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를 위하여 1933년에 국제 연맹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1933년에 독일도 파쇼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침략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를 위하여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였다. 바로 이와 같이 파쇼 침략 전쟁의 위협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쏘련은 1934년에 국제 연맹에 가입하였다. 이를 하여 국제 연맹을 제국주의 간에 세계 분할을 협의하

는 도구이던 데로부터 평화에 퇴각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되게 하였다. 이말리 아도 1935년에 아비시니아를 침략한 후 역시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였다.

[2] 소련과 프랑스, 소련과 체코슬로벤스프 간의 호상 원조 협정은 1935년에 체결되었다.

[3] 로이드 조지는 영국 부르조아 정당인 자유당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영국, 프랑스, 소련 간의 담판 때에 그는 의회에서 소련의 재의물 거부하는 것은 곧 평화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성명하였었다.

[4] 1939년 9월 1일 독일이 슬병하여 폴스까에 침입하고 이 나라의 대부분 영토를 점령하자 17일에 폴스까 반동 정부는 극외로 도망쳐 버렸다. 소련은 자기의 영토를 수복하며 억압 당하던 우크라이나 및 백로셔야 민족을 해방하는 동시에 독일 파시스트의 동북예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7일에 폴스까 동부예로 진군하였다.

[5] 1939년 5월부터 인, 《만》(괴뢰 만주국)군은 만주, 몽골의 변경인 노몽한 지방에서 소련과 몽골 인민 공화국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소, 몽군의 영웅한 자위 하에 일, 《만》군은 참패를 당하였으며 소련에 대하여 정진을 요구하였다. 9월에 노몽한 정진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1. 쌍방은 즉시 정진할 것, 2. 일, 《만》측과 소, 몽측 쌍방은 《만주》와 몽골 간의 충돌 발생 지대의 계선을 획정하기 위하여 각각 대표 2 명을 파견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것 등이다.

[6] 1938년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일본군은 중국, 소련, 조선의 경계 지인 장고봉 지방에서 소련군에 접탈하였다. 소련군의 강력한 반격 하에 일본은 실패를 당하고 화의를 요구하였다. 8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장고봉 정진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쌍방이 즉시 정진할 것과 쌍방 경계선의 최후적 획정은 소련 대표 2 명과 일, 《만》대표 2 명으로 혼성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다.

## 《공산당인》 발간사

(1939년 10월 4일)

중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당내 간행물을 출판하려고 계획하여 왔는데 이제야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전국적 범위의, 광범한 대중성을 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고한, 불쇄위크화한 중국 공산당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간행물이 필요하다. 현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뚜렷하여졌다. 현 시기의 특성은 일면으로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내에 투항, 분열 및 퇴보의 위험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우리 당이 이미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국성을 띤 대정당으로 된 데 있다. 당의 임무는 대중을 동원하여 투항, 분열 및 퇴보의 위험을 극복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돌발적 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 당과 혁명으로 하여금 그 돌발적 사변에서 의외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당내 간행물이 출판되는 것은 참으로 극히 필요한 것이다.

이 당내 간행물은 《공산당인》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 간행물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 간행물은 어떠한 글들을 실을 것인가? 이 간행물은 당의 다른 기관지와 무엇이 다른가?

이 간행물의 임무는 전국적 범위의, 광범한 대중성을 띠며,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개한, 불쇄 위크화한 중국 공산당의 건설을 돕는 데 있다. 중국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이러한 당을 건설할 것이 절박히 요구된다. 이러한 당을 건설할 주객관 조건은 이미 대체로 구비되었으며 이 위대한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위대한 공사를 돕는다는 것은 당의 일반 기관지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당 기관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산당인》을 출판하게 된 원인이다.

어느 정도에서 볼 때 우리 당은 이미 전국성을 띤 당으로 되었으며 대중성을 띤 당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 골간을 두고 말하거나 그 당원의 일부 구성을 두고 말하거나 그 총로선을 두고 말하거나 그 혁명 사업을 두고 말한다면 이미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개한, 불쇄 위크화한 당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임무를 제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우리는 지금 대량적인 신입 당원에 의하여 구성된 많은 새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새 조직들은 아직 광범한 대중성을 띤 조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직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며 아직 불쇄위크화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로당원에 대하여도 그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으며 오랜 조직에 대하여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걸음 더 공



고화하고 한 걸음 더 불쇄위크화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 지금 당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당이 짊어지고 있는 임무는 과거 국내 혁명 전쟁 시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지금은 환경이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임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지금은 민족 통일 전선의 시기로서 우리는 부르주아지와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다. 지금은 항일 전쟁의 시기로서 우리당의 무장력은 전선에서 우군과 배합하여 적과의 가혹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당이 전국성을 띤 대정당으로 발전된 시기로서 당의 면모는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들을 련결시켜 보면 우리가 제출한 《전국적 범위의, 광범한 대중성을 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고한, 불쇄위크화한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중대한 임무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이러한 당을 건설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당의 력사, 우리당의 18년간의 투쟁사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당의 력사는 1921년 제 1차 전국 대표 대회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 18년이 되었다. 18년 동안에 당은 많은 위대한 투쟁들을 거쳤으며 당원과 당의 간부 및 당의 조직은 이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였으며 혁명의 엄중한 실패도 맛보았다. 부르주아지와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한 일도 있었고 이 통일 전선의 걸렬로 말미암아 대부르주아지 및 그 동맹자들과 치렬한 무장 투쟁을 진행한 일도 있었다. 최근 3년은 또

부르조아지와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있는 시기에 처하여 있다.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이 중국 부르조아지와 복잡한 련관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특성이며 식민지, 반식민지 혁명 과정에서의 특성으로서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사에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발전이 불균형한 나라이며 반봉건적 경제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토가 광대한 나라이다. 이 점에서 비단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의 성격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혁명의 주요한 대상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이며 혁명의 기본 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이며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에서 민족 부르조아지도 이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혁명의 주요한 투쟁 형태는 무장 투쟁이라는 것이 규정되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무장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쓰딸린 동지는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혁명의 특수성의 하나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1)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 특성, 이 반식민지적 중국의 특성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산당이 령도하는 혁명사에는 없거나 그런 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리하여 (1)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와 혁명적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거나 부득이하여 그것을 그만 두게 되는 것, (2) 혁명의 주요한 형태가 무장 투쟁이라는 것——이것이 중

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의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당과 농민 계급과의 관계, 당과 도시 소부르조아 지와의 관계를 기본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이러한 관계는 세계 각국의 공산당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중국에서 무장 투쟁이라 하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농민 전쟁이며 당과 농민 전쟁과의 밀접한 관계가 다름 아닌 당과 농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기본적인 특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당의 건설 과정, 우리 당의 불쇄위크화 과정은 특수한 정황에 처하여 있다. 당의 실패와 승리, 당의 후퇴와 전진, 당의 축소와 확대, 당의 발전과 공고화는 모두 당과 부르조아 지와의 관계 및 당과 무장 투쟁과의 관계와 련관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의 정치 로선에 있어서 부르조아 지와 통일 전선을 결성하거나 부득이하여 통일 전선을 그만 두게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우리 당의 발전, 공고화 및 불쇄위크화가 일보 전진하고 부르조아 지와의 관계를 부정확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우리 당의 발전, 공고화 및 불쇄위크화가 일보 후퇴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혁명의 무장 투쟁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우리 당의 발전, 공고화 및 불쇄위크화가 일보 전진하고 이 문제를 부정확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우리 당의 발전, 공고화 및 불쇄위크화가 일보 후퇴하게 된다. 지난 18 년 동안의 당의 건설 과정, 당의 불쇄위크화 과

정은 이처럼 당의 정치 로선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었으며 또 이처럼 당의 통일 전선 문제, 무장 투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리 혹은 부정확한 처리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었다. 이 문단은 18 년 간의 당의 력사에 의하여 아주 뚜렷이 증명되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당이 더욱 불쇄위크화하면 또 오직 더욱 불쇄위크화하여야만 당은 더욱 정확하게 당의 정치 로선을 처리할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하게 통일 전선 문제와 무장 투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단도 지난 18 년 동안의 당의 력사에 의하여 아주 뚜렷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통일 전선 문제, 무장 투쟁 문제, 당 건설 문제는 중국 혁명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세 개의 기본 문제이다. 이 세 개 문제 및 그 호상 관계를 정확히 리해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 혁명 전체를 정확히 령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18 년 간의 당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의 풍부한 경험 즉 실패와 성공, 후퇴와 전진, 축소와 발전의 심각하고도 풍부한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일 전선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장 투쟁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 건설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18 년 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통일 전선, 무장 투쟁, 당 건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혁명에서 적을 타승하기 위한 세 가지 보배이며 세 가지 주요한 보배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성과이며 또한 중국 혁명의 위대한 성과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배,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서 대략적으로 말하여 보기로 하자.

지난 18년 동안에 중국 프로레타리아트가 중국 부르조아지 및 기타 계급과 맺은 통일 전선은 세 가지 각이한 점세하에서, 세 개의 각이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그것은 즉 1924~1927년의 제 1차 대혁명의 단계와 1927~1937년의 토지 혁명 전쟁의 단계 그리고 오늘의 항일 전쟁의 단계이다. 세 단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증명하여 준다. (1)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압박은 민족적 압박이므로 중국 민족 부르조아지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봉건 군벌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이런 일정한 시기에 민족 부르조아지와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야 하고 또 가능한 한 그것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또 중국 민족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경제, 정치적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역사적 환경 하에서는 중요하고 변질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혁명 통일 전선의 내용은 시종 여일할 수 없고 변화하게 된다.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민족 부르조아지가 참가하게 되고 다른 시기에 있어서는 민족 부르조아지가 참가하지 않게 된다. (3) 매판성을 띤 중국 대부르조아지는 직접 제국주의에 복무하며 또 제국주의자들이 길러 낸 계급이다. 그러므로 매판성을 띤 중국 대부르조아지는 종래로 혁명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매판성을 띤 중국 대부르조아지의 개개의 집단들은 각각 다른 제국주의를 자기들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제국주의들 간

의 모순이 첨예화될 때에, 혁명의 총'부리가 주로 어느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 돌려질 때에는 다른 제국주의 계통에 속하여 있는 대부르조아지의 집단이 일정한 정도로, 일정한 시기 내에 있어서 어느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는 적을 약화시키며 자기의 후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부르조아 집단과 가능한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 혁명에 유리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한 그것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매관성을 띤 대부르조아지는 통일 전선에 참가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함께 공동의 적과 투쟁할 때에도 여전히 매우 반동적이며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의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 발전을 반대한다. 그리 하여 거기에서 제한을 가하며 하며 기만, 유인, 《용해》 및 타격 등등의 파괴 정책을 쓰며 또 이러한 정책을 적에게 투항하며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기 위한 준비로 삼고 있다. (5) 프로레타리아트의 튼튼한 동맹자는 농민이다. (6) 도시 소부르조아지도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이러한 범칙들의 정확성은 제 1 차 대혁명 시기와 토지 혁명 시기에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하의 항일 전쟁 과정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당은 부르조아지(특히 대부르조아지)와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문제에서 견결하고도 엄숙한 두 개 전선에서의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면으로는 부르조아지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에서 혁명 투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흘시하는 오류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의 부르조아지와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조아지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부르조아지와 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또 가능한 한 이 통일 전선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좌》경 관문주의이다. 다른 일면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강령, 정책, 사상, 실천 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량자 사이에 존재하는 원칙적인 차이를 실시하는 오류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류는 부르조아지(특히 대부르조아지)가 소부르조아지와 농민에게 극력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에도 극력 영향을 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말살하려고 애쓰며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을 부르조아지 및 그 정당의 추종자로 전락시키려고 애쓰며 혁명의 성과를 부르조아지의 한 집단, 한 정당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실시하는 데 있으며, 부르조아지(특히 대부르조아지)는 일단 혁명이 그들 한 집단, 한 정당의 사리(私利)와 충돌될 때에는 혁명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시하는 데 있다. 이 면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우경 기회주의이다. 과거 진 독수의 우경 기회주의의 특성은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조아지의 한 집단, 한 정당의 사리에 적응하도록 인도한 데 있으며 이것은 또한 제 1 차 대혁명이 실패하게 된 주관적 원인이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중국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이중성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로선과 당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이중성을 리해

하지 못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 로선과 당 건설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로선의 중요한 일부분은 부르조아지와 연합도 하고 투쟁도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당 건설의 중요한 일부분은 부르조아지와 연합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발전하고 단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것은 부르조아지와 의 통일 전선이다. 투쟁이란 것은 부르조아지와 연합하고 있을 때에는 사상, 정치, 조직 면에서 《평화》적인 《비류혈》적 투쟁을 하며 부득이하여 부르조아지와 결렬하게 되었을 때에는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는 것이다. 우리 당이 만일 일정한 시기에 부르조아지와 연합할 줄 모른다면 당은 전진할 수 없으며 혁명도 발전할 수 없다. 우리 당이 만일 부르조아지와 연합하고 있을 때에 부르조아지와 견결하고도 엄숙한 《평화》적 투쟁을 진행할 줄 모른다면 당은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와해될 것이며 혁명은 실패당하고 말 것이다. 또 우리 당이 만일 부득이하여 부르조아지와 결렬하게 되었을 때에 부르조아지와 견결하고도 엄숙한 무장 투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당은 와해될 것이며 혁명은 실패당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과거 18년 간의 력사에서 증명된 바이다.

중국 공산당의 무장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 령도 하의 농민 전쟁이다. 그 력사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 단계는 북벌 전쟁에 참가한 것이다. 당시 우리 당은 무장 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고 무장 투쟁이 중국 혁명의 주요한 투쟁 형



태라는 것도 알지 못 하였다. 제 2 단계는 토지 혁명 전쟁이다. 당시 우리 당은 이미 독립적인 무장 부대를 창건하였으며 독자적인 전쟁 예술을 배웠으며 인민 정권과 근거지를 세웠다. 우리 당은 무장 투쟁이라는 이 주요한 투쟁 형태를 기타의 필요한 많은 투쟁 형태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배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장 투쟁을 로동자의 투쟁, 농민의 투쟁(이것이 주요한 것이다), 청년과 여성 및 인체 인민들의 투쟁, 정권을 위한 투쟁, 강제 전선에서의 투쟁, 앞잡이 숙청 전선에서의 투쟁, 사상 전선에서의 투쟁 등등의 투쟁 형태와 전국적인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배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장 투쟁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령도 하의 농민의 토지 혁명 투쟁이다. 제 3 단계는 지금의 항일 전쟁 단계이다. 우리는 이 단계에 와서 과거 제 1 단계에서의 특히 제 2 단계에서의 무장 투쟁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장 투쟁의 형태와 기타 각종 필요한 투쟁 형태를 서로 배합시킨 경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장 투쟁의 일반적 개념은 지금에 있어서는 곧 유격 전쟁이다[2]. 유격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라후한 국가에서, 반식민지적 큰 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민의 무장력이 무장한 적을 타승하며 자기의 진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따라서 또 가장 좋은 투쟁 형태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당 건설은 이 투쟁 형태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다. 무장 투쟁을 떠나서는, 유격 전쟁을 떠나서는 우리의 정치 로선을

리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당 건설도 리해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 로선의 중요한 일부분은 무장 투쟁이다. 지난 18 년 동안 우리 당은 점차 무장 투쟁을 배웠으며 또 그것을 견지하여 왔다. 우리는 중국에서 무장 투쟁을 떠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지위가 없으며 인민의 지위가 없으며 공산당의 지위가 없으며 혁명의 승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8 년 동안 우리 당의 발전, 공고화 및 불쇄위크화는 혁명 전쟁 과정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무장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공산당이 있을 수 없다. 전체 당원 동지들은 피로써 바꾸어 온 이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의 건설 과정, 당의 발전과 공고화와 불쇄위크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1 단계는 당의 유년 시기이다. 이 단계의 초기와 중기에는 당의 로선이 정확하였고 당원 대중과 당 간부의 혁명적 적극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 1 차 대혁명의 승리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당은 아직 청소한 당이었으며 통일 전선, 무장 투쟁 및 당 건설이란 이 세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당이었으며 중국의 역사적 정형 및 사회적 정형, 중국 혁명의 특성, 중국 혁명의 법칙에 대하여 그다지 많이 알지 못 하는 당이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에 대하여 아직 완전하게, 통일시켜서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당이었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 기관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성원들은 이 단계의 말기에, 즉 이 단계의 긴요한 고비에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 데로 전 당을 령도

하지 못 하고 부르조아지의 기만에 넘어 가 혁명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였다. 이 단계에 있어서 당의 조직이 발전되기는 하였으나 공고히 되지 못 하였고 당원과 당 간부를 사상 및 정치적으로 건강히 하지 못 하였다. 신입 당원이 매우 많았으나 그들에게 필요한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을 주지 못 하였다. 사업 경험도 적지 않았으나 그것을 잘 총화하지 못 하였다. 당내에 많은 투기 분자들이 잠입하였으나 그들을 숙청하지 못 하였다. 당은 적과 동맹자의 음모 체계의 포위 속에 처하여 있었으나 경각성이 없었다. 당내에 많은 활동 분자들이 배출되었으나 미처 그들을 당의 중견으로, 골간으로 길러 내지 못 하였다. 당의 수중에는 혁명적 무장력이 있었으나 그것을 튼튼히 장악하지 못 하였다. 이 모든 정형들은 경험이 없고 심각한 혁명적 인식이 부족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을 중국 혁명의 실천에 잘 결부시키지 못한 데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당 건설의 제 1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토지 혁명 전쟁의 단계이다. 제 1 단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적 정형 및 사회적 정형, 중국 혁명의 특성, 중국 혁명의 법칙에 대하여 가일층 리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간부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을 더 깊이 체득하였고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을 중국 혁명의 실천에 결부시키는 것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당은 10 년 간의 토지 혁명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비록 부르조아지가 배반하였지만 그러나 당은 농민에게 튼튼히 의거할 수 있었다. 당 조직은 다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고히 되었

다. 적들이 매일과 같이 우리 당을 암해하려 하였으나 당은 암해 분자들을 몰아 내었다. 대량의 간부가 다시금 당내에서 배출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의 중심적 골간으로 되었다. 당은 인민 정권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그리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예술도 배웠다. 당은 건강한 무장 부대를 창건하였으며 그리 하여 전쟁의 예술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당의 거대한 진보이며 커다란 성공이다. 그러나 일부 동지들은 이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 기회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렸거나 또는 빠진 일이 있었다. 이 역시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허심히 배우려 하지 않고 중국의 역사적 정형 및 사회적 정형, 중국 혁명의 특성, 중국 혁명의 법칙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 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에 대하여 통일시켜서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온 것이다. 때문에 당의 지도 기관 내의 일부 사람들은 이 단계 전체를 통하여 정확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당과 혁명은 한때 리 립산 동지의 《좌》경 기회주의에 의한 손해를 입었으며 한때는 또 혁명 전쟁에서의 《좌》경 기회주의와 백색 지구 공작에서의 《좌》경 기회주의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 준의 회의(1935년 1월 귀주성 준의에서 소집된 중앙 정치국 회의) 후에 이르러서야 당은 완전히 볼셰위크화의 길에 들어 섰으며 후일에 장 국도의 우경 기회주의를 타승하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것이 당의 발전 과정의 제 2 단계이다. 당의 발전 과정의 제 3 단계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이미 3 년을 경과하였으며 이 3 년 간의 투쟁은 아주 위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은 과거의 두 혁명 단계에서의 경험에 의거하여, 당의 조직 역량과 무장력에 의거하여, 전국 인민 가운데서의 당의 높은 정치적 신망에 의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을 더욱 심각히 더욱 통일시켜서 이해한 데 의거하여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항일 전쟁을 진행하여 왔다. 당의 조직은 이미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전국성을 띤 정당으로 되었다. 당의 무장력도 일본 침략자와의 투쟁 과정에서 또다시 자라 났으며 더한층 굳세어졌다. 전국 인민 가운데서의 당의 영향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성공이다. 그러나 수 많은 신입 당원들은 아직 교양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수 많은 새 조직들은 아직 공고히 되지 못 하고 있으며 그들과 로당원 및 오랜 조직과의 사이에는 아직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수 많은 신입 당원과 새 간부에게는 아직 충분한 혁명 경험이 없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적 정형 및 사회적 정형, 중국 혁명의 특성, 중국 혁명의 법칙에 대하여 아직 모르거나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못하다. 그들이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을 완전하게, 통일시켜서 이해하게 되자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과거 당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중앙은 《대담하게 발전시키되 나쁜 분자를 하나도 잠입하지 못 하게 하라》는 구호를 강조하여 제기하였으나 실제 상 많은 투기 분자와 적의 압해 분자들이 잠입하였다. 통일 전선이 결성되었고 또

그것이 3년 간 견지되고는 있지만 부르쵸아지 특히 대부르쵸아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당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대부르쵸아지의 투항과 및 완고파가 지휘하는 엄중한 마찰 투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공의 소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대부르쵸아지의 투항과 및 완고파는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에 투항하며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며 중국을 뒤로 끌어당겨 퇴보시키기 위한 준비로 삼고 있다. 대부르쵸아지는 사상 면에서 공산주의를 《용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정치면, 조직 면에서 공산당을 없애 버리며 변구를 없애 버리며 당의 무장력을 없애 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우리의 임무는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투항, 분열 및 퇴보의 위협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민족 통일 전선을 유지하며 국공 합작을 유지함으로써 항일을 계속하며 단결을 계속하며 진보를 계속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돌발적 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 당과 혁명으로 하여금 그 돌발적 사변에서 의외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을 공고히 하며 당의 무장력을 공고히 하며 또 전국 인민을 동원하여 투항, 분열, 퇴보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의 완수는 전 당'적 노력에 달려 있으며 전체 당원, 당의 간부, 각지의 각급 당 조직의 더욱더 완강한 백절불굴의 투쟁에 달려 있다. 18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경험 있는 로당원, 로간부와 새로운 혈액을 가진 생기 발랄한 신입 당원, 신간부가 서로

협력하는 정황 하에서, 풍랑을 겪어 온 불쇄위크화된 중앙과 지방 조직이 서로 협력하는 정황 하에서, 건강한 무장력과 진보적 인민 대중이 서로 협력하는 정황 하에서 이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18 년 간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주요한 경력이며 주요한 문제들이다.

18 년 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통일 전선과 무장 투쟁이 적을 타승하는 두 가지 기본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통일 전선은 무장 투쟁을 실행하는 통일 전선이다. 당의 조직은 통일 전선과 무장 투쟁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장악하고 적진에 돌진하는 영용한 전사이다. 이것이 바로 삼자간의 호상 관계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전국적 범위의, 광범한 대중성을 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고한, 불쇄위크화한 중국 공산당》을 건설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역사를 고찰하여 보면 알 수 있으며 당 건설 문제를 통일 전선 문제, 무장 투쟁 문제와 연결시켜 보고 당 건설 문제를 부르조아지와 연합도 하고 투쟁도 하는 문제, 팔로군과 신사군의 항일 유격 전쟁의 견지 및 항일 근거지의 창설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알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권을 통일시켜서 이해한 데 근거하여 18 년 간의 경험과 현하의 생생한 경험을 총화하고 그것을 전 당내에 전파함으로써 당을 강철 같이

공고히 하며 역사적으로 범하였던 오류를 거듭하지 않게 하는 것——이것이 곧 우리의 임무이다.

## 주 해

[1] 쓰딸린의 《중국 혁명의 전망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2] 모택동 동지가 여기서 중국 혁명에서의 무장 투쟁의 일반적 개념은 유격 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으로부터 항일 전쟁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혁명 전쟁의 경험을 총화하여 말한 것이다. 장구한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중국 공산당이 명도한 무장 투쟁은 모두가 유격 전쟁이었다. 이 시기의 후반 단계에 와서 홍군 전력의 장성에 따라 유격전은 유격성운 먼 운동전(이러한 운동전은 모택동 동지의 규정에 의하면 제고된 유격 전쟁이다)으로 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항일 전쟁 기간에 있어서 적정의 변화에 의하여 이러한 유격성운 먼 운동전은 다시 유격 전쟁으로 전화되었다. 항일 전쟁의 초기에 당내에서 우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한 동지들은 당이 명도하는 유격 전쟁을 경시하고 국민당 군대의 작전이나 자기들의 희망을 두었다. 모택동 동지는 《항일 유격 전쟁의 전략 문제》, 《지구전에 대하여》 및 《전쟁과 전략 문제》 등 저작에서 그러한 견해들을 탄박하였으며 또 이 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 혁명의 무장 투쟁이 유격 전쟁의 형태를 취하여 온 경험을 이론적으로 총화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무장 투쟁은 항일 전쟁의 후기에 이르러 득히는 제 3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혁명 전력의 새로운 장성과 적정의 새로운 변화로 만미암아 전쟁의 주요 형태가 유격 전쟁으로부터 정규 전쟁으로 전화되었으며 제 3 차 국내 혁명 전쟁의 후기에 와서는 더 나아가서 대량의 중무기를 사용하는, 공성전까지 포함한 대병단 작전으로 발전되었다.



## 현 정세와 당의 과업\*

(1939년 10월 10일)

(1) 제국주의 세계 대전의 폭발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 나려는 데 기인된 것이다. 전쟁의 성격은 독일 측이나 영국, 프랑스 측이나를 물론하고 모두 부정의적, 약탈적 제국주의 전쟁이다. 전 세계의 공산당은 이러한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쟁을 지지하고 프로레타리아트를 팔아 먹는 사회민주당의 최악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소련은 여전히 평화 정책을 견지하여 교전 쌍방에 대하여 중립을 엄수하고 있으며 뿔스까에 출병하는 행동으로써 독일 침략 세력의 동부예로의 팽창을 제지하고 동구라과의 평화를 공고히 하며 뿔스까 통치자의 억압을 받던 서부 우크라이나 및 백로씨야 형제 민족들을 해방시켰다. 소련은 자기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각종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 반동 세력으로부터의 있을 수 있는 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결정서이다.

(2) 새로운 국제 정세 하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은 장차 국제적으로 그의 모험적 행동을 확대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중국을 진공함으로써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하는 것이다. 중국 문제의 해결에 사용하려는 그들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점령 지역에 대하여서는 전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항일 유격 근거지를 《소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 개발과 괴뢰 정권 수립이 필요하며 중국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없애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의 후방에 대하여서는 정치적 진공을 주로 하고 군사적 진공을 부차적으로 한다. 정치적 진공이란 대규모적인 군사적 진공에 주력하지 않고 항일 통일 전선을 분화시키며 국공 합작을 분렬시키며 국민당 정부를 투항으로 유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현시기에 있어서 적들은 지난 2년 남짓한 동안 중국의 영용한 항전에 의하여 타격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병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무한을 진공하던 때와 같은 그러한 대규모적인 전략적 진공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할 때 항전의 전략적 대치 단계는 기본 상 이미 닥쳐 왔다. 이런 전략적 대치 단계는 즉 반공격 준비 단계이다. 그러나 첫째, 우리가 대치 국면이 기본 상 이미 닥쳐 왔다고 말한다 하여 그것은 결코 적이 아직 일부 전역적 진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적들은 장사를 진공하고 있고 앞으로 또 기타 약간의 지구를 진공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정면에서의 대치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적들은 우리 유격 근거지에 대한 《소탕》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셋째, 만일 중국이 적의 점령지를 파괴하지 못 하여 적들이 자기의 점령지를 확보하고 점령지를 영위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또 만일 중국이 적의 정치적 진공을 격퇴하지 못 하고 항전과 단결과 진보를 견지하지 못 하여 반공격력을 준비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국민당 정부가 자진하여 투항하게까지 된다면 장래에 적들이 대거 진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닦쳐 온 대치 국면은 여전히 적과 투항파에게 파괴 당할 가능성이 있다.

(3) 항일 통일 전선 내에 있어서의 투항의 위협, 분렬의 위협 및 퇴보의 위협은 여전히 현 시국에서 가장 큰 위협이며 목전의 반공산당 현상 및 퇴보 현상은 여전히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투항 준비의 절차이다. 우리의 과업은 여전히 전국의 일체 애국 분자와 협력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우리 당의 《7.7 선언》에서 제기한 《항전을 견지하고 투항을 반대하자》, 《단결을 견지하고 분렬을 반대하자》, 《진보를 견지하고 퇴보를 반대하자》는 3대 정치적 구호를 철실히 실행함으로써 반공격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의 후방에서는 유격 전쟁을 견지하여 적의 《소탕》을 다승하며 적의 점령지를 파괴하며 광범한 항일 민중에게 유리한 급진적인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면에

있어서는 군사적 방어를 견지하며 적의 있을 수 있는 모든 전역적 진공을 격퇴하여야 한다. 우리의 후방에 있어서는 신속하고도 참담하게 정치적 개혁을 실시하며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종결시키며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권력을 가진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헌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동요와 해태도, 이와 배치되는 어떠한 방침도 모두 절대적인 오류이다. 동시에 우리 당의 각급 지도 기관과 전체 동지들은 현 시국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전력을 다하여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우리 당을 공고히 하며 당이 령도하는 군대와 정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중국 혁명에 손실을 끼치는 돌발적 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 당과 혁명으로 하여금 있을 수 있는 돌발적 사변에서 의외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인을 대량적으로 흡수하자\*

(1939년 12월 1일)

1. 장기적이고 가혹한 민족 해방 전쟁에 있어서, 새 중국을 창건하는 위대한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은 지식인을 받아 들일 줄 알아야만 위대한 항전 령량을 조직하며 천백만 농민 대중을 조직하며 혁명적 문화 운동을 발전시키며 혁명적 통일 전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식인의 참가가 없이는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2. 지난 3년 동안 우리 당과 우리 군대는 지식인을 받아 들이는 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수많은 혁명적 지식인을 당에 참가시키고 군대에 참가시키고 정부 사업에 참가시켜 문화 운동과 민중 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통일 전선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군대 내의 많은 간부들은 아직도 지식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지식인을 두려워 하며 심지어는 지식인을 배척하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는 아직도 청년 학생을 마음 놓고 대량적으로 모집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결정서이다.

하지 못 하고 있다. 많은 지방 당부들에서는 아직도 지식인을 당에 받아 들이기 싫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혁명 사업에 대한 지식인들의 중요성을 알지 못 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지식인과 자본주의 국가의 지식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 하며 지주, 부르주아지를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과 로농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 하며 부르주아 당들이 지금 우리와 결사적으로 지식인을 쟁탈하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도 각종 방법으로 중국의 지식인을 매수하고 마취시키고 있는 그 엄중성을 알지 못 하며 특히 우리 당과 군대에는 이미 중견 핵심이 형성되어 지식인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는 이 유리한 조건을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금후 주의하여야 할 점은 (1) 전쟁 지구에 있는 모든 당 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모든 군대는 지식인을 대량적으로 우리의 군대에 받아 들이며 우리의 학교에 받아 들이며 정부 사업에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항일하기를 원하며 비교적 충실하고 비교적 곤난을 이겨 낼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그들을 다방면으로 받아들여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전쟁 및 사업 과정에서 단련시키며 군대, 정부와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체적 정황에 따라 입당 조건이 구비된 일부 지식인들을 입당시켜야 한다. 입당할 수 없거나 입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부 지식인에 대하여서도 그들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사업하여야 한다. (2) 대량적으로 받아 들이는 이러한 정

책 하에서 적과 부르조아 당이 파견하여 보낸 분자들의 잠입과 충실하지 못한 분자들의 잠입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분자들을 방지하는 데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 당, 우리 군대 및 정부에 잠입한 이러한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 그들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분간하여 숙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비교적 충실한 지식인을 의심하여서는 안 되며 좋은 사람에 대한 반혁명 분자들의 모함을 엄격히 방지하여야 한다. (3) 다소라도 쓸모가 있는 비교적 충실한 모든 지식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적당한 사업을 분배하여 주어야 하며 그들을 잘 교양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장기적 투쟁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약점을 극복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화하고 대중화하게 하며 로당원, 로간부와 어울리게 하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당원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4) 지식인을 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간부, 특히 주력 부대 내의 일부 간부들에 대하여서는 잘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식인을 사업에 참가시킬 필요성을 알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습에 힘 쓰도록 로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들을 잘 고무하여 주어 그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 간부의 지식인화 및 지식인의 로농 대중화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당 통치구와 일본 침략자의 점령구에서도 기본 상 상술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식인을 입당시킬 때에는 그 충실성의 정도에 더한층 주의를 돌려 당

조직의 가일층의 엄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에 공명하는 광범한 당외 지식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어 그들을 항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투쟁으로 조직하며 문화 운동으로 조직하며 통일 전선의 사업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4. 전 당 동지들은 지식인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혁명 승리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당은 토지 혁명 시기에 많은 지방에서와 많은 군대들에서 지식인에 대하여 취하였던 부정확한 태도가 금후 중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지식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사회에 현존하는 지식인의 방조를 떠날 수 없다. 중앙은 각급 당 위원회 및 전 당의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

(1939년 12월)

## 제 1 장 중국 사회

### 제 1 절 중화 민족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하나이며 그 정도는 전 구라파주의 면적과 거의 같다. 이 광활한 정도 우에는 우리에게 의식의 원천을 제공하여 주는 광대한 기름진 땅이 있으며 우리에게 광대한 삼림을 길러 주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저장하고 있는, 전국을 가로세로 뻗어 나간 대소 산맥들이

---

\*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은 1939년 겨울에 모택동 동지가 연안에 있던 기타 몇몇 동지들과 함께 쓴 교재이다. 제 1 장 《중국 사회》는 기타 몇몇 동지들이 기초하고 모택동 동지의 수정을 거친 것이다. 제 2 장 《중국 혁명》은 모택동 동지가 친히 쓴 것이다. 제 3 장으로는 《당 건설》을 쓸 예정이었으나 집필을 담당할 동지가 원고를 다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 그러나 이 두 장은, 특히 제 2 장은 외연히 중국 공산당 내에서와 중국 인민들 가운데서 커다란 교육적 역할을 놀았다. 모택동 동지는 이 소책자의 제 2 장에서 서술한 신민주주의에 관한 관점을 1940년 1월에 쓴 《신민주주의론》에서 크게 발전시켰다.

있으며 우리에게 수상 운수와 판개의 편익을 주는 많은 하천과 호소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해외 여러 민족들과의 교통의 편의를 주는 기나 긴 해안선이 있다. 오랜 옛적부터 우리 중화 민족의 선조들은 이 광활한 대지에서 로동하여 왔으며 살아 왔으며 중식하여 왔다.

지금 중국의 국경은 동북부, 서북부 및 서부의 일부가 쑸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런맹과 잇대어 있으며 북부는 몽골 인민 공화국과 잇대어 있으며 서부의 일부 및 서남부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부탄, 네팔과 잇대어 있으며 남부는 버마, 쉐남과 잇대어 있으며 동부는 조선과 잇대어 있으며 일본 및 필리핀과 근접하여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국제 환경은 중국 인민의 혁명에 외부적인 유리한 조건들과 곤란한 조건들을 지어 주고 있다. 유리한 것은 쑸련과 잇대어 있고 구미의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위에 있는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라는 것이다. 곤란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과 근접하여 있는 관계를 리용하여 항상 중국 제 민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의 혁명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중국의 인구는 4억 5천만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4억 5천만 인구 중에서 그 90% 이상이 한족이다. 이 밖에 또 몽고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소수 민족이 있으며 그 문화 발전의 정도는 다르지만 다 자기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여러 민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중화 민족은 자기의 발전 행정(여기서는 주로 한족을 두고 말한다)에서 세계의 다른 많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일찍 계급이 없는 몇 만 년 간의 원시 공동체의 생활을 거쳤다. 원시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 생활이 계급 생활에로 들어선 그 시대로부터 노예 사회, 봉건 사회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4,000 년이나 된다. 중화 민족의 문명사에는 예로부터 발달되기로 이름 난 농업과 수공업이 있으며 많은 위대한 사상가, 과학자, 발명가, 정치가, 군사가, 문학가 및 예술가가 있으며 풍부한 문화 고전이 있다. 오랜 옛날에 중국에서는 벌써 지남침을 발명하였다[1]. 1,800 년 전에 벌써 제지법을 발명하였다[2]. 1,300 년 전에는 목판 인쇄를 발명하였다[3]. 800 년 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활자 인쇄를 발명하였다[4]. 화약의 응용[5]도 구라과 사람들보다 앞섰다. 그러므로 중국은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일찍 발달된 나라의 하나이며 중국은 근 4,000 년에 걸친,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화 민족은 그 인내력과 근로성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자유를 지극히 사랑하며 풍부한 혁명적 전통을 가진 민족이다. 한족의 역사를 레로 들어 보더라도 중국 인민은 암흑 세력의 통치에 굴하지 않는 인민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그들은 그런 때마다 혁명적 수단으로써 이러한 통치를 전복 또는 개조하였던 것이다. 한족의 수천 년의 역사에는 지주와 귀족의 암흑 통치에 반항하여 일어난 대소 수백 차의 농민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왕조

들의 교체는 다 농민 봉기의 역량에 의하여서만 성공될 수 있었다. 중화 민족 내의 제 민족 인민들은 외래 민족의 억압을 반대하며 모두 반항의 수단으로써 이러한 억압을 물리쳤다. 그들은 호상간의 억압을 찬성하지 않고 평등적인 연합을 찬성한다. 중화 민족의 수천 년의 력사에서 많은 민족 영웅과 혁명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므로 중화 민족은 또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우수한 력사적 유산을 가진 민족이다.

## 제 2 절 고대의 봉건 사회

비록 중국은 위대한 민족의 국가이며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력사가 유구하고 풍부한 혁명 전통과 우수한 유산을 가진 나라이지만 노예 제도를 벗어 나서 봉건 제도로 들어선 후에 그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은 오래 동안 완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봉건 제도는 주조, 진조 때부터 시작되어 약 3,000 년 동안이나 줄곧 지속되었다.

중국 봉건 시대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자급 자족의 자연 경제가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수공업 제품도 자체로 생산하였다. 지주와 귀족들도 농민에게서 착취한 소작료를 교환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소비에 충당하였다. 당시에 교환이 발전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전반 경제에

서 결정적 역할을 놓지는 못 하였다.

2. 봉건적 지배 계급——지주, 귀족 및 황제는 최대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농민은 극히 소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은 자기의 농기구를 가지고 지주, 귀족, 황실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그 수확의 4 할, 5 할, 6 할, 7 할 심지어는 8 할 이상을 지주, 귀족 및 황실에 바쳤다. 이러한 농민들은 실제 상 그 대로 농노였다.

3. 지주, 귀족 및 황실이 농민들에게서 착취한 소작료에 의하여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주 계급의 국가도 농민에게 공물과 세금을 강요하며 농민에게 무상 로역을 강요하여 수많은 국가 관리들과 주로 농민을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군대를 먹여 살리었다.

4. 이러한 봉건적 착취 제도를 보호하는 권력 기관은 지주 계급의 봉건 국가였다. 가령 진조 이전의 시대를 제후가 할거하여 패권을 잡고 있는 봉건 국가였다고 한다면 진 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부터는 전제주의적인 중앙 집권적 봉건 국가가 수립되었으며 동시에 어느 정도로 봉건적 할거 상태가 여전히 보전되고 있었다. 봉건 국가에 있어서 황제는 지고 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방에는 군사, 사법, 재정, 세무 등의 사무를 관리하는 관직을 두었으며 동시에 지주, 신사들을 전반 봉건 통치의 기초로 삼고 그에 의지하였다.

중국의 력대의 농민들은 이러한 봉건적인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 하에서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적 생활을 하여 왔다. 봉건 제도의 속박 하에 있는 농민에게는 인신의 자유가 없었다. 지주는 농민을 마음 대로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권리도 없었다. 이와 같이 지주 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의하여 조성된 농민의 극도의 빈궁과 락후성은 바로 중국 사회가 경제 및 사회 생활에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침체 상태에 처하게 된 기본 원인이다.

봉건 사회의 주요 모순은 농민 계급과 지주 계급과의 모순이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농민과 수공업 노동자만이 물질적 부와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적 계급이었다.

농민에 대한 지주 계급의 가혹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은 농민으로 하여금 지주 계급의 통치에 반항하여 여러 차례의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진조 때의 진 승, 오 팡, 함 우, 류 방<sup>[6]</sup>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조 때의 신시, 평립, 적미, 동마<sup>[7]</sup> 및 황건<sup>[8]</sup>, 수조 때의 리 밀, 두진덕<sup>[9]</sup>, 당조 때의 왕 선지, 황 소<sup>[10]</sup>, 송조 때의 송 강, 방 략<sup>[11]</sup>, 원조 때의 주 원장<sup>[12]</sup>, 명조 때의 리 자성<sup>[13]</sup>을 거쳐 청조 때의 태평 천국<sup>[14]</sup>에 이르기까지 도합 대소 수백 차례에 달하는 봉기는 모두 농민의 반항 운동이었으며 농민의 혁명 전쟁이었다. 중국 력사 상의 농민 봉기와 농민 전쟁은 그 규모가 크기로는 세계 력사 상에서 보기 드물다. 중국 봉건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농민의 계급 투쟁, 농민의 봉기, 농민

의 전쟁만이 력사 발전의 진정한 동력이었다. 왜냐 하면 비교적 큰 농민 봉기와 농민 전쟁이 있었을 때마다 그 결과는 당시의 봉건 통치에 타격을 줌으로써 다소나마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추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새로운 생산력과 새로운 생산 관계가 없었으며 새로운 계급적 역량도 없었으며 선진적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 봉기와 농민 전쟁은 오늘 프롤레타리아트 및 공산당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그런 정확한 령도를 받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당시의 농민 혁명은 번마다 실패로 돌아 갔으며 번마다 혁명 과정에서와 혁명 후에 있어서 지주와 귀족에 의하여 왕조를 교체하는 도구로 리용되었던 것이다. 이리 하여 배차의 대규모적인 농민 혁명 투쟁이 끝난 후 사회가 다소 진보하기는 하였으나 봉건적 경제 관계 및 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대로 존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형은 최근 100 년에 와서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 제 3 절 현대의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

중국의 지난 3,000 년 동안의 사회가 봉건 사회였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사회는 아직도 완전한 봉건 사회인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변화되었다. 1840년의 아편 전쟁[15] 후부터 중국은 일보 일보 반

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 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1931년의 9. 18 사변 후부터 중국은 또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 변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제 2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봉건 사회는 약 3,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 세기 중엽에 이르러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내부에 비로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봉건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상품 경제의 발전은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를 배태하고 있었으므로 가령 외국 자본주의의 영향이 없었다 하여도 중국은 역시 완만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은 이러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외국 자본주의는 중국의 사회 경제에 대하여 커다란 분해 작용을 일으켰다. 일방으로는 중국의 자급 자족적인 자연 경제의 토대를 파괴하고 도시의 수공업 및 농민의 가내 수공업을 파괴하였으며 타방으로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형은 중국 봉건 경제의 토대에 대하여 해체적 작용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중국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대하여 약간의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었다. 왜냐 하면 자연 경제의 파괴는 자본주의를 위하여 상품 시장을 조성하였으며 농민과 수공업자의 대량적 파산은 또 자본주의를 위하여 노동력 시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상 외국 자본주의의 자극과 봉건적 경제 구조의 부분적인 파괴로 말미암아 19 세기 하반기에, 즉 60 년 전에 벌써 일부 상인, 지주 및 관료들은 신식 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19 세기 말엽과 20 세기 초엽에 이르러, 즉 40 년 전에 중국의 민족 자본주의는 초보적인 발전을 가져 오기 시작하였다. 20 년 전, 즉 제 1 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 시기에 와서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에 바빠서 중국에 대한 억압을 일시 늦추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 공업, 주로는 방직업과 제분업이 또 가일층의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중국 민족 자본주의의 발생 및 발전의 과정은 곧 중국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산생 및 발전의 과정이다. 일부의 상인, 지주 및 관료들이 중국 부르주아지의 전신이라고 한다면 일부의 농민과 수공업 노동자들은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신이다. 중국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두 개의 특수한 사회적 계급으로서 본다면 그들은 중국 역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 산생된 계급이다.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나온 그들은 새로운 사회적 계급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서로 련관되며 또 서로 대립되는 두 계급이며 중국의 구사회(봉건 사회)가 낳은 쌍둥이다. 그러나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중국 민족 부르주아지의 산생 및 발전에 동반하여 산생,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동반하여 산생,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주 큰 일부분은 중국 부르주아지에 비하여 나이와 자격에 있어서 한층 우이며 따

라서 그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기초도 보다 광대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자본주의의 발생 및 발전——이 새로운 변화는 제국주의가 중국에 침입한 후에 발생한 변화의 일면일 따름이다. 또 이 변화와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 변화를 저애하는 다른 일면이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중국의 봉건 세력과 결합하여 중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는 그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 침입한 목적은 건코 봉건적인 중국을 자본주의적인 중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목적은 이와 반대로 중국을 자기들의 반식민지 및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강압 수단을 써 왔고 또 계속 쓰고 있으며 그리 하여 중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반식민지 및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1. 중국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침략 전쟁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1840년의 영국의 아편 전쟁, 1857년의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전쟁<sup>[16]</sup>, 1884년의 중국-프랑스 전쟁<sup>[17]</sup>, 1894년의 중일 전쟁, 1900년의 8 개국 연합군의 전쟁<sup>[18]</sup>이 바로 그것이다. 전쟁으로 중국을 패배시킨 후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의 주위에 있는, 원래 중국이 보호하던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일부 영토를 강탈하였거나 《조차》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대만과 땡호 열도를 점령하고 려순을 《조차》하였으며 영국은 향항을 점령하였으며 프랑스

는 광주만을 《조차》하였다. 령토를 떼여 간 외에 또 거액의 배상금을 빼앗아 갔다. 이리 하여 중국이라는 이 방대한 봉건 제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2.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을 강압하여 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불평등 조약에 근거하여 중국에 있어서의 해군 및 육군의 주둔권을 얻었으며 령사 재판권<sup>[19]</sup>을 얻었으며 또 전 중국을 몇 개의 제국주의 국가의 세력 범위로 획분하였다<sup>[20]</sup>.

3. 제국주의 열강은 불평등 조약에 근거하여 중국의 모든 중요한 통상 항구들을 자기 손에 틀어 쥐었으며 또 많은 통상 항구에서 일부의 땅을 떼 내어 그들이 직접 관할하는 조계지<sup>[21]</sup>로 만들었다. 그들은 중국의 해판 및 대외 무역을 자기 손에 틀어 쥐었으며 중국의 교통 사업(해상, 육상, 내하 및 공중의)을 자기 손에 틀어 쥐었다. 그리 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대량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을 자기들의 공업품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또 중국의 농업 생산을 제국주의의 수요에 복종시켰다.

4. 제국주의 열강은 또 중국의 원료와 령가의 노동력을 직접 리용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많은 경공업 및 중공업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의 민족 공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중국의 생산력 발전을 직접 조애하고 있다.

5.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 정부에 차관을 주며 중국에 은행을 설치함으로써 중국의 금융과 재정을 독점하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상품 경쟁에서 중국의 민족 자본주의를 압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에 있어서도 중국의 숨통을 틀어 쥐게 되었다.

6. 제국주의 력강은 광범한 중국 농민 및 기타의 인민 대중에 대한 자기들의 착취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의 통상 도시로부터 궁벽한 촌락에 이르기까지 매관적이며 상업 고리대적인 착취망을 늘어 놓았으며 제국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매관 계급과 상업 고리 대금업자 계급을 형성하여 놓았다.

7. 제국주의 력강은 매관 계급 외에 또 중국의 봉건 지주 계급을 자기들의 중국 통치를 위한 기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우선 이전 사회 제도의 지배 계급——봉건 지주 및 상업, 고리 대금업 부르주아지들과 연합하여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민을 반대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가는 곳마다에서(특히 농촌에서) 자기들의 반동적 동맹자의 생존의 기초인, 자본주의에 선행한 모든 착취 형태를 보전하며 또 그것을 영구화하려고 애 쓴다》(22). 《중국에서 자기의 모든 금융적 및 군사적 위력을 가진 제국주의는 봉건 잔재와 이 잔재의 모든 관료 군벌적 상부 구조를 지지하며 교취하며 배양하며 보존하는 힘이다》(23).

8. 중국 군벌들의 혼전을 빚어 내며 중국 인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력강은 중국 반동 정부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많은 군사 교문을 파견하였다.

9. 제국주의 력강은 위에서 말한 그러한 모든 방법들 외에 또 중국 인민의 정신을 마취시키는 면에 대하여서도 등한

히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문화 침략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의 전도, 병원의 설립, 학교의 설립, 신문의 발행, 유학생의 흡수 등은 바로 이 침략 정책의 실시이다. 그 목적은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지식인 간부를 양성하며 광범한 중국 인민을 우롱하려는 데 있다.

10. 1931년 《9. 18》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대거 진공은 이미 반식민지로 된 중국의 한 넓은 지역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우에서 말한 정형들이 바로 제국주의가 중국에 침입한 후에 생긴 새로운 변화의 또 한 개의 면이며 봉건적 중국을 반봉건, 반식민지 및 식민지적 중국으로 전락시킨 피어린 한 폭의 그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령강의 중국 침략은 일방으로 중국 봉건 사회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요소의 발생을 촉진시켜 봉건 사회를 반봉건 사회로 전환시켰지만 타방으로 또 중국을 잔혹하게 통치하여 독립적 중국을 반식민지 및 식민지적 중국으로 전락시켰다.

이 두 개 면의 정형을 종합하여 말한다면 우리의 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봉건 시대의 자급 자족적 자연 경제의 토대는 파괴되었지만 봉건적 착취 제도의 근거——농민에 대한 지주 계급의 착취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관자

본 및 고리대 자본의 착취와 결합되어 중국의 사회 경제 생활에 있어서 현저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2. 민족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였고 또 중국의 정치,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자못 큰 역할을 놓고 있으나 그것이 중국 사회 경제의 주요 형태로는 되지 못 하고 있으며 그力量은 매우 연약하며 그 대부분은 외국 제국주의 및 국내 봉건주의와 다소간 다 련계를 가지고 있다.

3. 황제와 귀족의 전제 정권은 전복되고 이에 대신하여 생긴 것은 처음에는 지주 계급의 군벌 관료의 통치이며 다음에는 지주 계급과 대부르조아지와의 동맹의 독재이다. 그리고 피점령 지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및 그 괴뢰들의 통치이다.

4. 제국주의는 중국의 재정, 경제적 명맥을 조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力量을 조종하고 있다. 피점령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독점되고 있다.

5.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의 통치 혹은 반(半)통치 하에 있으며 실제 상 장기적으로 불통일 상태에 처하여 왔으며 또 령토가 팽대하기 때문에 그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발전이 극단적인 불균형성을 보여 주고 있다.

6.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의 이중 압박으로 말미암아, 특히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거 진공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광범한 인민, 더우기 농민들은 나날이 빈궁화되고 나아가서는 대량적으로 파산 당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아무런 정치

적 권리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의 빈궁과 그 부자유한 정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중국 사회의 특성이다.

이러한 정형을 결정 지어 주고 있는 것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 및 기타 제국주의 세력이며 그것은 외국 제국주의와 국내 봉건주의가 서로 결합된 결과이다.

제국주의와 중화 민족 간의 모순, 봉건주의와 인민 대중 간의 모순——이러한 것이 바로 근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물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모순, 반동적 지배 계급 내부의 모순과 같은 다른 모순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중화 민족 간의 모순이 여러 가지 모순 가운데서도 가장 주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의 투쟁 및 그 첨예화는 나날이 발전하는 혁명 운동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및 현대의 위대한 중국 혁명은 이러한 기본 모순의 기초 위에서 발생되고 발전되어 왔다.

## 제 2 장 중국 혁명

### 제 1 절 100 년 래의 혁명 운동

제국주의와 중국 봉건주의가 결합되어 중국을 반식민지 및 식민지로 전락시킨 과정은 곧 중국 인민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들에게 반항하여 온 과정이다. 아편 전쟁으로부터 태

평 천국 운동, 중국-프랑스 전쟁, 중일 전쟁, 무술 정변, 의화단 운동, 신해 혁명, 5.4 운동, 5.30 운동,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을 거쳐 지금의 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및 그 주구들에게 굴하지 않는 중국 인민의 완강한 반항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100년 이래 중국 인민의 백절불굴하고 갈수록 더 완강하여지는 영용한 투쟁은 제국주의로 하여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멸망시키지 못 하게 하였으며 또 영원히 중국을 멸망시키지 못 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그 전력을 다하여 중국을 대거 진공하고 있지만, 또 공개적인 왕 정위나 숨어 있는 왕 정위 따위와 같은 중국의 많은 지주 및 대부르조아 분자들이 이미 적에게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영용한 중국 인민은 반드시 계속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중국으로부터 몰아 내고 중국의 완전한 해방을 얻기 전에는 이 힘찬 싸움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의 민족 혁명 투쟁은 1840년의 아편 전쟁으로부터 쳐서 이미 웅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11년의 신해 혁명으로부터 치더라도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혁명의 과정은 아직 끝 나지 않았고 혁명의 임무는 아직 현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인민, 우선 중국 공산당이 건결히 투쟁할 책임을 질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 혁명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혁명의 임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혁명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 혁



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또 이 혁명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곧 우리가 아래에서 설명하려는 문제들이다.

## 제 2 절 중국 혁명의 대상

제 1 장 제 3 절의 분석에 의하여 우리는 중국의 현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성격을 띤 사회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 사회의 성격을 똑똑히 알아야만 중국 혁명의 대상, 중국 혁명의 임무, 중국 혁명의 동력, 중국 혁명의 성격, 중국 혁명의 전망 및 그 전환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의 성격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의 실정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은 모든 혁명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는 기본적인 근거이다.

중국의 현 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혁명의 주요한 대상 혹은 주요한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이며 제국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지와 자국의 지주 계급이다. 왜냐 하면 현 단계의 중국 사회에 있어서 중국 사회의 발전을 억압하고 저지하는 주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량자이기 때문이다. 이 량자가 서로 결탁하여 중국 인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의 민족적 억압이 가장 큰 억압이므로 제국주의는 중국 인민의 첫째로 가는 그리고 가장 흉악한 적이다.

일본이 무력으로 중국에 침입한 후 중국 혁명의 주요한 적은 일본 제국주의 및 일본과 결탁하여 공개적으로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들이다.

중국의 부르조아지도 본래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아 왔으며 그들은 또 한때 신태 혁명과 같은 혁명 투쟁을 령도하였고 주요한 명도적 역할을 놀았으며 또한 북벌 전쟁, 당면한 항일 전쟁과 같은 혁명 투쟁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부르조아지의 상층 부분, 즉 국민당 반동 집단을 대표자로 하는 그 계층은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또 지주 계급과 반동적 동맹을 결성하여 자기들을 원조하여 준 벗——공산당, 프롤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를 배반하고 중국 혁명을 배반하여 혁명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혁명적 인민과 혁명적 정당(공산당)은 이러한 부르조아 분자를 혁명의 대상의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 전쟁에 있어서 왕 정위를 그 대표자로 하는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일부분은 이미 배반하여 민족 반역자로 되었다. 그러므로 항일 인민은 민족의 리익을 배반한 이런 대부르조아 분자를 역시 혁명의 대상의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도 중국 혁명의 적이 아주 강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혁명의 적으로는 강대한 제국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봉건 세력이 있으며 또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과 결탁하여 인민을 적으로 삼

는 부르주아지의 반동과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혁명적 인민의 적의 력량을 경시하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이러한 적이 앞에 있음으로 하여 중국 혁명의 장기성과 잔혹성이 발생되었다. 우리의 적이 아주 강대하기 때문에 혁명 력량은 오랜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는 힘으로 축적, 단련될 수 없다. 중국 혁명에 대한 적의 탄압이 아주 잔혹하기 때문에 혁명 력량은 자기의 완강성을 현마, 발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진지를 고수할 수 없으며 적의 진지를 탈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혁명 력량이 순식간에 조직될 수 있다거나 중국의 혁명 투쟁이 단시일 내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이러한 적이 앞에 있음으로 하여 또한 중국 혁명의 주요한 방법과 중국 혁명의 주요한 형태는 평화적인 것일 수 없으며 반드시 무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적은 중국 인민에게 평화적 활동을 할 가능성을 주지 않으며 중국 인민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쓰딸린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혁명의 특수성의 하나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sup>[24]</sup>.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문단이다. 그러므로 무장 투쟁을 경시하며 혁명 전쟁을 경시하며 유격 전쟁을 경시하며 군대 사업을 경시하는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이러한 적이 앞에 있음으로 하여 또한 혁명의 근거지 문

제가 생겼다. 강대한 제국주의 및 중국에 있는 그의 반동적 동맹군이 노상 중국의 중심 도시들을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혁명 대렬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와 타협 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견지하려 한다면, 만일 혁명 대렬이 자기의 력량을 축적하고 단련하려 하며 력량이 부족한 때에 강대한 적과 승부를 결정하는 전투를 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면 반드시 탁후한 농촌을 선진적인 공고한 근거지로 만들며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상에서 위대한 혁명 진지로 만들어 이로써 도시에 의거하여 농촌 지역을 진공하는 훌륭한 적을 반대하여야 하며 이로써 장기적인 전투 가운데서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점차 쟁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중국 경제 발전이 균형하지 못 하기(유일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가 아니다) 때문에, 중국 령토가 광대하기(혁명 세력이 선회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중국 반혁명 진영 내부가 통일 되지 않고 각종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의 주력군인 농민의 투쟁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당인 공산당의 령도 하에 있기 때문에 일방으로는 중국 혁명이 농촌 지역에서 먼저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타방으로는 혁명의 불균형 상태가 조성되어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쟁취하는 사업에 장기성과 간고성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혁명 근거지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혁명 투쟁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서의 농민 유격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을 혁명 근거지로 삼는 것을 홀시하는 견해, 농민에 대하여 간고한 사업을 하는 것을 홀시하는 견해,

유격 전쟁을 실시하는 건해는 다 옳지 못 하다.

그러나 무장 투쟁에 치중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투쟁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무장 투쟁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 배합되지 않고서는 무장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농촌 근거지의 사업에 치중한다는 것은 도시 사업과 아직 적의 통치 하에 있는 기타 광대한 농촌에서의 사업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 사업과 기타 농촌에서의 사업이 없이는 농촌 근거지는 고립되고 혁명은 실패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혁명의 종국적 목적은 적의 주요한 근거지로 되고 있는 도시를 탈취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도시 사업이 없이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농촌과 도시에서 모두 혁명 승리를 달성하려면 인민을 반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적의 주요한 도구 즉 적의 군대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적군을 소멸하는 외에 또 적군을 와해시키는 공작도 중요한 공작으로 된다.

이 점에서도 적이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동적인 암흑한 도시와 반동적인 암흑한 농촌에서 공산당이 선전 사업과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조급중에 걸린 모험주의적 방침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활동을 은밀히 하고 인원을 알준히 하며 력량을 축적하며 시기를 기다리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을 령도하여 적과 투쟁하는 그 전술은 법률, 명령과 사회적 관습이 허락하는, 공

개적이고 합법적이며 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리용하여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건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란하게 떠들어 대거나 좌충우돌하는 방법으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제 3 절 중국 혁명의 임무

현 단계 중국 혁명의 적이 주로 제국주의와 봉건 지주 계급이라고 한다면 현 단계 중국 혁명의 임무는 무엇인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주로 이 두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억압을 전복하는 민족 혁명이고 대내적으로는 봉건 지주의 억압을 전복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임무는 제국주의를 전복하는 민족 혁명이다.

중국 혁명의 2대 임무는 서로 련관되어 있다. 제국주의는 봉건 지주 계급의 주요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봉건 지주 계급의 통치를 소멸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봉건 지주 계급은 제국주의의 중국 통치의 주요한 사회적 기초이고 농민은 중국 혁명의 주력군이기 때문에 농민을 도와 봉건 지주 계급을 전복하지 않고서는 중국 혁명의 강대한 대렬을 조직하여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 두 기본 임무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중국의 민족 혁명의 임무는 주로 국토에 침입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는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완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두 혁명의 임무는 이미 하나로 편결되어 있다. 민족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전연 다른 두 개의 혁명 단계로 갈라 놓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 제 4 절 중국 혁명의 동력

현 단계의 중국 사회의 성격, 중국 혁명의 대상, 중국 혁명의 임무의 분석 및 규정에 근거한다면 중국 혁명의 동력은 무엇인가?

중국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라면, 중국 혁명이 반대하는 대상이 주로 중국에 있어서의 외래 제국주의의 통치와 내부의 봉건주의라면, 중국 혁명의 임무가 이 두 억압자를 전복하는 것이라면 중국 사회의 각 계급 및 각 계층 중에서 어떠한 계급들, 어떠한 계층들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량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혁명의 동력 문제이다. 이 혁명의 동력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만 중국 혁명의 기본적 전술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있다.

현 단계의 중국 사회에는 어떠한 계급들이 있는가? 지주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지가 있다.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상층 부분은 중국 사회의 지배 계급이다. 또 프로레타리아트가 있고 농민 계급이 있으며 농민 이외의 각종 유형의 소부르조아지가 있다. 이 세 계급은 오늘날 중국 령토의 가장 광대한 부분에서 아직 피지배 계급으로 있다.

이 모든 계급들이 중국 혁명에 대하여 여하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 경제 면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의 성격은 혁명의 대상 및 임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또 혁명의 동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사회의 각 계급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 1. 지주 계급

지주 계급은 제국주의가 중국을 통치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초이며 봉건 제도에 의하여 농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이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 사회의 전진을 조애하는 조금도 진보적 역할을 놀지 못 하는 계급이다.

그러므로 계급으로서 볼 때 지주 계급은 혁명의 동력이 아니라 혁명의 대상이다.

항일 전쟁에 있어서 일부 대지주는 일부 대부르조아지(투항파)의 뒤를 따라 이미 일본 침략자에게 투항하여 민족 반역자로 되었으며 다른 일부 대지주는 다른 일부 대부르조아지(완고파)의 뒤를 따라 아직 항전 진영 내부에 남아 있기는 하나 역시 매우 중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 지주 출



신의 개명 신사들, 즉 약간의 자본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지주들은 아직 항일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단합하여 함께 항일하여야 한다.

## 2. 부르조아지

부르조아지는 매관성을 띤 대부르조아지와 민족 부르조아지로 구분된다.

매관성을 띤 대부르조아지는 직접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계급이며 또 그들이 길러 낸 계급이다. 그들은 농촌의 봉건 세력과 천 갈래 만 갈래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혁명사에 있어서 매관성을 띤 대부르조아지는 종래로 중국 혁명의 동력이 아니라 중국 혁명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관성을 띤 중국 대부르조아지들은 몇몇 제국주의 국가에 각각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혁명이 주로 어느 한 제국주의를 반대할 때 다른 제국주의 계통에 예속되어 있는 매관 계급은 일정한 정도로 그리고 일정한 기간 당면한 반제 전선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상권이 중국 혁명을 반대하게 되면 그들도 즉시 혁명을 반대하여 나선다.

항일 전쟁에서 친일파 대부르조아지(투항파)는 이미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미파 대부르조아지(완고파)는 아직 항일 진영 내부에 남아 있기는 하나 역시

매우 중요하고 있다. 그들은 항일을 하는 한 편 공산당을 반대하는 양면파적 인물들이다. 대부르조아지의 투항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건결히 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르조아지의 완고파에 대하여서는 혁명적 양면 정책을 취한다. 즉 일면으로는 그들이 아직 항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일본 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며 다른 일면으로는 그들이 항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반공산당, 반인민적 강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쟁이 없이는 항일과 단결에 해독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건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민족 부르조아지는 이중성을 띤 계급이다.

일면으로 민족 부르조아지는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으며 또 봉건주의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간에는 모순이 있다. 이 면에서 볼 때 그들은 혁명 력량의 하나이다. 중국의 혁명사에 있어서 그들도 한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일정한 적극성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 그들에게 경제 상 및 정치 상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와의 경제적 령계를 완전히 끊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철저히 반대할 용기가 없다. 이러한 정형은 특히 민중의 혁명 력량이 강대하여졌을 때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민족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이중성으로 하여 그들이 일정

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로 제국주의 및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혁명에 참가하여 혁명 력량의 하나로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시기에는 매관 대부르쥬아지의 뒤를 따르면서 반혁명의 조수로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결정된다.

중국에 있어서 민족 부르쥬아지, 주로 중부르쥬아지는 비록 1927년부터 1931년(9. 18 사변)까지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뒤를 따라 혁명을 반대하였으나 기본 상 그들은 정권을 장악한 적이 없었으며 집권하고 있는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반동 정책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항일 시기에 있어서 그들은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투항파와 다를 뿐 아니라 또한 대부르쥬아지의 완고파와도 다르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비교적 좋은 동맹자이다. 그러므로 민족 부르쥬아지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3. 농민 이외의 각 유형의 소부르쥬아지

농민 이외의 소부르쥬아지에는 광범한 지식인, 소상인, 수공업자 및 자유 직업자들이 포함된다.

이 모든 소부르쥬아지들은 농민 계급 중의 중농의 지위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으며 모두가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대부르쥬아지의 억압을 받아 날로 파산과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부르쥬아지들은 혁명의 동력의 하나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또 이러한 소

부르조아지들 역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만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농민 이외의 각 유형의 소부르조아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지식인과 청년 학생. 지식인과 청년 학생은 결코 하나의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 출신으로 보거나 그들의 생활 조건으로 보거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보거나 현대 중국의 지식인과 청년 학생의 다수는 소부르조아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수십 년 래 중국에는 매우 많은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 출현되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국주의 및 대부르조아지에 접근하고 또 그들에게 복무하면서 민중을 반대하는 일부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대부르조아지의 억압을 받고 있으며 실업과 실학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강한 혁명성이 있다. 자본주의적 과학 지식을 혹은 많이, 혹은 적게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민감한 그들은 현 단계의 중국 혁명에 있어서 흔히 선봉적 역할과 교량적 역할을 놓고 있다. 신해 혁명 전의 류학생 운동, 1919년의 5.4 운동, 1925년의 5.30 운동, 1935년의 12.9 운동이 바로 그 뚜렷한 실례들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광범한 지식인들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에 참가할 수 있고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광범한 전파와 접수도 역시 먼저 지식인과 청년 학생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혁명 력량의 조직과 혁명 사업의 건설은 혁명적 지식

인의 참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식인이 대중의 혁명 투쟁과 한 덩어리로 되기 전에는, 또 그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대중과 결합할 결심을 내리기 전에는 흔히 주관주의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은 흔히 공허하며 그들의 행동은 흔히 동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광범한 혁명적 지식인들이 비록 선봉적 역할과 교량적 역할을 늘기는 하지만 모든 지식인들이 다 혁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혁명이 긴급한 고비에 이르게 되면 혁명 대열을 떠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며 그 중의 소수인은 혁명의 적으로 변하게 된다. 지식인의 이러한 결합은 장기적인 군중 투쟁 가운데서만 극복될 수 있다.

둘째, 소상인. 그들은 일반적으로 점원을 두지 않거나 혹은 다만 소수의 점원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상점을 차리고 있다. 제국주의, 대부르주아지 및 고리 대금업자의 착취로 하여 그들은 파산의 위협 속에 처하여 있다.

셋째, 수공업자. 이는 광범한 대중이다. 그들은 자기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한두 명의 도제 또는 조수를 둘 뿐이다. 그들의 지위는 중농과 비슷하다.

넷째, 자유 직업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 직업자가 있으며 의사는 그 가운데의 하나이다. 그들은 남을 착취하지 않으며 혹은 약간 착취할 뿐이다. 그들의 지위는 수공업자와 비슷하다.

우에서 말한 각종 유형의 소부르조아 요소들은 광범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혁명에 참가할 수 있고 혁명을 지지할 수 있으며 혁명의 훌륭한 동맹자로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쟁취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의 결합은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이 부르조아지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므로 그들 속에서 혁명적 선전 사업과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 4. 농민 계급

농민은 전국 총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하 중국 인민 경제의 주요 역량이다.

농민의 내부는 격렬한 분화 과정에 있다.

첫째, 부농. 부농은 농촌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지주와 함께 농촌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농촌 부르조아지로 불리운다. 중국의 부농은 그 대다수가 자기의 일부 토지를 남에게 소작 주고 또 고리대를 놓고 있으며 고농에 대한 착취도 매우 가혹하여 반(半)봉건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부농은 일반적으로 다 자신이 노동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볼 때 그들은 또 농민의 일부분이다. 부농의 생산은 일정한 시기까지는 역시 유익한 것이다. 부농은 일반적으로 농민 대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자기의 한 몫의 힘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주를 반대하는 토지 혁명 투쟁에서도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농을 지주와 구별이 없는 계급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일찌기 부

농을 소멸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둘째, 중농. 중농은 중국 농촌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농은 일반적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급 자족할 수 있으며(그러나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며 때로는 고용 로동을 좀 쓰거나 변농이를 좀 하기도 한다) 제국주의와 지주 계급 및 부르주아지의 착취를 받고 있다. 중농은 모두가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농은 토지가 부족하며 일부 중농(부유 중농)만이 약간의 여유 토지를 가지고 있다. 중농은 반제국주의 혁명과 토지 혁명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도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중농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중요한 혁명 동력의 일부분이다. 중농의 태도 여하는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이며 토지 혁명 후에 중농이 농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빈농. 중국의 빈농은 고농까지 포함하여 농촌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빈농은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광범한 농민 대중이며 농촌 반프로레타리아트이며 중국 혁명의 가장 광범한 동력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믿음직한 천연의 동맹자이며 중국 혁명 대렬의 주력군이다. 빈농과 중농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만 해방될 수 있고 또한 프로레타리아트도 빈농 및 중농과 확고한 동맹을 맺음으로써만 혁명을 승리로 령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민이라는 이 명칭 속에 포함

된 내용은 주로 빈농과 중농을 가리키는 것이다.

### 5. 프롤레타리아트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 중에는 현대 산업 노동자가 약 250만 내지 300만이 있고 도시 소공업 및 수공업 고용 노동자와 상점 점원이 약 1,200만이 있으며 이 밖에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즉 고농) 및 기타 도시, 농촌의 무산자도 많은 수효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일반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적인 우점들, 즉 가장 선진적인 경제 형태와 련결되어 있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며 개인 소유의 생산 수단이 없는 등의 우점을 제외하고도 그의 많은 특출한 우점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떠한 특수한 우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세 가지 억압(제국주의의 억압, 부르주아지의 억압, 봉건 세력의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억압의 엄중성과 잔혹성은 전 세계 각 민족들 가운데서 보기 드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 투쟁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계급보다도 전결하고 철저하다. 식민지, 반식민지적 중국에는 구라파에서와 같은 그런 사회 개량주의적 경제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노동 귀족을 제외하고는 계급 전체가 가장 혁명적이다.

둘째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곧 자기 계급의 혁명적 정당——중국 공산당의



정도 하에 중국 사회 내에서 가장 각성한 계급으로 되었다.

세째로, 파산된 농민 출신의 요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는 광범한 농민과 천연의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농민과 친밀한 동맹을 맺는 데 유리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비록 그 수효가 비교적 적고(농민에 비하여) 그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자본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에 비하여) 그 문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부르주아지에 비하여)과 같은 불가피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도가 없이는 중국 혁명은 필연코 승리할 수 없다. 먼 페로서 실패 혁명 같은 것은 그 때에 아직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인 참가가 없었고 또 아직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에 류산되고 말았다. 가까운 페로서 1924~1927년의 혁명 같은 것은 그 때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인 참가와 정도가 있었으며 또 이미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커다란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대부르주아지가 그 후 자기들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을 배반하고 공동의 혁명 강령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당시의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에게 아직 풍부한 혁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실패 당하고 말았다. 항일 전쟁 이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정도하였기 때문에 전 민족을 단결시켰으며 위대한 항일 전쟁을 발동하고 그것을 견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자신이 가장 각성하고 가장 조직성 있는 계급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자기 한 계급의 역량에만 의존한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승리하려면 각종 상이한 정형 하에서 단합할 수 있는 모든 혁명적 계급 및 계층을 단합하여 혁명적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 사회의 각 계급 가운데서 농민은 로동 계급의 튼튼한 동맹군이며 도시 소부르조아지도 역시 믿음직한 동맹군이며 민족 부르조아지는 일정한 시기와 일정한 정도에서의 동맹군이다. 이것은 현대 중국 혁명의 역사에 의하여 이미 증명된 근본 법칙의 하나이다.

## 6. 료 췌

중국의 식민지, 반식민지적 지위는 중국 농촌 및 도시에다 방대한 실업자군을 산생시켰다. 그들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정당한 생활 방도도 찾을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부정당한 직업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토비, 건달, 거지, 창기 및 많은 미신 직업자들이 나오게 된 근원이다. 이 계층은 동요하는 계층이며 그 중의 일부는 반동 세력에게 매수되기 쉬우며 다른 일부는 혁명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는 건설성이 결여하여 파괴는 잘하나 건설은 잘 하지 않으며 혁명에 참가한 후에는 또 그것이 혁명 대렬 내의 류구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개조하여야 하며 그들의 파괴성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상은 중국 혁명의 동력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다.

## 제 5 절 중국 혁명의 성격

우리는 이미 중국의 일체 혁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되는 중국 사회의 성격 즉 중국의 특수한 국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성격에서, 중국의 특수한 국정에서 발생된 현 단계의 중국 혁명에 관한 기본 문제로 되는 중국 혁명의 대상, 중국 혁명의 임무, 중국 혁명의 동력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후이면 우리는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의 다른 하나의 기본 문제, 즉 중국 혁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알 수 있게 된다.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혁명인가? 부르쵸아 민주주의 혁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인가?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다.

중국 사회가 아직도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인 이상, 중국 혁명의 적이 아직도 주로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인 이상, 중국 혁명의 임무가 이 두 주요한 적을 타도하기 위한 민족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고 이 두 적을 타도하는 혁명에 때로는 부르쵸아지가 참가하며 실사 대부르쵸아지가 혁명을 배반하고 혁명의 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혁명의 창끝이 일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에 들러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둘러지는 이상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의 성격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민주주의적인 것이다[25].

그러나 현하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때가 지난 낡은 형태의 일반적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특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러한 혁명은 지금 중국과 일체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제국주의 즉 국제 자본주의를 전격히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며 중국 사회를 부르조아 독재의 사회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의 대자본, 대기업체들을 몰수하여 국영으로 만들고 지주 계급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여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며 동시에 일반적인 개인 자본주의의 기업소를 보존하며 부농 경리는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은 한 편으로 자본주의를 위한 길을 닦아 주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또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적 조건을 창조하여 준다. 현하 중국의 혁명 단계는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를 종결 짓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 1 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 후에 처음 생긴 것이며 중국에서는 1919년 5.4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의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이다. 중국 사회는 반드시 이 혁명을 경과하여야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역사 상의 구미 각국의 민주주의 혁명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부르주아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통일 전선의 독재를 수립한다. 항일 전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항일 근거지에 수립된 항일 민주정권은 바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권이다. 그것은 부르주아지 한 계급의 독재도 아니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 한 계급의 독재도 아니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 몇 개 혁명적 계급들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다. 오직 항일을 찬성하고 또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당, 어느 파에 속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정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또 사회주의 혁명과도 다르다. 그것은 단지 중국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의 통치를 전복할 뿐이고 반제, 반봉건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떠한 자본주의적 요소도 파괴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1924년에 손 중산이 주장한 삼민주의 혁명과 기본 상 일치하다. 손 중산은 그 해에 발표

한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근세 각국의 소위 민권 제도는 왕왕 부르조아지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무릇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었거나 혹은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베킨대 은행, 철도, 항공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유 자본 제도로 하여금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 하게 한다. 이것이 곧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이다.》라고 하였다. 손 중산은 또 그의 유촉에서 《반드시 민중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의 민족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는 내정, 외교에 관한 근본 원칙을 지적하였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낡은 국제, 국내 환경에 적응하던 구민주주의적 삼민주의는 새로운 국제, 국내 환경에 적응하는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로 개조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1937년 9월 22일에 발표한 선언에서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고 성명한 것은 다른 어떤 삼민주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삼민주의를 가리킨 것이다. 이러한 삼민주의가 곧 손 중산의 3대 정책, 즉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의 삼민주의이다. 새로운 국제, 국내 조건 하에서 3대 정책을 떠난 삼민주의는 혁명적 삼민주의가 아니다(공산주의와 삼민주의가 민주주의 혁명의 기본적인 정강에 있어서만 같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면에서는 다 다르다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리 하여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그 투쟁 전선(통일 전선)으로 말하거나 그 국가의 구성으로 말하거나를 물론하고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 계급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의 지위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누구를 물론하고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를 제쳐 놓으려고 한다면 그는 단정코 중화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단정코 중국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현 단계의 혁명이 창건하려 하는 민주 공화국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가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일정한 역할을 노는 민주 공화국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 및 기타 일체 반제, 반봉건 분자들의 혁명적 동맹의 민주 공화국이라야 한다. 이러한 공화국의 철저한 완성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 제 6 절 중국 혁명의 전망

현 단계의 중국 사회의 성격과 중국 혁명의 대상, 임무, 동력, 성격 등 이런 기본 문제들을 명확히 안 후에는 중국 혁명의 전망 문제에 대하여도, 다시 말하면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의 관계 문제, 중국 혁명의 현 단계와 앞으로 올 단계와의 관계 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현 단계의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일반적인 낡은 형태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특수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 즉 신민주주의 혁명인 만큼 그리고 중국 혁명이 또 20세기 30년대와 40년대의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 처하여 있는 만큼 즉 사회주의가 양양되고 자본주의가 몰락되어 가는 국제 환경 속에 처하여 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과 혁명적 시대에 처하여 있는 만큼 중국 혁명의 중국적 전망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 역시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이 지금의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지위를 개변하기 위하여, 즉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인 이상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자본주의 발전 도상에 놓인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중국 사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며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리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의 불가피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중국 혁명의 결과의 일면이며 그 결과의 전부는 아니다. 중국 혁명의 전반 결과는 한 편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전되고 다른 편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발전되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전국의 정치적 세력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비중의 장성이며 그것



은 즉 농민, 지식인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령도권을 이미 승인하였거나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즉 민주 공화국의 국영 경제와 근로 인민의 합작 경제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여기에다 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첨가하면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그 최후의 결과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전망을 피하고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실현할 크나 큰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제 7 절 중국 혁명의 이중 임무와 중국 공산당

본 장 각 절에서 이미 서술한 것을 총화하면 우리는 전반 중국 혁명이 이중 임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혁명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성격의 혁명(신민주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성격의 혁명, 현 단계의 혁명과 앞으로 올 단계의 혁명, 이러한 이중 임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의 이 이중 임무에 대한 령도, 그것은 모두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당——중국 공산당의 두 어깨에 지워지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며 또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구비되었을 때에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혁명 임무의 전부이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모두 이를 위하여 분투하여야 하며 절대로 중도에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일부 미숙한 공산당원들은 우리에게 현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가 있을 뿐이고 앞으로 올 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의 혁명 또는 토지 혁명이 곧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류라는 것을 특히 지적하여야 하겠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의 전반 혁명 운동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를 포함한 전부의 혁명 운동이며 그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혁명 과정인바 전자의 혁명 과정을 완수하여야만 후자의 혁명 과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매개 공산당원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한 준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일체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은 극력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중국적 완성을 쟁취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구별을 똑똑히 인식하는 동시에 또 이 양자의 련계를 똑똑히 인식하여야만 중국 혁명을 정확하게 령도할 수 있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과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 두 개의 위대한 혁명을 철저한 완성으로 령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정당(부르쥬아 당이거나 소부르쥬아 당이거나)도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이 창립되던 첫날부터 이러한 이중 임무를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 졌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이미 만

18년 동안이나 간고하게 투쟁하여 왔다.

이러한 임무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또 아주 간고한 것이다. 전국적 범위의, 광범한 대중성을 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고한, 불쇄위크화한 중국 공산당이 없이는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매개 공산당원의 책임이다.

## 주 해

[1] 중국의 건설에 의하면 지남침의 발명은 아주 오래 전에 있던 일이다. 기원 전 3세기 전국 시대의 《녀씨 춘추》에 《자석이 철을 끌어 당긴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 당시의 중국 사람은 이미 자석이 철을 흡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 1세기 초엽, 즉 동한 초년에 왕 중은 《문형》 가운데서 자석병이 남쪽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에 이미 극을 가리키는 자석의 성질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 12세기 초엽, 즉 송조 휘종 때의 주 옥의 《평주 가담》과 서 궁의 《선화 봉사고려도경》에는 모두 함패에 지남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미 당시에 지남침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한의 환관 채륜은 나무 껍질, 삼, 흰 천 조각, 고기 그물 등으로 종이틀 만드는 법을 발명하였다. 기원 105년 즉 한 화제 말년에 채륜은 이 발명을 황제에게 바쳤고 이 때부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채후지》라고 불렀다.

[3] 중국의 인쇄술은 기원 600년 천후인 수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4] 송 인종 경력 연간(기원 1041~1048년)에 필 승이 활자 인쇄를 발명하였다.

[5]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된 것은 기원 9세기 때라고 전하여져 오고 있다. 기원 11세기 때 중국에서는 이미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를 만들어 작전에 썼다.

[6] 이것은 중국 진조 때의 한 농민 대봉기이다. 기원 전 209년, 진조 제 2세 원년에 진 승, 오 팡은 수자리를 살려 가던 도중에 기원(지금의 안휘성 속

현) 지방에서 동맹하던 수자리 900 명을 거느리고 진조의 폭정에 반항하는 봉기를 일으켜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다. 함 우와 그의 숙부 함 람은 오(지금의 강소성 오펜)에서 군사들 일으키고 류 방은 패(지금의 산둥성 패현)에서 군사들 일으켰다. 함 우의 군대가 진조 군대의 수벽을 소멸하였고 류 방의 군대는 먼저 진조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그 후 류 방과 함 우가 서로 싸워 함 우는 패전하여 죽고 류 방이 드디어 진조를 대신하여 황제로 되었으며 한조의 창건자로 되었다.

[7] 서한 말년에 각지에서 농민의 소동과 분산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기원 8년에 왕 망이 한조를 대신하여 황제가 된 후 일부 개혁안을 내놓아 농민의 소동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남방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심시(지금의 호북성 경산현) 사람인 왕 팡, 왕 봉은 기근민들에게 지도자로 추대되어 봉기를 일으켰다. 그 후 이 농민군은 남양까지 쳐 들어가 《신시병》이라 칭하였다. 평림(지금의 호북성 수현 동북부) 사람인 진 목 등 1,000여 명이 봉기를 일으켜 《평림병》이라고 칭하였다. 적미와 동마도 왕 망 시내의 농민 봉기군으로서 동마 봉기의 지점은 하북성 중부 일대이고 적미 봉기의 지점은 산둥성 중부 일대이다. 적미의 지도자는 번 승이다.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눈·설에 붉은 칠을 하였기 때문에 《적미군》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농민 봉기군이었다.

[8] 기원 184년 동한의 명제 때에 장 각이 농민들을 명도하여 봉기하였으며 그 군대들은 자기들의 표식으로 머리에 누런 수건을 쓰고 있었다.

[9] 기원 7 세기 초엽 즉 수조 말년에 농민들은 계속 봉기를 일으켰는데 리 인, 두 진덕은 다 당시 봉기를 일으킨 인물들이다. 리 인은 하남에서 일어났고 두 진덕은 하북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명도한 봉기군은 당시 성세가 매우 큰 데이었다.

[10] 왕 선지는 기원 874년(당조 회종 연간)에 산둥 지방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 이듬해에는 황 소가 균중을 모아 이에 호응하였다. 본 선집 제 1 권의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때 대하여》주해 2문 참조하라.

[11] 송 강과 방 람은 기원 12 세기 초엽인 송 휘종 선화 연간에 북방과 남방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킨 유명한 두 지도자이다. 송 강은 산둥, 하남, 강소 설경 지대에서, 방 람은 절강, 안휘 일대에서 각각 봉기를 일으켰다.

[12] 기원 1351년 원 순제 지점 11년에 각지 인민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안휘성 봉양현 사람인 주 진장은 팍 자홍이 일으킨 봉기군에 가담하였고 팍 자홍이 죽자 그 봉기군의 지도자가 되어 드디어 몽고 황조의 통치를 전복하고 명조의 개국 황제로 되었다.

[13] 본 선집 제 1 권의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 주해 3을 참조하라.

[14] 본 선집 제 1 권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주해 33을 참조하라.

[15] 18세기 말엽부터의 수십 년 간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날로 더 많이 수출하였다. 영국의 이 아편 수출은 중국 인민에게 엄청난 해독을 주었으며 중국의 은화물 대량적으로 약탈하여 갔다. 아편 무역은 중국의 반대물 받았다. 1840년에 영국 정부는 동상 보호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을 침략하였다. 중국 군대는 펑 옥서의 지도 하에 이에 저항하는 전쟁을 진행하였다. 광주의 인민들은 자발적으로 《평영단》을 조직하여 영국 침략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842년에 부패한 청조 정부는 영국 침략자와 《남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배상금을 지불하며 항항을 할양하는 외에 또 상해, 복주, 하문, 닝파, 광주물 통상항으로 개방하며 중국에 수입되는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중국과 영국 양방이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16] 1856년부터 1860년까지에 영국, 프랑스 망국은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과 제정 로씨야는 옆에서 그들을 방조하였다. 당시 권력을 다하여 태평 천국 농민 혁명을 진압하고 있던 청조 정부는 외국 침략자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권후하여 광주, 천진, 북경 등 중요 도시를 함락하고 북경의 원명원을 약탈, 소각하여 청조 정부로 하여금 《천진 조약》과 《북경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조약들은 주로 천진, 우장, 등주, 대만, 담수, 조주, 경주, 남경, 진강, 구강, 한구 등을 상항으로 개방하고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여행 및 선교할 특권을 가지며 중국의 내하에서 항행할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외국 침략 세력은 이 때부터 중국 열대 각 성에 더욱 널리 손을 뻗었으며 내지에 깊이 침입하였다.

[17] 1884~1885년에 프랑스 침략자는 월남, 광서, 북진, 대만, 건강 등지를 무력 침공하였다. 중국 군대는 풍 자재, 유 영복 등의 명솔하에서 필기하여 저항하였으며 또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 그러나 부패한 청조 정부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리어 굴욕적인 《천진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월남 점령을 승인하는 동시에 또 그 침략 세력이 화남 지대로 편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였다.

[18] 1900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로씨야, 일본, 이탈리아, 오지리 등 8개 제국주의 국가들은 침략에 반항하는 중국 인민의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연합으로 출병하여 중국을 진공하였으며 중국 인민은 이에 대하여 영용

하게 저압하였다. 8 개국 연합군은 대고물 함락하고 천진, 북경을 점령하였다. 1901년에 청조 정부는 8 개 제국주의 국가와 《신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주로 중국은 각국의 군비로 은 4억 5,000만 냥이란 거액을 배상하며 각 제국주의는 북경과, 북경에서 천진 및 산해관 일대에 이르는 지구에 군대를 주둔시킬 비법적인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19] 명사 재판권이란 제국주의 국가가 구중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불평등 조약에 규정된 특권의 하나로서 1843년의 중영 호문 조약과 1844년의 중미 망하 조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특권은 즉 중국에서 명사 재판권을 향유하는 모든 국가는 중국에 있는 그 나라 거주민이 만일 민사, 형사 소송의 피고로 되었을 때에 중국 법정에서 그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고 그 해당 국가의 명사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 19 세기 말엽부터 중국을 침략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각각 중국에 있어서의 그 경제적 및 군사적 세력에 따라 중국의 어느 한 지구를 자기의 세력 범위로 획정하였다. 예를 들면 당시 강강 중류 및 하류 일대에 있는 성들은 영국의 세력 범위로 되었고 운남성, 광둥성, 광서성은 프랑스의 세력 범위로 되었으며 산둥성은 독일의 세력 범위로 되었으며 부진성은 일본의 세력 범위로 되었다. 동3성은 본래 제정 러시아의 세력 범위로 되어 있었으나 1905년의 일로 전쟁 후 동3성의 남부는 또 일본의 세력 범위로 되었다.

[21] 제국주의 국가는 청조 정부를 강압하여 강강 연안과 연해의 일부 지방을 통상항으로 승인하게 한 후 또 그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곳에서 인정한 구역을 강점하여 자기들의 《조계지》로 삼았다. 이러한 소위 《조계지》안에서는 중국의 행정 계통 및 법률 제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다른 통치 제도, 즉 제국주의의 식민지 제도를 실시하였다. 제국주의는 또 이러한 《조계지》를 통하여 정치상 및 경제 상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의 봉건, 재판 계급의 통치물 조종하였다. 1924~1927년의 혁명 과정에서 혁명 군중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 조계지 회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7년 1월에는 한구와 구강의 영국 조계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장 개석이 혁명을 떠난 후 중국 각지에서의 제국주의의 조계지는 또 계속 보전되었다.

[22] 요민테론 제 6 차 대회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 운동에 관한 태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23] 1927년 5월 24일 요민테론 집행 위원회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한 쓰 말린의 연설 《중국 혁명과 요민테론의 제 과업》에서 인용한 것이다.

[24] 쓰 말린의 《중국 혁명의 전망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25] 베닌의 《사회 민주당의 농업 강령》을 참고하라.

## 쓰딸린은 중국 인민의 벗이다

(1939년 12월 20일)

금년 12월 21일은 쓰딸린 동지의 60 탄신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이 날을 알고 있고 또 혁명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친밀하고도 열렬한 축하의 심정이 우러나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쓰딸린을 축하한다는 것은 인사 치폐가 아니다. 쓰딸린을 축하한다는 것은 곧 그를 지지하며 그의 사업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지지하며 그가 인류에게 가리켜 주는 방향을 지지하며 자기의 친근한 벗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 전 세계 대다수의 인류는 모두 수난자인데 오직 쓰딸린이 가리키는 방향만이, 오직 쓰딸린의 원조만이 인류를 재난에서 벗어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 인민은 력사 상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을 받고 있는 시기에 처하여 있으며 남의 원조를 가장 절박히 요하는 시기에 처하여 있다. 《시경》에는 《새는 울어 그 벗의 소리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처하여 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벗인가?

한 종류의 소위 벗은 자기들이 중국 인민의 벗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며 중국 사람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아무런 사색도 없이 그들을 벗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벗은 당초 때의 리 립보<sup>[1]</sup> 따위에 속할 따름이다. 리 립보는 당초의 재상인데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나 마음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으로 이름 난 자이다. 지금의 이러한 소위 《벗》들은 바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나 마음 속에는 칼을 품은》 벗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즉 입으로는 중국을 동정한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다른 한 종류의 벗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동정하며 우리를 형제처럼 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조선 인민이며 쓰말린이다.

어느 한 나라도 중국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특권을 폐기하지 않았으나 오직 조선만은 폐기하였다.

제 1 차 대혁명 시기에 모든 제국주의자들은 모두 우리를 반대하였으나 오직 조선만은 우리를 원조하였다.

항일 전쟁 이래 어느 한 제국주의 국가의 정부도 진정으로 우리를 원조하여 주지 않았으나 오직 조선만은 공군과 물자로서 우리를 원조하였다.

이래도 분명하지 않단 말인가?

중화 민족과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은 오직 사회주의적 국가, 사회주의적 수령, 사회주의적 인민, 사회주의적 사상가, 정치가, 근로자만이 진정으로 원조하여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사업은 그들의 원조가 없이는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쓰말린은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의 충실한 벗이다. 쓰말린에 대한 중국 인민의 경애의 정, 쓰말린에 대한 중국 인민의 우의는 완전히 성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의 도발, 리간, 요언, 중상도 결국에 가시는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 주 해

[1] 리 립보는 기원 8 세기 사람으로서 당 현종의 한 제상이다. 《자치통감》에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리 립보는 제상으로 있으면서 무릇 재능과 신망과 공적이 자기보다 낮고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그 권세가 자기와 맞결계 된 자에 대하여서는 기어코 온갖 계교를 다 써서 그를 제거하였다. 그는 특히 학문 있는 선비들을 치기하였다. 겉으로는 사이 좋게 지나고 감언 리설로 꾀이나 뒤편에서는 이들을 해쳤다. 세상 사람들은 리 립보를 가리켜 입으로는 날끔한 말을 하나 마음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 베쥘을 기념하여

(1939년 12월 21일)

베쥘 동지<sup>[1]</sup>는 캐나다 공산당원으로서 50여 세이다. 그는 캐나다 공산당 및 미국 공산당의 파견을 받고 중국의 항일 전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만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중국에 왔다. 작년 봄에 연안에 도착하였는데 그 후 오대산에 가서 사업하던 중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외국 사람으로서 추호도 리기적인 동기가 없이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을 자신의 사업처럼 여기고 하였으니 대체 그것은 어떠한 정신인가? 그것은 국제주의 정신이며 공산주의 정신이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정신을 배워야 한다. 레닌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식민지, 반식민지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여야만 세계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sup>[2]</sup>. 베쥘 동지는 이 레닌주의 로선을 실천하였다. 우리 중국 공산당원들도 이 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하여야 하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및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과 인민을 해방하며 세계의 민족들과 인민들을 해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힘애한 민족주의와 힘애한 애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베쥬 동지의 추호도 리기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그 정신은 사업에 대한 그의 지극한 책임성에서, 또 동지와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표현되었다. 매개 공산당원은 모두 그를 따라 배워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에 무책임하며 쉬운 일을 택하고 어려운 일을 겁 내며 무거운 짐은 남에게 밀고 자기는 가벼운 짐을 지려 한다. 일에 부딪치게 되면 먼저 자기 타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야 남을 생각한다. 일을 조금 하고는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이 모를가 봐 걱정이 되어서 자랑하기를 좋아 한다. 동지와 인민에 대하여 만강의 열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냉담하고 무관심하며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은 기실인즉 공산당원이 아니며 적어도 순수한 공산당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선에 서 돌아 온 사람들로서 베쥬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누구 하나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 하나 그의 정신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진찰기 병구의 군인과 인민치고 베쥬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거나 베쥬 의사가 사업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면 누구나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베쥬 동지의 이런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배준 동지는 의사였다. 그는 의료 사업에 종사하면서 기술을 깊이 련마하고 있었으며 전체 팔로군의 의료 계통 내에서 그의 의술은 매우 고명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을 보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기술적인 일을 보잘 것 없는, 출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역시 매우 좋은 교훈으로 된다.

나는 배준 동지와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나에게 편지를 여러 장 보내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뜻으로 겨우 한 번 회답하였을 뿐인데 그나마 그가 받아 보았는지 알 수 없다. 그의 서거에 대하여 나는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는 것을 보아 그의 정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들은 그의 추호도 리기심이 없는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출발한다면 인민에게 크게 유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에는 크고 작은 구별이 있지만 오직 이러한 정신만 가진다면 그는 고상한 사람이며 순수한 사람이며 도덕이 있는 사람이며 저급 취미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 주 해

[1] 노르만 배준은 캐나다 공산당 당원으로서 유명한 의사였다. 1936년에 독일, 이탈리아 파쇼 도당들이 에스파냐를 침범하였을 때 그는 파쇼를 반대하여 싸우는 에스파냐 인민을 위하여 직접 전선에 나가 복무하였다. 중국의 항일 전쟁이 일어 나자 그는 의보대를 메리고 1938년 초에 중국에 왔다. 이 해

3~4월 경에 연안에 이른 그는 얼마 후에 문진찰기 연구로 갔다. 백준 동지는 드높은 국제주의적 정신과 헌신적인 사업열로써 팔로군의 부상병들을 위하여 근 2년 간이나 복무하다가 어느 한 부상병을 구급 수술하는 과정에 그만 감염되었다.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1939년 11월 12일에 하북성 당현에서 서거하였다.

[2] 쓰딸린의 《메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6 부분 《민주 문제》를 참조하라.

# 신민주주의론

(1940년 1월)

## 1.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항전 이래 전국 인민들 사이에는 희망에 찬 기상이 떠돌게 되어 모두들 이제는 출로가 생겼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수심에 찬 표정은 이로써 일소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또 다시 갑자기 높아진 타협의 풍기와 반공산당의 소음은 전국 인민을 다시금 의혹 속에 잠기게 하였다. 특히 문화인들과 청년 학생들은 민감하여 이 점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었다. 그리 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문제로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1)가 출판되는 이 기회에 중국 정치 및 중국 문화의 동향 문제를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유익한 일일 것이다. 문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문외한이며 그것을 한 번 연구하여 보려고 하나 그것도 이제 방금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연안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이미 이에 관한 상세한 논문들을 썼으므로 나의 뉘뉘치 못 한 이 글은 단지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로 삼아 주면 좋겠다. 전국의 선진적 문화 일'군들은 우리의 것

을 다만 물을 자아 내는 마중물로 삼으며 천에 한 가지는 쓸모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함께 토론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어냄으로써 그것을 우리 민족의 수요에 적응시키기를 바란다. 과학적 태도란 《실사 구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다 옳다》고 하며 《스승으로 자처하기 좋아 하는》 그러한 망녕된 태도로써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재난은 극도에 달하였다. 오직 과학적 태도와 책임 지는 정신만이 우리 민족을 해방의 길에로 인도할 수 있다. 진리는 오직 하나 뿐이다. 결국 누가 그 진리를 발견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과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천에 의하여 결정된다. 오직 천백만 인민의 혁명적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척도로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중국 문화》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의 가질 바 태도라고 생각한다.

## 2. 우리는 새 중국을 창건하려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정치 혁명과 경제 혁명을 위하여 분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문화 혁명을 위하여 분투하여 왔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중국 민족의 새 사회와 새 국가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이 새 사회와 새 국가에는 새 정치, 새 경제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새 문화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중국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



라 또 낡은 문화의 지배로 인하여 우매하고 낙후하게 된 중국을 새 문화의 지배에 의하여 문명하고 선진적이 된 중국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새 중국을 창건하려 한다. 중화 민족의 새 문화를 건설하는 이것이 바로 문화 영역에서의 우리의 목적이다.

### 3. 중국의 역사적 특성

우리는 중화 민족의 새 문화를 건설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새 문화는 도대체 어떠한 문화인가?

일정한 문화(관념 형태로서의 문화)는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이며 그것은 또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에 거대한 영향을 주며 거대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경제는 토대이며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sup>[2]</sup>이다. 이것은 문화와 정치, 경제와의 관계 및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형태의 정치와 경제가 먼저 그 일정한 형태의 문화를 결정하며 그 다음에야 그 일정한 형태의 문화가 '다시 일정한 형태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주며 작용을 하게 된다. 맑스는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sup>[3]</sup>고 하였으며 또 종래의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세계를 설명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데 있다.》<sup>[4]</sup>고 하였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있는 이래 처음으로 의식과 존재와의 관계 문제를 정확

히 해명한 과학적 규정이며 또 그 후 레닌에 의하여 심오하게 발휘된 능동적이며 혁명적인 반영론의 기본적 견해이다. 중국의 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기본적 견해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면 문제는 아주 명확하여진다. 우리가 제거하려는, 중화 민족의 그 낡은 문화 중에 있는 반동적 요소들은 중화 민족의 낡은 정치, 낡은 경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가 건설하려는 중화 민족의 이 새 문화도 역시 중화 민족의 새 정치, 새 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 중화 민족의 낡은 정치와 낡은 경제는 중화 민족의 낡은 문화의 토대이며 중화 민족의 새 정치와 새 경제는 중화 민족의 새 문화의 토대이다.

중화 민족의 낡은 정치와 낡은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중화 민족의 낡은 문화란 또 무엇인가?

주조, 진조 때로부터 중국은 봉건 사회였고 그 정치는 봉건적 정치였으며 그 경제는 봉건적 경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반영으로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문화는 봉건적 문화였다.

외래 자본주의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서부터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 점차 전화하게 되었다. 오늘의 중국은 일본 점령구에 있어서는 식민지 사회이며 국민당 통치구에 있어서는 아직 기본적으로 반식민지 사회이며 그리고 일본 점령구거나 국민당 통치구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은 다 봉건적, 반봉건적 제도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이

다. 이것이 현하 중국 사회의 성격이며 현하 중국의 실정이다. 지배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사회의 정치는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정치이고 그 경제는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경제이며 이러한 정치 및 경제의 반영으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는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문화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정치, 경제 및 문화 형태가 바로 우리 혁명의 대상이다. 우리가 제거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낡은 정치와 낡은 경제이며 또 이러한 낡은 정치, 낡은 경제에 복무하고 있는 낡은 문화이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려는 것은 이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중화 민족의 새 정치, 새 경제 및 새 문화이다.

그러면 중화 민족의 새 정치, 새 경제란 무엇이며 또 중화 민족의 새 문화란 무엇인가?

중국 혁명의 역사적 행정은 반드시 두 걸음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 걸음은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다음 걸음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혁명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미 낡은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 구민주주의가 아니라 새 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 신민주주의이다.

이로부터 중화 민족의 새 정치라는 것은 신민주주의적 정치이며 중화 민족의 새 경제라는 것은 신민주주의적 경제이며 중화 민족의 새 문화라는 것은 신민주주의적 문화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이 현하 중국 혁명의 역사적 특성이다. 중국에서 혁명에 종사하는 모든 정당, 모든 사람들로서 이 역사적 특성을 알지 못 한다면 그는 이 혁명을 지도할 수 없고 이 혁명을 승리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며 그는 인민들에게 버림을 받아 한 쪽 구석에 가서 우는 가련한 신세로 되고 말 것이다.

#### 4. 중국 혁명은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

중국 혁명의 역사적 특성은 혁명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절차로 구분되는 데 있다. 지금에 있어서 그 첫 걸음은 벌써 일반적인 민주주의인 것이 아니라 중국적인, 특수한, 새 형태의 민주주의이며 신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100년 전부터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후에 와서 생긴 것인가?

중국과 세계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기만 한다면 이 역사적 특성은 결코 아편 전쟁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와서, 즉 제 1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 및 로씨야의 10월 혁명 후에 와서야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형성 과정을 연구하여 보기로 하자.

중국 현 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성격인 이상 그것이 중국 혁명을 두 절차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 저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첫 걸음은 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 형태를 독립적인 민주주

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둘째 걸음은 혁명을 더 발전시켜 사회주의 사회를 창립하는 것이다. 현하 중국의 혁명은 그 첫 걸음을 걷고 있다.

이 첫 걸음의 준비 단계는 벌써 1840년의 아편 전쟁 때부터, 즉 중국 사회가 봉건 사회로부터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태평 천국 운동, 중국-프랑스 전쟁, 중일 전쟁, 무술 정변, 신해 혁명, 5.4 운동,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을 거쳐 오늘의 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웅근 100 년이나 걸린 이렇게 많은 개별적 단계들은 어느 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이 첫 걸음을 실천한 것이며 중국 인민들이 부동한 시기와 부동한 정도에서 이 첫 걸음을 실천한 것이며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 것이며 첫 걸음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한 것이다. 그리고 신해 혁명은 보다 더 완전한 의미에서 이 혁명을 개시한 것이다. 이 혁명은 그 사회적 성격으로 본다면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지금 이 혁명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속 커다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혁명의 적이 아직도 매우 강대하기 때문이다. 손 중산 선생이 《혁명은 아직 성공되지 못하였으니 동지들은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은 1914년에 제 1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이 폭발되고 또 1917년의 로씨야 10월 혁

명에 의하여 지구의 6 분의 1의 땅 우에 사회주의 국가가 창건된 후부터 변화가 일어 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세계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낡은 세계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분이었다.

그 이후부터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진영을 두고 말한다면 세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 1 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과 처음으로 되는 승리적인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전반 세계의 역사적 방향을 개변시켰으며 전반 세계의 역사적 시대를 획분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 전선이 이미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이 한 모퉁이는 전 세계의 6 분의 1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붕괴되었으며 그 나머지 모퉁이에서도 그 부패성이 충분히 발로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아직 남아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 부분들도 식민지, 반식민지에 더한층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시대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가 이미 창건되었으며 또 그가 일체의 식민지, 반식민지의 해방 운동을 원조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 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 제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가 낯이 사회 제국주의적 사회 민주당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그들이 식민지, 반식민지의 해방 운동을 창조할 것을 선포한 시대에 있

어서, —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든지 만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즉 국제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며 국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는 낡은 세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더는 낡은 부르주아 및 자본주의적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혁명의 일부분, 즉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식민지, 반식민지는 벌써 세계 자본주의 반혁명 전선의 동맹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그것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 전선의 동맹군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반식민지 혁명의 제 1 단계, 즉 첫 걸음은 그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에는 기본 상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것이며 그 객관적 요구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지만 이러한 혁명은 이미 낡은,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자본주의 사회 및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령도되는, 제 1 단계에 있어서는 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각개 혁명적 계급들 간의 연합 독재의 국가를 창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혁명은 또한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광활한 길을 닦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적정 및 동맹군의 변화로 인하여 또 약간의 단계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혁명은 제국주의를 철저히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제국주의는 이것을 용허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것을 용허하며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국제 프로레타리아트는 그것을 원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혁명은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라는 이 정확한 명제는 1924~1927년의 중국 제 1 차 대혁명 시기에 벌써 제기된 것이다. 이 명제는 중국 공산주의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시 반제, 반봉건적 투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찬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이론의 의의가 아직 발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세계 혁명》은 이미 낡은 세계 혁명——낡은 부르쥬아 세계 혁명은 벌써 끝났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혁명이며 사회주의적 세계 혁명이다. 마찬가지로 이 《일부분》도 이미 낡은 부르쥬아 혁명의 일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극히 큰 변화이며 세계적으로나 중국에서나 유사 이래 류례 없는 큰 변화이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한 이 정확한 명제는 스탈린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스탈린은 일찍 1918년에 10월 혁명 1 주년을 기념하여 쓴 자기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월 변혁의 위대한 세계적 의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10월 변혁은 (1) 민족 문제들 구라파에서 민족적 압박과



투쟁하는 부분적 문제로부터 피압박 민족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  
 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일반적 문제로 전화시킴으로써  
 민족 문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 서방과 동방의 피압박 민족  
 들을 제국주의와의 승리적 투쟁의 공동적 분류(奔流)에 끌어 들  
 이면서 그들의 해방 사업을 현저히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 해방의  
 광범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길을 열어 놓았다. (3) 그리 함으로써 사  
 회주의적 서방과 예속적 동방 간의 교량을 만들어 놓았으며 서방  
 의 프로레타리아들로부터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동방의 피압박 민  
 족들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 전  
 선을 결성하였다》(5).

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쓰딸린은 또 식민지, 반식민지  
 혁명이 낳은 범주를 벗어나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었다는 데 관한 리론을 여러 차례 거듭 발휘하  
 였다. 그 중에서도 해석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쓰딸  
 린이 1925년 6월 30일에 발표한,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주의자와 논쟁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장 중실이 번역한 《민  
 족 문제에 관한 쓰딸린의 문술》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제목은 《민족 문제 재론》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  
 절이 있다.

《세미치는 쓰딸린이 1912년 말에 쓴 소책자 <맑스주의와 민족  
 문제> 가운데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 책에는 <대두하는 자  
 본주의의 조건 하에서의 민족적 투쟁은 부르주아 계급들 호상간  
 의 투쟁이다>라고 써여 있다. 보진대 그는 이 문구로써 현 역사  
 적 조건 하에서의 민족 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규정한 자기의 공  
 식이 옳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기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쓰딸린  
 의 이 소책자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 문제가 아직 전 세  
 계적 의의를 가진 문제로 생각되지 않던 또 자결권에 관한 맑스

주의자들의 기본 요구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 평가되던 때인 제국주의 전쟁 전에 쓴 것이다. 그 이후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는 것, 또 일방으로는 전쟁과 타방으로는 로씨야에서의 10월 혁명이 민족 문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 전화시켰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일찌기 1916년 10월에 레닌은 <자길에 관한 토론의 총결>이라는 자기 논문에서 말하기를 자결권이라는 민족 문제의 기본 사항은 이제는 일반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벌써 일반적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 구성 부분으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레닌이나 또 로씨야 공산주의의 기타의 대표자들의 민족 문제에 관한 그 후의 저서들에 대하여서는 새삼스러이 말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이렇다면 로씨야에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쓴 스탈린의 소책자에서 주지의 개소를 세미치가 인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즉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로 들어 온 지금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한 인용이 가질 수 있는 의의라는 것은 다만 세미치는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산 역사적 환경과는 관련 없이 인용하고 있으며 그리 함으로써 그는 변증법의 초보적 요구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환경에서는 옳았던 것이 다른 역사적 환경에 있어서는 옳지 못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두 가지 종류의 세계 혁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첫째 종류는 부르주아 및 자본주의 범주에 속하는 세계 혁명이다. 이러한 세계 혁명의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그것은 벌써 1914년 제 1 차 제국주의 세계 대전이 폭발되었을 때, 특히는 1917년 로씨야 10월 혁명 때 종결되었다. 그 후부터는 둘째 종류의 세계 혁명 즉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자본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를 그 주력군으로 하며 식민지, 반식민지의 피압박 민족을 그 동맹군으로 한다. 피압박 민족 내부에 있어서 혁명에 참가하는 그 계급, 정당 또는 개인들이 어떠한 계급, 정당 또는 개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들이 이 점을 의식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그들이 이 점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오직 그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혁명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며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동맹군으로 된다.

오늘에 와서 중국 혁명은 그 의의가 한층 더 커졌다. 오늘날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 및 정치적 위기로 말미암아 세계가 나날이 제 2 차 세계 대전으로 끌려 들어 가고 있는 때이며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에 이행하게 될 쓰련이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 및 피압박 민족을 령도하고 원조하여 제국주의 전쟁에 반항하며 자본주의적 반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때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타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이며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지식인 및 기타의 소부르조아지들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이미 위대한 독립적인 정치적 역량으로 형성된 때이다. 오늘날 이러한 시기에 처하여 있는 우리로서 중국 혁명의 세계적 의의가 더한층 커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혁명은 세계 혁

명의 위대한 일부분이다.

중국 혁명의 이 첫 단계(그것은 또 많은 작은 단계로 구분된다)는 그 사회적 성격으로 말한다면 아직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새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이미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더욱 이러한 세계 혁명의 위대한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 혁명의 위대한 동맹군으로 되었다. 이 혁명의 첫 걸음 즉 제 1 단계는 결코 중국 부르주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할 수도 없으며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를 그 정도자로 하는 중국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 독재의 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리 하여 그 제 1 단계를 끝 마친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제 2 단계어로 발전시켜 중국에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하 중국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며 20 년 이래(1919년 5.4 운동으로부터 처서)의 새로운 혁명 과정이며 현하 중국 혁명의 생동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이다.

## 5. 신민주주의적 정치

중국 혁명은 두 개의 력사적 단계로 구분되며 그 제 1 단계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이것은 중국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특성이자. 이 새로운 특성이 중국 내부의 정치 관계 및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 아래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919년 5.4 운동 이전(5.4 운동은 1914년 제 1 차 제국주의 대전 및 1917년 로씨야 10월 혁명 후에 일어났다)에 있어서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정치 지도자는 중국의 소부르조아지 및 부르조아지(그들의 지식인)였다. 당시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는 아직 각성한, 독립적인 계급적 역량으로서 정치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소부르조아지 및 부르조아지의 추종자로서 혁명에 참가하였다. 껍데기 들면 신헌 혁명 때 프로레타리아트는 바로 이러한 계급이었다.

5.4 운동 이후에 있어서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가 계속 혁명에 참가하기는 하였지만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정치 지도자는 이미 중국 부르조아지인 것이 아니라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였다. 이 때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는 벌써 그 자신의 장성과 로씨야 혁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성한, 독립적인 정치 역량으로 신속히 전화되었다.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구호와 전반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강령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것이며 토지 혁명은 중국 공산당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다.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부르조아지이며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국주의 시대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시기 및 일정한 정도에서는 의연히 외래 제국주의 및 자국의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후자는 껍데기 들면 신헌 혁명 시기 및 북벌 전쟁 시기에 있어서)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

소부르조아지와 연합하여 자기들이 반대하려는 적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부르조아지와 제정 로씨야의 부르조아지와의 다른 점이다. 제정 로씨야는 벌써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로서 남을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씨야의 부르조아지에게는 아무런 혁명성도 없었다. 제정 로씨야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는 부르조아지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로서 남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는 일정한 시기와 일정한 정도에서 혁명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는 민족 부르조아지의 이러한 혁명성을 홀시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식민지, 반식민지의 부르조아지이고 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성질, 즉 혁명의 적에 대한 타협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는 혁명을 할 때에도 제국주의와 완전히 갈라지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은 농촌에서의 소작료 착취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주의를 철저히 전복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또 전복할 수도 없으며 봉건 세력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그것을 철저히 전복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또 전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국 민족 부르조아지로서는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두 개의 기본 문제, 즉 두 개의 큰 기본 임무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국민당을 그 대표자로 하는 중국의 대부르조아지를 본다면 그들은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오랜 기간에 줄곧 제국주의의 품안에 안겨 있었으며 또 봉건 세력과 동맹을 맺고 혁명적 인민을 반대하여 왔다.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도 1927년 및 그 후의 한 시기 동안 반혁명을 불태른 적이 있었다. 항일 전쟁 과정에 왕 정위를 그 대표자로 하는 대부르조아지의 일부는 또 적에게 투항하여 대부르조아지의 새로운 배반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또 중국 부르조아지가 역사 상의 구미 각국의 부르조아지 특히는 프랑스의 부르조아지와 다른 점이다. 구미 각국에 있어서 특히 프랑스에 있어서는 그들이 혁명적 시대에 처하여 있을 당시의 부르조아 혁명은 비교적 철저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르조아지에게는 이 정도의 철저성조차 없다.

일방으로——혁명에 참가할 가능성, 타방으로——혁명의 적에 대한 타협성, 이것이 곧 중국 부르조아지의 《일신 량역》의 량면성이다. 이러한 량면성은 역사 상의 구미 부르조아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큰 적이 앞에 닥치면 그들은 로동자, 농민과 연합하여 적을 반대하고 로동자, 농민이 각성하면 그들은 또 적과 연합하여 로동자, 농민을 반대한다. 이 점은 세계 각국의 부르조아지들의 일반적 법칙인 것으로서 중국 부르조아지에게 있어서는 이 특성이 더욱 돌출할 따름이다.

중국에서는 인민을 령도하여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타도할 수 있는 자가 인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인민들의 철칙의 원수가 제국주의와

불건 세력이고 특히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에 있어서는 인민을 령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또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민의 구성인 것이다. 력사가 실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중국 부르조아지는 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책임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어깨 위에 지워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지식인 및 기타의 소부르조아지는 여하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적 세력이다. 혹은 이미 작성하였고 혹은 작성하면서 있는 이러한 계급들은 필연적으로 중화 민주 공화국의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의 기본적 부분으로 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령도적 력량으로 될 것이다. 지금 창건하려는 중화 민주 공화국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 령도 하에서의 반제, 반봉건적인 모든 사람들의 연합 독재의 민주 공화국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즉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또 진정한 혁명적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신삼민주의 공화국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일면으로 구민주주의 공화국과 같은 그러한 낡은 형태의, 구미식의, 부르조아 독재의 자본주의 공화국과는 다르다. 그러한 공화국은 이미 때가 지난 것이다. 다른 일면으로 그것은 또 쏘련식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공화국과도 다르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화국은 이미 쏘련에서 강대하여지고 있으며 또 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수립될 것이며 그것은 틀림 없이 장차 공업이 발달한 모든 국가들의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에 있어서의 지배



적인 형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국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이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취할 국가 형태는 오직 세 번째 형태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즉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형태이므로 과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필요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그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구분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즉 (ㄱ) 부르주아 독재의 공화국, (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공화국, (ㄷ) 몇 개 혁명적 계급의 연합 독재의 공화국이다.

첫째 형태는 구민주주의 국가이다. 제 2 차 제국주의 전쟁이 폭발된 오늘에 있어서 허다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냄새조차 없어졌고 부르주아지의 피비린 내 나는 군사적 독재로 이미 전환되었거나 전환되어 가고 있다. 지주 및 부르주아지가 연합하여 독재하는 일부 국가들도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다.

둘째 형태는 소련에서 이미 실현된 외에 현재 자본주의 제 국가에서 준비되고 있다. 장래에 가서 그것은 일정한 기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형태로 될 것이다.

셋째 형태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이 취하는 과도적인 국가 형태이다. 각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각이한 특성들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대동 중의 소이인 것이다. 오직 그 혁명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의 혁명이라면 그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은 기본 상 필연적으로 같게 될 것이다. 즉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몇 개의 계급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독재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 될 것이다. 오늘의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국가 형태는 다름 아닌 항일 통일 전선의 형태이다. 그것은 항일하는 것이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며 또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는 것이고 통일 전선적인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항전을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공산당이 명도하는 항일 민주 근거지를 제외한 기타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민주주의화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약점을 리용하여 대대적으로 침입하고 있다. 만일 과거의 방침을 그냥 변경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운명은 매우 위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국체》 문제이다. 이 국체 문제는 청조 말년부터 수십 년 동안이나 투쟁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똑똑히 해명되지 못 하고 있다. 사실인즉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 즉 국가에 있어서 사회 각 계급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다. 부르조아지는 언제나 이러한 계급적 지위를 은폐하고 《국민》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여 실지로 자기들의 일계급 독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은폐는 혁명적 인민들에게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똑똑히 밝혀 주어야 한다. 《국민》이라는 이 명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혁명 분자, 민족 반역자들은 국민 속에 들지 않는다. 반혁명 분자, 민족 반역자에 대한 일체 혁명적 계급들의 독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다.

《근세 각국의 소위 민권 제도는 왕왕 부르조아지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1924년 국공 합작의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회의의 선언에서 선포한 장엄한 성명이다. 지난 16 년 동안 국민당 자신이 이 성명을 위반한 결과 오늘과 같이 국난이 엄중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국민당의 극히 큰 오유이다. 우리는 그들이 항일의 세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 오유를 시정하기 바란다.

이 밖에 또 《정체》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권 구성의 형태 문제를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사회적 계급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 적을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정권 기관을 조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적당한 형태의 정권 기관이 없이는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에 있어서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성 인민 대표 대회, 현 인민 대표 대회, 구 인민 대표 대회 그리고 향 인민 대표 대회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각급 대표 대회를 통하여 정부를 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신앙, 재산, 지식 정도 등의 차별이 없는, 진정으로 일반적이며 평등적인 선거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국가 내에서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지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인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혁명 투쟁을 지휘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며 신민주주의 정신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즉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이다. 오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정부라야만 모든 혁명적 인민들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으며 또 혁명의 원수들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신은 정부와 군대의 구성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없다면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며 이런 것을 가리켜 정체와 국체가 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국체는 각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 독재이고 정체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이다. 이것이 바로 신민주주의의 정치이며 신민주주의의 공화국이며 항일 통일 전선의 공화국이며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신삼민주의 공화국이며 명실이 부합되는 중화민국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중화민국이란 명칭은 있으나 아직 중화민국다운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그 명칭에 부합되게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과업이다.

이것이 혁명적 중국, 항일적 중국이 수립하여야 하며 또 단정코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내부적 정치 관계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국》 사업에서의 유일하게 정확한 방향이다.

## 6. 신민주주의적 경제

중국에서 수립할 공화국은 정치 면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적이어야 하고 경제 면에 있어서도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대은행, 대공업, 대상업은 이 공화국의 국가적 소유로 된다. 《무릇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었거나 혹은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껌컨대 은행, 철도, 항공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 하고 사유 자본 제도로 하여금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 하게 한다. 이것이 곧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이다.》 이 역시 국공 합작의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선포한 장엄한 성명이며 이것이 곧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경제 구성의 정확한 방침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령도 하의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영 경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며 전반 인민 경제에서의 령도적 력량으로 된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자본주의적인 기타의 사유 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으며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아직도 매우 낙후하기 때문이다.

이 공화국은 어떤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후 그것을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에게 분여함으로써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손 중산 선생의 구호를 실시하여 농촌에 있어서의 봉건적 관계를 일소하고 토지를 농민들의 사유 재산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부농 경제도 역시 그 존속을 허용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 소유권의 평균》의 방침이다. 이 방침의 정확한 구호가 즉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에게》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사회주의적 농업을 창설하지 않지만 《토

지는 발같이하는 자에게》라는 것이 실시된 기초 위에서 발  
진된 각종 합작 경제에는 역시 사회주의적 요소가 내포된다.

중국의 경제는 반드시 《자본의 절제》와 《토지 소유권의  
평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결코 《소수인이 사유로》 해서는 안  
되며 결코 소수의 자본가, 소수의 지주가 《국민의 생계를 좌  
우》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결코 구미식의 자본주의 사회  
를 건설하여서는 안 되며 또 결코 낡은 반봉건적 사회를 존속  
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감히 이 방향을 위반하는 자는  
틀림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또 제가 저를 망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혁명적 중국, 항일적 중국이 수립하여야 하며 또  
필연적으로 수립하게 될 내부적 경제 관계이다.

이러한 경제가 바로 신민주주의적 경제이다.

그리고 신민주주의적 정치는 곧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경  
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 7. 부르조아 독재를 반박한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정치 및 신민주주의 경제의 공화국은  
전국의 90% 이상의 인민들이 찬동하고 있는 것이며 이 길을  
버리고는 댄 길이 없다.

부르조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  
겠는가? 물론 이 길은 구미 부르조아지들이 이미 걸은 길이  
다. 그러나 어찌 하랴, 국제적, 국내적 환경은 중국이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국제 환경으로 말한다면 이 길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말하여 지금의 국제 환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투쟁하고 있는 환경이며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장성하는 환경이다. 중국에서 부르쵸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선 국제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용허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의 독립을 반대하며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반대하여 온 력사가 바로 중국의 근대사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혁명은 그 모두가 제국주의에게 교살 당하여 실패하였으며 무수한 혁명 선렬들은 이 때문에 철천의 원한을 품었던 것이다. 지금은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가 쳐 들어 와서 중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 자체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서 자기들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 부르쵸아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부르쵸아지가 중국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 사실 지금은 제국주의가 최후 발악을 하는 시기로서 제국주의는 멀지 않아 멸망될 것이며 《제국주의는 사멸하면서 있는 자본주의》<sup>[6]</sup>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바로 그 자신이 멀지 않아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더한층 식민지와 반식민지에 의존하여 생존하게 되며 결코 어떠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든지 부르쵸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는 바로 그 자신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 및 정치적 위기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

문에, 다시 말하면 멀지 않아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중국을 침공하며 기어코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이 부르조아 독재를 수립하는 길과 민족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을 끊어 버렸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가 용허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모든 제국주의는 다 우리의 적이다. 중국이 독립하려면 결코 사회주의 국가 및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원조를 떠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쓰련의 원조를 떠날 수 없으며 일본 및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 내에서 진행하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원조를 떠날 수 없다. 비록 중국 혁명은 반드시 일본 및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 혹은 그 중의 한두 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한 후에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력량이 첨가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바 없다. 특히 쓰련의 원조는 항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쓰련의 원조를 거절한다면 혁명은 실패되고 만다는 것을 1927년 이후의 반쏘 운동(7)의 교훈이 아주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지 않은가? 현 세계는 혁명과 전쟁의 새 시대에 처하여 있으며 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사멸하고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흥성하는 시대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중국에서 반제, 반봉건 투쟁이 승리한 후에 다시금 부르조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면 그야 말로 순전한 잠꼬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특수한 조건(부르조아지가 퇴락의 침략을 물리쳤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이 너무 미약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제 1 차 제국주의 대전 이후 및 10월 혁명 이후에는 그래도 케말식의 미약한 부르조아 독재의 토이기<sup>[8]</sup>가 산생되었다고 한다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와 소련이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한 이후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토이기가 생겨 날 수 없으며 4억 5천만 인구의 토이기가 생기는 것은 더구나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특수한 조건(부르조아지의 연약성 및 타협성, 프로레타리아트의 강대성 및 혁명의 철저성)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는 종래로 토이기에서와 같은 그러한 험한 일이 있는 적이 없다. 1927년에 중국의 제 1 차 대혁명이 실패한 후 중국의 부르조아 분자들은 한때 케말주의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부르짖지 않았던가? 그러나 중국의 케말은 어디 있는가? 중국의 부르조아 독재와 자본주의 사회는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소위 케말의 토이기까지도 나중에는 부득이 영 제국주의와 프랑스 제국주의의 품안으로 들어 가서 나날이 반식민지로 되고 제국주의적 반동 세계의 일부분으로 되지 않았던가! 현하의 국제 환경 하에서는 식민지, 반식민지의 어떠한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그는 제국주의 전선 편에 서서 세계 반혁명 력량의 일부분으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제국주의 전선 편에 서서 세계 혁명 력량의 일부분으로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그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다른 길은 없다.

국내 환경을 두고 말한다면 중국의 부르조아지는 필요한

교훈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대부르조아지를 비롯한 중국의 부르조아지는 1927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 농민 및 기타의 소부르조아지의 력량에 의하여 방금 승리하였을 때 이 인민 대중들을 차 버리고 혁명의 열매를 독차지한 후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과 반혁명적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동시에 있는 힘을 다 내어 10년 간의 《공산당 토벌》 전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오늘 강대한 적이 국토 안으로 깊이 쳐들어 왔고 항일 전쟁이 진행된 지도 이미 2년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이미 때가 지난 구미 부르조아지들의 낡은 길을 그 대로 답습하겠단 말인가? 과거의 《공산당 토벌 10년》에 아무런 부르조아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도 《토벌하여》 내지 못 하였는데 그래도 한번 더 시험하여 보겠단 말인가? 물론 《공산당 토벌 10년》에 《일당 독재》를 《토벌하여》 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독재에 불과한 것이다. 《공산당 토벌》을 한 지 4년(1927년부터 1931년의 9.18)까지만에는 《만주국》을 《토벌하여》 내었으며 거기에 6년을 더해서 1937년에 이르러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중국 본부에 《토벌하여》 들이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또 10년 동안 더 《토벌》하려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공산당 토벌》의 전형으로서 본래의 것과는 다소 구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남먼저 발 벗고 나서서 이러한 새로운 《공산당 토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인즉 바로 왕정위이다. 그는 이미 명성이 대단한 신식 반공 인물이 되었다. 누구나 왕정위 편에 가담하고자 한다면 가담할 수 있다. 그

러나 그렇게 되면 부르조아 독재요, 자본주의 사회요, 케말주의요, 현대적 국가요, 일당 독재요, 한 개 주의요 하는 등등의 듣기 좋은 소리를 웨치기는 더한층 거북하여질 것이 아닌가? 만일 왕 정위 편에 가담하지 않고 항일 편에 가담하려 하면서 또 항일이 승리한 후에는 항일적 인민들을 차 버리고 항일의 성과를 자기가 독차지하여 《일당 독재 만세》를 부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꿈 꾸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일, 항일 하는데 대체 누구의 힘으로 할 것인가? 노동자, 농민 및 기타의 소부르조아지를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도 감히 그들을 차려고 덤빈다면 그 자신이 도리어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또 보통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중국 부르조아지의 완고파(내가 말하는 것은 완고파이다)는 20년 간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모양이다. 보라, 그들은 아직도 《공산당을 제한하자》, 《공산당을 용해하자》, 《공산당을 반대하자》느니 무엇이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이당 활동 제한법》이라는 것을 내놓은 후에 또 《이당 문제 처리법》이라는 것을 하나 내놓았고 또 《이당 문제 처리법의 실시 방안》이라는 것을 하나 내놓지 않았는가? 잘도 한다. 도대체 이렇게 《제한》하고 《처리》하여 가다가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할 작정이며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우리는 이 량반들에게 정의껏 충고하고 싶다——다시는 자기들의 오유를 중복하지 말고 눈을 뜨고 중국과 세계를 한 번 살펴 보며 국내와 국외를 한 번 살펴 보며 또 현재

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한 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냥 오유를 계속하여 나간다면 민족의 운명이 불행에 당하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 자신의 일도 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이며 필연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다. 중국 부르주아지의 완고파가 만일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미 없게 될 것이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의 항일 통일 전선이 지속되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항일 사업을 승리하도록 할 것을 희망한다. 이것만이 상책이며 이 이외의 것은 모두가 하책이다. 이것은 우리 공산당원들의 충심으로부터의 권고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알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

중국의 옛말에는 《밥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다. 적을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치는 이상 밥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하며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여야 하며 글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읽어야 한다. 《혼자 삼키려 하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 한다》는 그러한 수작은 봉건 경주들이 하던 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20 세기 40 년대에 와서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모든 혁명적인 사람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항일하며 하는 모든 계급, 계층, 정당, 정치 단체 및 개인들과 통일 전선을 견지하며 장기적으로 합작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물론하고 공산당을 배척하며

한다면 그것은 안 되며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중국은 계속 항전하여야 하며 단결하여야 하며 진보하여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투항하려 하며 분열하려 하며 퇴보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8. <좌>경 공담주의를 반박한다

부르주아 독재의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의 길로는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혁명은 제 1 보이고 그것이 앞으로 제 2 보어로 즉 사회주의에로 발전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중국은 또한 사회주의 시대에 들어 가야만 참으로 행복한 시대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사회주의를 실시할 때가 아니다. 현하 중국 혁명의 임무는 반제, 반봉건이며 이 임무가 완수되기 전에는 사회주의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 중국 혁명은 두 걸음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바 그 첫 걸음은 신민주주의이고 둘째 걸음에 가서야 사회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첫 걸음은 결코 일조 일적에 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일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우리는 공상가가 아니며 우리는 당면한 실제 조건을 떠날 수 없다.

악의를 품은 일부 선전가들은 고의적으로 이 두 개의 상이한 혁명 단계를 뒤섞어 가지고 어떠한 혁명이든지 모두 삼민주주의에 포괄되어 있으므로 공산주의는 존재할 리유를 상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위 《1차 혁명론》을 부르짖고 있으며 이러한 《리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및 공산당을 애써 반대하고 있으며 팔로군, 신사군 및 섬감녕 번구를 애써 반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일체 혁명을 근본적으로 소멸하며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성을 반대하며 항일의 철저성을 반대함으로써 일본 침략자에게 투항하기 위한 여론을 준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정형은 일본 제국주의가 계획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는 무한을 점령한 후 단순히 무력만으로는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치적 진공 및 경제적 유인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진공이라는 것은 항일 전선 내에서 동요분자들을 유혹하여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며 국공 합작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유인이라는 것은 소위 《실업의 공동 경영》을 말한다. 화중과 화남에서는 일본 침략자가 중국 자본가들에게 51%를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일본 자본이 49%를 차지하기로 하였으며 화북에서는 일본 침략자가 중국 자본가들에게 49%를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일본 자본이 51%를 차지하기로 하였다. 일본 침략자는 또 중국 자본가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산업을 그들에게 돌려 주고 그것을 환산하여 자본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되자 량심을 잃은 일부 자본가들은 리욕에 눈이 어두워 그 길로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왕 정위를 그 대표자로 한 일부 자본가들은 이미 투항하였다. 이 밖에 항일 전선 내에 숨어 있는 일부 자본가들도 달려 나가 투항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적이 제 발이 저리다는 격으로 공산당이 자기들의 갈 길을 막지나 않을가 하여, 특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욕하지나 않을가 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 하여 그들은 한데 모여 회의를 열고 우선 문화계, 여론계로부터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계획이 정하여진 이상 시기를 놓칠세라 몇 명의 현학쟁이<sup>[9]</sup>를 고용하고 게다가 또 몇 명의 트로츠키 분자까지 더 끌어 넣어 그들로 하여금 한바탕 붓대를 휘둘러 합부로 떠들어 대고 합부로 치고 찌르게 하고 있다. 그리 하여 《1차 혁명론》이니, 공산주의는 중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느니, 공산당은 중국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느니, 팔로군, 신사군은 항일을 파괴하며 이동하기만 하고 싸우지는 않는다느니, 섬감녕 변구는 봉건적할거라느니, 공산당은 말을 듣지 않으며 동일을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며 교란한다느니 뭐니 하는 등등의 말들을 퍼뜨리고 있으며 이런 수작으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가 닥쳐 오면 자본가들이 아주 정당한 것처럼 49% 또는 51%를 얻고 전 민족의 리익을 몽땅 적에게 팔아 먹자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대들'보를 훔쳐 내고 기둥을 바꾸어 낸다는 것으로서 투항하기 전의 사상적 준비 또는 여론적 준비인 것이다. 이 망반들은 능청스럽게 《1차 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49% 또는 51%를 위한 것이니 그야 말로 지독히 고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혁명론》이란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리론이

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악의를 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역시 《1차 혁명론》이라는 것에 미혹되어 있고 소위 《정치 혁명과 사회 혁명을 단꺼번에 다 완수한다》는 순수한 주관적인 생각에 미혹되어 있으며 혁명에는 단계가 있어 오직 한 혁명으로부터 다른 한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고 소위 《단꺼번에 다 완수한다》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혁명의 절차를 뒤섞어 놓으며 당면 과업에 대한 자기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역시 매우 유해한 것이다. 가령 두 혁명 단계에 있어서 제 1 단계는 제 2 단계를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며 두 단계는 반드시 련접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부르조아 독재의 단계가 끼이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이며 바로 맑스주의의 혁명 발전론인 것이다. 가령 민주주의 혁명은 자기의 일정한 임무가 없고 자기의 일정한 기간도 없으며 다른 시기에 가서야만 완수할 수 있는 다른 임무,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임무를 민주주의적 임무에 다 합쳐서 완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단꺼번에 다 완수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상이며 진정한 혁명자로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 9. 완고파를 반박한다

이에 부르조아 완고파들은 뛰여 나와서 그렇다면 좋다,



당신네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 제도를 다음 단계로 밀어 버렸고 또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sup>[10]</sup>고 성명한 이상 공산주의를 당분간 건어 치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한 개 주의》라는 표제 하에서 이미 발광적인 소음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의 본질은 바로 완고 분자들의 부르쥬아 전제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좀 사양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들상식한 것이라고 하여도 좋다.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전반 사상 체계인 동시에 또 새로운 사회 제도이다. 이러한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는 다른 어떠한 사상 체계와 다른 어떠한 사회 제도라도 구별되는 것이며 인류 역사가 있는 이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봉건주의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는 이미 역사 박물관에 들어 간 물건이다. 자본주의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도 그 일부분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 갔으며(쓰런에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이미 《서산에 기울어진 해처럼 숨이 뜰 넘어 가려 하고 있으며 인명이 위독하여 아침에 저녁 일을 알 수 없다》는 격이어서 멀지 않아 박물관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오직 공산주의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만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엎을듯 한 기세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위력으로 온 세계에 가득 차 가면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에 과학적 공산주의가 있게 된 후부터 사람들의 시야는 넓어졌으며 중국 혁명도 그 면모가 달라졌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공산주의의 지도

가 없이는 절대 성공될 수 없으며 혁명의 다음 단계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말할 여지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완고파들이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어 대며 공산주의를 《건어 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원인이다. 사실인즉 이것은 《건어 치울 수》 없는 것이며 일단 그것을 건어 치운다면 중국은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공산주의를 자기의 구성으로 삼고 있으며 지금의 중국도 역시 그렇다.

사회 제도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 공산당에게는 현재의 강령과 장래의 강령, 즉 최저 강령과 최고 강령이라는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에는 신민주주의이고 장래에는 사회주의이며 이것은 유기적으로 구성된 두 부분으로서 전반 공산주의 사상 체계에 의하여 지도된다. 공산당의 최저 강령과 삼민주주의의 정치 원칙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여 공산주의를 《건어 치우라》고 미친듯이 떠들어 대는 것은 너무도 황당 무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산당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삼민주주의의 정치 원칙이 자기들의 최저 강령과 기본적으로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삼민주의를 항일 통일 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삼을 것》을 승인할 수 있었으며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삼민주의 간의 통일 전선이며 손 중산이 《공산주의는 삼민주의의 좋은 벗이다》<sup>[11]</sup>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통일 전선을 가리킨 것이다. 공산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제상 통일 전선을 부인하는 것이다. 완고파도 바로 그 일당주의를 신봉하고 통일 전선을 부인하려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부인하는 그러한 황당 무계한 논법을 조작하여 낸 것이다.

《한 개 주의》도 역시 통하지 않는다. 계급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계급의 수효 만큼 주의가 있게 되며 심지어는 한 계급 내의 각 집단도 자기 자기 주의가 있게 된다. 지금 봉건 계급에게는 봉건주의가 있고 부르주아지에게는 자본주의가 있고 불교도들에게는 불교주의가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주의가 있고 농민에게는 다신주의(多神主義)가 있다. 근년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또 케말주의이니, 파쇼주의이니, 유생주의[12]이니,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주의》[13]이니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프로케타리아트만은 자기의 공산주의를 가져서 안 되는가? 이무다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주의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만 보면 《건어 치우라》고 고향을 치는가? 솔직히 말하면 《건어 치운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러지 말고 경쟁을 하자. 그 누구든지 경쟁에서 공산주의를 이겨 낸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불운을 승인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 할 것 같으면 그 《한 개 주의》라는 반민주주의적 작품을 하루 속히 《건어 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해를 없애며 완고파들의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하여 삼민주의와 공산주의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똑똑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삼민주의와 공산주의란 이 두 주의를 비교하여 보면 거기에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첫째, 같은 부분.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두 주위의 기본 정강이 같다. 1924년에 손 중산이 새로이 해석을 가한 삼민주의 중의 혁명적인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의 세 개 정치 원칙은 중국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정강과 기본적으로 같다. 이러한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삼민주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의, 두 당의 동일 전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면을 홀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다른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1)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그 강령의 일부가 다르다. 공산주의의 전반 민주주의 혁명 정강에는 인민의 권력과 8 시간 노동제의 철저한 실현 및 철저한 토지 혁명 강령이 포괄되어 있으나 삼민주의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 만일 삼민주의가 이러한 점들을 보충하지 않으며 또 그것을 실시하려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정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같을 뿐이고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2)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있는 점과 없는 점이 다르다. 공산주의에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 외에 또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있다. 그러므로 최저 강령 외에 또 최고 강령, 즉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 제도를 실현하는 강령이 있다. 그러나 삼민주의에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만 있고 사회주의 혁명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최저 강령만 있고 최고 강령, 즉 사회주의 및 공산주

의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강령은 없다. (3) 세계관이 다르다. 공산주의의 세계관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지만 삼민주주의의 세계관은 소위 민생사관(民生史觀)이라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보아 그것은 이원론 또는 관념론으로서 량자는 상반된다. (4) 혁명의 철저성이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다. 즉 혁명의 철저성이 있다. 삼민주주의자들은 혁명과 진리에 가장 충직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지 못 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된다. 즉 혁명의 철저성이 없다. 위에서 말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량자 간의 다른 부분들이다. 이러한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 삼민주의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홀시하여 통일 면만 보고 모순 면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큰 잘못이다.

이러한 점들을 알게 되면 부르쥬아 완고파들이 공산주의를 《걸어 치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부르쥬아 전체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물상식한 데서 온 것이다.

## 10. 구삼민주주의와 신삼민주의

부르쥬아 완고파는 역사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 지식의 빈약하기가 령에 가깝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삼민주주의와의 구별을 모르거니와 신삼민주주의와 구삼민주주의와의 구별도 모른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삼민주의를 함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삼을 것>을 승인하며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는 것을 승인하며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이 삼민주의의 정치 원칙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민주의는 어떠한 삼민주의인가? 이러한 삼민주의는 다른 어떠한 삼민주의가 아니라 바로 손 중산 선생이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새로이 해석을 가한 삼민주의이다. 나는 환고파 량반들이 <공산당을 제한하며>, <공산당을 용해하며>, <공산당을 반대하는> 등 활동에서 의기양양해 하지만 말고 여가를 타서 이 선언도 한 번 읽어 보기를 바란다. 손 중산 선생이 이 선언에서 <국민당의 삼민주의에 대한 참된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삼민주의만이 참된 삼민주의이고 기타의 것은 모두가 가짜 삼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삼민주의에 대하여 한 해석만이 <참된 해석>이고 기타의 것은 모두가 가짜 해석이다. 아마 이것은 공산당의 <요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선언이 채택될 때 나와 많은 국민당원들은 그것을 적절 보았던 것이다.

이 선언은 삼민주의를 두 개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이전까지의 삼민주의는 낡은 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이며 낡은 반식민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삼민주의이며 구민주주의적 삼민주의이며 구삼민주의였다.

그 이후부터의 삼민주의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

이며 새로운 반식민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삼민주의이며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이며 신삼민주의이다. 오직 이러한 삼민주의만이 새로운 시기의 혁명적 삼민주의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기의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3대 정책의 삼민주의이다. 3대 정책이 없거나 3대 정책 가운데서 하나만 빠져도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는 모두 가짜 삼민주의로 되거나 절반 삼민주의로 된다.

첫째,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반드시 로씨야와 연합하는 삼민주의여야 한다. 지금의 사태는 아주 명백하다. 만일 로씨야와 연합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연합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1927년 이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사회주의 소련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일단 가일층 첨예화되면 중국은 이 편에 서지 않으면 저 편에 서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래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것은 몽상이다. 전 세계가 다 이 두 전선으로 휩쓸려 들어 가게 될 것이며 금후의 세계에서 《중립》이라는 말은 사람을 속이는 명사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자기 국토에 깊이 침입한 제국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만일 소련의 원조가 없다면 중국적 승리란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로씨야와의 연합을 버리고 제국주의와 연합한다면 반드시 《혁명》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반동적 삼민주의로 되고 말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립》적 삼민주의라는 것은 없고 혁명적이 아니면 반혁명적인 삼민주의가 있을 따름이다. 가령 왕 정위가 이전에 말한 바 그대로 한 번 《협공 속에서의 분투》<sup>[14]</sup>를 하여 보거나, 《협공 속에서 분투》하는 삼민주의를 실시하여 본다면 용감한 일이 아니겠는가?—그러나 가석하게도 그 발명자인 왕 정위 자신조차 이러한 삼민주의를 포기하고(혹은 《걸어 치우고》) 이제 와서는 제국주의와 연합하는 삼민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국주의에도 동쪽 제국주의와 서쪽 제국주의의 구별이 있는바 왕 정위가 연합한 것은 동쪽 제국주의이지만 나는 그와 반대로 서쪽 제국주의들과 연합하여 동쪽 제국주의를 진격할 터인데 이래도 혁명이 아니란 말인가?—그러나 어찌 하랴, 서쪽 제국주의도 반쏘, 반공하려 하는 만큼 그들과 연합하면 그대에게 북쪽으로 진격하라고 할 것이니 그대의 혁명은 역시 수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정형들이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절대 제국주의와 연합하여로써야를 반대하는 삼민주의로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로써야와 연합하는 삼민주의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둘째,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반드시 공산당과 연합하는 삼민주의여야 한다. 만일 공산당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을 반대하게 된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왕 정위의 정책이다. 그대도 공산당을 반대하겠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를 자기들의 반공 회사에 가입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대는 민족 반역자라는 혐의를 좀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일본을 따라 가지 않고 다른 나라만 따라 가겠다——그것도 우스운 소리이다. 누구를 따라 가든지 간에 공산당을 반대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민족 반역자인 것이다. 왜냐 하면 그대는 다시는 항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서 공산당을 반대하겠다——그것은 잠꼬대인 것이다.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제국주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큰 반혁명 활동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호걸이 있단 말인가? 지난날 거의 전 세계의 제국주의 력량을 동원하여 10년 동안이나 반대하였지만 반대하여 내지 못한 공산당을 지금 갑자기 《혼자서》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듣는 바에 의하면 외부의 일부 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해 낼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말의 틀린 점은 절반뿐이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 다음 절반은 옳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다. 왜냐 하면 백성들이 《공산당》을 좋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좋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절대 사정을 보지 않는다. 민족의 원수가 국토에 깊이 쳐 들어 온 이 때에 그대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면 백성들은 그대들을 죽여 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이다. 누구든지 공산당을 반대하려면 그 자신이

가루가 될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가루가 될 각오를 하지 못 하였다면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편이 확실히 나올 것이다. 이것은 모든 반공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충고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삼민주의는 공산당과 연합하는 삼민주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민주의는 멸망하고 말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삼민주의의 존망 문제이다. 공산당과 연합하면 삼민주의는 존속될 것이고 공산당을 반대하면 삼민주의는 멸망한다. 이 점에 대하여 누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세째,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반드시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의 삼민주의여야 한다.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로동자, 농민을 진심으로 부조하지 않으며 《총리의 유촉》에 있는 《민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쓰딸린은 《민족 문제는 본질 상 농민 문제이다.》<sup>[15]</sup>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즉 중국의 혁명은 본질 상 농민 혁명이며 지금의 항일은 본질 상 농민의 항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적 정치란 본질 상 권리를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신삼민주의, 진짜 삼민주의는 본질 상 농민 혁명주의이다. 대중적 문화란 본질 상 농민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다. 항일 전쟁은 본질 상 농민 전쟁이다. 지금은 《등산주의》<sup>[16]</sup>의 시기여서 우리는 회의를 열고, 사무를 보고, 수업을 하고, 신문물을 내고, 저작을 하고, 연극을 하는 등 모든 일을 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 상 다 농민을 위한 것이다. 항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본질 상 다 농민이 공급하고 있다. 《본질 상》이라는 말은 기본 상이라는 말이며 다른 부분을 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쓰말린 자신이 해명한 바이다. 중국 인구의 80%가 농민이라는 것은 소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므로 농민 문제는 중국 혁명의 기본 문제로 되었으며 농민의 력량은 중국 혁명의 주 되는 력량으로 되어 있다. 농민을 제외하고 중국 인구의 두 번째 부분은 노동자이다. 중국에는 산업 노동자가 수백만 명이 있고 수공업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가 수천만 명이 있다. 각종 산업 노동자들이 없으면 중국은 살아 나갈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공업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산업 노동 계급이 없이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중국 혁명의 령도자이며 혁명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혁명적 삼민주의, 신 삼민주의 또는 진짜 삼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의 삼민주의로 된다.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이 없으며 노동자, 농민을 진심으로 부조하지 않으며 또 《민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삼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3대 정책을 떠난 삼민주의는 전도가 없는 것이다. 일체 량심 있는 삼민주의자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이러한 3대 정책의 삼민주의,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진짜 삼민주의는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이고 구삼민주의의 발전이고 손 중산 선생의 큰 공로이며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 된 시대에 산생된 것이다. 오직 이러한 삼민주의에 대하여서만 중국 공산당은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며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고 선포한다. 오직 이러한 삼민주의만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정강 즉 그의 최저 강령과 기본적으로 같다.

구삼민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중국 혁명의 구시기의 산물이다. 그 때의 로씨야는 제국주의적 로씨야였으므로 물론 로씨야와 연합하는 정책이 있을 수 없었고 그 때의 국내에는 공산당이 없었으므로 물론 공산당과 연합하는 정책이 있을 수 없었으며 또 그 때의 로농 운동은 정치 면에서의 자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 하여 아직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 하였으므로 물론 로동자, 농민과 연합하는 정책이 없었다. 그러므로 1924년에 국민당이 재조직되기 전까지의 삼민주의는 낡은 범주에 속한 삼민주의였으며 때가 지난 삼민주의였다. 만일 그것을 신삼민주의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국민당은 전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명한 손 중산은 이 점을 간파하고 쑨원과 중국 공산당의 원조 하에서 삼민주의에 새로운 해석을 가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역사적 특성을 가지게 하였고 삼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고 제 1 차 국공 합작을 성립하였고 전국 인민의 동정을 받았고

1924~1927년의 혁명을 진행하였다.

구삼민주의는 지나 간 시기에 있어서는 혁명적이었으며 지나 간 시기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 신삼민주의가 이미 형성된 후에도 과거에 하던 그 대로 하려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생긴 후에도 로씨야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려 한다면, 공산당이 생긴 후에도 공산당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려 한다면, 노동자, 농민들이 이미 각성하였고 또 자기의 정치적 위력을 나타낸 후에도 로농을 부조하는 정책을 반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때를 모르는 반동적인 물건으로 되고 말 것이다. 1927년 이후의 반동은 이와 같이 때를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다. 옛말에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준걸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오늘의 삼민주의자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여 두기를 바란다.

만일 낡은 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라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과 기본적으로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낡은 시기의 것이며 때가 지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로씨야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노동자, 농민을 반대하는 그러한 삼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반동적인 삼민주의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과 아무런 같은 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산주의의 적이므로 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 점도 삼민주의자들이 신중한 고려를 돌려야 할 점이다.

그러나 여하튼 반제, 반봉건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완수되기 전에는 신삼민주의가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

림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버리는 자는 단지 왕정위나 리정위 따위들 뿐일 것이다. 왕정위, 리정위 따위들이 제 아무리 로씨야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로농을 반대하는 가짜 삼민주의를 실시하려고 애 쓴다 할지라도 량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의연히 손 중산의 진짜 삼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1927년의 반동이 있은 후에도 많은 진정한 삼민주의자들이 중국 혁명을 위하여 계속 분투하였다고 한다면 민족의 원수가 국토에 깊이 쳐 들어 온 오늘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틀림 없이 수천 수만에 달할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시종 일관 모든 진실한 삼민주의자들과 장기적으로 합작할 것이며 민족 반역자 및 죽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반공 분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벗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11. 신민주주의적 문화

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정치의 역사적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신민주주의 공화국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문화 문제로 넘어 갈 수 있다.

일정한 문화는 관념 형태에 있어서의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이다. 중국에는 제국주의 문화가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거나 절반 통치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분의 문화는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직접 경영하는 문화 기관들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 후안 무치한 일부 중국 사람들에 의하여서도 창도되고 있다. 노예화 사상을 품은 문화는 모두가 다 이 부류에 속한다. 중국에는 또 반봉건 문화가 있다. 이것은 반봉건적 정치 및 반봉건적 경제를 반영한 것이다. 공자를 숭상하고 경서를 읽을 것을 주장하며 낡은 폐교와 낡은 사상을 창도하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문화의 대표자들이다. 제국주의 문화와 반봉건 문화는 아주 친밀한 두 형제이며 그것들은 문화 면에서의 반동적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의 새 문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 문화는 제국주의와 봉건 계급에게 복무하는 것이며 타도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 문화도 건설할 수 없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것이 건설될 수 없으며 낡은 것을 막지 않고서는 새것이 흘러 나올 수 없으며 낡은 것을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새것이 전진할 수 없다. 그것들 간의 투쟁은 생사 판가리의 투쟁이다.

새 문화는 관념 형태에 있어서 새 정치 및 새 경제를 반영한 것이며 새 정치, 새 경제에 복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 3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 자본주의 경제가 발생된 후부터 중국 사회는 그 성격이 점차 개변되었다. 중국 사회는 아직 봉건 경제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완전한 봉건 사회가 아니라 반봉건 사회로 개변되었다. 봉건 경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경제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새로운 경제

와 동시에 발생되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력량이 곧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 및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력량이다. 그리고 관념 형태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력량 및 새로운 정치적 력량의 반영으로 되며 또 그것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곧 새 문화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없이는, 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지 및 프롤레타리아트가 없이는, 이러한 계급들의 정치적 력량이 없이는 새로운 관념 형태라는 것도, 새 문화라는 것도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력량, 새로운 경제적 력량, 새로운 문화적 력량은 다 중국의 혁명 력량이며 그것들은 낡은 정치, 낡은 경제, 낡은 문화를 반대한다. 이런 낡은 것들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일부분은 중국 자체의 반봉건적 정치, 경제, 문화이고 다른 일부분은 제국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이다. 그러되 후자가 그 맹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몹쓸 것들이며 철저히 쳐 부시여야 할 것들이다. 중국 사회에 있어서의 새것과 낡은 것 간의 투쟁은 곧 인민 대중(혁명적 계급)의 새로운 세력과 제국주의, 봉건 계급의 낡은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새것과 낡은 것 간의 투쟁이 곧 혁명과 반혁명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아편 전쟁 때로부터 치면 옹근 100 년이 되었고 신헌 혁명 때로부터 쳐도 거의 30 년이나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혁명에도 새것과 낡은 것의 구분이 있다. 한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는 새것이던 것이 다른 력사적 시기에 와서는 낡은 것으로 되고 만다. 중



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100년 동안을 전 80년과 후 20년의 두 개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개의 큰 단락에는 자기 기본적인, 역사적 성격을 띤 특성이 있다. 즉 전 80년 간에 있어서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범주에 속하였으며 후 20년 간에 있어서는 국제, 국내적 정치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구민주주의——이것은 전 80년의 특성이다. 신민주주의——이것은 후 20년의 특성이다. 이러한 구별은 정치 면에서 그러할뿐더러 문화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구별이 문화 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래에 설명하려는 문제이다.

## 12. 중국 문화 혁명의 역사적 특성

중국의 문화 전선 또는 사상 전선에 있어서 《5.4》 이전과 《5.4》 이후는 두 개의 상이한 역사적 시기를 이루고 있다.

《5.4》 이전까지의 중국 문화 전선에서의 투쟁은 부르조아지의 새 문화와 봉건 계급의 낡은 문화 간의 투쟁이었다. 《5.4》 이전에 있어서의 학교와 과거 간의 투쟁[17], 신학과 구학 간의 투쟁, 양학과 국학 간의 투쟁은 모두 이러한 성격을 띤 것이었다. 당시의 소위 학교, 신학, 양학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부르조아지를 대표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던 자연 과학과 부르조아지의 사회 정치 학설이었다(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또 중국의 봉건적 여독이 많

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 신학이라는 이 사상은 중국 봉건 사상과 투쟁하는 혁명적 역할을 놀았으며 낡은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복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르조아지가 무력하고 세계가 이미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 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조아 사상은 겨우 몇 번 싸우고는 외래 제국주의의 노예화 사상과 중국 봉건주의의 복고 사상과의 반동적 동맹에 의하여 격퇴 당하고 말았다. 사상 상에서의 이 반동적 동맹군이 약간의 반격을 가하자마자 소위 신학은 곧 군기를 눕히고 복을 쉬면서 퇴각을 선언하였으며 평혼을 잃어 버리고 허울만 남게 되었다. 낡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문화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미 부패하고 무력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그것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다.

《5. 4》 이후는 그렇지 않다. 《5. 4》 이후 중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생력군이 산생되었다. 이것은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령도하는 공산주의적 문화 사상, 즉 공산주의적 세계관 및 사회 혁명론이다. 5. 4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과 노동 운동의 진정한 개시는 1921년의 일인바 모두가 제 1 차 세계 대전 종결 후와 10월 혁명 후의, 즉 민족 문제와 식민지 혁명 운동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기의 과거의 면모를 개변하게 된 시기의 일이다. 여기서 중국 혁명과 세계 혁명 간의 련계는 아주 뚜렷하다. 중국의 정치 생력군, 즉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이 문화 생력군은 새로운 장축에 새로

운 무기를 들고 모든 가능한 동맹군과 연합하여 자기의 진세를 벌이고 제국주의 문화와 봉건 문화에 대하여 영웅한 진공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생력군은 사회 과학 영역과 문학 예술 영역에 있어서, 그 철학 면에서나 경제학 면에서나 정치학 면에서나 군사학 면에서나 역사학 면에서나 문학 면에서나 예술 면에서나(또 연극, 영화, 음악, 조각, 회화 등을 물론하고)를 막론하고 극히 큰 발전을 가져 왔다. 지난 20 년 동안 이 새 문화 부대의 창끝이 향하는 곳에는 사상으로부터 형식(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극히 큰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거세찬 기세와 맹렬한 위력은 그야 말로 그것을 막아 낼 적이라고는 없는 것이었다. 동원된 범위가 광범하기로는 과거 중국의 모든 역사적 시대를 초월하였다. 로신은 바로 이 새 문화 부대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용감한 기수이다. 로신은 중국 문화 혁명의 주장이며 그는 위대한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혁명가이다. 로신은 굴할 줄 모르는 가장 강직한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노예 근성과 아첨하는 태도가 추호도 없었다. 이 점은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성격이다. 로신은 문화 전선에서 전체 민족의 대다수를 대표하여 적진을 무찌른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견결하고 가장 충직하고 가장 정열적인 절세의 민족 영웅이다. 로신의 방향이 바로 중화 민족의 새 문화의 방향이다.

《5. 4》 이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 문화는 구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 부르주아지의 자본주의 문화 혁명

의 일부분이었다. <5. 4>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 문화는 신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문화 혁명의 일부분이다.

<5. 4> 이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 문화 운동과 중국의 문화 혁명은 부르조아지가 평도한 것이며 그들은 그래도 평도적 역할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5. 4> 이후 이 계급의 문화 사상은 이 계급의 정치 상의 것보다도 더 락후하여 평도적 역할을 전혀 놀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기껏 해야 혁명 시기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맹원으로 될 수 있을 뿐이며 맹주의 자격은 프로레타리아 문화 사상의 어깨에 지워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철 같은 사실이다.

신민주주의적 문화라는 것은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항일 통일 전선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문화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이 평도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계급의 문화 사상도 그것을 평도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적 문화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프로레타리아트가 평도하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

### 13. 네 시기

문화 혁명이란 관념 형태에 있어서 정치 혁명과 경제 혁명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문화 혁명은 정치 혁명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선

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화 혁명의 통일 전선은 네 시기로 구분된다. 제 1 시기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의 2년 동안이며 제 2 시기는 1921년부터 1927년까지의 6년 동안이며 제 3 시기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10년 동안이며 제 4 시기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의 3년 동안이다.

제 1 시기는 1919년 5.4 운동으로부터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건될 때까지이다. 이 시기는 5.4 운동이 그 주요한 표식으로 된다.

5.4 운동은 반제국주의적 운동이며 또 반봉건적 운동이다. 5.4 운동의 특출한 역사적 의의는 그것이 신헌 혁명에서 볼 수 없었던 자세로 나선 데 있다. 즉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봉건주의를 반대한 데 있다. 5.4 운동이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당시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가일층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또 당시 중국의 혁명적 지식인들이 로씨야, 독일, 오지리 3대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와해되고 영국, 프랑스 2대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상처를 입고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창건하고 독일, 헝그리아, 이탈리아 3개국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을 하고 있는 것 등을 목격하였으며 그리하여 중국 민족 해방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5.4 운동은 당시의 세계 혁명의 호소 하에서, 로씨야 혁명의 호소 하에서, 레닌의 호소 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5.4 운동

은 당시의 프로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 5.4 운동 시기에 아직 중국 공산당은 없었지만 로씨야 혁명을 찬동하는, 초보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소유한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다. 5.4 운동은 그 시초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적 지식인, 혁명적 소부르조아 지식인 및 부르조아 지식인(이들은 당시 운동에서의 우익이었다) 등이 세 부분 사람들의 통일 전선의 혁명 운동이었다. 그 약점은 이 운동이 지식인에만 국한되고 노동자, 농민이 참가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이 6.3 운동<sup>[18]</sup>으로 발전되었을 때에는 지식인 뿐만 아니라 광범한 프로레타리아트, 소부르조아지 및 부르조아지도 참가하게 되어 전국적 범위의 혁명 운동으로 되었다. 5.4 운동에 의하여 진행된 문화 혁명은 봉건 문화를 철저히 반대하는 운동이었으며 중국 유사 이래 이처럼 위대하고도 철저한 문화 혁명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당시에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새 도덕을 창도하며 낡은 문학을 반대하고 새 문학을 창도하는 것을 문화 혁명의 두 목의 큰 기치로 삼고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 당시에 이 문화 운동은 아직 노동자, 농민 대중 속에까지는 보급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 문화 운동이 《평민 문학》이라는 구호를 내걸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평민》이라는 것은 실제 상 도시 소부르조아지 및 부르조아지의 지식인 즉 소위 시민 계급의 지식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5.4 운동은 사상 면에서와 간부 면에서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준비하였으며 또 5.30 운동과 북벌 전쟁을 준비하였다. 당시 부르조아 지식인들은 5.4 운동의 우익이었으며 제 2

시기에 이르러 그들 중의 대부분은 적과 타협하고 반동 측으로 넘어 가고 말았다.

제 2 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창건 및 5.30 운동, 북벌 전쟁이 그 표식으로 된다. 이 시기에 5.4 운동 때 결성되었던 세 계급의 통일 전선을 존속시키고 발전시켰으며 농민 계급을 이에 인입한 동시에 정치 상에서 이 계급들 간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였다. 국공 량당의 제 1 차 합작이 바로 그것이다. 손 중산 선생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위대한 실패 혁명(비록 그것이 낡은 시기의 민주주의 혁명이기는 하지만)을 령도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세계 조류에 순응하고 대중의 요구에 적응하여》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혁명적 3대 정책을 제기하고 삼민주의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3대 정책의 신삼민주의를 확립한 데 있다. 이 이전까지 삼민주의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기하지 않았고 봉건 사회 제도 및 봉건 문화 사상을 반대한다는 구호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계, 학술계, 청년계와 별로 연계가 없었다. 이 이전까지 그것은 구삼민주의였으며 이러한 삼민주의는 일부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하여, 즉 벼슬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발로 간주되었으며 순수한 정치 활동의 기'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 이후에 3대 정책의 신삼민주의가 출현되었다. 국공 량당의 합작과 량당의 혁명적 당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러한 신삼민주의는 전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일부 교육계, 학술계 및 광범한 청년 학생들

가운데 전파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본래의 삼민주의가 반제, 반봉건의 3대 정책의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이 없었다면 삼민주의 사상의 전파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혁명적 삼민주의는 국공 량당 및 각 혁명적 계급들의 통일 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되었으며 《공산주의는 삼민주의의 좋은 벗》이므로 두 개의 주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다. 계급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도시 소부르조아지, 부르조아지의 통일 전선이였다. 당시에 공산당의 《항도 후보》, 국민당의 상해 《민국일보》 및 각지의 신문들을 진지로 삼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주장을 공동으로 선전하였으며 공자를 숭상하고 경서를 읽게 하는 봉건 교육을 공동으로 반대하였으며 봉건적인, 케케묵은 낡은 문학과 문언문을 공동으로 반대하였으며 반제, 반봉건을 내용으로 하는 새 문학과 백화문을 창도하였던 것이다. 광둥 전쟁과 북벌 전쟁 과정에서는 중국 군대에 반제, 반봉건적 사상을 주입하여 중국 군대를 개조하였다. 그리고 천백만 농민 대중 속에서 탐관 오리를 타도하며 토호 련신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여 위대한 농민 혁명 투쟁을 일으키었다. 이 모든 것들로 하여 그리고 또 쏘련의 원조로 하여 북벌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르조아지는 일단 정권을 잡자 즉시로 이 혁명을 종결 지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적 국면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제 3 시기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새로운 혁명 시기



이다. 제 2 시기의 말기에 혁명 진영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 중국 대부르조아지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의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 가고 민족 부르조아지도 대부르조아지를 불마르게 되었으며 혁명 진영 내에 있던 원래의 비 계급이 이 때에 와서는 세 계급, 즉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및 기타의 소부르조아지(혁명적 지식인을 포함)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때 중국 혁명은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서고 중국 공산당이 단독적으로 대중을 령도하여 이 혁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일방으로는 반혁명이 《포위 토벌》을 하고 타방으로는 혁명이 침투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 때에 두 가지 반혁명적 《포위 토벌》, 즉 군사적 《포위 토벌》과 문화적 《포위 토벌》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또 두 가지 혁명이 침투되고 있었다. 즉 농촌 혁명이 침투되며 문화 혁명이 침투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포위 토벌》은 제국주의의 채동 하에서 전 중국 및 전 세계의 반혁명 령량을 동원하여 10년 동안이나 끌었으며 그 잔인성은 세계에서 류례가 없는 것으로서 수십만 명의 공산당원과 청년 학생들을 살륙하고 수백만 로농 인민을 유린하였다. 당사자 자신들이 보기에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꼭 《모조리 토벌하여 버리고 죽여 버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두 가지 《포위 토벌》은 모두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군사적 《포위 토벌》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은 홍군의 북상 항인이었고 문화적 《포위 토벌》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은 1935년 <12.9> 청년 혁명 운동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위 토벌》의 공동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은 전국 인민들의 각성이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적극적인 결과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사실은 국민당 통치 구역 내의 모든 문화 기관들에서 공산당은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지위에 처하여 있었는데 어째서 문화적 《포위 토벌》도 참패를 당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공산주의자인 로신은 바로 이 《포위 토벌》 속에서 중국 문화 혁명의 위대한 인물로 된 것이다.

반혁명적 《포위 토벌》의 소극적 결과는 일본 제국주의가 쳐 들어 온 것이다. 전국 인민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난 10년 동안의 반공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이 시기의 투쟁에서 혁명 측에서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신민주주의와 신삼민주의를 견지하였고 반혁명 측에서는 제국주의의 지휘 하에서 지주 계급과 대부르조아지의 동맹에 의한 전제주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주의는 정치적 및 문화적 면에서 손 중산의 3대 정책을 배어 버리고 그의 신삼민주의를 배어 버려 중화 민족에게 심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제 4 시기는 바로 지금의 항일 전쟁 시기이다. 중국 혁명의 폭선 운동 과정에서 비 개 계급의 통일 전선이 또 한 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상층 계급으로는 많은 통치자들이 망라되었고 중층 계급으로는 민족 부르조아지 및 소부르조아지가 망라되었고 하층 계급으로는 모든 무산자가 망라되었으며 전국의 각 계층들은 모두 이 동맹

의 성원으로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전격히 반항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제 1 단계는 무한이 함락되기 이전까지이다. 이 때 전국의 각 방면에서는 희망에 찬 기상이 떠돌아 정치 면에서 민주주의화의 추세가 나타났고 문화 면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동원이 있었다. 무한이 함락된 이후가 제 2 단계이다. 이 때 정치 정세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대부르조아지의 일부는 적에게 투항하였고 그 다른 일부도 항전을 하루 속히 끝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 면에서는 이러한 정세의 반영으로서 엽 청, 장 군매와 같은 자들의 반동과 언론 출판의 부자유가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항전, 단결, 진보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반동 사상을 격파하지 않고서는 항전의 승리는 가망이 없다. 이 투쟁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것은 전국 인민들의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국내적 및 국제적 조건들로 보아 항전의 도상에 아무리 난관들이 많다 하여도 결국 중국 인민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중국의 전반 역사에 있어서 5.4 운동 이후 20 년 간의 진보는 그전의 80 년 간을 뽕가할 뿐만 아니라 그야 말로 지나 간 수천 년을 뽕가한다. 앞으로 20 년만 더 지나면 중국의 진보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내외의 모든 암흑 세력들이 창궐하는 데서 민족적 재난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창궐은 이런 암흑 세력들에게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최후 발악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인민 대중이 승리로 점차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전 동방에서도 이리하며 전 세계에서조차 역시 이리하다.

#### 14. 문화의 성질 문제에 있어서의 편향

일체 새로운 것은 모두가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어 나온다. 새 문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20년 동안에 《갈지자(之)》와 같이 세 차례의 폭질의 길을 걸었으며 모든 것은 꾀다 시련을 거쳐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부르조아 완고파들은 문화 문제에서도 정권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릇되었다. 그들은 중국의 새로운 시기의 역사적 특성을 모르며 인민 대중의 신민주주의적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출발점은 부르조아 전제주의이며 문화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지의 문화 전제주의이다. 일부분의 소위 구미파 문화인들<sup>[19]</sup>(내가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다)은 한동안 실지로 국민당 정부의 문화 면에서의 《공산당 토벌》을 찬조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또 《공산당 제한》이요, 《공산당 용해》요 하는 정책을 찬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머리를 쳐드는 것을 좋아 하지 않으며 노동자, 농민들이 문화적으로 머리를 쳐드는 것도 좋아 하지 않는다. 부르조아 완고파들의 이 문화 전제주의의 길은 통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권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국제적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전제주의도 《걸어 치우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국민 문화의 방침으로서 말한다면 지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동 계급 내부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힘써 선전하며 사회주의로써 농민과 기타 대중을 적당히 절차 있게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반 국민 문화는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는 그것들이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령도되기 때문에 모두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은 보통 요소가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노는 요소이다. 그러나 전반 정치 상황, 전반 경제 상황, 전반 문화 상황을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왜냐 하면 현 단계 혁명의 기본 과업은 아직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주로 외래 제국주의와 자국의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국민 문화의 영역에 대하여 말할 때 만일 현재의 전반 국민 문화를 사회주의적 국민 문화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 체계에 대한 선전을 당면 행동 강령의 실천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적 립장과 방법으로 문제를 관찰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일을 처리하고 간부를 훈련하는 것을 중국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전반 국민 교

육과 국민 문화의 방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 문화는 사회주의적 정치 및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면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이 반영되어 우리의 국민 문화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전반 사회를 두고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및 경제를 형성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국민 문화가 아직 있을 수 없다. 현하의 중국 혁명이 세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하 중국의 새 문화도 세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새 문화의 일부분이며 또 그것의 위대한 동맹군이다. 이러한 일부분이 비록 사회주의 문화의 중대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 국민 문화를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 문화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신민주주의 문화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현하의 중국 혁명이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현하의 중국의 새 문화도 중국 프로레타리아 문화 사상의 령도 즉 공산주의 사상의 령도를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령도가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인민 대중을 령도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혁명과 문화 혁명을 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전반적 새로운 국민 문화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민주주의적인 것이다.

현시기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선전을 확대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

호도 의심할 바 없다. 만일 이러한 선전과 학습이 없다면 중국 혁명을 앞으로의 사회주의적 단계에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주의 혁명을 승리에로 지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공산주의의 사상 체계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선전을 신민주주의적 행동 강령에 대한 실천과 구별하여야 하는 동시에 또 문제를 관찰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일을 처리하고 간부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공산주의적 이론 및 방법을 전반 국민 문화의 신민주주의적 방침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 양자를 한데 뒤섞어 말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부당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로운 국민 문화의 내용은 부르조아지의 문화 전제주의도 아니고 순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문화 사상에 의하여 령도되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인 신민주주의이다.

## 15.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문화는 민족적인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반대하며 중화 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사회주의 문화 및 신민주주의 문화와 연합하여 서로 섭취하고 서로 발전시키는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공동으로 세계의 새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민족의 제국주의적 반동 문화와 연합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 하면 우리의 문화는 혁명적 민족 문화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의 진보적 문화들 대량적으로 섭취하여 자기의 문화 식량의 원료로 삼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과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자면 지금의 사회주의 문화 및 신민주주의 문화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고대 문화에 대하여서도, 예를 들면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계몽 시대의 문화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용 되는 것이라면 모두 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체 외국의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반드시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씹고 위장 운동을 거쳐 거기에서 타액, 위액, 장액을 들여 보냄으로써 알짜와 찌꺼기의 두 부분으로 분해시킨 후 그 찌꺼기를 배설하여 버리고 알짜를 섭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된다. 결코 그것을 통째로 삼키듯이 전연 비판이 없이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소위 《전면적 서양화》〔20〕라는 주장은 그릇된 견해이다. 과거에 중국은 형식주의적으로 외국의 것을 섭취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중국에서 맑스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주의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맑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정을 완전히 적절하게 동일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민족적 특성에 결부시키며 일정한 민족적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유용한 것으로 된다. 결코 그것을 주관적으로, 도식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도식적 맑스주의자들은 맑스주의와 중국 혁명을 회롱하고 있을 따름인바 중국



의 혁명 대열 내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다. 중국 문화는 자기의 형식을 가져야 하는바 그것이 곧 민족적 형식이다. 민족적 형식에 신민주주의적 내용——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새 문화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문화는 과학적인 것이다. 그것은 일체의 봉건 사상과 미신 사상을 반대하고 실사 구시물 주장하며 객관적 진리를 주장하며 리론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과학적 사상은 아직 진보성을 띠고 있는 중국의 부르주아 유물론자 및 자연 과학자들과 반제, 반봉건, 반미신적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동적인 관념론과도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공산당원으로서 일부의 관념론자 심지어는 종교 신도들과도 정치 행동에 있어서의 반제, 반봉건적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관념론 또는 종교적 교의를 찬동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봉건 사회에서 찬란한 고대 문화가 창조되었다.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을 분석 검토하여 거기서 봉건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민주주의적인 알짜를 섭취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무비관적으로 무엇이든 다 받아 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고대의 봉건적 지배 계급들의 일체 부패한 것과 고대의 우수한 인민 문화 즉 다소라도 민주성 및 혁명성을 띠고 있는 것과는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하 중국의 새 정치와 새 경제는 고대의 낡은 정치와 낡은 경제로부터 발전

되어 온 것이며 현하 중국의 새 문화도 고대의 낡은 문화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역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결코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옛것을 찬양하고 지금의 것을 부정한다거나 그 어떤 봉건적 독소를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일정한 과학적 지위를 부여하며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민 대중과 청년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주로 뒤를 돌아 보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도록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문화는 대중적인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그것은 전체 민족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근로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또 점차 그들의 문화로 되어야 한다. 혁명 간부를 교육하는 지식과 혁명 대중을 교육하는 지식은 그 정도 상에서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제고와 보급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혁명적 문화는 인민 대중에게 있어서 유력한 혁명적 무기로 된다. 혁명적 문화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서는 혁명을 위한 사상적 준비로 되며 혁명 과정에 있어서는 전반 혁명 전선에서의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선의 하나로 된다. 그리고 혁명적 문화 일'군들은 이 문화 전선에 있어서의 각급 지휘원들이다. <혁명적 이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다>(21)고 한 것으로 보아 혁명적 실천 운동에 있어서 혁명적 문화 운동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운동과 실천 운동은 모두가 대

중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모든 문화 일'군들은 항일 전쟁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문화 부대를 가져야 한다. 이 부대란 곧 인민 대중이다. 혁명적 문화인이면서 인민 대중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병사 없는 사령》으로 되고 말며 그의 화력은 적을 타도할 수 없게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자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개혁하여야 하며 언어를 민중에게 접근시켜야 한다. 민중이야말로 혁명적 문화의 무한히 풍부한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가 바로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신민주주의적 문화이며 중화 민족의 새 문화이다.

신민주주의적 정치, 신민주주의적 경제 및 신민주주의적 문화가 서로 결합된 것이 바로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명실이 부합되는 중화 민국이며 우리가 이룩하려는 새 중국이다.

새 중국은 모든 인민들의 앞에 서 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맞이하여야 한다.

새 중국이라는 항선의 돛대는 저기 수평선에 솟아 오르고 있다. 우리들은 박수로 그것을 환영하여야 한다.

그대의 두 손을 높이 쳐들라, 새 중국은 우리의 것이다.

## 주 해

[1] 《중국 문화》는 1940년 1월에 연안에서 창간된 잡지이다. 《신민주주의론》은 맨 처음 이 잡지의 창간호에 발표되었다.

[2]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라는 말은 메닌의 《직업 동맹에 관하여, 현 시국과 트로츠키의 오류에 관하여》에 있다.

[3] 맑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4] 앙겔스의 《무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의 부록, 맑스가 접필한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해제》 제 11 절에 있다.

[5] 쓰탈린의 《10월 변혁과 민족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6] 메닌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 있다.

[7] 장 개석이 혁명을 배반한 후 국민당 정부가 감행한 일면의 반소 운동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즉 1927년 12월 13일에 국민당은 광주 주재 소련 부령사를 사살하였으며 그 달 14일에 남경 국민당 정부는 《소련과의 국교 단절령》을 내리고 각 성 주재 소련 명사들을 부인하며 각 성에 있던 소련 상업 기관들에 대하여 강제적인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었다. 1929년 8월에 장 개석은 또 제국주의의 사육을 받아 동북에서 소련에 대하여 집탈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8] 케말은 제 1 차 세계 대전 후의 토이기 상업 부르주아지의 대표자이다. 제 1 차 대전 후 영 제국주의자는 자기의 예측구인 회랍을 사육하여 토이기에 대한 무력 침공을 발동하게 하였다. 토이기 인민들은 소련의 원조를 얻어 1922년에 회랍 군대를 타승하였다. 케말은 1923년에 토이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쓰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케말식 혁명은 민족 상업 부르주아지 상층부의 혁명으로서 이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발생하였고 또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본질 상 농민과 로동자들 반대하며 토지 혁명의 가능성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갔었다》. 쓰탈린의 《은 일선 대학 학생들의 단화》를 참조하라.

[9]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장 군대와 그의 도당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장 군대는 5. 4 운동 이후 공공연하게 과학을 반대하고 소위 《정신 문화》라는 《현학》을 고취하여 당시 《현학생이》로 불리었다. 1938년 12월 장 군대는 장 개석의 지시를 받고 《모택동 선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팔로군, 신사군 및 삼감녕 변구를 위소하라는 발광적인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일본 침략자와 장 개석의 기세를 들우어 주었다.

[10] 1937년 9월에 발표된 국공 당당 합작의 성립을 선포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선언에 있다.

[11] 1924년에 은 중산이 한 《민생주의 강연》 제 2 강에 있다.

[12] 장 개석 도당의 특무 두목의 하나인 진 럽부는 몇 명의 반동적인 부

람배들 고용하여 그들에게 《유생론》이라는 책을 쓰게 하였다. 이 책은 횡설수설 함부로 지껄여 대면서 국민당의 파쇼주의를 고취하였으며 악명 높은 진 범부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13] 산서 지방의 대지주, 대매판의 대표——군벌 엄 석산은 후안 무치하게도 이러한 구조를 표방한 적이 있다.

[14] 왕 경위는 1927년에 혁명을 배반한 후 《혈공 속에서의 분투》라고 제목한 글을 썼다.

[15] 1925년 3월 30일 쓰촨린은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내의 유고슬라비아 위원회에서 한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문제에 대하여》라는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민이 민족 운동의 기본적인 군대로 되며 또 농민군이 없는 강력한 민족 운동이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민족 문제는 본질상 농민 문제이다》.

[16] 공산당 내의 일부 모조주의자들은 농촌의 혁명 근거지를 중시하는 모택동 동지의 주장을 《등산주의》라고 비웃은 적이 있었다.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모조주의자들의 이 풍자적인 말로 농촌 혁명 근거지의 위대한 역할을 설명하였다.

[17] 《학교》라는 것은 당시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서 본 받은 교육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과거》라는 것은 중국 제재의 봉건적 시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 세기 말엽에 중국 혁신파의 지식인들은 과거를 폐지하고 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18] 1919년의 5. 4 애국 운동은 6월 초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 단계는 6월 3일 북경의 학생들이 군대, 경찰의 탄압에 반항하여 집회, 연설한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의 동맹 휴학으로부터 상해, 남경, 천진, 함주, 무한, 구강 및 산둥성, 안휘성 등 각지 노동자들의 파업, 상인들의 철시로 발전되었다. 5. 4 운동은 이에 이르러 마침내 프롤레타리아트, 도시 소부르조아지 및 민족 부르조아지가 참가한 광범한 군중 운동으로 되었다.

[19] 구미파 문화인이란 호적 등을 대표자로 하는 일부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20] 《전면적 서양화》라는 것은 일부 부르조아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이미 때가 지난,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부르조아 문화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며 중국에서 무엇이든 다 완전히 구미 자본주의 국가물 모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것을 《서양화의 전면적 첩수》라고 하였다.

[21] 백년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 1 장 제 4 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자\*

(1940년 1월 28일)

현 시국의 발전 정황은 중앙의 여러 차례의 예견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투항 방향과 프롤레타리아트,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 중부르조아지의 항전 방향은 대립적인 것으로서 서로 투쟁하고 있다. 현시에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며 두 가지 전도가 다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전 당의 동지들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은 각지에서 발생하는 투항, 반공, 퇴보 등의 엄중한 현상들을 고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그 엄중성을 인식하고 이에 건결히 저항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상의 위력에 압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만일 이러한 현상에 건결히 저항하는 정확한 방침이 없다면, 만일 국민당 완고파의 《공산당에 대한 군사적 제한》과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제한》을 그 대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만일 통일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전선이 결렬되지나 않을가 하는 것만 고려한다면 항전의 전도는 위협하녀 투항과 반공은 전국화될 것이며 통일 전선은 파렬될 위험이 있다. 현하 국내, 국제적으로는 계속 항전하며 계속 단결하며 계속 진보하도록 하는 데 유리한 객관적 조건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방침이 여전히 매우 강경한 것, 영국, 미국, 프랑스와 일본 사이의 모순이 비록 부분적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진정한 조화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동방에 있어서의 영국, 프랑스의 지위도 구라파 전쟁으로 인하여 약화되었기 때문에 소위 극동의 문헌 회의가 소집되기 매우 힘 들게 된 것, 쓰련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것 등이 모든 것은 국민당으로 하여금 투항과 타협을 하기 힘 들게 하며 전국적 반공 전쟁을 일으키기 힘 들게 하는 국제적 조건들이다. 또 레를 들면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이 투항을 전격히 반대하며 항전 단결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 중간 계급들도 투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 국민당 내부에서 투항과 완고파들이 비록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량적으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것 등이 모든 것은 국민당으로 하여금 투항과 타협을 하기 힘 들게 하며 전국적 반공 전쟁을 일으키기 힘 들게 하는 국내적 조건들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정형 하에서의 당의 파업은 한 편으로 투항과, 완고파의 군사적 진공과 정치적 진공에 전격히 저항하며 다른 한 편으로 전국의 정당, 정치계, 군인, 인민, 지식계 등 각 방면의 통일 전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극력 국



민당 내부의 대다수를 쟁취하며 중간 계층을 쟁취하며 항전하는 군대 내부의 공명자를 쟁취하며 민중 운동을 침투시키며 지식인을 쟁취하며 항일 근거지의 공고화와 그리고 항일 무장력 및 항일 정권의 발전을 쟁취하며 당의 공고화와 진보를 쟁취하는 데 있다. 이렇게 두 면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투항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력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는 동시에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돌발적 사변(목전에 있어서는 국부적인, 지방적인 돌발적 사변)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는 것이 당의 당면 정책의 총방침이다.

왕 정위가 매국 협정<sup>(1)</sup>을 공포하고 장 개석이 국민들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한 후 한 편으로는 평화적 공기가 반드시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항전 세력이 반드시 일정한 발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당에 대한 군사적 제한》과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제한》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지방적 사변이 여전히 일어 날 것이며 국민당이 소위 《통일하여 외부에 대처하자》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를 진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항전 및 진보적 세력이 최근 기간 내에는 투항 및 퇴보적 세력을 전부 압도할 만한 그런 정도에까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공산당 조직이 있는 모든 지방들에서 왕 정위의 매국 협정을 반대하는 선전을 극력 확대하는 것이다. 장 개석은 자기의 선언에서 계속 항전할 것은 표시하였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단결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항전과 진보를 견지할 아무런 방침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침이 없이는 항전을 견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정위를 반대하는 운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여야 한다. (1) 끝까지 항전하는 국책을 지지하고 왕 정위의 매국 협정을 반대할 것, (2) 전국 인민들은 단결하여 민족 반역자 왕 정위를 타도하며 왕 정위의 괴뢰 중앙을 타도할 것, (3) 국공 합작을 지지하고 왕 정위의 반공 정책을 타도할 것, (4) 반공이란 항일 통일 전선을 결렬시키려는 왕 정위의 음모이므로 습은 왕 정위파의 민족 반역자를 타도할 것, (5) 전국적 단결을 강화하고 내부적 마찰을 일소할 것, (6) 내정을 혁신하고 헌정 운동을 전개하여 민주 정치를 수립할 것, (7) 정당 활동을 해금하고 항일 정당의 합법적 존재를 용허할 것, (8) 인민에게 항일하며 민족 반역자를 반대하는 언론 집회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 (9) 항일 근거지를 공고히 하며 왕 정위파의 민족 반역자들의 음모 파괴를 반대할 것, (10) 항일에 공로가 있는 군대를 지지하며 전선에 충분한 보급을 보장할 것, (11) 항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진보적 청년을 보호하며 민족 반역자들의 언론을 취체할 것. 이상의 구호들은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론설, 선언, 삐라, 연설 및 소책자를 다량적으로 내는 동시에 또 지방 실정에 알맞는 구호들을 보충하여야 한다.

연안에서는 2월 1일에 왕 정위의 매국 협정을 반대하는 민중 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2월 상순 후

은 중순에 각계 및 국민당 항일파와 연합하여 보편적으로 민중 대회를 열고 투항을 반대하며 민족 반역자를 반대하며 마찰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 주 해

[1] 1939년 말에 왕 정위가 일본 침략자와 체결한 매국적 비밀 조약 《일지 신관계 조정 요강》을 가리킨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 동북을 일본에 할양하며 몽강(당시의 수원, 차할 두 성과 산서성 북부를 말함), 화북, 장강 하류 및 화남의 섬들을 《일지 간의 강한 결합 지대》로 삼고 일본군이 장기적으로 점령한다, 2. 괴뢰 정권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고문 혹은 일본 직원이 감독한다, 3. 괴뢰군 및 괴뢰 경찰은 일본 교관이 훈련시키며 무기도 일본이 공급한다, 4. 괴뢰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과 공업, 농업 및 교통 사업은 모두 일본이 관할하며 일체 지하 자원은 일본이 마음대로 개발한다, 5. 일체 항일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모든 항일 력량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자\*

(1940년 2월 1일)

오늘 우리 연안의 각계 인민들은 여기서 대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매국 역적 왕 정위를 성토하기 위하여서이며 또 모든 항일 력량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기 위하여서이다.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방침은 건철한 것으로서 일본의 내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중국을 멸망시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 기본 방침은 변함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루차 지적하였다. 중국 친일파 대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대표자인 왕 정위는 이러한 정형을 보고 그만 절첩하여 일본 앞에 무릎을 꿇고 중국을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 먹는 일본-왕 정위 매국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는 또 괴뢰 정부를 조직하여 항일 정부와 대립하려 하고 있으며 또 괴뢰 군대를 조직하여 항일 군대와 대립하려 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그는 장 개석을 반대한다는 말을 그다지 입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왕 정위를 성토하는 연안 민중 대회에서 한 연설이다.

밖에 내지 않고 있으며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장 개석과 련 합한다》로 고쳤다고 한다. 반공은 일본과 왕 정위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들은 공산당이 항일에 가장 철저하며 국공이 합작하면 그 력량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여 국공 합작을 분렬시킴으로써 량당을 각각 고립시키려 하고 있으며 또 될 수만 있으면 량당을 서로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 이리 하여 그들은 국민당 내부의 완고파를 리용하여 도처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 호남성에서는 평강 참살 사건을 일으켰으며〔1〕 하남성에서는 확산 참살 사건을 일으켰으며〔2〕 산서성에서는 구군이 신군을 공격한 사건을 일으켰으며〔3〕 하북성에서는 장 음오가 팔로군을 공격한 사건을 일으켰으며〔4〕 산둥성에서는 진 계영이 유격대를 공격한 사건을 일으켰으며〔5〕 호북성 동부에서는 정 여회가 공산당원 500~600 명을 학살한 사건을 일으켰으며〔6〕 섬감녕 번구에 대하여서는 내부에서 《접선 공작》〔7〕을 하고 외부로부터 《봉쇄 공작》을 하는 동시에 또 군사적 진공을 준비하고 있다〔8〕. 이 밖에 또 진보적 청년들을 대량적으로 수용소에 잡아 가두었으며〔9〕, 현학생이 장 군대를 고용하여 공산당을 취소하며 섬감녕 번구를 취소하며 팔로군 및 신사군을 취소하라는 반동적 주장을 내세우게 하고 트로쯔끼 분자 업 청 등을 고용하여 공산당을 모욕하는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부가 항일 국면을 파괴하고 전국 인민을 모조리 망국노로 만들려는,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다〔10〕.

이처럼 왕 정위파와 국민당의 반공 완고파는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면서 시국을 더욱더 혼란시키며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형을 보고 매우 분개하고 있으며 항일은 희망이 없어졌고 국민당은 전부 나쁜 자들 뿐이므로 그들을 모두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분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땅하다. 이와 같은 엄중한 정형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항일은 여전히 희망이 있으며 국민당 내에도 나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분의 국민당 사람들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량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망나니들에 대하여, 감히 팔로군과 신사군 진지의 배후에 총을 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감히 평강 참살 사건과 확산 참살 사건 등을 일으킨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감히 번구를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감히 진보적 군대와 진보적 단체와 진보적 사람들을 진공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반격을 가하여야 하며 절대로 양보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망나니들은 이미 량심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민족의 원수가 국토에 깊이 침입하여 온 이 때에도 여전히 마찰을 일으키며 참살 사건을 일으키며 분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간에 실제 상에서는 일본과 왕 정위를 도와 주고 있는 것이며 또 그 중의 일부는 본래 숨어 있는 민족 반역자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되며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을 내버

려 두는 것으로 되며 민족 항전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되며 조국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되며 통일 전선을 파괴하는 망나니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되며 당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투항파와 반공 완고파에게 타격을 가하는 이런 정책은 전'적으로 항일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며 항일 통일 전선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심으로 항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투항파와 반공 완고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국민당원들에 대하여 우리는 호의를 표시하며 그들과 단결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장기적으로 합작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려 한다. 누구든지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당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두 가지 정책이다. 즉 한 편으로는 모든 진보 세력과 단결하고 중심으로 항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량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든 망나니들을 반대하고 투항파와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정책이다. 우리 당의 이런 정책들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여 일본을 타승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공산당과 전국 인민의 임무는 모든 항일적인 진보 세력과 단결하고 모든 투항적인 퇴보 세력에 저항하여 극력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며 시국의 역전을 만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 방침이다. 우리는 절대로 비판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낙관적이다. 우리는



투항파와 반공 완고파의 어떠한 진공에도 겁 내지 않으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분쇄할 것이며 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분쇄할 수 있다. 중화 민족의 해방은 결정적이며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진보는 결정적이며 퇴보는 일시적인 현상일 따름이다.

우리는 오늘 이 대회를 넘으로써 또 항일을 위하여 전국 인민의 단결과 진보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태도를 전국 인민들에게 표명하려고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단지 항일만 강조하고 단결과 진보를 강조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단결과 진보를 전연 제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진정하고도 튼튼한 단결이 없이, 신속하고도 절실한 진보가 없이 어떻게 항일을 견지할 수 있겠는가? 국민당의 반공 완고파는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의 소위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거짓 통일이며 합리한 통일이 아니라 불합리한 통일이며 실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통일이다. 그들은 통일을 웨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상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과 변구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통일되지 못 한다고 하면서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섬감녕 변구를 취소하고 전국의 모든 것을 죄다 국민당의 것으로 만들려 하며 그들의 일당 독재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일당 독재를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슨 통일이 있겠는가? 솔직히 말하여 만일 과거에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섬감녕 변구가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할 것을 성심성의로 주장하여 나서지 않았다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받

기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경도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항일을 실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섬감녕 변구 및 각 항일 민주 근거지가 항일의 국면을 성심 성의로 유지하지 않고 투항, 분열, 퇴보의 위험한 경향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형편은 한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수십만 명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5분의 2의 적을 막아 내고 있는데, 즉 일본군 40개 사단 중의 17개 사단과 싸우고 있는데<sup>[11]</sup> 어째서 그들을 취소하려 하는가? 섬감녕 변구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방이며 민주주의적인 항일 근거지이다. 여기에는 첫째, 탐관오리가 없고 둘째, 토호 련신이 없고 셋째, 도박군이 없고 넷째, 창기가 없고 다섯째, 첩이 없고 여섯째, 거지가 없고 일곱째, 작당하여 힘잡을 일 삼는 불한당 궤가 없고 여덟째, 위축된 기풍이 없고 아홉째,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밥벌이를 하는<sup>[12]</sup> 사람이 없고 열째, 국난을 리용하여 횡재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취소하려 하는가? 오직 럽치 없는 자들만이 그런 럽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완고파가 우리 앞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있는가? 동지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변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국이 변구를 따라 배워야 할 것이며 팔로군, 신사군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국이 팔로군, 신사군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며 공산당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국이 공산당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며 진보적인-사람들이 락후한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반대로

락후한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을 따라 서야 할 것이다. 우리 공산당은 누구보다도 더 통일을 주장한다. 우리는 통일 전선을 받기하였으며 우리는 통일 전선을 견지하여 왔으며 우리는 통일적 민주 공화국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누가 이러한 것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누가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누가 한 달에 봉급 5 원<sup>[13]</sup>만 받고 지낼 수 있었는가? 누가 이렇게 령결한 정치를 창조할 수 있었는가? 통일, 통일 하지만 투항파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통일론은 우리더러 투항으로 통일하라는 것이며 반공 완고파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통일론은 우리더러 분렬으로 통일하고 퇴보으로 통일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리론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항전, 단결, 진보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지 않는 통일을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합리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제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꿈을 꾸고 있다! 우리가 오늘 대회를 연 것은 바로 우리의 통일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론은 전국 인민들의 통일론이며 일체 량심적인 사람들의 통일론이다. 이런 통일론은 항전, 단결, 진보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진보가 있어야만 단결될 수 있고 단결이 있어야만 항일할 수 있고 진보, 단결, 항일이 있어야만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론이며 이것이 진정한 통일론이며 이것이 합리한 통일론이며 이것이 실제적인 통일론이다. 가짜 통일론, 불합리한 통일론, 형식주의적인 통일론은 망국적 통일론이며 전혀 량심이 없는 통일론이다. 그들은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민주주

의적 항일 근거지를 소멸하고 일체 지방의 항일 력량을 소멸함으로써 국민당에 통일시키려 한다. 이것은 음모이며 이것은 통일의 명의를 빌어 실제 상 전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통일이라는 이 양대가리를 내걸고 그들의 일당 전제라는 개고기를 팔려는 것이며 후안 무치하게 함부로 나발을 부는 것이며 인간 세상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대회를 연 것은 그들의 종이법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것이며 반공 완고파를 견결히 반대하려는 것이다.

## 주 해

[1] 《반동파를 반드시 제재하여야 한다》의 주해 1을 보라.

[2] 1939년 11월 11일에 하남성 화산현의 국민당 특무와 부대 1,800여 명이 화산현 죽구진에 있는 신사군 류수처를 포위 공격하여 항일하다가 부상 당한 신사군 간부, 전사 및 그들의 가족 200여 명을 참살하였다.

[3] 구군이던 국민당 산서 군벌 엄 석산의 군대를 가리킨다. 신군이던 항일 전쟁 초기에 공산당의 령도 및 그 영향 하에서 새로 발전된 산서 인민의 항일 무장력을 가리키는데 항일 걸사대라고도 한다. 1939년 12월에 장 개석과 엄 석산은 신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산서성 서부에 6 개 군의 병력을 집중시켜 신군을 진공하였으나 신군의 반격에 의하여 분쇄 당하고 만났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엄 석산의 군대는 산서성 동남부에 있는 양성과 진성 일대의 항일 민주 현 정부와 인민 단체를 부시고 많은 공산당원과 진보 분자들을 학살하였다.

[4] 장 음모는 국민당 도당의 하복성 보안 사령이었다. 그는 1939년 이후부터 장 개석의 명령에 의하여 끊임 없이 팔로군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 해 6월에 그는 또 부대를 기느리고 하복성 심현의 팔로군 후방 기관을 습격하여 팔로군 간부 및 전사 400여 명을 참살하였다.

[5] 1939년 4월에 국민당 산동성 주석 심 흥렬은 진 계영 부대를 시켜 박산에서 팔로군 산동 중대 제 3 유격 지대를 습격하게 하여 팔로군 단급 간부 이

하 400여 명을 참살하였다.

[6] 1939년 9월에 호북성 동부의 국민당 반동파 정 여회는 부대를 풀어 모아 신사군의 후방 기관을 포위 공격하여 공산당원 500~600 명을 참살하였다.

[7] 국민당의 류두 간첩들은 섬감녕 변구에서의 활동에서 변구의 도시들을 거점으로 하고 또 그 거점을 몇 개의 신으로 연결시켜 저들의 반혁명 공작을 배치하였는데 그들은 이런 공작을 《점선 공작》이라고 하였다.

[8] 1939년 겨울부터 1940년 봄까지 국민당 군대는 섬감녕 변구의 순화, 순유, 정녕, 녕원, 진원 등 5 개 현 씩 소채지를 강점하였다.

[9] 항일 전쟁 기간에 국민당 반동파는 독일, 이탈리아 파쇼들의 방법을 본받아 중국 서북부의 만주, 서안으로부터 동남부의 공주, 상요에 이르는 각지에 다 많은 수용소를 설치하고 수 많은 공산당원, 애국 인사 및 진보적 청년들을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10] 1938년 10월 무한이 함락된 후 국민당의 반공 활동은 점차 창궐하여졌다. 1939년 2월에 장 개석은 《공산당 문제 처리법》, 《피점령 지구에서의 공산당 활동의 방지법》 등 반동적 문건들을 비밀리에 발표하여 국민당 통치 지역 및 화중, 화북 각지에서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군사적 진공을 날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억압과 진공은 1939년 12월부터 1940년 3월까지 그 절정에 달하였는데 이것을 제 1 차 반공 고조라고 불렀다. 모택동 통치가 여기서 멀거날, 국민당 반동 군대가 섬서, 감숙에서 섬감녕 변구를 공격한 것과 산서성 서부에서 공산당이 명도하는 항일 결사대를 공격한 것은 제 1 차 반공 고조중에서 국민당이 발동한 두 차례의 큰 군사적 진공이다. 그 후 1940년 2~3월 경에 장 개석은 또 국민당 반동파 주 회빙에게 방 병훈, 장 음오, 후 여용 등의 부대를 규합하여 태항 지역의 팔로군을 3 도로 진공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공격은 팔로군에 의하여 철저히 분쇄 당하고 국민당군의 3 개 사가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장 개석이 발동한 제 1 차 반공 고조도 이로써 완전히 격퇴되었다.

[11]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군대가 항거하고 있던 일본 군대의 수효는 그 후에 변동되었다. 1943년에 와서 팔로군과 신사군은 중국에 침입한 일본군 총수의 64%와 괴뢰군 전체의 95%를 항거하고 있었다. 본 선전 제 3 권에 수록된 《련합 정부에 대하여》의 《두 전망》을 참조하라.

[12]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방법을 한다》는 것은 일부의 국민당원들이 반공을 전문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3] 당시 공산당 명도 하에 있던 항일 군대와 항일 정부 일'군들의 식비와 용'돈은 한 달에 매일 평균 은화 5 원이었다.



## 국민당에 대한 열 가지 요구\*

(1940년 2월 1일)

2월 1일에 연안에서는 왕 정위를 성토하는 대회를 열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치맛는 의분으로 왕 정위의 매국, 투항 행위를 성토할 것과 항전을 끝까지 하는 것을 지지할 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시국의 위기를 만회하고 항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지에서 삼가 구국 대계 열 가지를 제기하는바 국민 정부, 각당 각파, 항전 장병, 전국 동포들이 이것을 채납하여 실행하기 바란다.

첫째, 전국적으로 왕 정위를 성토할 것. 역적 왕 정위는 자기의 도당을 끌어 모아 나라를 배반하고 적측으로 넘어 갔으며 매국적인 비밀 조약을 체결하고 적의 앞잡이로 되었으므로 온 나라가 그를 죽여야 할 놈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인 왕 정위를 말할 따름이고 숨어 있는 왕 정위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다. 숨어 있는 왕 정위들은 거리'바닥을 활개 치고 돌아 다니고 요격을 절취하고 있으며 외형을 감추고 사회 속에 깊이 잠복하고 있다. 탐판 오리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왕 정위를 성토하는 연안 민중 대회를 위하여 기초한 문건이다.

들은 실상 그들의 도당들이며 마찰 전문가들은 모두 그들의 부하들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왕 정위 성토 운동을 일으켜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상급으로부터 하급에 이르기까지 정당, 정치계, 군대, 인민, 신문 출판계, 지식계 등 각계가 모두 꺾기하여 왕 정위를 성토하지 않는다면 왕 정위 도당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왕 정위 도당의 화근은 오래 남아 있게 되어 밖으로는 적을 끌어 들이고 안으로는 파괴 활동을 할 것이므로 그 끼치는 해독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는 명령을 내려 왕 정위를 성토하도록 전국 인민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 대로 집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관리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모름지기 왕 정위 도당들을 엄격히 처단함으로써 그들을 절멸시켜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첫째이다.

둘째, 단결을 강화할 것. 지금 일부의 론자들은 단결은 말하지 않고 통일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결국 공산당을 취소하고 팔로군, 신사군을 취소하고 섬감녕 번구를 취소하고 각 지방의 항일 력량을 취소하여야만 비로소 통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섬감녕 번구가 전국에서 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자가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번구가 아니었던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발기하고 통일적 민주 공화국의 창건을 주장하며 또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자가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번구가 아닌가? 국방의 최전선에 서서 적군의



17 개 사단을 항격하여 중원, 서북의 방벽으로 되고 화북, 강남을 방위하며 삼민주의와 《항전 전국 강령》을 건결히 실행하고 있는 자가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변구가 아닌가? 왕 정위가 반공 친일을 주장하여 나선 후 장 군매와 엽 청 등 요물들은 붓을 들고 이에 호응하였으며 반공파, 완고파는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그들은 통일의 명의를 빌어 실제 상 독재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단결의 의(義)를 버리고 분렬의 화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마 소의 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변구는 건결히 진정한 통일을 주장하고 거짓 통일을 반대하며 합리한 통일을 주장하고 불합리한 통일을 반대하며 실제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형식적인 통일을 반대한다. 투항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항전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분렬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단결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퇴보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진보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항전, 단결, 진보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는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며 합리한 통일이며 실제적인 통일이다. 이것을 떠나서 통일을 구한다는 것은 제 아무리 별재주를 다 피우며 신기한 묘기를 다 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수레의 채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으로 물러는 격이므로 도저히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각 지방의 항일 역량에 대하여서는 어느 것을 후하게 대하고 어느 것을 박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꼭 같이 애호하여야 하며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에게 공급을 보장하고 그들을 도와 주고 그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사람을 대함

에 있어서는 속이지 말고 성실하여야 하며 험애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과연 이렇게만 된다면 '만심'보를 품고 있는 도배들을 제외하고는 일치 단결하여 통일적 국가의 궤도에 들어 서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단결을 기초로 하고 단결은 반드시 진보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진보하여야만 단결될 수 있고 단결하여야만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둘째이다.

세째, 헌정을 강력히 실행할 것. 《훈정》은 여러 해 동안 하여 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다. 사물은 극점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물로 되는 법이므로 지금 헌정을 실시하는 것은 급선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자유롭지 못 하고 정당 활동은 해금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은 헌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형편으로 헌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이 공식적인 관청 공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식으로 헌정을 실시한다면 그것이 일당 독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난이 심중한 이 때를 당하여서도 그냥 개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일제와 왕 정위는 밖에서 제멋대로 소란을 일으키고 반역 도배들은 안에서 파괴를 일삼게 되어 나라와 백성의 운명은 정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부는 즉시 정당 활동을 해금하고 여론을 부식함으로써 헌정을 추진시킬 성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보여 주고 국가의 운명을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 더 긴절한 일은 없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세째이다.

베껴, 마찰을 제지할 것. 작년 3월에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을 창도한 후부터 공산당을 제한하며 공산당을 용해하며 공산당을 반대하라는 소리가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참살 사건이 련'이어 일어나 곳곳에서 선혈을 흘리게 하였다. 그래도 부족하여 작년 10월에는 또 《이당 문제 처리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으며 서북, 화북, 화중 지구에서는 또 《이당 문제 처리법의 실시 방안》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일부의 론자들은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제한》으로부터 이미 《공산당에 대한 군사적 제한》의 시기로 들어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말로서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소위 공산당을 제한한다는 것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일제와 왕 정위의 궤계이며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독계이다. 이에 논란 군중들은 10년 전의 참극이 또 재연될 것이라는 말들을 분주히 서로 전하고 있다. 사태는 극도로 엄중하여 호남에서는 평강 참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남에서는 확산 참살 사건이 일어났고 하북에서는 장 음오가 팔로군을 진공하였고 산둥에서는 진 계영이 유격대를 소멸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호북성 동부에서는 정 여회가 공산당원 500~600명이나 참살하였고 감숙성 동부에서는 중앙군이 당지에 주둔하고 있는 팔로군을 대거 진공하였으며 최근 산서성 경내에서는 또 구군이 신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련달아 팔로군 진지를 침범한 참극이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시급히 제지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전의 승리를 운

운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단결하여 항전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명령을 내려 참살 사건을 일으킨 일체 분자들을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명백히 지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네째이다.

다섯째, 청년을 보호할 것. 최근 서안 부근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서북, 중원 각 성의 진보적인 청년 700여 명을 구금하고 마치 죄수와 같이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악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참상이야 말로 차마 들을 수 없다.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초를 받아야 하는가? 청년은 나라의 꽃이며 더구나 진보적인 청년은 항전에 있어서 귀중한 보배이다. 신앙은 사람마다의 자유이며 사상은 결코 무력으로써 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10년 간의 《문화적 포위 토벌》의 최악만 해도 너무 험저하거든 어찌 하여 오늘에 와서 또다시 그 길을 걸으려 하는가? 정부에서는 시급히 전국에 명령을 내려 청년을 보호하며 서안 부근의 수용소를 취소하며 각지에서의 청년을 모욕하는 폭행을 엄금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다섯째이다.

여섯째, 전선을 원호할 것. 항일에 공로가 있는 최전선의 군대, 례를 들면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 군대는 대우가 극히 나빠 의식이 불충분하고 탄약 공급이 계속되지 못하고 의로 시설이 불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반역자들은 기탄 없이 횡행하며 함부로 그들을 중상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무수한 잡소리들이 너무도 소란스러워 귀가 멍

일 지경이다. 공로가 있어도 상을 주지 않으며 공적이 있어도 인정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모함하기에 급급하고 더욱더 악랄한 개책들을 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장병들을 락심하게 하고 적들을 기뻐 하게 하는 괴이한 현상으로서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일방으로 공로가 있는 전선 군대에 공급을 충분히 보장하며 타방으로는 반역자 도배들의 중상과 모함을 엄금함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 작전에 리륙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여섯째이다.

일곱째, 특무 기관을 취체할 것. 특무 기관의 횡행을 세상 사람들은 당조의 주 흥, 래 준신<sup>[1]</sup>과 명조의 위 충현, 류근<sup>[2]</sup>에 비유하고 있다. 그 자들은 적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내부에 대하여서는 그 솜씨가 능란하여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끝 없는 욕심으로 죄물만 받아 먹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요언의 대본영이며 간악한 죄행의 제조소이다. 이 극악 무도한 특무 도배들 만큼 온 나라 사람들을 무서워서 몸서리치게 하는 자들은 더 없다. 정부의 위신을 보전하기 위한 견지에서 특무 기관을 시급히 취체하여야 하며 그것을 재조직하여 특무 기관의 임무를 오로지 적과 민족 반역자에 대하는 것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일곱째이다.

여덟째, 탐관 오리를 취체할 것. 항전 이래 국난을 리용하여 1억만 원의 횡재를 한 자가 있으며 첩을 8~9 명씩이나 둔 자가 있다<sup>[3]</sup>. 병역이나, 공채나, 경제 통제나, 리재민

구제나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탐관 오리들의 돈'벌이 기회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국가에 이러한 이리떼가 있는 한 국사가 수습되지 않는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의 원한이 이미 극도에 달하고 있으나 아무도 감히 그 잔악한 행위들 폭로하지 못 하고 있다. 국가를 붕괴의 위기로부터 만회하기 위하여 단연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체 탐관 오리들을 철저히 취체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여덟째이다.

아홉째, 《총리의 유촉》을 실천할 것. 《총리의 유촉》에 이르기를 《내가 국민 혁명에 40년 동안 힘 써 온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는 데 있었다. 40년 동안 쌓은 경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민중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말이며 우리 4억 5천만 인민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 유촉을 암송하는 자는 많으나 이 유촉 대로 실천하는 자는 적다. 이 유촉을 위반하는 자는 상을 받고 이 유촉을 실천하는 자는 벌을 받고 있다. 이보다 더 괴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명령을 내려 이 유촉을 위반하고 민중을 불러 일으키기에 힘 쓰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민중을 짓밟는 자들에 대하여는 손 총리를 배반한 죄명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아홉째이다.

열째, 삼민주의를 실시할 것. 삼민주의는 국민당이 신봉하고 실행하는 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첫째 임무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항전 사업을 포기하고 또 항일에

결기한 인민들을 백방으로 압박 제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민족주의를 포기한 것이며, 관리들이 인민들에게 추호의 민주주의적 권리도 주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민권주의를 포기한 것이며, 인민들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있으니 그것은 민생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도배들이 보기에는 삼민주의라는 것이 넘불에 불과하며 이것을 참되게 실시하는 사람을 보면 공언한 짓을 한다고 비웃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괴이한 현상이 속출함으로써 삼민주의에 대한 신앙은 여지 없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차 명령을 내려 전국적으로 그것을 실시하도록 엄격히 독촉하여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이 명령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삼민주의가 실시될 것이고 항일 사업의 승리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다. 이것이 채납, 실행하기를 바라는 그 열째이다.

이상 열 가지는 모두 구국 대계이며 항일의 중요 방책이다. 우리 측에 대한 적의 모략이 날로 더 심하여지고 역적 왕 정위 도당이 극도로 창궐해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위급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것들이 채납, 실시된다면 실로 항전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며 중화 민족의 해방 사업을 위하여 다행한 일일 것이다. 박절한 마음으로 이상과 같이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교시를 바라는 바이다.

## 주    해

[1] 주 홍과 맥 순신은 기원 7 세기 말엽 당조 무 축천 시대의 잔인한 관리이다. 그들은 비밀 정탐의 방법을 광범히 사용하여 날조한 여러 가지 죄명으로 그들이 좋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부로 체포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혹형을 가하여 학살하였다.

[2] 목 근은 기원 16 세기 명 무종 때의 환관이며 위 승린은 기원 17 세기 명 회종 때의 환관이다. 그들은 창위라고 부르는 방대한 특무 조직을 리용하여 대권을 장악하고 인민의 언론과 행동을 압제하였다. 그들을 반대한 사람은 모두 박해와 학살을 당하였다.

[3] 당시 서안에 있던 국민당의 반동 군사 두목 장 정문을 가리킨다.



## «중국 공인»의 발간사

(1940년 2월 7일)

《중국 공인》<sup>(1)</sup>을 출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중국 로동 계급은 지난 20년 간 자기의 정당——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서 영웅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국 인민 가운데서 가장 각성한 부분으로 되었으며 중국 혁명의 령도자로 되었다. 중국 로동 계급은 농민 및 일체 혁명적 인민들과 련합하여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신민주주의 중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이 공로는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혁명은 아직 성공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커다란 힘을 들여 자체를 단결시키며 농민 및 기타 소부르쵸아지를 단결시키며 지식인을 단결시키며 모든 혁명적 인민을 단결시켜야 한다. 이것은 극히 큰 정치적 과업이며 조직적 과업이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책임이며 로동 계급 선진 분자들의 책임이며 전체 로동 계급의 책임이다.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중국적 해방은 오직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때에야 가능하므로 중국 로동 계급은 이 중국적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거쳐야만

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체를 단결시키고 인민들을 단결시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신민주주의 새 중국의 창건을 위하여 분투하는 이것이 중국 노동계급의 당면 과업이다. 《중국 공인》은 바로 이러한 과업을 위하여 출판되는 것이다.

《중국 공인》은 통속적인 말로 많은 도리를 노동자 대중에게 해설하여 주며 노동 계급의 항일 투쟁의 실지 정황을 보도하며 그 경험을 총화함으로써 자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중국 공인》은 노동자를 교양하며 노동자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로 되어야 한다. 《중국 공인》을 읽는 사람들은 이 학교의 학생으로 될 것이다. 노동자들 속에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빈 이름만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일을 할 줄 아는 간부를 다량으로 육성하여 내여야 한다. 이러한 다량의 간부들이 없이는 노동 계급의 해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 계급은 혁명적 지식인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방조를 환영하여야 하며 결코 그들의 방조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방조가 없이는 자신이 진보할 수 없으며 혁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간행물이 잘 운영되며 생동한 글들을 많이 게재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교조적인 것, 밤낮 하던 소리, 읽어도 리해할 수 없는 것, 무미 건조한 것, 생기 없는 것은 절대 피하기를 바란다.

간행물을 이미 내기 시작한 이상 그것에 온 정력을 들여야 하며 반드시 잘 꾸려야 한다. 이것은 출판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읽는 사람들이 간단한 편지나 짧은 글을 써 보내어 어떤 것을 좋아 하고 어떤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이 간행물을 잘 꾸려 나가도록 할 수 있다.

우에서 말한 것은 나의 희망이다. 이것을 발간사로 삼는다.

## 주 해

[1] 월간 《중국 공인》은 1940년 2월에 연안에서 창간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노동 운동 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 단결과 진보를 강조하여야 한다\*

(1940년 2월 10일)

항전, 단결, 진보——이것은 공산당이 작년 《7.7》 기념 때 제기한 3대 방침이다. 이것은 삼위 일체의 방침으로서 이 3자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단지 항전만을 강조하고 단결과 진보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항전》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며 지구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단결과 진보의 강령이 결여한 항전은 결국에 가서 투항하게 되거나 실패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우리 공산당은 반드시 이 3자를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인정한다. 항전하기 위하여서는 투항을 반대하며 왕 정위의 매국 협정을 반대하며 왕 정위의 괴뢰 정부를 반대하며 항일 전선 내부에 숨어 있는 일체 민족 반역자와 투항파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분열 운동을 반대하며 내부의 마찰을 반대하며 항일 전선의 배후에서 팔로군, 신사군 및 일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적후의 항일 근거지를 파괴하는 것을 반대하며 팔로군의 후방인 섬감녕 변구를 파괴하는 것을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의 《신승화보》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쓴 글이다.

반대하며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며 눈'발처럼 날아 드는 많은 《이당 활동 제한》에 관한 문진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진보하기 위하여서는 퇴보를 반대하며 삼민주의와 《항전 진국 강령》을 묶어서 다락에 없어 두는 것을 반대하며 《총리의 유촉》에 있는 《민중을 불러 일으키라》는 지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며 진보적 청년들을 수용소에 감금하는 것을 반대하며 항전 초기에 있던 약간의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깡그리 없애 버리는 것을 반대하며 헌정 운동을 소수인이 도맡아 하는 그런 관료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며 산서성에서 신군을 공격하고 회맹을 파괴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참살하는 것<sup>(1)</sup>을 반대하며 삼민주의 청년단이 함유 도로, 룡해선 일대에서 길을 막고 사람을 랍치하여 가는 것<sup>(2)</sup>을 반대하며 첩을 아홉씩이나 두고 국난을 리용하여 1억만 원이나 횡재를 하는 그런 후안 무치한 행위들을 반대하며 탐관 오리의 횡행과 토호 털신의 발호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단결과 진보가 없으며 항전이라는 것은 빈 말에 불과하며 항일의 승리란 가망이 없는 것이다. 《신중화보》 제 2 년의 정치적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결과 진보를 강조함으로써 항전에 해독을 끼치는 모든 악렬한 현상들을 반대하고 항일 사업의 가일층의 승리를 기하는 것이다.

## 주 해

[ 1 ] 《희명》이단 1936년부터 항일 전쟁 초기에 걸쳐 산서성에 성립되었던 지방적인 군중 항일 단체 《산서성 회생 구국 동맹회》의 약칭이다. 이 단체는 공산당과 긴밀히 합작하여 산서성에서의 항일 전쟁에서 한동안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 1939년 12월에 엄 석산은 산서성 서부에서 공개적으로 회생 구국 동맹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 하여 많은 공산당원과 회생 구국 동맹회 간부 및 군중 가운데의 진보 분자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 2 ] 1939년부터 국민당은 자기의 어용 단체인 삼민주의 청년단 《초대소》 반 명의로 한양—유림 도로와 몽패선 일대에 많은 봉쇄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다 특무를 파견하는 한편 또 군대를 배합시켜 섬감녕 번구로 출입하는 진보적 청년과 지식인들을 억류하고 그들을 수용소에 압송하여 감금, 학살하거나 그들을 강박하여 특무로 되게 하였다.





## 신민주주의적 헌정\*

(1940년 2월 20일)

오늘 연안 각계 인민의 대표적 인사들이 여기에서 헌정 촉진회의 성립 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헌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일이다. 우리의 이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인민의 의사를 발양하여 일본을 타승하며 새 중국을 창건하기 위한 것이다.

항일은 누구나 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오직 그것을 견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밖에 또 한 가지,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목하 중국에 있어서 첫째로 가는 중대한 일이다. 물론 중국에는 부족한 것이 매우 많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헌정 촉진회 석상에서 한 연설이다. 당시 당내의 많은 동지들은 소위 헌정을 실시한다는 장 개석의 기만적 선전에 미혹되어 국민당이 정말 헌정을 실시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이 연설에서 장 개석의 이러한 기만을 폭로하면서 헌정에 관한 그들의 선전을 때아다가 인민의 각성을 촉진시키며 장 개석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무기로 되게 하였다. 때문에 장 개석은 그 즉시로 그의 기만 선전을 권어 치우고 말았으며 전 항일 기간에 걸쳐 소위 헌정이란 것을 다시는 감히 선전하지 못 하였다.

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중국의 일은 잘 되지 않는다. 일면으로는 두 가지가 부족되면서도 다른 일면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두 가지가 더 있다. 필요하지 않은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제국주의의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봉건주의의 압박이다. 필요하지 않은 이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로 되었다. 지금 우리 전국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로 독립과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국주의를 파괴하여야 하며 봉건주의를 파괴하여야 한다. 추호의 사정도 두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건결히, 철저히 파괴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건설만 하여야 하고 파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왕 정위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가? 일본 제국주의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가? 봉건 제도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나쁜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건설이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이런 것들을 파괴하여야만 중국이 구원될 수 있으며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낱고 썩어 빠진 것을 파괴하여야만 새롭고 건전한 것을 건설할 수 있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합친 것이 바로 민주주의적 항일이며 항일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항일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항일을 계속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있으면 항전이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헌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적 정치이다. 나는 오 옥장 동지<sup>[1]</sup>가 방금 한 말에 찬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란 어떠한 민주주의 정치인가? 그것은 신민주주의적 정치이며 신민주주의적 헌정이다. 그것은 낡은, 때가 지난, 구미식의, 부르쥬아 독재의 소위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며 동시에 아직 쓰련식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민주주의 정치도 아니다.

그러한 낡은 민주주의는 외국에서는 실시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몰락되어 반동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반동적인 것을 절대 요구할 수 없다. 중국의 완고파들이 주장하는 헌정이란 외국의 낡은 형태의 부르쥬아 민주주의 정치인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이러한 헌정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이러한 헌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빙자하여 인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파쑈주의적 일당 독재이다. 중국의 민족 부르쥬아지는 확실히 그러한 헌정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에서 부르쥬아 독재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중국 인민은 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르쥬아지 한 계급이 독재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은 반드시 중국의 대다수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부르쥬아지 한 계급이 정치를 도맡아 하는 것을 절대로 용허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그것은 물론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장차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

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에 있어서는 아직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도 당분간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 장래에 가서 일정한 조건이 구비된 후에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중국에 필요한 민주주의 정치는 낡은 형태의 민주주의도 아니거니와 아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닌, 현재의 중국 실정에 알맞는 신민주주의이다. 현시기에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헌정은 응당 신민주주의적 헌정이어야 한다.

신민주주의적 헌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밥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신민주주의에다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이상 일당, 일파, 일계급이 독재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한 말은 손 중산 선생이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한 말이다. 그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근세 각국의 소위 민권 제도는 왕왕 부르주아지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동지들, 우리가 헌정을 연구하자면 각종 서적들을 읽어야 하겠지만 특히 읽어야 할 것은 이 선언이며, 이 선언 가운데 있는 상술한 몇 구절은 반드시 숙독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

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민주주의적 헌정의 구체적 내용이며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민주주의 독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헌정이다. 이러한 헌정은 즉 항일 통일 전선의 헌정이다.

우리가 오늘 가진 이 모임은 헌정 촉진회라고 한다. 어째서 《촉진》하여야 하는가? 가령 누구나 다 나아가고 있다면 재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수고스럽게 이 모임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일부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고 드러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며 진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뒤로 물러서려 한다. 나아가라고 하여도 한사코 나아가려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완고 분자라고 한다. 그들이 어찌 할 수 없는 정도로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회를 열고 그들을 한 번 《재촉》하려는 것이다. 이 《재촉》이란 말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누가 발명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사람이 발명한 것이다. 즉 이것은 《내가 국민 혁명에 40년 동안 힘 써 온……》이라고 한 그 선생님이, 손 중산 선생이 발명한 것이다. 보라! 그의 유촉에는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국민 회의의 소집……은 특히 그것을 가장 짧은 기간에 실현하도록 〈재촉〉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라고 써여 있지 않은가? 동지들, 이 《부탁》은 보통 《부탁》이 아니라 《간곡한 부탁》이다. 《간곡한 부탁》이란 비상한 부탁이다. 어찌 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

으며 모르는 체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첫째로, 가장 긴 것이 아니고 둘째로, 비교적 긴 것도 아니며 세째로, 보통으로 짧은 것도 아닌 《가장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 회의물 가장 짧은 기간에 열리게 하려면 그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손 선생이 서거한 지 15 년이나 되었지만 그가 주장한 국민 회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소집되지 않고 있다. 매일 같이 훈정이라는 것을 떠들어 대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 버렸으며 가장 짧은 기간을 가장 긴 기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도 입으로는 말끝마다 손 선생을 빙자하고 있다. 저승에 있는 손 선생의 영혼이 그야말로 이런 불초한 자손들을 어떻게 꾸짖을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사태는 아주 명백하다. 재촉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뒤'걸음질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각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하여야 한다.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재촉하여야 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되기 때문에 재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촉진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는 것이다. 청년 헌정 촉진회, 부녀 헌정 촉진회, 노동자 헌정 촉진회, 각 학교, 각 기관, 각 부대의 헌정 촉진회 등이 매우 활기 있게 성과적으로 열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또 전체적인 촉진회를 열고 있다. 모두가 일떠서서 이를 재촉하는 것은 헌정을 보다 급속히 실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손 선생의 유훈을 보다 급속히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각 지방에 널려 있는 그들을 언안에 있는

당신들이 재촉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다. 소용이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태는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열고 글을 많이 쓰고 연설을 많이 하고 전보를 많이 친다면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우리 연안에서 열린 수 많은 촉진회들이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추동이다. 어째서 연구하여야 하는가? 그들이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들을 재촉하게 되는데 만일 그들이 어째서 나를 재촉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문제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헌정의 도리를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금 오 옥장 동지가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헌정의 도리이다. 각 학교, 각 기관, 각 부대, 각계 인민은 모두 당면한 헌정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연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추동하기 쉽다. 추동이란 곧 《촉진》이다. 각 방면을 다 밀어 놓으면 각 방면은 점차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실개천이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모든 썩어 빠진 암흑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신민주주의적 헌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추동적 역할은 매우 클 것이다. 연안의 움직임이 전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

동지들, 회의를 열고 전보를 치기만 하면 완고 분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진보할 줄로 생

각하는가? 그들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완고 분자들은 완고 전문 학교를 졸업한 자들이다. 그들은 오늘도 완고하고 래일도 완고할 것이며 모래도 역시 완고할 것이다. 완고란 무엇인가? 고(固)란 굳다는 것이고 완(頑)이란 오늘도 래일도 모래도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완고 분자라고 한다. 이러한 완고 분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종래의 헌정이라는 것은 영국, 프랑스, 미국 또는 소련을 물론하고 모두 혁명이 성공되어 민주주의라는 사실이 있게 된 후에 기본법을 반포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기본법이 바로 헌법이다. 그러나 중국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혁명이 아직 성공되지 못하였고 우리의 변구 등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아직 민주주의 정치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현재의 사실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정치이므로 설사 훌륭한 헌법을 반포한다 하더라도 필연코 봉건 세력의 저애와 완고 분자의 장애를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순조롭게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헌정 운동은 이미 민주화된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취득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라 거대한 투쟁이다.

지금에 와서는 종래로 헌정을 반대하던 일부 사람들〔2〕까



지도 입으로는 헌정을 운운하고 있다. 그들이 어째서 헌정을 운운하는가? 그것은 항일 인민의 압력에 눌리어 응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청을 돋우어 가지고 《우리는 일관적으로 헌정을 주장하여 왔다!》고 웨치면서 허풍을 떨고 야단 법석한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는 헌정이란 명사를 들어 왔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정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이것을 가리켜 헌정의 양면파라고 한다. 이러한 양면파가 곧 소위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왔다》는 자들의 정체이다. 지금의 완고 분자는 바로 이러한 양면파이다. 그들의 헌정이란 기만적인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헌법이라는 것을 내어 오고 또 대통령이라는 것을 내어 세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는 어떤가? 그것은 어느 세월에 가서야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도 헌법이 있었다. 조곤이 헌법을 반포한 일이 있지 않는가[3]?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는 어디 있었던가? 대통령은 더욱 많았다. 그 첫째는 손 중산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원 세가에 의하여 취소 당하고 말았다. 그 둘째는 원 세개, 세째는 러 원홍[4], 네째는 풍 국장[5], 다섯째는 서 세창[6], 그야 말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제 황제와 무엇이 달랐던가? 그들의 헌법이요, 총통이요 하는 것들은 모두다 가짜였다. 지금의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파 같은 그런 소위 헌정과 민주주의 정치는 실제에 있어서 사람을 잡아 먹는 정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형을 중아메리카와 남아

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공화국이란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추호의 민주주의도 없다. 지금 중국의 완고파도 바로 이터하다. 그들이 말하는 헌정이란 《양대가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헌정이라는 양대가리를 내걸고 일당 독재라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 나는 결코 그들을 함부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 하는 말이다. 그 근거라는 것은 그들이 일면으로는 헌정을 운운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인민에게 추호의 자유도 주지 않는 거기에 있다.

동지들, 진정한 헌정은 결코 쉽사리 손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간고한 투쟁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회의를 열고 전보를 치고 글을 쓰기만 하면 곧 헌정이 실현되리라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또 결코 국민 참정회〔7〕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11월 12일에 국민 대회를 소집하고〔8〕 헌법을 반포하고 심지어 대총통을 선출하기만 하면 곧 만사 대길이고 천하 태평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머리가 혼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형을 백성들에게도 똑똑히 해설하여 주어 그들이 어리둥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이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끝장 난 것》이 아닌가? 일이 이 같이 곤난하니 헌정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아니다. 헌정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희망이 크며 중국은

반드시 신민주주의의 국가로 전환될 것이다. 어쩌서 그런가? 헌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곤란은 완고 분자들이 방애를 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고 분자가 영원토록 완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큰 것이다. 천하의 완고 분자들이 비록 오늘도 완고하고 래일도 완고할 것이고 모래도 역시 완고하겠지만 영원토록 완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중에 가서는 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왕 정위는 오래 동안 완고하였으나 항일의 지반에서 더는 완고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일본의 품'속으로 뛰여 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장 국도도 오래 동안 완고하였으나 우리가 투쟁 대회를 몇 번 열어 이리 투쟁하고 저리 투쟁한 결과 그도 도망치고 말았다. 완고 분자는 실제 상 고집은 부리지만 굳지는 못 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변하여 사람 속에 들지 못 하고 개똥 무지로 되어 버린다. 좋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역시 투쟁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다. 이리 투쟁하고 저리 투쟁한 결과 그가 잘못을 승인하면 좋게 변한다. 한 마디로 말하여 완고과는 변하고야 마는 것이다. 완고과는 언제나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치고 자기가 리를 보며 또 어떻게 하면 양면파인 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종래로 완고피가 얻은 바 결과는 언제나 그들의 념원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을 해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써 끝을 맺는다. 우리는 체임벌린에 대하여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깬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 말

이 지금에 와서는 이미 실증되었다. 체임벌린이 과거에 골똥하게 생각한 것은 히틀러란 이 돌을 들어 쓰러진 인민의 발'등을 까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9월 독일과 영국, 프랑스간의 전쟁이 폭발된 그 날부터 체임벌린이 들었던 돌은 도리어 체임벌린 자신의 발'등을 까고 말았다. 그 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체임벌린을 까고 있다. 중국에도 이러한 실례가 적지 않다. 원 세개는 인민들의 발'등을 까려다가 결국에는 제 발'등을 깎으며 몇 달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그만 죽어 버렸다[9]. 단 기서, 서 세창, 조 곤, 오 패부 등등도 인민을 탄압하려 하였으나 결국에는 인민들에 의하여 타도되었다. 무릇 남을 해치고 자기가 리를 보려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 좋지 못 하다.

지금의 반공 완고파도 만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통례를 벗어 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통일이란 미명을 빌어 진보적인 섬감녕 변구를 취소하고 진보적인 팔로군과 신사군을 취소하고 진보적인 공산당을 취소하고 진보적인 인민 단체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 일련의 큰 계획들이 있기는 있으나 내가 보기에 장래의 결과가 결코 완고한 것이 진보적인 것을 취소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진보적인 것이 완고한 것을 취소하고 말 것이다. 완고분자들은 취소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 자신이 진보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완고 분자들에게 팔로군을 진공하지 말고 공산당과 변구를 반대하지 말라고 늘 충고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기어코 진공하고 반대하려 한다면 그

들은 우선 결의안 하나를 작성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결의안의 제 1 조에는 《우리 완고 분자들 자신을 결심코 소멸하기 위하여서와 공산당에 광범한 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는 공산당과 변구를 반대할 임무가 있다.》라고 써야 할 것이다. 완고 분자들은 《공산당 토벌》의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다. 만일 그들이 이제 또 《공산당 토벌》을 하려 한다면 그것도 그들의 자유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제 밥을 먹고 자랐고 또 잠도 실컷 잤겠으므로 《토벌》을 하려 한다면 그들의 생각에 맡기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결의안을 실행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인 것이다. 과거 10 년 간의 《공산당 토벌》은 모두 이 결의안 대로 실행된 것이다. 만일 금후에 다시 《토벌》을 하려 한다면 이 결의안을 또 중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토벌》을 그만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왜냐 하면 전국 인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토벌》이 아니라 항일, 단결, 진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토벌》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 당하고 만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퇴보적 행위의 결과는 그 장본인의 원래의 념원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 고금에 례외가 없다.

지금의 헌정도 역시 이러하다. 완고파가 여전히 헌정을 반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들의 념원과 상반될 것이다. 이 헌정 운동의 방향은 결코 완고파가 정하여 놓은 로선

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념원과는 정반대되는 로선을 따라, 즉 필연적으로 인민들이 정하여 놓은 로선을 따라 나아가갈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이다. 왜냐 하면 전국 인민이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력사 발전이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추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누가 이 방향을 어길 수 있겠는가? 력사의 큰 수레바퀴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잘 하려면 그것은 일조 일석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일을 요하는 것이며 되는 대로 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요하는 것이며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동원을 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글을 쓰고 통전을 쳐야 하는 동시에 오대산, 태항산, 화북, 화중 등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회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몇 해 동안 하면 어지간히 될 것이다. 우리는 기어코 이 일을 잘 하여야 하며 기어코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여야 하며 기어코 신민주주의적 헌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완고파가 하는 식 대로 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오직 노력만 한다면 우리의 사업은 희망이 크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완고파는 결국 소수이고 대다수는 완고파가 아니며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로써 소수에 대하

며 또 거기에서 노력을 가한다면 이러한 희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일이 곤란하기는 하지만 희망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 주 해

[1] 오 옥상 등지는 당시 연안 자계 헌정 추진회 회장으로 있었다.

[2] 장 개석을 비롯한 국민당 반동파를 가리킨다.

[3] 북양 군벌 조 곤은 1923년에 한 표에 은화 5,000 원씩 주고 국회 의원 590 명을 매수하여 《대통령》으로 피선되었으며 이어서 매수한 의원들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반포하였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 곤 헌법》 또는 《퇴선 헌법》이라고 하였다.

[4] 여 원홍은 원래 청조의 신군 제 21 혼성립의 팀장(그 후의 여장에 해당함)이었다. 1911년의 무항 봉기 때 그는 하는 수 없이 혁명 속에 들어 서서 혁명군 조북 도독으로 있었다. 북양 군벌의 붕괴 시기에 있어서는 부총통, 총통 등 직을 역임하였다.

[5] 봉 국장은 원 세계의 부하로서 원 세계가 죽은 후 북양 군벌 적에게(즉 허복신계)의 두목으로 되었다. 1917년에 그는 여 원홍을 쫓아 버리고 북경 정부의 총통이 되었다.

[6] 서 세상은 북양 군벌의 정계으로서 1918년 단 기서의 어용 국회에 의하여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7] 《국민 참정회》란 항일 전쟁이 시작된 후 국민당 정부가 하는 수 없이 조직한, 자본적 성격 밖에 떠지 못한 기관이다. 삼강원은 모두 국민당 정부에서 《초빙》한 자들로서 형식 상으로는 각 항일 정당의 대표들이 망라되었으나 국민당 당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회는 국민당 정부의 정책, 조치에 대하여 세한할 하등의 권력도 가지지 못 하였다. 장 개석 국민당이 날로 반동화함에 따라 참정회의 구성 가운데 국민당 반동파와 기타 반동 분자가 더 증가되고 민주주의 분자는 더 감소되었으며 또 민주주의 분자의 언론은 구속을 더 받게 됨으로써 이회는 나날이 더욱더 국민당 반동파의 단순한 어용 도구로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의 참정원들은 1941년의 환남 사변 후 수사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당의 반동적 조치에 항의하였다.

[8] 1939년 9월 국민 참정회 제 4 차 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각 정당 민주 인사들의 제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인 내로 국민 대표를 소집하고 헌정을 실시할 명령을 내릴 것을 국민당 정부에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 해 11월에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는 1940년 11월 12일에 국민 대표를 소집할 것을 선포하였다. 국민당은 이를 빙자하여 그 기만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후에 와서 이 결정들은 하나도 실시되지 않았다.

[9] 원 세개는 1915년 12월 12일에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가 1916년 3월 22일에 압력에 못 이겨 황제의 칭호를 취소하였다.



## 항일 근거지의 정권 문제\*

(1940년 3월 6일)

(1) 현시기는 국민당의 반공 완고파들이 우리가 화북, 화중 등지에서 항일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이미 주요한 여러 항일 근거지에 이러한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시기이다. 우리와 반공 완고파 간의 화북, 화중 및 서북에서의 정권 문제를 위한 투쟁은 전국적인 통일 전선 정권의 수립을 추진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서 전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항일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수립하는 정권의 성격은 민족 통일 전선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권은 항일을 찬성하며 또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권이며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민주주의 독재이다. 그것은 지주,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독재와 구별되며 또 토지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로농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민주주의 독재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진실한 집행은 전국적인 민주주의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으로 될 것이다. 지나친 좌와 지나친 우는 전국 인민에게 극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3)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하북성 참의회의 소집과 하북성 행정 위원회의 선거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서성 서북부에서, 산동성에서, 회하 이북에서, 수덕, 부현, 감숙성 동부 동지에서 새 정권을 수립하는 것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그것을 진행하면서 지나친 우적 경향과 지나친 좌적 경향을 힘써 피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전에 있어서 더욱 엄중한 것은 중부르조아지 및 개명 신사에 대한 쟁취를 홀시하는 《좌》적 경향이다.

(4)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인원의 비례에 있어서는 공산당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비당 좌파 진보 분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좌도 우도 아닌 중간파가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 정권 내에서의 공산당원의 령도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하며 따라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산당원은 그 질에 있어서 우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있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없어도 당의 령도권을 보장할 수 있다. 령도권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구호처럼 높이 웨치는 것이거나 또는 남을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옳바른 정책과 자신의 모범적인 사

업에 의하여 당외의 인사들을 설복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제의를 자진하여 접수하게 하는 것이다.

(6) 당외의 진보 분자들은 광범한 소부르쵸아지 대중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3분의 1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소부르쵸아지를 쟁취하는 데 대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7) 중간파에게 3분의 1의 자리를 주는 목적은 중부르쵸아지와 개명 신사를 쟁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계층을 쟁취하는 것은 완고파를 고립시키는 중요한 질차의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계층의 역량에 고려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공산당 이외의 인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정당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또 어느 정당에 속하거나를 막론하고 오직 그들이 항일을 하며 동시에 공산당과 합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합작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9) 위에서 말한 인원 비례는 당의 진실한 정책이므로 그것을 책임 모면으로 어물어물해 치위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정권 사업을 담당할 당원들에게 교양을 주어 당외의 인사들과 합작하기를 싫어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색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협애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작풍을 창도하며 일이 있으면 우선 당외의 인사들과 상의하고 다수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각종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도록 당외의 인사들을 힘껏 고무하며 또 그들의 의견을 귀

답아 들어야 한다. 우리의 수중에 군대와 정권이 있다고 하여 모든 일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결정 대로 하여야 한다고 여기면서 비당 인사들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진심으로 기꺼이 집행하도록 힘 써 실복하기에 주의를 돌려지 않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10) 위에서 말한 인원 수요의 비례는 대체적인 규정이므로 각 지방에서는 기계적으로 그 수요를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하층 정권 기관의 구성 요소는 지주, 토호 련인들이 정권 기관에 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변동할 수 있다. 정권이 수립된 지 이미 오랜 진찰기 변구, 하북성 중부 지구, 래항산 지구 및 하북성 남부 지구에서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방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새 정권을 수립할 때에는 일률로 이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11) 항일 통일 전선의 선거 정책은 항일과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만 18 세 이상의 중국 사람이라면 그 계급, 민족, 성별, 신앙, 정당, 문화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야 한다.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산생은 인민의 선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 조직 형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여야 한다.

(12)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시정 방침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항일하는 인민을 보호하며 각 항일 계층의 이익을 조절하며 로동자,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며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를 진압하는 것으로써 그 기본적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13) 우리 정권에 참가한 당외 인사들의 생활 습관과 언론 행동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공산당원과 꼭 같이 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불만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14) 이 지시문을 당내에서 명확하게 해설하여 줌으로써 정권 사업에서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게 할 것을 각 중앙국, 각 중앙분국, 각 구당 위원회, 각 군대 책임자들에게 위임한다.



## 현하 항일 통일 전선에 있어서의 전술 문제\*

(1940년 3월 11일)

1. 현하의 정치 정세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의 항일 전쟁에 의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아 다시는 대규모의 군사적 진공을 할 힘이 없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적아의 형세는 이미 전략적 대치 단계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적들은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자기의 기본 정책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항일 통일 전선을 파괴하고 적후에서의 《소탕》을 강화하고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는 등 방법으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영국과 프랑스는 구라과 대전으로 말미암아 동방에서의 그 지위가 약화되었으며 미국은 산마루에 앉아서 범의 싸움을 구경하는 식의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 까닭에 동방 문헌 회의는 당분간 소집될 가능성이 없다. (3) 소련의 대외 정책은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으며 중국 항전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정책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 (4) 대부르조아지의 친일파는 벌써 철저히 일본에 투항하여 괴뢰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당 고급 간부 회의에서 한 보고의 제강이다.

정권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르조아지의 구미파는 아직은 항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 타협적인 경향은 여전히 엄청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일면으로는 국민당이 아닌 각파의 세력과 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하려 하면서도 다른 일면으로는 각파의 세력을 극력 파괴하며 특히 있는 힘을 다하여 공산당과 진보 세력을 파괴하는 양면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항일 통일 전선 내의 완고파이다. (5) 중부르조아지와 개명 신사, 지방 실력파를 포함한 중간 세력은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주요 통치 세력과 모순이 있고 동시에 모농계급파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왕왕 진보 세력과 완고 세력 사이의 중간 립장에 서고 있다. 그들은 항일 통일 전선 내의 중간파이다. (6) 공산당의 령도 하에 있는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의 진보 세력은 최근에 크게 발전되어 이미 기본적으로 항일 민주 정권의 근거지를 닦아 놓았다. 그들은 전국의 로동자, 농민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 속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 세력 속에서도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항일의 싸움터에서 공산당이 항격하고 있는 일본 침략자의 병력은 국민당이 항격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게 되었다. 그들은 항일 통일 전선 내의 진보파이다.

이상 이 바로 현하 중국의 정치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며 시국의 역전을 극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월 1일의 중앙의 결정은 완전히 옳은 것이다.



2. 항일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본 조건은 항일 통일 전선의 확대 및 공고화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자면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쟁취하고 완고 세력을 반대하는 전술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 개의 불가분적인 고리이며 또한 투쟁을 모든 항일 세력과의 단결을 가져 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항일 통일 전선 시기에 있어서 투쟁은 단결의 수단이며 단결은 투쟁의 목적이다. 투쟁으로써 단결을 도모하면 단결이 있게 되고 양보로써 단결을 도모하면 단결이 파괴된다는 이 진리는 이미 당내의 동지들에게 점차 리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리해하지 못 하는 동지들이 많다. 그들은 혹은 투쟁이 통일 전선을 분렬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며 혹은 투쟁을 무제한으로 해도 된다고 인정하며 혹은 중간 세력에 대하여 옳지 못한 전술을 취하며 혹은 완고 세력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

3. 진보 세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계급 및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력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팔로군과 신사군을 대담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항일 민주 근거지를 광범히 창설하는 것이며 공산당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전국의 로동자, 농민, 청년, 여성, 아동 등등의 민중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전국의 지식인들을 쟁취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적인 현정 운동을 광범한 인민들 속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진보 세력을 발전시켜야만 시국의 역전을 막을 수 있고 투항과 분렬을 막

을 수 있으며 항일의 승리를 위한 확호 불발의 기초를 이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엄중한 투쟁 과정인 것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및 민족 반역자와 가혹한 투쟁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완고파와도 가혹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진보 세력의 발전에 대하여 완고파는 반대하고 중간파는 의혹을 품기 때문이다. 완고파와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또 거기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완고파의 압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되며 중간파의 의혹도 해소시킬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진보 세력이 발전할 수 없게 된다.

4. 중간 세력을 쟁취한다는 것은 중부르조아지를 쟁취하는 것이며 개명 신사를 쟁취하는 것이며 지방 실력파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이한 세 부분의 사람들이지만 모두 현 시국에 있어서 중간파이다. 중부르조아지란 매관 계급 즉 대부르조아지를 제외한 민족 부르조아지이다. 그들은 노동자와 계급적 모순이 있고 노동 계급의 독립성을 찬성하지 않지만 피점령 지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국민당의 통치 하에서는 대지주 및 대부르조아지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항일을 하려 하며 또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 항일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단결하여 항전하는 데 찬동하며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헌정 운동에 찬동하는 동시에 진보파와 완고파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계층은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개명 신

사는 지주 계급의 좌익 즉 부르주아 색채를 띤 일부의 지주들로서 그들의 정치적 태도는 중부르주아지와 대략 동일하다. 그들은 농민과 계급적 모순이 있으나 한 편 대지주 및 대부르주아지와도 모순이 있다. 그들은 완고파에 찬동하지 않으며 그들 역시 우리와 완고파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결코 흘시하지 말고 쟁취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지방 실력파에는 지반을 가지고 있는 실력파와 지반을 가지지 못한 잡패군의 두 력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진보 세력과 모순이 있으나 또한 남을 해치고 자기가 리득을 보려는 현재의 국민당 중앙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이 있으며 역시 우리와 완고파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지방 실력파의 지도 성원들은 대부분이 역시 대지주 및 대부르주아지이므로 항일 전쟁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진보적으로 나오지만 얼마 못 가서 반동으로 되돌아 서고 만다. 그러나 또 국민당의 중앙 세력과 모순이 있으므로 우리의 정책이 올바르기만 하면 우리가 완고파와 투쟁할 때에 그들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말한 세 부분의 중간 세력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들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취의 정책은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를 쟁취하는 것과 다르며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중간 세력에 대하여서도 각기 달리 취급한다.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기본적인 동맹자로서 쟁취하는 것이며 중간 세력에 대하여서는 그

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동맹자로서 쟁취하는 것이다. 중간 세력 중에서 중부르조아지와 개명 신사는 우리와 공동으로 항일할 수도 있고 우리와 공동으로 항일 민주 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토지 혁명을 두려워 한다. 완고파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 중 일부는 그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일부는 선의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며 일부는 마지 못 하여 중립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지방 실력파는 공동으로 항일하는 외에 완고파에 대한 투쟁을 할 때에 있어서만 일시적인 중립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와 더불어 민주 정권을 수립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 역시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이기 때문이다. 중간파의 태도는 동요하기 쉬우며 또 불가피적으로 분화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동요하는 태도에 비추어 그들에게 적당한 설득 및 비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간 세력을 쟁취하는 것은 항일 통일 전선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극히 중대한 임무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 조건들이란 (1) 우리에게 충족한 력량이 있어야 하고, (2) 그들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하고, (3) 완고파와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으면 중간 세력은 동요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를 진공하는 완고파의 동맹군으로 되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완고파도 역시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극력 중간파를 쟁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런 중간 세력은 매우 큰

력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완고파와 투쟁할 때에 그것은 흔히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완고 세력이란 지금에 있어서는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세력이다. 이 계급들은 지금 투항파와 항일파로 갈라져 있는데 앞으로 점차 더 분화될 것이다. 오늘날 대부르조아지의 항일파는 투항파와 다른 점이 있다. 대부르조아지의 항일파는 양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한 편으로는 아직 단결하여 항일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또 앞으로 투항하기 위한 절차로서 진보 세력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반동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단결하여 항일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항일 통일 전선에 머물러 있도록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항일 통일 전선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이러한 쟁취 정책을 실시하고 그들과 합작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이미 사실 상의 투항파로 되었으며 곧 반공산당 전쟁을 진행하며 한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그러나 또 그들이 전국에서 진보 세력을 유린하는 반동 정책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혁명적 삼민주의라는 이 공동 강령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 강령을 실시하는 것까지 견결히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고——즉 우리를 그들과 같이 소극적인 항전 밖에 하지 못 하게 하고——우리를 동화하려고 시도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반동 정책에 반항하는 투쟁 전술을 취하여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들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완고파의 양면 정책에 대처하는 우리의 혁명적 양면 정책이며 이것이 바로 투쟁으로써 단결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만일 우리가 사상적으로 정확한 혁명적 리론을 제기하여 그들의 반혁명적 리론에 단호한 타격을 가한다면, 만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기에 알맞는 전술적 절차를 취하여 그들의 반공산당, 반진보 정책에 단호한 타격을 가한다면, 만일 우리가 적절한 군사적 절차를 취하여 그들의 군사적 진공에 단호한 타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반동 정책의 실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진보 세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쟁취함으로써 그들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직 항일을 하려는 완고파를 쟁취하여 그들이 항일 통일 전선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과거와 같은 그러한 대규모의 내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일 통일 전선 시기에 있어서 완고파와의 투쟁은 그들의 진공을 방어함으로써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진보 세력을 보호하며 이 세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항일하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또 우리와 그들과의 합작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의 내전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만일 투쟁하지 않는다면 진보 세력은 완고 세력에 의하여 소멸 당하게 될 것이며 통일 전선

은 존속하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적에 대한 완고파의 투항은 아무런 저애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내전도 일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완고파와의 투쟁은 모든 항일 력량을 단합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며 대규모의 내전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의 수단이다. 이 진리는 이미 모든 경험들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그러나 항일 통일 전선 시기에 완고파와 투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자위의 원칙이다.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남을 건드린다. 이것은 즉 결코 까닭 없이 남을 진공하여서는 안 되며 또 남에게 공격을 당하였을 때에 반격을 하지 않아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투쟁의 방어성이다. 완고파의 군사적 진공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들을 긴결히, 철저히, 깨끗이, 전부 소멸하여야 한다. 둘째는 승리의 원칙이다. 싸우지 않으면 몰라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며 결코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고 자신이 없는 싸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완고파의 모순을 리용할 줄 알아야 하며 결코 많은 완고파를 동시에 타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자를 먼저 타격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투쟁의 국부성이다. 셋째는 휴전의 원칙이다. 한 시기 완고파의 진공을 격퇴한 후 그들이 새로운 진공을 하기 전에는 적당한 데서 그침으로써 이 투쟁으로 하여금 일단락을 고하게 하여야 한다. 뒤'이어 한 시기 쌍방은 휴전을 하게 된다. 이

때에 우리는 또 주동적으로 완고파와의 단결을 도모하여 상대방의 동의 하에서 그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싸우기만 하거나 승리로 하여 머리가 혼미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이 곧 매개 투쟁의 일시성이다. 그들이 새로운 진공을 하여 올 때 우리는 또 새로운 투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은 바로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한다는 것이다.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는 이러한 투쟁을 견지한다면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생취하고 완고파를 고립시킬 수 있으며 완고파로 하여금 일후에 감히 우리를 함부로 진공하지 못 하게 하며 적과 함부로 타협하지 못 하게 하며 대규모의 내전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국의 호전을 생취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6. 국민당은 복잡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당이다. 그 가운데는 완고파도 있고 중간파도 있고 진보파도 있다. 결코 국민당 전체가 완고파인 것은 아니다. 국민당 중앙이 《이당 활동 제한법》 등등의 반혁명적인 마찰 법령을 반포하고 그들의 일체 령량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되는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인 반혁명적 마찰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여 일부 사람들은 국민당 전체가 다 완고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지금 국민당 내에서 완고파가 그 당의 정책을 좌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효로 볼 때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으로서 그 당의 대다수의 당



원이(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걸어 놓은 당원이다) 다 완고파인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똑똑히 인식하여야만 그들의 모순을 리용하여 각기 달리 취급하는 정책을 취하며 거대한 력량을 기울여 국민당 내의 중간파와 진보파를 단합할 수 있다.

7. 항일 근거지에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권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권이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는 아직 이러한 정권이 없다. 이러한 정권은 항일을 찬동하며 또 민주주의를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권이며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련합하여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민주주의 독재이다. 이 독재는 지주-부르주아 독재와 다르며 엄격한 로농 민주주의 독재와도 다소 다르다. 정권에서의 인원 비례는 프로레타리아트 및 빈농을 대표한 공산당원이 3분의 1을 차지하여야 하고 소부르주아지를 대표한 좌파 진보 분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여야 하며 중부르주아지 및 개명 신사를 대표한 중간 분자 및 기타 분자가 3분의 1을 차지하여야 한다. 민족 반역자와 반공 분자만이 이러한 정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인원 수에 대한 이와 같은 대체적인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의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인원 비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진실한 정책인바 이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어물어물해 치위서는 안 된다. 이는 대체적인 규정이므로 기계적으로 수'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당히 실시하여야 한다. 최하급 정권에 있어서는 토호 멸신과 지주가 정

권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약간 변동할 수도 있으나 그 기본 정신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항일 통일 전선 정권에 있어서 공산당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정당 관계의 유무 및 어떠한 정당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불문하여야 한다. 항일 통일 전선의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오직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고 공산당과 합작하는 정당이라면 그것이 국민당이거나 다른 당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존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선거 정책은 무릇 항일과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만 18 세 이상의 중국 사람이라면 계급, 민족, 정당, 성별, 신앙 및 문화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항일 통일 전선의 정권을 내올 때는 인민들이 선거하고 국민 정부에 신청하여 위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 조직 형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여야 한다.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시정 방침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진짜 민족 반역자 및 반동파를 반대하며 항일 인민을 보호하며 각 항일 계층의 이익을 조절하며 노동자,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그 기본적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이러한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수립은 전국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전국적 항일 통일 전선 정권의 모형으로 될 것이므로 전체 당원 동지들은 이를 심각히 인식하고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8.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쟁취하고 완고 세력을 고립시키는 투쟁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완고파도 역시 지식인을 극력 쟁취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모든 진보적 지식인들을 우리 당의 영향 하에로 쟁취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대한 정책이다.

9. 선전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령을 장악하여야 한다. (1) 《총리의 유혹》을 실천하여 민중을 불러 일으키며 일치 항일한다. (2) 민족주의를 실시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대외적으로는 중화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각 민족 간의 평등을 도모한다. (3) 민권주의를 실시하여 인민에게 항일 구국의 절대적 자유를 주며 인민이 각급 정부를 선거하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혁명적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4) 민생주의를 실시하여 가련 잡세를 폐지하며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며 8 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며 농업, 공업, 상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의 생활을 개선한다. (5) 《남북의 구별이나 로유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국도를 방위하여 항전할 책임이 있다》는 장개석의 선언을 실행한다. 이 모든 것들은 국민당 자신이 선포한 강령이며 또한 국공 량당의 공동 강령이다. 그러나 항일이라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국민당은 한 가지도 실시하지 못 하며 오직 공산당과 진보파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인민들 가운데 보급된 가장 간단한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산당원들이 아직도 이 강령을 민중을 동원하며 완고파를 고립시키는 무기로 리용할 줄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수시로 이 5 개 조항의 강령을 장악하고 이를 포고, 선언, 삐라, 문분, 연설, 담화 등등의 형식

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당 지역에서는 아직도 선전 강령이지만 팔로군과 신사군이 이르는 곳에서는 행동 강령으로 된다. 이러한 강령에 근거하여 행동하면 우리는 합법적이고 이러한 강령의 실시를 반대하는 완고파는 비법적이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국민당의 이러한 강령은 우리의 강령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국민당의 사상 체계는 공산당의 사상 체계와 절대 같지 않다. 우리가 실시하여야 할 것은 단지 이러한 민주주의 혁명의 공동 강령 뿐이지 결코 국민당의 사상 체계가 아니다.

## 항일 력량을 대담하게 발전시키며 반공 완고파의 진공에 저항하자\*

(1940년 5월 4일)

(1) 일체의 적후 지역 및 전쟁 지역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나 큰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화북이거나 화중이거나 화남이거나를 물론하고, 장강 이북이거나 이남이거나를 물론하고, 평원 지구가거나 산악 지구가거나 소택 지구가거나를 물론하고 또 팔로군이거나 신사군이거나 화남 유격대(1)이거나를 물론하고 각기 그 특수성은 있지만 모두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가 적을 상대하고 있으며 모두가 항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발전할 수 있으며 또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전 방침에 대하여 중앙은 당신들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동남국에 준 지시문이다. 모택동 동지가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이 지시문을 쓴 시기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이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동남국 서기인 량영동지의 사상 가운데는 엄중한 우경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중앙의 방침을 건철하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감히 군중을 대담하게 발동시키지 못 하였으며 일본 점령 지구에서 감히 해방구와 인민 군대를 확대하지 못 하였으며 국민당의 반동적 진공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이 반동적 진공

에게 무차 제기하였었다. 발전이라는 것은 국민당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민당이 용허하는 범위를 초월하고 남의 위임을 받지 않고 상부에서 주는 급양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 자주적으로 대담하게 군대를 확대하며 건결하게 근거지를 창설하며 이러한 근거지에서 독립 자주적으로 군중을 발동시키며 공산당이 평도하는 항일 통일 전선의 정권을 수립하며 적 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으로 발전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소성 경내에서는 고 축동, 랑 혼, 한 덕근[2] 등 반공 분자들의 비평, 제한 및 압박을 문제시하지 말고 서쪽으로는 남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해안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항주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는 서주에 이르기까지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그리고 철차 있게 계획적으로 우리의 수중에 넣어 독립 자주적으로 군대를 확대하고 정권을 수립하며 재정 기관을 설립하고 항일을 위한 세금을 징수하며 경제 기관을 설립하고 농업, 공업 및 상업을 발전시키며 각종 학교를 설립하며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중앙은 전일에 당신들에게 금년 1년 내에 강소, 절강 두 성의 적후 지

---

에 대처할 정신적 및 조직적 준비가 없었다. 중앙의 이 지시가 하달되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동남국 위원이며 신사군 제 1 지대의 지대장인 진 의 동지는 이를 즉시 집행하였다. 그러나 항 영 동지는 여전히 이것을 집행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국민당의 있을 수 있는 반동적 진공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1941년 1월 경에 장 개석이 환남 사변을 일으켰을 때 연약 무력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 안휘성 남부의 군대 9,000 명으로 하여금 북벌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항 영 동지 자신도 역시 반동 분자에게 피살되었다.

역에서 항일 무장력을 10만 명으로 확장하고 정권을 신속히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포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이미 시기를 놓쳤는데 만약 금년에도 또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더욱 힘 들 것이다.

(2) 국민당의 반공 완고파들이 공산당을 방비하고 공산당을 제한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정책을 완고히 집행하면서 이것으로써 일본에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통일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나 큰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을 방비하고 공산당을 제한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일체 반공 완고파들의 법률, 명령, 선전, 비평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리론적인 것이거나 정치적인 것이거나 군사적인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단호히 반항하여야 하며 단호히 투쟁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하는 원칙으로부터, 즉 자위의 원칙, 승리의 원칙 및 휴전의 원칙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목전의 매개 구체적 투쟁의 방어성, 국부성 및 일시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반공 완고파들의 일체 반동적 법률, 명령, 선전, 비평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과 날카롭게 맞서는 방책을 제기하고 그들과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제 4, 제 5 지대<sup>[3]</sup>를 남으로 이동시키라고 하면 우리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남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이에 대처하여야 하며 그들이 엽, 장 두 부대<sup>[4]</sup>를 남으로 이동시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부의 부대를 북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에 대처하여야 하며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병역제를 파괴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사군의 군대 모집 구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들이 우리의 선전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일체의 반공산당 선전을 취소하고 일체의 마찰 법령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군사적 진공을 감행하면 우리는 군사적 반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격파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날카롭게 맞서는 정책을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는 모든 일은 우리 당 중앙이 그것을 제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일체 부분에서도 그것을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 운일이 리 품선에 대하여, 리 선념이 리 종인에 대하여<sup>[5]</sup> 취한 태도는 모두가 하부가 상부에 대하여 강경한 항의를 제출한 것인바 이것이 좋은 실례들이다. 완고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투쟁할 때에 이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하는 방침을 취하여야만 완고파가 겁을 내어 감히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되며 완고파들의 공산당을 방비하고 공산당을 제한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도록 완고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또 완고파로 하여금 감히 함부로 분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쟁은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며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며 국공 합작을 공고화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오직 완고파에 대한 투쟁을 전지함으로써만 우리 당과 우리 군대 내부에서 사기를 왕성하게 하며 용기를 내게 하며



간부를 단결시키며 역량을 확대하며 군대와 당을 강화할 수 있다. 중간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고파에 대한 투쟁을 견지함으로써만 동요하는 중간파를 쟁취할 수 있으며 공명하는 중간파를 지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국적 성격을 띤 돌발적 사변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투쟁의 방침을 취함으로써만 전 당, 전군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미리 포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927년의 오류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6].

(3) 현 시국을 평가할 때에 있어서 일방으로는 투항의 위험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타방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가능성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목전의 군사적 충돌은 아직 전국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국부적 성격을 띤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7]의 전략적 정찰 행동이지 아직 즉시 대규모적으로 《공산당 토벌》을 하려는 행동이 아니다. 또 그것은 상대방의 투항 준비의 절차이지 아직 즉시 투항하려는 절차가 아니다. 우리의 과업은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며》, 《중간 세력을 쟁취하며》, 《완고 세력을 교섭시킨다》는 중앙의 이 세 가지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을 끝까지 강력하게 집행하며 그리 함으로써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만일 시국에 대한 평가와 과업의 제기에 있어서 지나친 좌적 또는 지나친 우적 의견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설하여 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크나 큰 위험인 것이다.

(4) 안휘성 동부에 대한 한 덕군, 리 종인의 진공을 반대  
한 제 4, 제 5 지대의 자위 전쟁, 호북성 중부 및 동부에 대한  
완고파의 진공을 반대한 리 선녕 종대의 자위 전쟁, 회하 이  
북에서의 팽 싹풍 지대의 견결한 투쟁, 장강 이북에 있어서  
의 엽 비 부대의 발전 및 팔로군 2만여 명의 회하 이북, 안  
휘성 동부, 강소성 북부에서의 남하<sup>[8]</sup>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 속동으로 하  
여금 경솔히 안휘성 남부와 강소성 남부에서 당신들을 진공  
하지 못 하게 하는 필요한 조치이다. 다시 말하면 장강 이북  
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발전하면 할수록 고 속동은 장강 이  
남에서 더욱더 합부로 움직이지 못 하게 되며 안휘성 남부  
와 강소성 남부에서의 당신들의 활동은 더욱더 유리하게 된  
다. 마찬가지로 팔로군, 신사군 및 화남 유격대가 서북, 화  
북, 화중, 화남에서 발전하면 할수록, 공산당이 전국적 범위  
에서 발전하면 할수록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  
을 쟁취할 가능성이 더욱더 증대되며 전국에서의 우리 당의  
활동도 더욱더 유리하게 된다. 만일 이와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고 상반되는 전술을 취한다면, 즉 우리가 발전하면 할수  
록 상대방은 더욱더 투항하게 되며 우리가 양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항일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나 또 지금은  
이미 전국이 분열되고 있는 때여서 국공 합작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5) 항일 전쟁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전국적인 방침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적후에서 창설하는 민주주의적 항일 근거지도 역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적인 것이다. 정권 문제에 관한 중앙의 결정을 당신들은 건결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6) 국민당 통치 지역 내에서의 방침은 전쟁 지역이나 적후 지역과는 다르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서는 조급성과 자체 폭로를 반대하고 활동을 은밀히 하고 인원을 알준히 하며, 장기적으로 배복하며, 역량을 축적하며,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거기에서 완고파와 투쟁하는 전술은 이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하는 원칙 하에서 국민당의 법률과 명령과 사회적 관습이 허락하는, 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리용하여 온건하고도 정확하게 투쟁하며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다. 당원으로서 국민당에 입당할 것을 강요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가입할 것이고 지방 보갑 조직, 교육 단체, 경제 단체, 군사 단체에 광범히 뚫고 들어 가야 하며 중앙군과 잡패군<sup>[9]</sup> 내에 있어서는 통일 전선 공작 즉 벗을 사귀는 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당 지역에서의 당의 기본 방침도 마찬가지로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당 조직과 민중 운동을 발전시킨다) 중간 세력(민족 부르조아지, 개명 신사, 잡패군대, 국민당 내의 중간파<sup>[10]</sup>, 중앙군 내의 중간파<sup>[11]</sup>, 상층 소부르조아지 및 각 소당파 등 일곱 종류)을 쟁취하고 완고 세력을 고립시키며 그리 함으로써 투항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국의 호전을 쟁취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 지방적 및 전국적 성격의 돌발적 사변에 대

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당 지역에 있어서의 당 기관은 극단적 비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남국<sup>[12]</sup> 및 각 성 위원회, 각 특별구 위원회, 각 현 위원회, 각 구 위원회의 일'군들(서기로부터 취사원에 이르기까지)을 일일이 엄격하고 주밀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각급 지도 기관 내에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간부 보호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 국민당에게 체포, 살해 당할 위험성이 있는 공개적 또는 반 공개적 간부는 다른 지구에 옮겨 은폐하게 하거나 군대에 조동시켜 사업하게 하여야 한다. 일본 점령 지구(대도시, 중소 도시 및 농촌, 레를 들면 상해, 남경, 무호, 무석 등지)에 있어서의 방침은 국민당 지역에서의 방침과 기본적으로 같다.

(7) 이상의 전술적 지시는 이 번 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동남국과 군 분회의 여러 동지들은 토론한 후 이것을 전 당, 전군의 전체 간부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를 건결히 집행하기 바란다.

(8) 이 지시를 안휘성 남부에서는 항 영 동지가 전달하고 강소성 남부에서는 진 의 동지가 전달하기 바란다. 또 이 지시를 받은 후 1 개월 내에 토론과 전달을 끝 내기 바란다. 전 당, 전군에 대한 사업 배치는 항 영 동지가 중앙의 방침에 따라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기 바란다.

## 주 해

[1] 화남 유격대란 중국 공산당이 명도한, 중국 남방에 있던 몇 개 함일 유격대의 총칭이다.

[2] 고 측동, 탕 혼, 한 먹근은 당시 국민당 정부가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남부, 강서성 등지에 파견하여 주둔시킨 반동적 장령들이다.

[3] 제 4, 제 5 지대란 곧 신사군 제 4 지대와 제 5 지대로서 당시 강소성과 안휘성 사이의 회하 지구에 함일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4] 업, 장 두 부대란 곧 업 비, 장 운일 두 동지가 인솔하고 있던 신사군의 일부분이다. 당시 그들은 장강 이북의 강소성 중부와 안휘성 동부 지구에서 함일 유격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함일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5] 1940년 3~4월 경에 국민당 안휘성 성 정부 주석 리 품선과 제 5 전구 사령 장관 리 종인(이 두 사람은 다 광서계 군벌이다)은 안휘성과 호북성 사이에 있던 신사군을 대규모적으로 진공하였다. 당시 신사군 각부 지휘원 장 운일 동지와 아예 정진 총대 사령원 리 선녕 동지는 함일을 파피하는 그들의 비행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는 동시에 그들의 진공에 저항하였다.

[6] 진 독수의 우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7] 장 개석을 두목으로 하는 국민당 완고파를 가리키는 것이다.

[8]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회하 북부, 안휘성 동부, 강소성 북부에서 외 신사군의 함일 투쟁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0년 1월에 화북으로부터 팔로군 2만이 명을 강소성 북부로 남하시었다.

[9] 장 개석 계통은 자기들의 적계 부대들 《중양군》이라고 불렀고 기타 파벌의 국민당 군대들 《잡패군》이라고 불렀다. 《잡패군》은 장 개석 집단의 차별 시문 받고 있었으며 그들이 받는 대우는 《중양군》과 같지 않았다.

[10] 《국민당 내의 중간파》란 국민당 내에서 일정한 기간 공산당을 반대함에 있어서 그다지 적극적이 아니거나 중립적 태도를 취한 파벌 및 일부 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1] 국민당의 《중양군》은 비록 장 개석의 적계 부대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의 군관 혹은 개별적인 부대는 함일 시기에 공산당을 반대함에 있어서 그다지 적극적이 아니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중양군 내의 중간파》란 바로 이 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2] 동남국이란 1938년부터 1941년에 걸쳐 동남 지구의 사업을 지도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대표 기관이다. 이 지구에는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끝까지 단결하자

(1940년 7월)

항일 전쟁 3 주년은 바로 중국 공산당 창건 19 주년이다. 오늘 항전을 기념하면서 우리 공산당원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더한층 느끼게 된다. 중화 민족의 흥망은 일체 항일 정당의 책임이며 전국 인민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산당원들로서 볼 때에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크다. 우리 당 중앙은 이미 시국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의 중심은 끝까지 항전하고 끝까지 단결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 선언을 우당, 우군 및 전국 인민이 찬동할 것을 희망한다. 더구나 모든 공산당원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방침을 참답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항전하여야만 끝까지 단결할 수 있으며 또 끝까지 단결하여야만 끝까지 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공산당원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은 항전의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또 단결의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적들과 견결한 투항 분자, 반공 분자들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잘 단결하여야 한다. 소위 견결한 투항 분자, 반공 분자는 어느 곳에서나 다 소수를 차지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어느 지방 정부의 구성 성분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1,300 명 중 견결한 반공 분자는 40~50 명 뿐이고, 즉 4%도 못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단결과 항전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물론 견결한 투항 분자와 반공 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항전을 파괴하며 단결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항파를 견결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공 분자의 진공을 자위적 립장에 서서 단호히 격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경 기회주의이며 단결하여 항전하는 데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투항과 반공에 견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단결의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 중 일부는 양면파이고 일부는 강요 당한 사람이며 또 일부는 일시적으로 길을 잘 못 든 사람들이므로 계속 단결하여 항전하도록 이들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좌》경 기회주의이며 단결하여 항전하는 데 역시 불리한 것이다. 모든 공산당원들은 우리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발기한 이상 이 통일 전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난이 날로 심하여지고 세계 정세에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중화 민족의 흥망에 대하여 우리는 극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하며 반드시 중국을 독립, 자유, 민주주의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의 절대 다수의 유당 유과, 무당 무과의 사람들과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



당원들은 남과 무원칙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소위 공산당을 용해시키며 공산당을 제한하며 공산당을 방비하며 공산당을 압제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반대하여야 하며 당내의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공산당원을 물론하고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존중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산당원은 항일의 원칙 하에서 아직 항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당내의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정권 문제에 있어서 통일 전선 정권을 주장한다. 즉 다른 정당의 일당 독재도 찬성하지 않거니와 공산당의 일당 독재도 주장하지 않으며 각당, 각파, 각계, 각군의 연합 독재를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 전선 정권이다. 공산당원들이 적후에서 적과 괴뢰의 정권을 소멸하고 항일 정권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당 중앙이 결정한 《3.3 제》를 취하여 정부 일'군 중에서도 민의 기관 내에서도 막론하고 공산당원이 3 분의 1만 차지하고 항일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기타의 정당 및 무소속 인사가 3 분의 2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적에게 투항하지 않고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 정부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적에게 투항하지 않고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어떠한 정당임을 물론하고 그에게 항일 정권 하에서 존재하며 활동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선언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일체의 우군 내부에서 당 조직을 발전시키지 않

는다》는 결정을 계속 집행할 것이다. 아직 이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 당부에서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무릇 팔로군, 신사군에 대하여 군사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군대에 대하여서는 일물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마찰을 일으킨 일이 있는 군대일지라도 그가 마찰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역시 우호 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군대 문제에 있어서 통일 전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재정, 경제, 문화, 교육, 반역자 숙청 등 각 방면의 정책도 항일의 필요에 따라 각 계급의 리익을 조절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통일 전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한 편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현하의 국제 정세를 보면 제국주의 전쟁은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극히 엄중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을 폭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의 새 시대에 처하여 있다. 제국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 가지 않고 있는 소련은 전 세계의 일체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원조자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중국의 항전에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양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진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는 필연코 중국 내부의 일부 동요 분자들을 유인하여 투항시키려 할 것이므로 투항의 위험성은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다.

항전의 네 번째 해는 가장 곤난한 한 해일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항일 력량과 단결하여 투항 분자를 반대하며 모든 곤난을 싸워 이기며 전국적 항전을 견지하는 것이다. 모든 공산당원들은 우당, 우군과 일치 단결하여 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당의 전체 당원 및 우당, 우군과 전체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투항을 극복하고 곤난을 이겨 내며 일본 침략자를 몰아 내고 우리의 강산을 도로 찾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항전의 앞길은 광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 정책에 대하여\*

(1940년 12월 25일)

반공 고조에 직면한 현 정세 하에서 우리의 정책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현시기의 당 정책이 토지 혁명 시기의 정책과는 중대한 구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전반 항일 전쟁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은 여하한 정세 하에서든지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지난 10년 간의 토지 혁명 시기에 실시하던 많은 정책들을 지금에 와서도 그 대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우기 토지 혁명의 후기에 중국 혁명이 반식민지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과 혁명이 장기성을 띠고 있다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알지 못한 데서 산생된 많은 너무 좌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제 5 차 《포위 토벌》과 제 5 차 반 《포위 토벌》 간의 투쟁을 소위 혁명 로선과 반혁명 로선 간의 결전이라고 생각한 것, 경제적으로 부르조아지를 소멸하고 (너무 좌적인 로동 정책과 부세 정책) 부농을 소멸한 것(나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뿐 토지를 분여하였다), 육체적으로 지주를 소멸한 것(토지를 분여하지 않았다), 지식인을 타격한 것, 반혁명 숙청에서의 《좌》경, 정권 사업에서 공산당원이 완전히 독점한 것, 공산주의적인 국민 교육 중지, 너무 좌적인 군사 정책(대도시를 진공하고 유격 전쟁을 부정하였다), 백색 지구 공작에서의 맹동 정책, 당내 조직 상에서의 타격 정책 등등〔1〕은 현하 함일 시기에 있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도 그것은 오유였던 것이다. 이러한 너무 좌적인 정책은 제 1 차 대혁명 후기의 진 독수가 령도한 우경 기회주의와는 정반대로 《좌》경 기회주의적 오유로서 표현되었다. 제 1 차 대혁명 후기에 있어서는 일체가 련합이고 투쟁을 부정하였다면 토지 혁명 후기에 있어서는 일체가 투쟁이고 련합(기본적 농민 대중 이외의 사람들과의)을 부정하였다. 이야 말로 두 개의 극단적인 정책을 대표하는 아주 뚜렷한 실례인 것이다.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정책은 모두 당과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지금의 함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은 일체가 련합이고 투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일체가 투쟁이고 련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련합과 투쟁의 두 면을 종합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함일적 인민들이 련합하여(혹은 모든 함일적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실업가들이 련합하여) 함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한다.

(2) 통일 전선 하에서의 독립 자주 정책으로서 통일하면

서 또 독립하여야 한다.

(3) 군사적 전략 면에서는 전략적 통일 하에서의 독립 자주적인 유격 전쟁이며 기본적인 것은 유격전이지만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운동전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

(4) 반공 완고파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모순을 리용하고 다수를 쟁취하고 소수를 반대하고 각개 격파하는 것이며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하는 것이다.

(5) 적의 점령구와 국민당 통치구에서의 정책은 한 편으로 통일 전선 사업을 힘껏 발전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활동을 은밀히 하고 인원을 알준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며 조직 방식과 투쟁 방식에 있어서 활동을 은밀히 하고 인원을 알준히 하며, 장기적으로 매복하며, 력량을 축적하며, 시기를 기다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6) 국내 각 계급의 호상 관계에 대한 기본 정책은 진보 세력을 발전시키고 중간 세력을 쟁취하고 반공 완고 세력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7) 반공 완고파에 대하여서는 혁명적 량면 정책을 취한다. 즉 그들의 아직 항일할 수 있는 면에 대하여서는 련합하는 정책을 취하며 건결히 공산당을 반대하는 면에 대하여서는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항일하는 면에서도 완고파는 량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아직 항일할 수 있는 면에 대하여서는 련합하는 정책을 취하고 동요하는 면(예를 들면 일본 침략자와 암암리에 결탁하며 왕 정위 및 민족 반역자를 반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못 되는 것 등)에 대하여

서는 투쟁하며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면에서도 완고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책도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즉 그들의 아직 국공 합작을 근본적으로 결렬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면에 대하여서는 연합하는 정책을 취하고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하여 강압 정책을 실시하며 군사적 진공을 하는 면에 대하여서는 투쟁하며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양면과 분자를 민족 반역자, 친일파와 구별한다.

(8) 만족 반역자, 친일파 중에도 양면 분자가 있으므로 우리는 역시 혁명적 양면 정책으로써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즉 그 친일적 면에 대하여서는 타격을 주고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하며 그 동요하는 면에 대하여서는 끌어 당기며 생취하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양면 분자를 왕 정위, 왕 읍당[2], 석 우삼[3] 등과 같은 건결한 민족 반역자들과 구별한다.

(9) 항일을 반대하는 친일파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와 항일을 주장하는 영미파 대지주, 대부르쥬아지를 구별하여야 할뿐더러 또 항일을 주장하면서도 동요하며, 단결을 주장하면서도 공산당을 반대하는 양면파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와 양면성이 비교적 적은 민족 부르쥬아지, 중소 지주, 개명 신사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별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을 수립한다. 상술한 각항 상이한 정책들은 이런 계급 관계의 구별에서 온 것이다.

(10)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다. 공산당은 여



하한 제국주의도 다 반대하지만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와 지금 중국을 침략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제국주의를 구별하여야 하며 또 일본과 동맹을 맺고 《만주국》을 인정한 독일, 이탈리아 제국주의와 일본과는 대립적 지위에 있는 영, 미 제국주의를 구별하여야 하며 또 극동 문헌 정책을 취하여 중국의 항일을 해치려 하던 시기의 영, 미와 이 정책을 버리고 중국의 항일을 찬조하고 있는 지금의 영, 미를 구별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술적 원칙은 여전히 모순을 리용하고 다수를 쟁취하고 소수를 반대하고 각개 격파하는 것이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당과 구별이 있다. 국민당은 소위 《적은 하나 뿐이고 기타는 모두 빛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면 상으로는 일본 이외의 국가를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듯 하나 실지는 친영, 친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을 두어야 한다. 즉 첫째로 소련과 자본주의 제 국가를 구별하며 둘째로 영국,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를 구별하며 셋째로 영, 미의 인민과 영, 미의 제국주의 정부를 구별하며 넷째로 극동 문헌 시기에 있어서의 영, 미 정책과 현 시기에 있어서의 영, 미 정책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별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을 수립한다. 우리의 근본 방침은 국민당과 상반되는바 국민당처럼 그렇게 독립적인 전쟁과 자력 갱생을 버리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어느 제국주의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쟁과 자력 갱생을 견지하는 원칙 하에서 가능한 한 외국의 원조를 리용하는 것이다.

전술 문제에 있어서의 당내 많은 간부들의 일면적인 견

해와 이로부터 오는 너무 좌적인 또는 너무 우적인 동요에 대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력사상 및 현재의 당 정책의 변화 및 발전으로부터 전면적이고도 전일적인 리해를 가지도록 하여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현하 당내의 주되는 위험한 경향은 여전히 너무 좌적인 견해가 꼬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당의 반공 정책을 엄중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은밀히 하고 인원을 알뿐히 하며, 장기적으로 매복하며, 력량을 축적하며, 시기를 기다리는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지 못 하고 있다.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국민당을 단순히 암흑한 것으로만 보고 속수 무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 전선 사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일본의 점령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정형이 있다.

국민당 통치구와 각 항일 근거지 내에서 단지 연합할 줄만 알고 투쟁할 줄은 모르며 국민당의 항일성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데서 국공 량당 간의 원칙적인 구별을 모호하게 만듦과 통일 전선 하에서의 독립 자주의 정책을 부정하고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와 융화하며 국민당과 융화하며 스스로 자기의 수족을 잃어 매고 항일적 혁명 세력을 대담하게 발전시키지 못 하며 공산당을 반대, 제한하는 국민당의 정책과 견결히 투쟁하지 못 하는 그러한 우경적 견해는 과거 한동안 엄중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극복되었다. 그러나 1939년 겨울부터 국민당의 반공 마찰 및 우리의 자위적 투쟁으로 인하여 생긴 너무 좌적인 경향이 도리어 보편적

으로 발생되었다. 그 중 더러는 이미 시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시정되지는 못 하였으며 아직 허다한 지방들의 많은 구체적 정책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정책을 연구하며 해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구체적 정책에 대하여서는 중앙으로부터 묵속 지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 점만 지적하려 한다.

정권 조직에 대하여, 《3.3제》를 건결히 집행하여 공산당원은 정권 기관 내에서 3분의 1만을 차지하고 광범한 비당 인사들을 정권에 참가시켜야 한다. 항일 민주 정권을 수립하기 시작한 강소성 북부와 같은 지방들에서는 3분의 1 이하로 하여도 좋다. 정권 기관이거나 민의 기관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산당을 반대함에 적극적이 아닌 소부르쵸아지, 민족 부르쵸아지 및 개명 신사의 대표들을 참가시켜야 하며 또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국민당원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민의 기관에는 소수의 우파 분자가 참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일체를 도맡아 하는 것은 특히 삼가야 한다. 우리는 단지 매관 대부르쵸아지 및 대지주 계급의 독재를 타도할 뿐이며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 정책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노동자들의 항일 적극성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좌적인 편향을 특히 삼가야 하며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에 있어서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금의 중국 형편에서는 아직 8 시간 로동제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일부의 생산 부문들에서는 아직 10 시간 로동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 부문들에서는 정형에 따라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후 로동자는 로동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본가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항일에도 불리하거니와 로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 농촌 로동자의 생활 및 대우의 개선에 있어서는 더구나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반대, 로동자들의 실업, 생산의 축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토지 정책에 대하여, 지금은 철저한 토지 혁명을 실시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과 과거의 토지 혁명 시기에 쓰던 일련의 방법들을 지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당원 및 농민들에게 해설하여 주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일방으로 지주의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본 농민 대중의 항일 적극성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인하하여도 안 된다. 소작료는 일반적으로 25% 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이 더 인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지주 4, 소작인 6으로 하거나 지주 3, 소작인 7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한도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 리자의 인하는 사회 경제에 있어서의 대차 관계가 허용하는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타방으로 농민은 소작료와 리자를 바쳐야 한다는 것과 토지 소유권과 재산 소유권은 여전히 지

주에게 속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리자 인하로 인하여 농민들이 빚을 내어 쓸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되며 묵은 빚을 청산한다고 하여 저당 잡힌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부세 정책에 대하여. 수입의 다소에 따라 납세액을 정하여야 한다. 극빈자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외에 수입이 있는 모든 인민들 즉 80% 이상의 주민들은 노동자이거나 농민이거나를 물론하고 모두가 국가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을 전부 지주, 자본가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사람을 잡아다가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군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금지하여야 한다. 부세 방법은 우리가 더 적절한 새로운 방법을 정하기 전까지 국민당의 낡은 방법을 적당히 고쳐 쓰는 것도 무방하다.

반역자 숙청 정책에 대하여. 건걸한 민족 반역자와 건걸한 반공 분자는 건걸히 진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항일 혁명 세력을 보위할 수 없다. 그러나 걸코 사람을 많이 죽여서는 안 되며 걸코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반동과 중의 동요 분자 및 추종 분자는 관대히 처분하여야 한다. 어떠한 범죄자에 대하여서나를 물론하고 체형을 건걸히 폐지하여야 하며 자백을 경솔히 믿을 것이 아니라 증거를 중시하여야 한다. 적군, 괴뢰군, 반공군의 포로에 대하여서는 그들 중 대중이 극도로 증오하여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자로서 상급의 비준을 거친 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석방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 중 강제에 못 이겨 참가

한 자로서 다소라도 혁명성이 있는 분자들은 대량적으로 쟁취하여 우리 군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는 일물적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만일 그들이 다시 오면 재차 붙들어서 또 석방하여야 한다. 모욕을 가하거나 소지품을 빼앗거나 자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물적으로 친절하고도 화기로운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반동적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러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동 진영을 고립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다. 변절자에 대하여서는 그 죄가 극히 엄중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공산당을 계속 반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회파 자신의 길을 주어야 하며 만일 그가 혁명으로 돌아선다면 받아 들여도 좋으나 다시 입당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당의 일반 정보원을 일본 정탐 및 민족 반역자와 혼동시키지 말고 이 양자 간의 성질을 명백하게 갈라서 따로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단체나 다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혼란한 현상을 없애야 하며 군대가 전투할 때에 체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직 정부의 사법 기관 및 치안 기관만이 범인을 체포할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항일의 혁명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인민의 권리에 대하여. 항일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지주, 자본가에게 노동자, 농민과 동등한 인신권, 재산권, 선거권 및 언론, 집회, 결사, 사상, 신앙의 자유권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우리 근거지 내에서 파괴 활동을 조직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만 간섭하고 그 외의 사

탐들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않고 일물로 보호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경제 정책에 대하여. 공업, 농업과 상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항일 근거지에 와서 실업을 경영하려는 외지의 자본가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민영 기업을 장려하여야 하고 정부에서 경영하는 국영 기업은 단지 전체 기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자급 자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익한 기업체는 하나도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 정책과 화폐 정책은 농업, 공업, 상업을 발전시키는 기본적 방침에 적용되어야 하며 거기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각 근거지의 경제를 조잡하게가 아니라 진실하고 주밀하게 조직하여 자급 자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근거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기본적 고리이다.

문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인민 대중의 항일에 대한 지식, 기능 및 민족적 자부심을 제고하며 보급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부르조아 자유주의적 교육가, 문화인, 기자, 학자, 기술자들이 근거지에 와서 우리들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며, 신문을 내며,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항일에 비교적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일체 지식인들을 우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단기 훈련을 거친 후 그들을 군대 사업, 정부 사업, 사회 사업에 참가시켜야 하며 그들을 대담하게 받아 들이고 대담하게 임용하고 대담하게 동용하여야 한다. 반동 분자가 잠입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망설이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분자들이 불가피적으로 일부 잠입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학습 과정에서와 사업 과정에서 숙청하여도 늦지 않다. 근거지마다 다 인쇄 공장을 설치하여 서적, 신문을 출판하며 발행 및 수송 기관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 근거지마다 가능한 한 대규모적인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군사 정책에 대하여. 팔로군과 신사군을 힘껏 확대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중국 인민이 민족적 항전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무장력이기 때문이다. 국민당 군대에 대하여서는 남이 나를 진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진드리지 않는다는 정책을 계속 취하며 벼를 사귀는 공작을 힘껏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 공명하는 국민당 군관 및 무당 무과 군관들을 가능한 한 팔로군과 신사군에 흡수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군사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 내에 있어서 공산당원이 수량 상으로 일체를 독점하는 그러한 정형도 현재에 와서는 개변을 가져 와야 한다. 우리 주력군 내에서 《3.3제》를 실시하여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오직 군대의 평도권이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한(이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동요할 수 없는 것이다) 다량의 공명 분자를 흡수하여 군사 부문과 기술 부문의 건설 사업들에 참가시켜도 무방한 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군대의 사상적 기초 및 조직적 기초가 이미 공고하게 건설된 현시기에 있어서 공명 분자(물론 절대로 파괴 분자가 아니다)를 대량적



으로 흡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국적인 공명을 쟁취할 수 없고 혁명 세력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요한 정책이다.

전 당은 이상에서 서술한 통일 전선 중의 제반 전술적 원칙 및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규정한 많은 구체적 정책들을 견결히 실시하여야 한다. 일본 침략자가 중국 침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지주, 대부르조아지가 반공, 반인민적인 강압 정책 및 군사적 진공을 감행하고 있는 이 때 오직 이상에서 서술한 제반 전술적 원칙 및 구체적 정책들을 실시하여야만 항일을 견지하며 통일 전선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공명을 얻으며 시국의 호전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파오를 시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조급히 하여 간부의 불만, 대중의 의심, 지주의 반격 등 나쁜 현상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절차 있게 하여야 한다.

## 주 해

[1]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된 《하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 제 4 부분을 참조하라.

[2] 왕 융당은 북양 군벌 시대의 내관료이며 친일파 민족 반역자이다. 그는 1935년 화북 사변 후 장 개석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1938년 화북에서 일본 침략자의 괴뢰로 되어 괴뢰 《화북 정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3] 석 우삼은 반복 무상한 국민당 군벌의 하나이다. 항일 전쟁 폭발 후 국민당 제 10 군단 총사령으로 된 그는 하북성 남부에서 일본군과 연합하여 전문적으로 팔로군을 진공하였으며 항일 민주 정권을 파괴하였으며 공산당원과 진보적 분자들을 학살하였다.



## 환남 사변과 관련하여 발표한 명령 및 담화

(1941년 1월)

### 중국 공산당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 명령

(1941년 1월 20일 연안에서)

국민 혁명군 신편 제 4 군은 항전에 공을 세워 국내외에 그 이름을 떨치었다. 이 부대의 항전을 령도하여 탁월한 공훈을 세운 군장 엄 정은 이번에 명령을 받고 북으로 이동하던 도중 돌연히 친일파들의 비밀리에 포치해 놓은 습격을 받아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부상을 당하고 옥중에 갇힌 몸이 되었다. 환남 사변의 경과를 보고한 동군 제 1 지대 지대장 진 의와 참모장 장 운일 등의 전보를 련'이어 받고 몹시 분개하며 또 몹시 걱정한다. 항일을 파괴하며 인민의 군대를 습격하며 내전을 일으킨 친일파들의 하늘에 사무친 죄행에 대하여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는 외에 이에 특히 진 의를 국민 혁명군 신편 제 4 군 대리 군장으로, 장 운일을 부군장으로, 류 소기를 정치 위원으로, 퇴 전주를 참모장으로, 등 자 회를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한다. 진 의 대리 군장 등에게 전

력을 다하여 동군을 정돈하며 내부를 단결시키며 군대와 인민 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삼민주의를 실시하며 <총리의 유추>을 준수하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보위하며 항전을 끝까지 견지하며 친일파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을 명령한다.

## 중국 공산당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 대변인의 신화사 기자와의 담화

(1941년 1월 22일)

이번의 환남 반공 사변은 이미 오래 전부터 획책하여 온 것이다. 목전에 벌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돌발적 사변을 일으키는 발단에 불과하다. 일본 침략자는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1)을 맺은 후부터 중일 전쟁을 급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내부의 변화를 책동하기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목적은 중국 사람의 손을 빌어 중국의 항일 운동을 진압하고 남진하기 위한 후방을 공고히 함으로써 마음 놓고 남진하여 영국을 진공하는 히틀러의 행동에 배합하려는 데 있다. 중국 친일파의 주요 인물들은 오래 전부터 국민당의 당 기관, 정권 기관, 군대 내부에 잠복하고 있었고 그 수효는 매우 많으며 밤낮으로 선동, 유혹 활동을 하여 왔다. 작년 연말에 이르러 그 전반 계획이 다 준비되었다. 환남 신전 제 4군 부대에 대한 습격 및 1월 17일 부 반동 명령의 발표는 이러한 계획이 표면화되는 발단에 불과하다. 가장 중대한 사

변들은 앞으로 점차 상연될 것이다. 일본 침략자와 친일파들의 전반적 계획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하 응흠, 백 승희의 이름으로 주 덕, 팽 덕희, 엽 정, 항 영에게 보낸 10월 19일 부 전보와 12월 8일 부 전보<sup>[2]</sup>를 발표하여 여론을 동원하는 것.

(2) 내전을 발동할 준비로 신문 지상에 군사적 규률과 군사적 명령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것.

(3) 환남의 신편 제 4 군을 소멸하는 것.

(4) 신편 제 4 군이 《배반》을 하였다고 선포하고 동군의 부대 번호를 취소하는 것. 이상의 조항들은 이미 실현되었다.

(5) 탕 은백, 리 품선, 왕 중렴, 한 덕근 등을 화중에 있는 각 《공산당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리 종인을 그 최고 총사령으로 하여 신편 제 4 군의 팽 실펁, 장 윤일, 리 선념 제 부대를 진공하며 이에 성공한 후에는 다시 산동성 및 강소성 북부의 제 8 로군과 신편 제 4 군을 진공하되 일본군이 이에 긴밀히 배합하는 것. 이 절차는 이미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6) 구실을 찾아 내여 제 8 로군이 《배반》을 하였다고 선포하고 제 8 로군의 부대 번호를 취소하며 주 덕, 팽 덕희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것. 이 절차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

(7) 중경, 서안, 계림 등지에 있는 제 8 로군 사무처를 철폐하고 주 은래, 엽 검영, 동 필무, 등 영초 등 여러 사람을 체포하는 것. 이 절차도 지금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계림 사무처는 이미 철폐 당하였다.

(8) 《신화 일보》를 폐쇄하는 것.

(9) 섬감녕 변구를 진공하여 연안을 탈취하는 것.

(10) 중경과 각 성들에서 항일 인사들을 대량적으로 체포하며 항일 운동을 진압하는 것.

(11) 각 성의 공산당 조직들을 파괴하고 공산당원을 대량적으로 체포하는 것.

(12) 일본군이 화중, 화남으로부터 철퇴하고 국민당 정부는 소위 《잃었던 국토를 수복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소위 《영예로운 강화》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것.

(13) 일본군이 화중, 화남에 주둔시켰던 병력을 화북으로 증원시켜 제 8 로군을 가장 잔혹하게 진공하며 국민당 군대와 협동하여 제 8 로군, 신편 제 4 군을 전부 소멸하는 것.

(14) 제 8 로군, 신편 제 4 군에 대한 진공을 순식간도 늦추지 않는 외에 완전한 정전 강화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 전장에서의 국민당 군대는 일본군과의 작전도의 휴전 상태를 지속하는 것.

(15) 국민당 정부는 일본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3국 동맹에 가담하는 것. 이상의 절차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이 일본과 친일파들의 전반 음모 계획의 대강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제작년 7월 7일의 선언에서 《투항은 현 시국의 최대의 위협이며 반공은 투항을 준비하는 절차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작년 7월 7일의 선언에서는 《전례 없는 투항의 위협과 전례 없는 항전의 곤난이 이미 닥쳐왔다.》고 하였다. 주덕, 팽덕회, 업정, 항영은 작년 11월 9일 부 전보〔2〕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였

다. 《국내의 일부 인사들은 지금 소위 새로운 반공 고조를 책동하면서 투항에로의 길을 닦으려 하고 있다. ……소위 중, 일이 연합하여 〈공산당을 토벌〉하는 것으로써 항전의 국면을 종말 지으려 하고 있다. 즉 내전으로써 항전을 대체하며 투항으로써 독립을 대체하며 분렬로써 단결을 대체하며 암흑으로써 광명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지극히 음험한 일이며 지극히 악독한 계책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고 하며 대단히 근심하고 있다. 시국의 위기가 실로 오늘과 같이 엄중한 때는 없었다》. 그러므로 관남 사변 및 중경 군사 위원회의 1월 17일 부 명령은 일련의 사변들의 발단에 불과하다. 특히 1월 17일 부 명령에는 엄중한 정치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 하면 온 세상의 비난도 꺼리지 않고 감히 공개적으로 이런 반혁명적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발표한 자가 이미 전면적 분렬과 철저한 투항을 할 결심을 내렸다는 것을 말하여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약한 내지주, 대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대표자들은 배후에 지지자가 없이는 어떤 조그마한 일조차 성사하지 못 하는 자들인데 이처럼 천지를 경동시키는 큰 일에서야 더 말할 것 있겠는가? 현시기에 있어서 명령을 내린 자의 이러한 결심을 변경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전국 인민의 긴급한 노력과 국제적 외교 면에서의 큰 압력이 없이는 그 결심을 변경시킨다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 인민의 당면의 긴급한 임무는 절대로 소홀함이 없이 최대의 경각성으로써 사변의 발전을 주시하며 어떤 암흑한 반동 국면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일본 침략자와 친일파의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헌신적으로 나서서 시국을 수습할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는 바이며 절대로 일본 침략자와 친일파들을 그냥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시국이 아무리 암흑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간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하고 또 그 길에서 어떠한 '대'가(환난 심편 제 4 군 부대가 곧 그 '대'의 일부분이다)를 더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 침략자와 친일파를 기어코 패배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공산당은 이미 1927년 당시와 같이 그렇게 쉽사리 남에게 기만 당하거나 남에게 파괴 당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당당한 독립적인 대정당으로 되었다.

(2) 중국의 기타 정당(국민당도 포함한)의 당원들도 민족의 멸망이라는 큰 재화가 두려워서 투항과 내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틀림 없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 일부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기만 당하고 있지만 일단 시기가 오면 그들도 역시 각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의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대다수가 강요 당한 것이다.

(4) 전국 인민의 대다수는 망국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5) 제국주의 전쟁은 지금 대변화가 일어 날 전야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살아 가고 있는



일체 기생충들이 제 아무리 한때 준동한다 하여도 그들의 의지물들은 결국 믿음직한 것이 못 된다. 그 어느 날 나무가 넘어 가고 그 바람에 원숭이들이 산산이 헤쳐지는 격으로 된다면 전반 국면은 그 면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6)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폭발은 오직 시간 문제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혁명과 중국 혁명은 필연적으로 호상 배합하여 공동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7) 세계에서 제일 큰 역량인 소련은 견연히 중국의 항전을 끝까지 원조할 것이다.

상술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하여 우리들은 그 불장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머리가 혼미해지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에게 좀 근신하라, 그런 불장난은 위험한 것이다, 그대들의 머리를 조심하라고 정식으로 경고한다. 만일 그들이 한 번 맹정하게 생각하여 본다면 그들은 진실하게 또 신속히 아래에 열거하는 몇 가지 일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낭떠러지에서 말을 다잡아 세우고 도발 행동을 정지할 것,

2. 1월 17일 부의 반동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자기가 완전히 잘못이었다는 것을 선포할 것,

3. 환남 사변의 장본인인 하 응흠, 고 축동, 상관 운상 등 3 명을 징벌할 것,

4. 엽 정의 자유를 회복시키고 그를 신편 제 4 군 군장으로 계속 류입할 것,

5. 환남 신편 제 4 군의 인원 및 무기를 전부 돌릴 것,

6. 환남 신편 제 4 군의 사상 당한 전체 장병에 대한 위

자료를 지불할 것,

7. 화중의 《공산당 토벌》군을 철폐시킬 것,
8. 서북의 봉쇄선<sup>(3)</sup>을 없애 버릴 것,
9. 체포된 전국의 일체 애국적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10.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 정치를 실시할 것,
11. 삼민주의를 실시하고 《총리의 유촉》에 복종할 것,
12. 각 친일파의 두목을 체포하여 국법에 의한 재판에 회부할 것.

이상의 12 개 조항을 실행한다면 사태는 자연히 평상 상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 공산당과 전국 인민들은 그 이상 더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손의 걱정이 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 내에 있는 것 같다》<sup>(4)</sup>는 격이 될 것인바 반동파는 필연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까게 될 것이며 그 때에 가서는 우리가 도우려 하여도 도와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합작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들도 합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양보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양보하는 계단은 이미 끝났다. 그들은 이미 첫 칼질을 하였으며 그 상처는 매우 엄중하다. 만일 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전도에 관심을 돌린다면 그들은 제 손으로 이 상처를 고쳐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아직 늦지는 않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생명에 관계되는 큰 문제이므로 우리는 최후의 충고를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한사코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못 된 것을 한다면 그 때에는 전국 인민들도 더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들을 변

소'간에 집어 던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회막급 일 것이다. 한편 제 4 군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는 이미 1월 20일에 진 의를 대리 군장으로, 장 운일을 부군장으로, 류 소기를 정치 위원으로, 외 진주를 참모장으로, 등 자회를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 4 군은 화중 및 강소성 남부 일대에 아직 9만 여 명이 있다. 그들은 비록 일본 침략자와 반공군의 협공을 받고는 있지만 반드시 간고 분투함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그의 형제 부대인 제 8 로군의 각 부대는 결코 한편 제 4 군이 협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그 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원조를 줄 것이다. 이 점을 나는 솔직히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중경 군사 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그 담화에 대하여서는 단지 《자제 모순》이라는 네 글'자로써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중경 군사 위원회의 통령에는 한편 제 4 군이 《배반》하였다고 해 놓고 대변인의 담화에서는 또 한편 제 4 군의 목적이 남경—상해—항주 삼각 지역에 옮겨 가서 거기에 근거지를 창설하려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라고 하여 보자. 그래 남경—상해—항주 삼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배반》이란 말인가? 미혹한 중경의 대변인은 도대체 거기에 가서 누구를 배반하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여 보지 않았다. 거기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한편 제 4 군을 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환남에서 그들을 소멸하려 달려 들었는가?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원래 이렇게 하여야 하는 법이니까! 그리 하여 7개 사의 집중 섬멸 계획이 작성된 것이며 1월 17일 부 명령이 발포된 것이며 엽 정을 재판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중경의 대변인은 미련한 돼지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자백하라고 하기도 전에 그만 저절로 나서서 전국 인민들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계획을 투설하고 말았다.

## 주 해

[1] 즉 1940년 9월 27일 베를린에서 성립된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개국 군사 동맹이다.

[2] 혁명 높은 10월 19일 부 전보와 12월 8일 부 전보는 1940년 겨울 장 개석이 제 2차 반공 고조물 일으킬 때 국민당 정부의 참모 총장 하 옹흥, 부 참모 총장 백 승회의 이름으로 낸 두 전보이다. 10월 19일 부 전보에서는 적후에서 항전을 견지하고 있던 팔토군, 신사군에게 큰 모욕을 가하면서 황하 이남의 항일 부대들에게 경한 기간 내에 황하 이북에도 철의할 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하였다. 11월 9일 주 덕, 쟁 덕회, 엽 정, 량 영 데 동지는 대세를 돌보기 위하여 하 옹흥, 백 승회에게 보내는 답전 즉 11월 9일 부 전보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10월 19일 부 전보의 허구 날조를 본박한 외에 환남 부대들을 북으로 이동시킨 것을 승낙하였다. 하 옹흥, 백 승회의 12월 8일 부 전보는 주 덕, 쟁 덕회, 엽 정, 량 영의 11월 9일 부 전보에 대하여 발송한 것으로서 그것은 반공적인 《어론》을 더한층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3] 서북의 봉쇄선이란 설감녕 번구를 포위한 국민당 반동파의 봉쇄선을 가리킨다. 1939년 이후 국민당은 인부물 강제로 끌어다가 번구 주위에 도망, 토담, 토지까를 포함한 다섯 점의 봉쇄선을 수축하였는데 서쪽으로는 녕하로부터 시작되어 남으로 경수물 따라 동으로 황하에 이르기까지 수개 성에 면하여 펼쳐 있었다. 환남 사변 적전에 번구를 포위한 군대는 20여만 명에까지 증가되었다.

[4] 이것은 공자의 《논어》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계손이란 르 나라의 대부(大夫)이고 권유만 춘추 시대의 작은 나라이다. 소장(蕭牆)이란 고대 궁궐 내에 세운, 대문 안에 있는 작은 담으로서 밖에서 대문 안이 완히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계손이 권유를 치며 할 때 공자는 계손의 걱정하는 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 제 2 차 반공 고조를 격퇴한 후의 시국\*

(1941년 3월 18일)

(1) 하 응흠, 백 승희의 작년 10월 19일 부 전보에서부터 시작된 제 2 차 반공 고조<sup>[1]</sup>는 환남 사변과 장 개석의 1월 17일 부 명령<sup>[2]</sup>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리고 3월 6일에 한 장 개석의 반공 연설과 참정회의 반공 결정<sup>[3]</sup>은 이번 반공 고조가 퇴조하는 때에 있어서의 일전이었다. 시국은 이로부터 당분간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2대 제국주의 집단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투쟁을 진행하게 될 전야에 처하여 여전히 일본 침략자와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영미파 대부르조아지는 현하의 긴장한 국공 관계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경미한 완화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당의 내부 정황(중앙과 지방 간, CC계와 정학계 간, CC계와 부흥계 간, 완고파와 중간파 간에는 다 모순이 있으며 또 CC계 내부와 부흥계 내부에도 각각 모순이 있다)과 국내의 정황(광범한 인민들이 국민당의 전횡에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반대하고 공산당에 공명하고 있다) 및 우리 당의 정책(항의 운동의 계속)은 국민당이 국공 간에 있어서 지난 5 개월 간과 같은 그러한 긴장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전에 일시적이고 경미한 완화책을 강구하는 것은 장 개석에게 필요한 일로 되었다.

(2) 이번의 투쟁은 국민당의 지위의 저락과 공산당의 지위의 제고를 보여 주었으며 국공의 역량 관계에 모종의 변화를 일으킬 판건으로 되었다. 이러한 정형은 장 개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지위와 태도를 다시 한 번 고려하여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가 지금 국방을 강조하며 당과 관념은 이미 낡아 빠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령》이라는 자격으로 국내의 여러 가지 모순을 초월하여 표면적으로 어느 한 계급이나 어느 한 정당에도 쏠리지 않는 체함으로써 대지주, 대부르조아지 및 국민당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개변하지 않고 단지 형식만 바꾸어 기만하려 한다면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필연코 헛수고로 되고 말 것이다.

(3) 이번 반공 고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당이 전반 국면을 돌보아 억울함을 참아 가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여 보려는 양보 정책(작년 11월 9일 부 전보)을 취한 것은 광범한 인민들의 공명을 일으켰으며 환남 사변 후에 맹렬한 반공격으로 넘어 간 것(두 개의 12 개 조항<sup>[4]</sup>, 참정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것, 전국적 항의 운동)도 또한 전국 인민의 찬조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하는 우리의 정책은 이번의 반공 고조물 격퇴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 국공 간에 존재하는 주요한 쟁점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국민당 내의 친일파와 반공파가 감행한 환남 사변 및 각종의 정치적 및 군사적 억압에 대하여 우리는 엄정한 항의 운동을 계속하고 첫째 12 개 조항의 선전을 더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4) 국민당은 자기들의 통치 구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당 및 진보파에 대한 억압 정책과 반공 선전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당은 경각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회하 이북, 안휘성 동부, 호북성 중부에 대한 국민당의 진공은 그냥 계속될 것인바 우리 군대는 그것을 단호히 격퇴하여야 한다. 각 근거지들에서는 항일 민주 근거지를 장기간 철석 같이 견지하기 위하여 중앙의 작년 12월 25일 부지시<sup>(5)</sup>를 견결히 집행하여 당내에서 전술 교육을 강화하고 너무 좌적인 사상을 시정하여야 한다. 전국과 각 근거지들에서는 국공 량당이 이미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거나 이제 곧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국에 대한 그런 그릇된 평가와 이로부터 생기는 많은 부정확한 견해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 주 해

[1] 본 선집 제 3 권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를 평합》이란 글에 있는 이번 반공 고조에 관한 서술을 참조하라.

[2] 즉 1941년 1월 17일에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의 영의로 내린, 신사군을 해산하라는 장 개석의 반혁명적 명령이다. 상세한 것은 《환남 사변과 관련하여 발표한 명령 및 담화》 가운데의 《담화》 부분에 있다.

[3] 1941년 3월 6일 장 개석은 국민 참정회에서 한 반공 연설에서 적후에 있는 항일 민주 정권은 그 존재를 용허하지 않으며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인민의 무장력은 자기의 《명령과 계획 대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며빌리면서 《군명》과 《징명》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잡소리들 되는 대로 늘어 놓았다. 같은 날 국민당 반동파의 조종 하에 있던 《국민 참정회》는 장 개석의 반공, 반인민적 취행을 변호하며 공산당의 참정원이 환남 사변에 항의하여 참정회에의 참석을 거부한 것을 크게 공격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4] 첫째 《12 개 조항》은 1941년 2월 15일에 공산당의 참정원이 국민 참정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환남 사변과 관련하여 발표한 명령 및 담화》 가운데의 《담화》 부분에서 열거한 12 개 조항과 같다. 둘째 《12 개 조항》은 1941년 3월 2일에 공산당의 참정원이 국민 참정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장 개석에게 제출한 범시 방법이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에서 공산당에 대한 군사적 진공을 즉시 중지할 것, 2. 즉시로 전국에서의 정치적 억압을 중지하며 중국 공산당 및 각 민주 정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서안, 중경, 귀양 및 각지에서 체포한 인민들을 석방할 것, 3. 폐쇄시킨 각지의 서점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각지에 발송하는 항전에 관한 서적, 신문들을 압수할 때 관한 명령을 해제할 것, 4. 〈신화 일보〉에 대한 일체의 억압을 즉시 중지할 것, 5. 삼강령 번구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 6. 적후에 있는 항일 민주 정권을 인정할 것, 7. 화중, 화북 및 서북의 방어 구역은 커다란 현상때문 유지하게 할 것, 8. 중국 공산당이 명도하는 군대로서 18 집단군 외에 집단군 하나를 더 조직하여 도합 6 개 군을 관할하게 할 것, 9. 환남에서 체포한 모든 간부들을 석방하며 사난자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발급할 것, 10. 환남에서 체포한 모든 군인들을 석방하며 일체 무기를 돌려 줄 것, 11. 각 정당의 연합 위원회를 성립하되 대개 정당에서 대표 1 명씩 파견하며 국민당의 대표를 주석으로 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표를 부주석으로 할 것, 12. 중국 공산당의 대표를 국민 참정회 주석단에 가입시킬 것》.

[5] 즉 본 선집에 수록된 《정책에 대하여》이다.



## 제 2 차 반공 고조의 격퇴에 관한 총화\*

(1941년 5월 8일)

중앙의 3월 18일 부 지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의 반공 고조는 이미 지나 갔다. 이에 뒤'이어 오게 된 것은 새로운 국제, 국내적 환경에서 항전을 계속하는 국면이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증가된 요소라면 제국주의 전쟁의 확대, 국제혁명 운동의 앙양, 쓰일 중립 조약<sup>[1]</sup>, 국민당의 제 2 차 반공 고조의 격퇴 및 이에 의한 국민당의 정치적 지위의 저락과 공산당의 정치적 지위의 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적 진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번의 반공 고조를 영용하게 승리적으로 반대한 투쟁 가운데서 우리 당이 받은 교훈을 연구하며 학습하는 것은 전국 인민과 단결하여 항일을 전지하며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투항 위험성 및 그들의 반공 역류를 계속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1) 중국의 2대 모순 가운데서 중 일 민족 간의 모순이 여전히 기본적인 것이고 국내 계급 간의 모순은 여전히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여 있다. 민족의 원쑤가 국토에 깊이 쳐 들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어 왔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놓고 있다. 오직 중국과 일본 간의 모순이 계속 첨예하게 존재하는 한 설사 대지주, 대부르쵸아지가 전부 배반하여 투항한다 하더라도 결코 1927년과 같은 정세가 조성되거나 4. 12 사변<sup>[2]</sup>과 마일 사변<sup>[3]</sup>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번 반공 고조<sup>[4]</sup>를 일부 동지들은 마일 사변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번의 반공 고조도 역시 4. 12 사변이나 마일 사변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객관적 사실은 이러한 평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동지들의 오류는 민족적 모순이 기본 모순이라는 이 점을 망각한 데 있다.

(2) 이러한 정형 하에서 국민당 정부의 전반 정책을 지도하고 있는 영미파 대지주 및 대부르쵸아지는 여전히 량면성을 띤 계급으로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한 편 또 공산당 및 공산당이 대표하는 광범한 인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항일과 반공에도 각각 그 량면성이 있다. 항일 면에 있어서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며 왕 정위와 민족 반역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때로는 일본의 강화 사절과 축덕거리기도 한다. 반공 면에 있어서는 반공을 하며 심지어는 환남 사변 및 1월 17일 부 명령과 같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으면서도 또 최후적 결렬은 하려 하지 않으며 여전히 일면으로는 치며 일면으로는 끌어 당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번의 반공 고조 가운데서도 재차 실증되었다. 극히 복잡한 중국의 정치 관계는 그에 대한 심각한 주의를 돌릴 것을 우리 동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영미파 대지주 및 대부르쵸아

지가 아직 항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 대하여 여전히 일면으로는 치며 일면으로는 끌어 당기는 만큼 우리 당의 방침은 《바로 그 사람의 도로써 도로 그 사람의 몸을 다스린다》<sup>[5]</sup>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즉 치는 것으로써 치는 것에 대하여 끌어 당기는 것으로써 끌어 당기는 것에 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혁명적 양면 정책인 것이다. 대지주, 대부르쥬아지가 완전히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이 정책은 그냥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국민당의 반공 정책과 싸우는 데는 인민의 전술이 있어야 하며 결코 소홀히 대하여서는 안 된다. 장 개석을 대표자로 하는 대지주 및 대부르쥬아지가 인민의 혁명적 역량에 대하여 증오하며 잔인함은 지난 10 년 동안의 반공 전쟁에서 실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항일 전쟁 가운데서의 두 차례의 반공 고조에서, 특히는 제 2 차 반공 고조 기간의 환남 사변에서 완전히 실증되었다. 인민의 어떠한 혁명적 역량도 장 개석에게 소멸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그로 하여금 이러한 역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면 그의 반혁명적 정책에 대하여 날카롭게 맞서는 투쟁을 하는 이외에는 취할 만 한 다른 길이 없다. 이 번 반공 고조 기간에 있어서의 항 영 동지의 기회주의<sup>[6]</sup>의 실패는 전 당이 깊이 명심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투쟁에는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이 3 자 중에서 하나가 없어도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4) 국민당 완고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매관성을 띤 대부르쥬아지와 매관성을 띤지 않았거나 비교적 적게 띤 민족

부르조아지를 구별하고 가장 반동적인 대지주와 개명 신사 및 일반 지주를 구별하는 이것은 우리 당이 중간파를 쟁취하고 《3.3제》 정권을 실시하는 이론적 근거이며 또 이것은 작년 3월 이래 중앙에서 루차 지적한 바이다. 이번의 반공 고조는 그것의 정당성을 또 한 번 실증하여 주었다. 환남 사변 이전에 우리가 11월 9일 부 전보〔7〕에서 취한 립장은 사변 후에 우리가 정치적 반공격으로 넘어 가는 데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중간파를 쟁취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반복적인 여러 차례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어째서 국민당의 완고파와 단호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어째서 투쟁으로써 단결을 도모할 수 밖에 없으며 투쟁을 포기하면 여하한 단결도 있을 수 없게 되는가 하는 점을 중간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실력파의 지도 성원도 역시 대지주, 대부르조아지 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중앙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지주, 대부르조아 분자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들 역시 중간파로 간주하여야 한다. 지난 번 반공 고조 기간에 반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염 석산이 이번에는 중간 립장을 취하였으며 지난 번에 중간 립장을 취하였던 팽서제는 이번에 반공 측으로 넘어 가기는 하였으나 장 개적계와 여전히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의 지방 실력파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동지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주 계급 각파, 부르조아지 각파를 혼동시하면서 마치 환남 사변 후에 전체 지주 계급 및 전체 부르조아지가 다 배반한 것 같이 여기고 있는데 이

것은 복잡한 중국의 정치 관계를 단순화하여 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모든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지를 다 국민당의 완고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을 고립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중국 사회는 양쪽이 작고 중간이 큰 사회(8)이므로 공산당이 만일 중간 계급 대중을 쟁취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형에 따라 각각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 못 한다면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일부 동지들은 중국과 일본 간의 모순이 기본 모순이라는 이 점에 대하여 동요를 일으키며 또 이로 인하여 국내의 계급 관계에 대하여서도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에 대하여서도 때로는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환남 사변 후에 이러한 동지들은 그것을 4.12 사변, 마일 사변과 같이 여기는 평가로부터 출발하여 작년 12월 25일의 중앙의 원칙적 지시가 이미 적용될 수 없거나 그다지 적용될 수 없는듯이 여기고 있다. 그들은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항일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정권인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른바 노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정권이며 또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 정책인 것이 아니라 지난 10 년 간의 내전 시기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토지 혁명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지들의 머리 속에서는 당의 옳바른 정책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모호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동지들은 우리 당 중앙에서 그들에게 국민당의 가능한 결렬에 대처하며 시국 발전에 있어서의 최악의 가

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하였을 때 그만 다른 가능성들을 잊어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최악의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좋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가능성을 쟁취하며 좋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국민당의 결렬에 대처할 준비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국민당은 감히 함부로 결렬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7) 또 더욱 많은 동지들은 민족 투쟁과 계급 투쟁의 일치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통일 전선 정책과 계급 정책을 이해하지 못 하는 데서 통일 전선 교양과 계급 교양의 일치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그들은 환난 사변 후에 있어서 소위 통일 전선 교양 이외의 계급 교양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전반 항일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아직 항일에 종사하는 국내의 각 상층 및 중간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이거나 중간 계급이거나를 불문하고 련합과 투쟁이라는 두 면을 포함한(량면성을 띤) 전일적인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 하고 있다. 괴뢰군, 민족 반역자, 친일파 분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단호한 타도 정책을 실시하는 외에 그 나머지의 분자에 대하여서는 역시 이러한 량면성을 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당내에서와 인민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양도 이러한 두 방법의 성격을 포함한 교양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계급 및 기타 소부르조아지에게 부르

조아지 및 지주 계급의 각이한 계층들과 어떻게 각이한 여러 가지 형태로 연합하여 항일할 것인가와 또 그들의 각이한 정도의 타협성, 동요성, 반공성과 어떻게 각이한 정도의 투쟁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통일 전선 정책은 즉 계급 정책인 것이며 양자는 갈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못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는다.

(8) 또 일부 동지들은 섬감녕 변구와 화북, 화중의 각 항일 근거지의 사회 성격이 신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 지방의 사회 성격이 신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는 주로 그 지방의 정권에 인민 대중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정권이 공산당에 의하여 령도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 전선 정권이 바로 신민주주의 사회의 주요한 표징으로 된다. 일부 사람들은 10년 내전 시기에서와 같은 그러한 토지 혁명을 실행하여야만 신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현재 각 근거지의 정치는 항일과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모든 인민들의 통일 전선의 정치이며 그 경제는 기본적으로 반식민지 및 반봉건적 요소를 제거한 경제이며 그 문화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거나 소작료 및 리자 인하를 실시하였을 뿐인 각 항일 근거지는 철저한 토지 혁명을 실시한 섬감녕 변구와 마찬가지로 신민주주의적 사회인 것이다. 각 근거지의 모형이 전국에 보급되는 그 때에는 전국이 신민주주의적

공화국으로 될 것이다.

## 주 해

[1] 1941년 4월 13일에 쓰련과 일본 간에 체결된 중립 협정을 가리킨다. 이 조약은 당시의 쓰련 동부 변경의 평화를 공고히 하였으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3 개국이 연합하여 쓰련을 진공하려던 음모를 파탄시켰다. 이는 쓰련의 평화적 외교 정책의 중대한 승리였다.

[2] 4.12 사변이란 장 개석이 1927년 4월 12일에 상해에서 일으킨 반혁명 사변이다. 장 개석은 이 사변에서 공산당원들과 혁명적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본 선집 제 1 권의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 주해 5를 참조하라.

[3] 본 선집 제 1 권의 《정강산 투쟁》 주해 16을 보라.

[4] 1939년 겨울부터 1940년 봄에 걸쳐 장 개석이 일으킨 제 1 차 반공 고조를 가리킨다. 《모든 합일 력량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자》의 주해 10을 참조하라.

[5] 이것은 주 회가 《중용》 제 13 장 주해에서 한 말이다.

[6] 《합일 력량을 대담하게 발전시키며 반공 완고파의 진공에 저항하자》의 해제를 참조하라.

[7] 11월 9일 부 전보는 1940년 11월 9일 제 18 집단군의 주 덕 총사령, 쑹 덕회 부총사령 및 신사군의 엄 정 준장, 함 영 부군장이 하 응훈, 백 승희의 10월 19일 부 전보에 대하여 한 답전이다. 이 전보는 국민당 반동파의 반공 투항 음모를 폭로하였으며 황하 이남의 신사군 및 팔로군을 정한 기한 내로 황하 이북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한 하 응훈, 백 승희의 더무니 없는 제의문 반박하였다. 그러나 단결하여 항일하는 전반 국면을 돌보아 억울함을 참아 가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강 이남에 있던 신사군 부대를 장강 이북으로 이동시키는 데 동의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공간의 약간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전보는 당시 중간파의 동정을 얻었으며 장 개석을 고무시켰다.

[8] 모택동 동지의 이 말은 혁명을 명도하는 중국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와 반동적인 중국의 대지주, 대부르주아지가 그 인구로 보아 다 사회적으로 소수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 선집 제 3 권의 《섬감명 변구 참의회에서 한 연설》을 참조하라.



이 책은 본사에서 1965년 10월에 출판한 《모택동선집》 제 2권 조선문판 제 2판에 근거하여 재판한 것이다.

本书根据我社1965年10月出版的《毛泽东选集》第二卷朝鲜文版第2版重印。

## 모택동선집

제 2 권

•

민족 출판사 출판  
신화 서점 북경 발행소 발행  
각지 신화 서점 판매

•

1967년 2월 북경 제 2차 인쇄  
보급판 정가 58원



# 毛泽东选集

## 第二卷

(朝鲜文)

民族出版社出版

(北京安定门外和平东路)

北京市书刊出版业营业许可证出字第047号

北京市印刷四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各地新华书店经售

787×1092毫米 1/32·印张，21·插页，2

根据1965年10月北京第2版重印

1987年2月北京第2次印刷

统一书号：M1049(6)122 普及本定价，0.58元

